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92호 2026. 6

차례

특집 북방지역의 초기철기문화

이후석 ■ 요동지역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 탐색-요동군의 확장 맥락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7

배현준 ■ 길림 중부의 초기철기문화-포자연문화의 성립 과정 고찰 69

허준양 ■ 초기철기시대 함경도와 연해주의 물질자료로 본 집단의 대외 교류 117

논문

조원진 ■ 예맥에 대한 중국 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 153

정석배 ■ 흑수말갈 발리와 발해 덕리진의 위치 문제 197

김용진 ■ 1920년대 초 남만주 대한광복군총영(大韓光復軍總營)의 국내
진입작전(1920~1922) 235

정형아 · 정창원 ■ 중일전쟁 말기 장제스의 지식청년동원방안과 김홍일 279

서평

윤승희 ■ 조선시대 태평관 연구의 집대성-『태평관-조선과 중국사신의
외교공간』(이현진, 신구학원신구문화사, 2025) 313

장원아 ■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의 또 다른 디딤돌 바위처럼-『제국의 성 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박정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25) 331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3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Special Issue The Early Iron Culture of the Northern Area

Yi Huseok ■ The Study on the Zhongyuan-style's Early Iron Age Culture of Liaodong Region: Archaeological Perspective of the Expansionary Context of Liaodong Commandery 7

Bae Hyunjoon ■ The Early Iron Culture of Central Jilin Province: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Paoziyan Culture 69

Heo Junyang ■ External Exchanges of Groups as Seen Through the Material Culture of Hamgyeong-do and Primorye in the Early Iron Age 117

Articles

Cho Wonchin ■ Recent Research Trends in Chinese Academia on the Ye-Maek (滅貊) 153

Jung Sukbae ■ The Issue of the Location of Heishui Mohe Bali (勃利, Boli) and Balhae (Bohai) Deokrijin (德理鎮, Delizhen) 197

Kim Yongjin ■ The Domestic Incursion Operations of the Gwangbokgun-Chongyeong (1920–1922) 235

Jung Hyungah·Jung Changwon ■ Chiang Kai-shek's Mobilization Policy for Educated Youth and Kim Hong-il during the Late Sino-Japanese War 279

Book Review

Yun Seunghee ■ A Comprehensive Study of Taepyeonggun in the Joseon Dynasty: Taepyeonggun: A Diplomatic Space for Joseon and Chinese Envoys (Lee Hyun-jin, Shingu Publishing Co., 2025) 313

Jang Wona ■ Like a Stepping Stone in the Research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by Japanese Military 331



특집

북방지역의 초기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동지역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 탐색

— 요동군의 확장 맥락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이후석 |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중국 고대 변군지역의 문화변동과 상호작용 탐색 관점
- III. 요동지역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의 주요 자료 분석
- IV. 요동지역 중원계통 물질문화와 요동군의 변천 고찰
- V. 맺음말

I. 머리말

요동지역의 초기철기문화는 전국시대 연국제통(이하 전국연계) 철기문화가 확산되어 개시되었는데,¹ 연의 요동 진출이나 요동군(遼東郡)의 설치 등이 그 역사적인 계기이다.² 그렇지만 전국연계 철기문화는 요동군의 설치 이후 점차 확산되었다고 보는 통설적인 견해와는 달리, 연이 일찍부터 요동지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확산되었다고 보는 관점³이나, 요동군의 설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연국과의 상호작용 하에 확산되었다고 보는 시각⁴ 역시 적지 않다. 다만 기존 국내 학계 연구들은 최근 조사·연구 성과들이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감이 있다.

요동지역 초기철기문화는 전국말~전한초의 과도기를 지나 전한 전기 또는 중기 무렵 한식 철기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크게 변모하였는데, 이는 요동군의 군현 지배 정착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다만 연전한대 요동군의 지배영역 내부 물질문화와 그 지배력이 못미치는 외곽지대 물질문화(이를테면 고조선과 예맥)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연구되지 못한 면이 많다.

* 투고: 2026년 4월 16일, 심사 완료: 2026년 5월 11일, 게재 확정: 2026년 5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5-기획연구-13)로 수행된 연구임.

- 1 李南珪, 2002, 「韓半島 初期鐵器文化의 流入 樣相-樂浪 설치 以前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30.
- 2 서영수, 2008,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3 이광명, 2019, 「전국 시기 연의 요동 진출 연구」, 부경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石川岳彦, 2011, 「青銅器と鐵器普及の歴史的背景」, 『彌生文化の考古學3』(多様化する彌生文化), 同成社.
- 4 김상민, 2017, 「요령지역 철기문화의 전개와 한반도의 초기철기문화」, 『東北亞歷史論叢』 55; 이종수, 2014, 「요하 평원지역 '燕 유적'의 특징과 사용집단에 대한 재검토」, 『동북아역사논총』 44.

요동군의 설치 및 확장 여부 또는 군현 내외부에 대한 구분없이 고고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던 것은 관련 사료 및 유적 조사가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 부족하여 종합적인 연구성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요동지역 초기철기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원계통 물질문화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한다거나,⁵ 토착계통 물질문화 속에 중원계통 물질문화가 복합되는 과정에만 천착하는⁶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물질문화 자료들은 초기철기시대 이전부터 확인되며,⁷ 초기철기시대 이후 정착 과정 역시 종류별 또는 시기·지역별로 상이하다.⁸ 그러므로 관련 자료들이 집중 분포하는 요중 서부권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들을 요동군의 설치 전후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공간적 변천 흐름 속에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요동지역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성과는 고조선과 예맥사회의 문화변동 연구에도 일정하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이 글의 시공간적 범주화는 초기철기시대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문화 자료 또는 유적들에 한정한다. 다만 이와 관련되는 이른 시기 자료들은 극히 일부의 연계 분묘에만 한정되며 간략 보고에만 그치거나 유물만 제시되는 예가 많고, 늦은 시기 자료들은 대부분이 요동군의 확장 이후 조영되는 한묘인데, 특히 소위 ‘한사군(漢4郡)’이 설치되는 때와 맞물려서 한묘들이 각지에서 크게 증가

5 김용성, 2008, 「요동·현도군의 한묘」,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이종수, 2014, 위의 글; 김상민, 2017, 위의 글.

6 李厚錫, 2008, 「中國 東北地域 細形銅劍文化 研究 - 遼寧式細形銅劍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21; 이후석, 2014, 「遼東~西北韓地域의 細形銅劍文化와 古朝鮮」, 『동북아역사논총』 44.

7 배현준, 2020, 「연계 초기철기문화」,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 I - 선원사시대편』,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동북아역사재단.

8 이청규, 2014, 「遼東·西北韓의 初期鐵器文化와 衛滿朝鮮」, 『동북아역사논총』 44.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의 시간적 범위는 중원계통 분묘들이 처음 단독으로 등장하여 대규모의 분묘군이 조영되기 시작하는 기원전 4~2세기대로 설정한다.

또한 요동군과 직접 관련되는 중원문화 성채(토성) 유적이거나 분묘 유적들은 요동 서부권에 밀집 분포하며, 요동 동부권에서는 중원문화와 토착문화가 혼재하는 생활유적들이 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유적 분포 양상들을 고려하면 단순 중원문화 유적 외에 중원계통 유물들이 비중 있게 확인되는 일부 유적들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이 글의 공간적 범위는 대략 천산산맥을 기준으로 요동 서부권을 중심으로 하되 요동 동부권을 일부 포함한다.

II. 중국 고대 변군지역의 문화변동과 상호작용 탐색 관점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동지역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는 연·진·한초 무렵 요동군이 운영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물론 군현 설치 이전부터 물적·인적 교류 관계가 확인되나 토착문화 속에 확인되는 부분적인 현상이었으며, 군현 설치 이후에는 중원계통 주민들이 대거 유입되어 토착사회 주민들과 다양하게 공존함에 따라 요동지역의 물질문화에도 획기적인 문화변동이 나타났다.

요동지역에는 토성, 목곽묘제, 타날문계 회도, 기와 및 와당, 철기 등이 확인되나, 군현 거점으로 추정되는 곳과 주변 사회 사이에는 중원계통 물질문화 요소들의 구성과 빈도는 물론 시공간적 분포에도 차별성이 현저하다. 다만 『사기』 조선열전 등의 문헌기록과 초기철기시대 요동지역 고고자료 사이에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면도 적지 않아 관련 해석에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는 관점 역시 필요하다. 이는 변군지역 영역화의 과정이나 통제 방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몇 가지의 연구 관점 사안을 이하에서 제시한다.

먼저 고대 중국의 동방 변군이 고대 식민지를 연상하게 하고, 이에 따라 고조선과 같은 한국 고대 정치체에 근대 식민지의 경험치를 투영하여 민족적·국가적 대응체계에 함몰시켜보려는 이분법적 사고이다. 이는 요동군과 같은 동방

변군의 물질문화를 변별하고, 그 확산 양상을 해석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고고학적 유적·유물 자료들의 분포 및 양식 변화 등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편향성을 탈피하기 위해 힘쓰고자 한다.

한편, 선진적인 문명국가(고대 로마제국·중원제국)의 변방지역(부족사회) 영역화의 과정이나 그와 관련되는 물질문화의 정착 과정들은 문헌사료에서 언급되는 일회적인 계기보다 장기간에 걸친 여러 사회경제적인 배경 속에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⁹ 이를테면 『사기』 흉노열전이나 조선열전 등의 외국열전 관련 사료에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사건들이 실제보다 압축하여 간략하게 표현되는 것이 많고, 그와 같은 사건들은 기후 한랭화와 같은 환경 요인 및 중원사회 팽창으로 인한 사회 요인들이 복합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원국가의 북방 진출 방식에는 특징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 흐름(patterns) 역시 일정하게 확인된다. 처음에는 정보 교환 및 접촉 과정에서 상호관계가 형성되고, 이후 물적·인적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인 교류(간혹 외교적인 교섭까지 포함하는) 중심지가 마련되며, 군사적인 진출 이후 영역화의 과정에도 점적 거점 지배 단계를 거친 후에 직접적인 면적 직접 지배 단계로의 변천 과정이 있었음이 고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기』 흉노열전에서 나타나는 전국시대 중원국가 동북방의 이민족에 대한 영역화는 ‘(상호 갈등) → 북쪽격퇴 → 장성축조 → 변군설치’라는 인과관계 도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며,¹⁰ 이는 조선열전 등의 해석에도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중원국가의 동방 진출 이후 군현 지배의 확장 또는 중원지역 혼란으로 인해 중원계통 주민들이 이주하여 토착사회 주민들과 공존하였다는 측면에서

9 K. Kristiansen, 1989, Prehistoric Migrations—the Case of the Single Grave and Corded Ware Cultures, *Journal of Danish Archaeology* 8; P. S. Wells, 2001, Representations of the Other: First Texts, *Beyond Celts, Germans and Scythians: Archaeology and Identity in Iron Age Europe*, pp. 74~76, London: Duckworth.

10 吉本道雅, 2008, 「東胡考」, 『史林』 91-2.

선진적인 문화집단의 이주 결과 발생하는 문화변동의 여러 양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진적인 국가사회 이주민과 그 주변부의 수장사회 토착민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물질문화 양식성이 변화하며, 문화변용이나 문화접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¹¹ 다만 이주지가 원주지와 지속적인 연결 상태라면 기종 구성이나 기술·양식에서 서로 동일성이 높아지겠으나, 원주지와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기존 전통이나 기술·양식이 오래 지속되고 일정하게 변형되는 모습들이 상정된다.

이 외에도 중원국가의 동방 변군 설치 전후 문명 중심부인 중원국가와 주변부의 토착적인 정치체(polity)는 유럽 철기시대 문명 중심부인 지중해권과 그 주변부의 ‘부족지대(trival zone)’ 간의 관계와도 비교된다. 이를테면 로마제국과 게르만족 간의 관계, 고대 중국(진·한제국)과 고조선계 집단 간의 관계에서 ‘거점(center)’과 ‘주변(periphery)’의 차별적인 상호작용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점이 참고된다. 이때 변방 거점에는 선진적인 기술문화가 확산되고, 토착사회에는 선택적인 수용이나 경쟁적인 모방(emulation) 등이 증대되며,¹² 문명국가와의 강제적인 접촉으로 인해 토착 정치체의 정체성이 강화된다거나 통합력이 제고되는 면이 확인된다.¹³

한편, 다른 고대 변군지역보다 요동군의 역사문화 변천 양상은 더욱 복잡다단함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요동지역에는 원래 고조선과 같은 토착 정치체가

-
- 11 김장석, 2002, 「이주와 전파의 고고학적 구분: 시험적 모델의 제시」, 『韓國上古史學報』 38: 18-20. Rouse, I., 1986, *Migrations in Prehistory: Inferring Population Movement from Cultural Remains*, pp. 12-13,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12 C. Renfrew, 1984, *Approaches to Social Archaeology*, pp. 114-116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특히 ‘대등정치체 간 상호작용’이나 토착사회 간의 경쟁적인 ‘모방’으로 인해 외래 위신재적 물품이나 전략물자가 확산되고, 이후 기술혁신(예: 제도술·야금술)과 문화변동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한다.
- 13 P. S. Wells, 2001, Identity and the Archaeology of the Iron Age, *Beyond Celts, Germans and Scythians: Archaeology and Identity in Iron Age Europe*, pp. 31~32, London: Duckworth.

있었으며, 연·진·한과 같은 중원국가가 진출하여 영역화하면서 급진적인 세력 교체 및 문화변동을 겪었지만, 다시 중원국가의 명멸이나 고조선의 재후퇴와 반격으로 영역권이 재편되는 과정 역시 있었음에 유의해야 한다.¹⁴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연과 고조선의 경계라는 ‘만반한(滿潘汗)’과 한과 위만조선 경계라는 ‘패수(沛水/溟水)’라는 강이 요동지역을 둘러싸는 정치체 간 경계로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세력(영역) 경계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곧 요동군의 범위 확장 과도 무관하지 않은 현상으로 인식된다. 물론 ‘만반한=패수’라면 요동군의 범주의 역시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진한제국시기 변경지역 군현지배의 영역 범위와 규모가 변화되지 않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물질문화의 획기적인 변화 양상을 중시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진한제국과 고조선(위만조선)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상하 관계 측면으로 재편되었으며, 소위 ‘외신관계’라는 고대 중국의 세계질서 속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이중적인 영역관이 생겨났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요동지역에는 선형으로 연결되는 장성 구간 없이 요동군의 변경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소형 성채(요새)만이 일부 확인되고 있을 따름이다. ‘외신관계’ 속에 양국 간의 경계(溟水)와 변경 요새(古塞/外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목상의 국경(外境)과 실질적인 국경(內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¹⁵ 중화질서하의 군현지배에서 이념적인 변경관과 실효 지배하는 경계 간의 불일치에 대한 이해인데, 전한 요동군과 위만조선 간의 관계 변화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다.¹⁶

14 『鹽鐵論』卷8 伐功 第45,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鹽鐵論』卷8 誅秦 第44, “秦既并天下 東絕沛水 並滅朝鮮”. 『鹽鐵論』卷7 備胡 第38, “大夫曰 往者 四夷俱強 並爲寇虐 朝鮮踰徼.” 이와 같은 기록에서, ‘요동’을 건넜다는 것과 ‘조선’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물론 다시 ‘변새’를 넘었다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으로 일관되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15 김병준, 2013, 「秦漢帝國의 이민족 지배」, 『歷史學報』 217; 李成珪, 2005, 「中華帝國의 팽창과 축소: 그 이념과 실제」, 『歷史學報』 186.

16 宋眞, 2014,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韓國古代史研究』 76.

Ⅲ. 요동지역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의 주요 자료 분석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는 요동지역의 자연지리 및 역사 배경이나 변천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확인된다.¹⁷ 이를테면 요동지역은 천산산맥 주능선과 무순-본계 시소재지를 잇는 선을 기준으로 그 이서지역과 이동지역의 지리 환경과 역사 배경이 상이하다. 천산산맥 이서지역은 평원이나 저구릉지로 이루어진 요동 서부지역이며, 천산산맥 이동지역은 산간구릉지대로 이루어진 요동 동부지역이다. 중원계통 물질문화는 요동 서부지역에는 일찍부터 확인되나, 요동 동부지역에는 전국말~전한초 단계부터 본격 확인된다. 또한 요동지역은 요서지역과 달리 해양으로 둘러싸인 반도지형으로 그 남부지역은 별도 권역으로 구분된다(그림 1).

전국~한초(또는 초기철기시대) 요동군이 요동 서부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주변 지역(특히 요동-북한 접경지역)으로 더욱 확장되어 결국 요북 철령 이남에서 북한 평북 일원까지 설치되었음을 감안하면, 요동지역은 중부지역(이하 요중), 남부지역(이하 요남), 동부지역(또는 북한 접경지역) 등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관련 자료들이 많은 요양-심양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요중 서부권과 대련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요남 남부권은 서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관련 자료가 적은 무순-본계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요중 동부권과 단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요남 동부권은 통합하여 고찰 과정에서 따로 살펴보려 한다.¹⁸

17 배현준, 2020, 앞의 글.

18 요동군에 이어 낙랑군이 설치됨에 따라 군현 변계 또한 더욱 확정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두 군의 접이지대에 해당되는 북한 서북부권은 요동지역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유적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되, 요동군과 관련되는 것은 고찰에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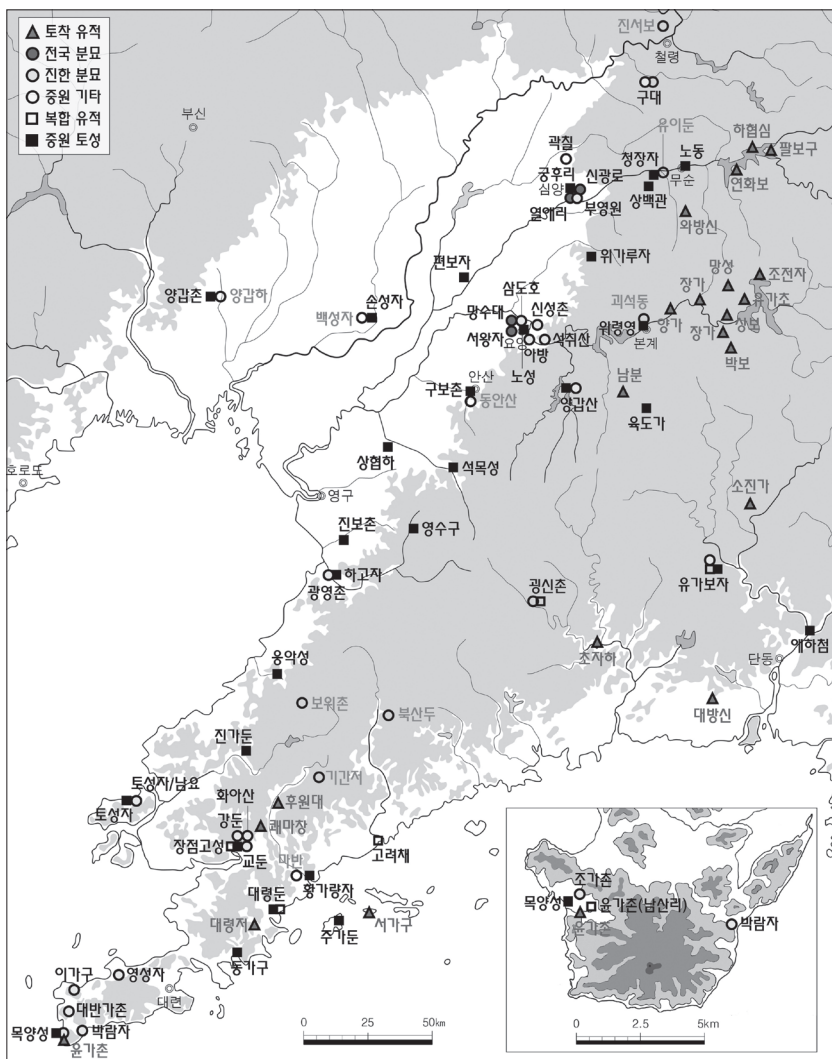


그림 1 요동지역 초기철기시대 주요 유적 분포

1) 요양 일대

먼저 요양지역에는 군현 거점으로 추정되는 토성지가 확인된다. 요동군의 양평현 소재지로 추정되는 것이 요양 노성(老城)이다. 1971년과 1990년에 부분 조사만이 이루어졌으나, 전국~조위시기 무렵 운영된 방형토성으로 알려졌다.¹⁹ 노성은 태자하가 북쪽으로 휘돌아나가는 회절 구간 서변 평탄지에 조성되어 있다. 토성 북쪽 외곽에는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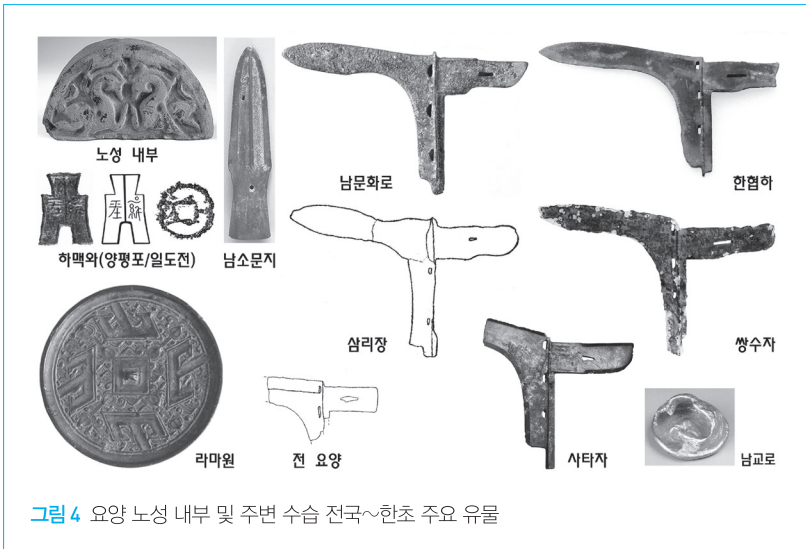


그림 3 요양 일대 연·한초 주요 유적

도호(三道壕) 한대 취락 및 웅관묘지, 북서 방면에는 망수대묘, 서쪽에는 서왕자묘, 남동 외곽에는 아방(鵝房) 전한 묘지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그림 3). 지상에는 과거 토성 흔적은 남아 있지 않고, 후대 성벽이 자리하고 있다. 2000년대 제방공사 과정에서 토성 내부에서 전국말~전한초 무렵으로 추정되는 도제우물 2기가 확인되었는데, 승문 도관 외에 명도전, 일화전, 양평포(襄平布) 등의 전국 화폐, 청동노기, 청동차구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토성 내외에서 유물들이 다수 수습되어 있다. 1953년 북쪽 한협하(韓夾河)에서는 ‘中平城’명 진식 동과가, 1957년 소남문(라마원)에서는 산자 문경이, 1958년 내부에서 연계 쌍조문반와당, 1959년 남쪽 삼리장(三里莊)에서는 진식 동과가 수습되고, 1961년 동쪽 태자하변 하맥와(河麥窪)에서는 양평포와 일도전이 수백~수천 매나 담긴 승문 도관 등이 수습되어 있다.²⁰ 1977년

19 鄒寶庫, 2012, 『遼陽考古紀略』, 遼寧民族出版社; 邢爰文, 2009, 『遼陽博物館館藏精品圖集』, 遼寧大學出版社.



남쪽 문성로(文聖路)의 소남문(라마원)에서 ‘衍’명 진식 동모가, 1985년 사타자(沙陀子)에서는 ‘冊年上郡’명(전 267년) 진식 동과가, 1986년 서쪽 쌍수자(雙樹子)에서는 진식 동과가, 2002년 남문로(南文路)에서 다시 진식 동과가 각각 수습되어 있다.²¹ 1986년에는 남교로(南郊路)에서 마제금(馬蹄金)도 수습되어 주목된다.²² 그러므로 전국말~전한초 무렵에는 요동군의 군사 활동 또는 거점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추정하여볼 수 있다(그림 4).²³

다음으로 요양지역에서는 연·진·한초 분묘들이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전국연계 분묘에는 전국 후기 무렵으로 추정되는 망수대묘(望水臺墓)와 전국 말

20 鄒寶庫, 1980, 「遼陽出土的戰國刀幣」, 『文物』 4.

21 王成生, 2003, 「遼寧出土銅戈及相關問題的研究」, 『遼寧考古文集』, 遼寧民族出版社; 李智裕, 2018, 「遼陽博物館藏秦國有銘矛」, 『考古與文物』 1; 鄒寶庫, 1992, 「釋遼陽出土的一件秦戈銘文」, 『考古』 8; 邢愛文, 2009, 앞의 책.

22 馬雲鴻, 1989, 「遼陽市出土馬蹄金」, 『北方文物』 3.

23 이 외에도 전한 중기~후기경의 요양 삼도호 취락유적이 알려진다.

기 무렵으로 편년되는 서왕자묘(徐王子墓)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계 분묘에는 전한 전기 무렵으로 추정되는 신성촌묘(新城村墓)와 석취산묘(石嘴山墓), 전한 전기 이후 지속 조영되는 아방(鵝房) 한대묘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망수대묘와 서왕자묘는 각각 1983년과 1982년에 조사되었는데, 요양 강서 평탄지에 위치하는 주축 남북 방향(두향 북쪽)의 단장목관묘에 해당된다. 망수대 묘에는 용문 활석장식 외에 정(2점), 두, 호, 반, 관, 발 등의 토제 예기류가, 서왕자묘에는 곡봉형의 청동대구 1점, 원형, 용형 등의 활석장식 13점, 정, 두, 관형두, 호, 반, 삼족관, 배, 력 등의 토제예기 16점(8쌍)이 각각 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장자나 관에 매납하는 활석장식, 주회(朱繪) 칠이 되어 있는 부장용기 등이 확인되는 전형적인 연계 도제 예기묘로 볼 수 있다. 서왕자묘는 매장부는 대부분이 파괴되어 구체적인 구조와 장법은 알 수 없었으나 유물 조합으로 보아 중상위급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 5).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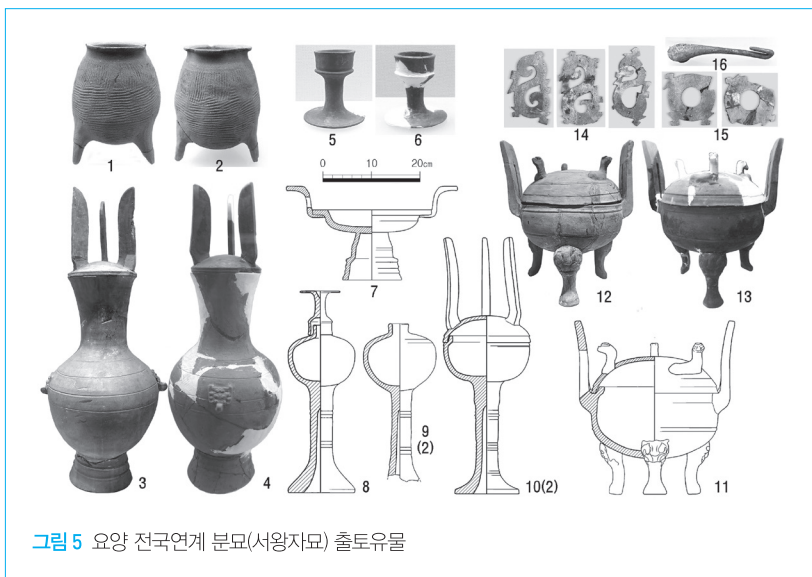


그림 5 요양 전국연계 분묘(서왕자묘) 출토유물

24 鄒寶庫, 2012, 앞의 책, 56~57, 61쪽; 鄒寶庫·盧治萍·馬奔, 2017, 「遼寧遼陽市徐王子戰國墓」, 『考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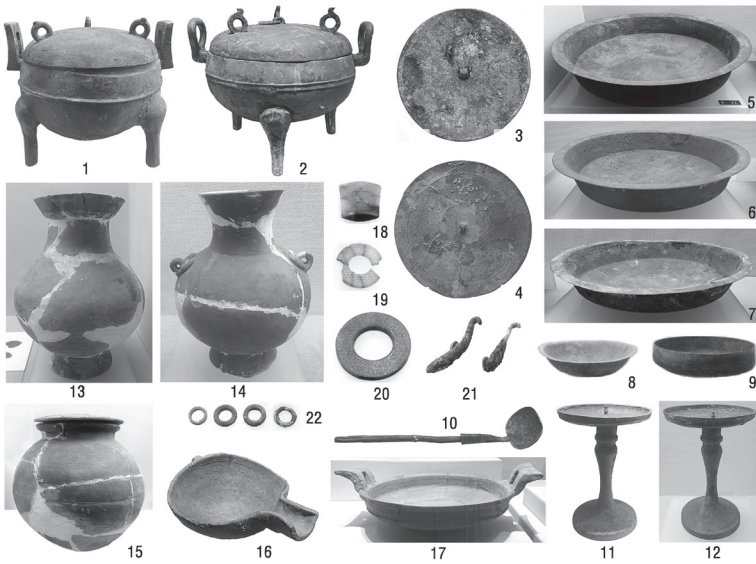


그림 6 요양 한초 분묘(신성촌묘; M1/M2) 구조와 출토유물

신성촌묘는 1990년에 조사되었는데, 요양 강동 구릉지의 정상부에 위치하는 주축 남북 방향(두향 북쪽)의 합장목곽묘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단장목곽묘를 연이어서 축조하는 1관 1곽의 이혈합장(異穴合葬) 목곽묘에 해당되어 귀족

묘로 볼 수 있다.²⁵ 다만 보고문에서는 서왕자묘와 신성촌묘 출토유물이 섞인 채로 잘못 보고되었다는 것이 최근에야 밝혀졌고, 이에 편년과 성격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²⁶

이혈합장묘는 부부묘(M2 → M1)로 추정된다. 도정, 도호, 도반, 도이, 도관, 동정(2점), 동두, 동세(3점), 동분(2점) 등의 예기 외에 청동대구(3점), 청동춧대(2점), 동경(2점), 금은상감용문동작, 칠합, 칠배, 칠선 등의 칠기류와, 목마, 목용, 목거 등의 목기류가 추가되어 최상위급 귀족 분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식 동정, 한식 단경호의 예로 보아 전한 초기 또는 전기 무렵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석취산묘는 1987년과 1988년에 조사되었는데, 강동 구릉지의 채석장에 위치하는 주축 남북방향의 단장목곽묘에 해당된다. 다만 대부분이 파괴되어 상세 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수습유물 중심으로 추정되고 있을 따름이다.²⁷ 1987년 묘에서는 동전, 토제명기 등이 수습되었고, 1988년에는 동정, 청동혼로, 청동승반(靑銅承盤: 銅甃), 청동국자, 동경 등이 수습되었다. 1987년 묘는 부뚜막형 명기 및 오수전의 부장으로 보아 전한 중기~후기, 1988년 묘는 혼로 및 승반, 명문(薊○)²⁸으로 보아 전한 전기 무렵으로 편년된다. 특히 1988년 석취산묘는 신성촌묘와 출토유물의 상사성과 상이성이 모두 확인되어 약간 늦은 전한 전기 경에 조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7).

25 穆啓文, 2009, 「遼陽新城戰國墓發現與研究」, 『遼寧省博物館館刊(2009)』, 遼海出版社; 鄒寶庫, 2012, 위의 책, 57~59쪽.

26 2023년 8월 요령성박물관 방문 당시 전시유물과 기존 보고문을 비교하여 게재 오류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이후석·조건미·최정훈, 2023, 「2023년 중국 요동지역 답사」, 『2023년 고조선과 유라시아 유적 조사 및 답사의 최신성과』, 제19회 학술회의,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배현준, 2024, 「세형동검문화기 요양지역 소위 ‘연’ 무덤의 출현과 그 배경」, 『學林』 53.

27 李智裕·金巖·唐仁子, 2011, 「遼陽地區出土的兩件西漢刻銘銅器淺議」, 『文物春秋』 1; 鄒寶庫, 2012, 앞의 책, 69쪽.

28 광양군의 ‘薊縣’(북경)과 요동군의 ‘襄平’(요양)이 서로 교류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7 요양 한초 분묘(석취산묘; 1988년) 청동유물

아방 묘지는 1954~1955년 동북문물공작대가 요양 노성 남동쪽의 강변 대지에서 조사했던 총 52기의 토광묘·전실묘·석축묘로 이루어진 한대 평민묘지이다. 최근 일부 분묘(4기)들이 보고되었는데, 19호묘와 13호묘가 각각 전한 전기와 중기의 이른 시기를 대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²⁹ 아방 19호묘와 13호묘는 모두 단장목관묘에 해당되며, 두향 쪽의 단측벽 아래에 토기류가, 목관 내에 금속기가 부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9호묘에서는 관(단경호)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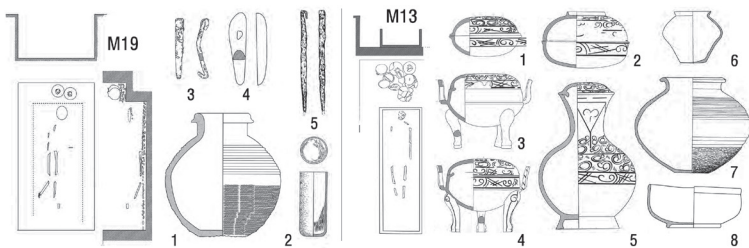


그림 8 요양 서한 분묘(아방묘지: M19/M13) 구조와 출토유물

29 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遼寧省博物館·遼陽博物館, 2019, 「遼陽鵝房漢代墓地1954年, 1955年發掘簡報」, 『中國國家博物館館刊』 9.

동준 1점, 철추 1점, 철제대구 1점, 지석 1점 등이 출토되었고, 13호묘에서는 정 2점, 유개합 3점, 호 2점, 관(단경호) 2점(소형/대형), 발 1점 등이 출토되었다. 관과 발을 제외하면 모두 채회토기이다. 요양 일대에는 전한 전기~중기 무렵 소규모의 묘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그림 8).

한편, 삼도호의 서한 취락 내부에서 옹관묘가 다수 확인된다. 옹관묘는 모두 348기이며, 토기 2~4점을 이어 붙인 합구횡치식에 해당된다. 소위 ‘변형 연식 토기’들이 조합되는 것과 ‘昌平’명이 있는 호가 조합되는 것이 확인된다. 출토 유물에는 소형 장식류가 소량 확인(39기)되며, 반량전이 1~2매 출토(6기)되는 것도 있다. 취락 북쪽에서 분묘군을 이루면서 전한 시기 동안 옹관묘지를 형성한다(그림 9).³⁰ 이 외에도 당호둔(唐戶屯)에서 한묘 210여 기와, 서광촌(曙光村) 묘포(苗圃)에서 한묘 100여 기가 각각 확인되었는데, 전한 후기~후한 전기 경의 늦은 시기 한묘군에 해당된다.³¹ 이전 시기와는 달리 대규모의 분묘군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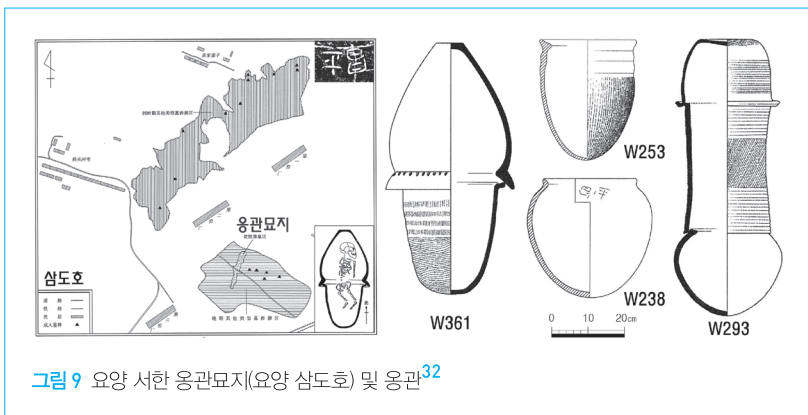


그림 9 요양 서한 옹관묘지(요양 삼도호) 및 옹관³²

30 陳大爲, 1957, 「遼陽三道壕西漢兒童甕棺墓群發掘簡報」, 『考古學報』 1.

31 潘欣, 1995, 「遼陽唐戶屯一帶的漢墓」, 『考古通訊』 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5, 「遼寧遼陽市苗圃墓地漢代土坑墓」, 『考古』 4.

32 徐政, 2018, 「요령지구 전국 진한시기 옹관묘의 기초적 연구」, 『중국고고학특강』 12, 울산문화재연구원, 79, 82~83, 87쪽 편집.

2) 심양 일대(심양-무순 교계지점 포함)

심양지역에도 군현 거점 토성지가 확인된다. 요동군의 후성현 소재지에 해당되는 곳이 심양 궁후리성지(宮后里城址)이다. 1971~2012년 총 7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성벽 및 외부 한묘 등이 확인되었으며, 전국~한대 방형토성으로 알려진다.³³ 주변에는 열애리묘와 신광원묘, 부영원묘 등의 전국~한초 연계 분묘들이 위치하며, 그 주변으로 전한 후기~후한 전기경의 한묘군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0 심양 일대 연·한초 주요 유적

1971년과 1975년 심양고궁 동쪽 ‘대정전(大政殿)’과 ‘심하구공안분국’ 조사에서 항축토대, 전국 화폐 매납수혈, 한대 우물 등이 확인되었고, 대형승 문판와, 와당, 동전 등이 수습되는 문화층(하층)도 확인되었다. 1993년에는 심양고궁 북쪽 담장 외곽 ‘동아상업광장’ 조사에서

항축토대가 확인되었고, 평기와가 수습되는 문화층(하층)이 확인되었다. 항축토대는 하층 수습유물들로 보아 전국~서한 성벽으로 비정되고 있다.

1993년 성벽 조사에서 구조가 밝혀졌다. 크게 3차례에 걸쳐 개축되었는데, 초축 성벽(Q1)과 증축 성벽(Q2~3) 사이에는 한위문화층(④A층/④B층)이 끼어 있어 초축 성벽은 전한 전기 이전 축조되었으며, 증축 성벽은 후한 후기 이후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벽 하부에서 판축 목주 흔적 외에 도관, 도호, 도두,

33 劉長江, 2010, 「瀋陽宮后里遺址及相關發現」, 『遼寧考古文集』 2, 科學出版社; 趙曉剛·姜萬里, 2015, 「瀋陽宮后里城址芻議」, 『東北史地』 2.

도부, 도증 등의 토기류, 승문판와, 수면문반와당 등의 기와류, 삼릉동축 등의 금속류, 포전, 일화전, 일화전 등의 화폐류가 각각 확인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성벽 초축 시기는 전국 말기 또는 전한 초기 무렵으로 볼 수 있다(그림 11).

최근까지 조사결과, 궁후리성지는 평면 장방형의 판축토성이며, 성벽 동서 길이 약 500m, 남북 너비 약 350m, 둘레 약 1,100m로 일반 현금 토성보다 약



그림 11 심양 궁후리성지의 성벽 구간 및 층위. 하층 출토유물³⁴

34 李龍彬, 2020, 「東北地域燕秦漢長城及城址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1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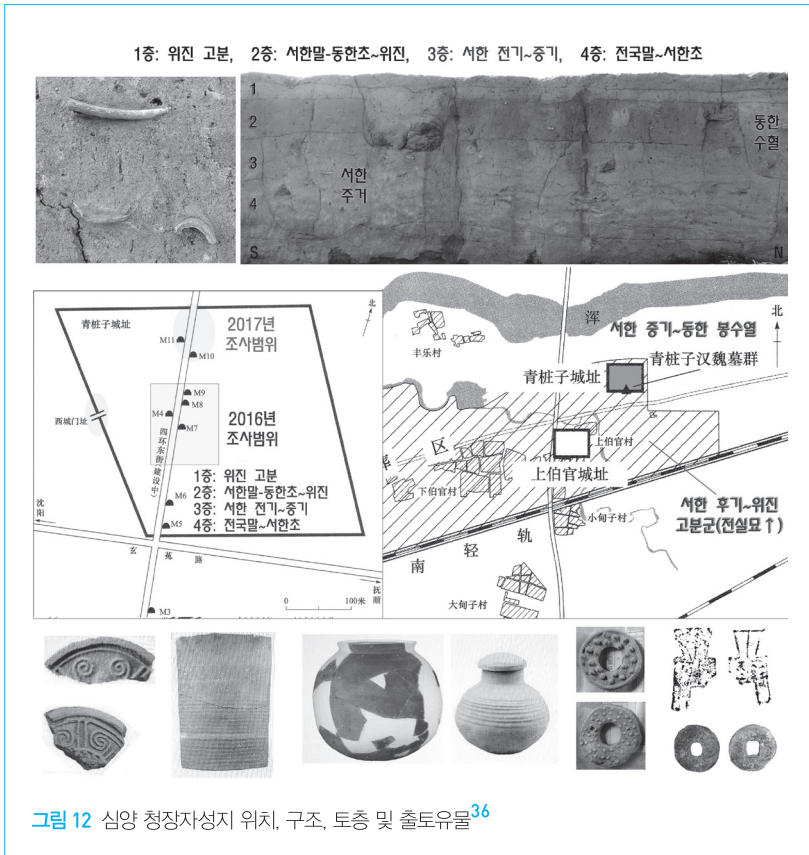
간 크다. 중심구역은 향축토대인데, 평면 장방형에 남북 길이 10m, 동서 너비 8m이며, 단면은 ‘ㅊ자형’으로 잔존 높이가 약 3m이다. 관청 건물 등이 상정된다. 일화전이 1,000여 매 담긴 도관(단경호)이 묻힌 매납수혈은 성벽 축조 시기와도 관련된다(그림 11).

한편, 심양-무순 교계처의 혼하 남쪽 대지에서 청장자성지(靑樁子城址)가 확인되어 있다. 북류하여 혼하까지 유입되는 망우하(忙牛河)를 기준으로 그 서남변에 ‘상백관성지’가, 그 동북변에 ‘청장자성지’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2008년, 2013년, 2016~2017년 각각 조사되었는데, 상부에는 후한~위진시기 고분 등이 분포하고, 하부에는 전한시기 성벽 및 주거지가 확인되어 주목되고 있다. 연·진 유물들이 전한시기 유물들과 함께 출토되어 진·한 초기 또는 늦더라도 서한 전기 무렵에는 축조되었다고 생각된다.³⁵

2008년 지표조사 및 2013년 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문화층에서는 전한시기 유물이 다수 수습되었는데, 도옹, 도관, 도분 등의 토기류와 대형 승문판와로 대표되는 기와류가 출토되어 관청 등의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의 발굴조사 결과 청장자성지는 평면 평행사변형의 방형토성이며, 성벽 한 변 길이 약 400m, 둘레 약 1,400m로 일반 현급 토성보다 약간 크다. 청장자성지의 동쪽 단애면에 인접하는 성토대지를 조사하여 주거지와 매납수혈, 수혈, 도랑, 분묘 등과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분묘들은 주로 1~2층(위진시기), 주거지와 수혈 등은 주로 3~4층(전한시기)에서 확인된다. 한식 회도편과 방제 도환, 승문이나 방격문(또는 능격문) 평기와와 꺾수문원와당, 일화전, 반량전(진/한), 오수전 등의 화폐류가 확인된다(그림 12).

청장자성지의 축조시기에는 진·한 초기 무렵 주거지와 향축토대, 진계 유

35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5, 「瀋陽靑樁子漢魏墓群2013年發掘簡報」, 『瀋陽考古文集』 5; 王綿厚, 2014, 「瀋撫交界處“靑樁子”古城的新發現的考古學意義-兼論秦漢遼東郡“中部都尉”與“侯城縣”的關係」, 『東北史地』 1; 李曉鐘, 2007, 「瀋陽地區戰國秦漢考古初步研究」, 『瀋陽考古文集』 1; 張福有, 2014, 「“靑樁子”古城與上伯官屯遺蹟、遺物」, 『東北史地』 1.



물, 하부 문화층의 출토유물들이 주목된다. 특히 일화전, 반량전(진/한) 등의 전국말~전한초 화폐류와, 대형승문판와, 도관(단경호) 등의 전한 전기 단계 와도류는 물론 성지에서 수습되었다는 진의 도량기는 진통일기 또는 전한 전기부터 성지 내부구역이 방어시설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6 李龍彬, 2020, 앞의 글, 60쪽; 陳鳳軍, 2017, 「瀋陽曾有座壯觀的青樁子城」, 『瀋陽晚報』 2017.1.6.



그림 13 청장자-유이둔 유적 출토 진식 유물 및 비교 자료

심양-무순 교계처는 청장자(靑樗子)와 유이둔(劉爾屯)이 마주보는 지점이다. 청장자에서는 1988년 ‘廿六年’(전 221년)명 진 도량기가 수습되었음이 알려졌다.³⁷ 유이둔은 혼하 남변 강변 대지인데,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청동유물 수습되어 알려졌다. 4월에는 북서 방면에서 진식 동모 등의 무기 4건이 수습되었고, 8월에는 북동 방면에서 진식 동과 등의 무기 3건이 수습되었다.³⁸ 진식 동모는 ‘三年相邦呂不韋造’ 명문(秦王政 3년; 전 244년)으로 인해 ‘3년여불위모’라 불리기도 한다. 진식 동과는 전국 후기의 전형적인 곡원과에 해당된다. 교계처의 유적군은 사실 단일유적이며, 진식 도량기와 무기류가 다수 출토되어 진통 일기의 점유 및 군사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3).

다음으로 심양지역에는 전국말~전한초 이전으로 소급되는 연계 분묘 및 전한 중기 이후에만 한정되는 한계 분묘들이 주로 확인된다. 전국연계 분묘로는 전국 중기 전후 조성되는 열애리묘(熱愛里墓)와 신광원묘(新光院墓)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국말~전한초 또는 전한 전기 무렵으로 편년되는 분묘들은 분명하지 않다. 한묘들은 전한 중기 이후 궁후리성지의 남쪽 주변에서 수 기에서 수십 기씩 또는 상백관둔성지 주변 백관둔-유이둔에서 동서 방향으로 수백 기씩

37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編, 2008, 『瀋陽考古發現六十年』 遼海出版社, 70, 198쪽, ‘上伯官屯城址’ 출토라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靑樗子城址’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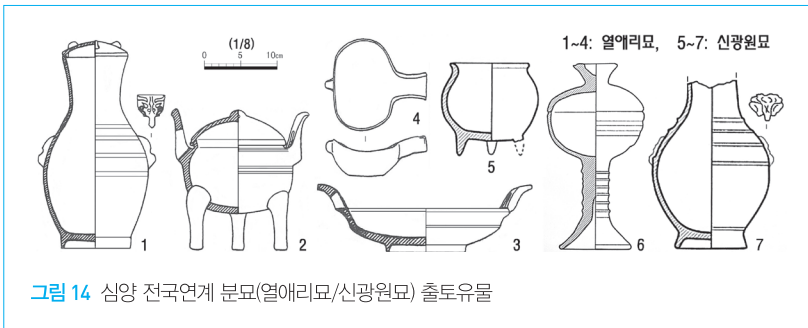
38 撫順市博物館, 1996, 「遼寧撫順市發現戰國靑銅兵器」, 『考古』 3; 王成生, 2003, 앞의 글.

대규모의 분묘군을 이루면서 조영되어 있다.

열애리묘는 1958년 공후리성지의 남쪽 외곽 약 1km 지점, 현재 열료로(熱鬧路)에 해당되는 지점에서 조사되었는데, 중소형의 단장목곽묘에 해당된다.³⁹ 주축 남북 방향(두향 북쪽)이며, 1관 1곽의 이중관식 구조이다. 두향 쪽의 부장간에서는 도제 예기류만 출토되었는데, 정 1점, 호 2점, 반 1점, 이 1점 등이 확인된다. 중하위급 전국연계 분묘라고 할 수 있다. 전국 전기말~중기초 또는 전국 중기 전반 무렵으로 편년된다(그림 14).

신광원묘는 1980년 공후리성지의 동쪽 외곽 약 4km 지점(신광기계공장 401호 창고부지), 현재 신광로(新光路)에 해당되는 지점에서 조사되었는데 중소형의 단장목곽묘에 해당된다.⁴⁰ 파괴되어 구체적인 구조와 장법은 알 수 없다. 정 1점, 두 1점, 호 1점 등의 도제 예기류만 소량 출토된다. 역시 중하위급 전국연계 분묘라고 할 수 있다. 대략 전국 중기말~후기초 무렵부터 전국후기 전반 무렵으로 편년된다(그림 14).

이 외에도 2008년 대남가(大南街)에 있는 병원(婦嬰醫院) 신축 부지에서 동



39 金殿士, 1959, 「瀋陽南市區發現戰國墓」, 『文物』 4;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93, 『瀋陽市文物志』. 출토유물 대부분은 현재 심양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40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93, 위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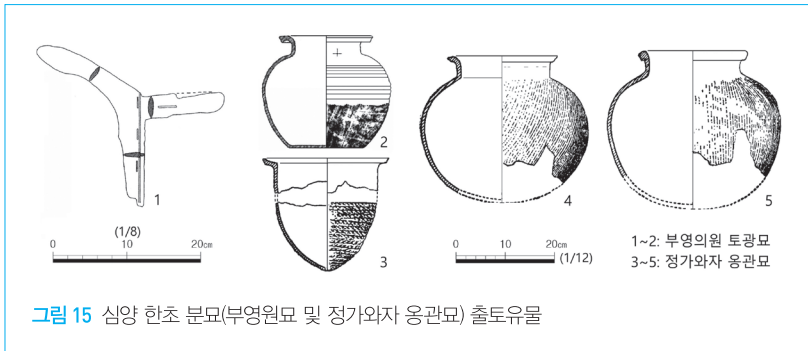


그림 15 심양 한초 분묘(부영의원묘 및 정가와자 옹관묘) 출토유물

관과 동과가 함께 수습되어 주목되었는데, 원래 파괴 토광묘로 추정된다.⁴¹ 도관은 동체 중상위 타날흔을 없앤 전한 초기 변형 연식관(燕式罐)에 해당되며, 동과는 전한 초기 확인되는 ‘원호둔각식’의 곡원과(曲援戈)에 해당된다. 1965년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의 정가와자 3지점에 대한 조사에서 옹관묘가 조사되었는데, 변형 연식부(燕式釜)와 변형 연식관(燕式罐)을 연결하여 만든 3구 횡치식에 해당된다.⁴² 역시 전한 초기 단계 분묘 자료라고 할 수 있다(그림 15).

2. 요남 남부권역 (대련 일대)

요남권역은 대련 일대 및 해안도서지대를 포괄한다. 중원계통 유적들은 전국 후기까지 분명하지 않다. 진한 초기 단계부터 토성이나 분묘들이 여순구구, 영성자구, 금주구 및 보란점구에서 주로 확인된다. 대련 일대에는 요동군의 답지현(沓氏縣)이 설치되었는데, 여순 목양성(牧羊城)과 금주 대령둔고성(大嶺屯古城)을 비롯하여 보란점 장점고성(張店古城) 등이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한 초

41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9, 「瀋陽大南街古代遺存發掘報告」, 『瀋陽考古文集』 2.

4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安志敏·鄭乃武), 1989, 「瀋陽肇工街和鄭家窪子遺址的發掘」, 『考古』 10.

먼저 대련 일대에는 일제 관변단체인 동아고고학회에서 1928년 조사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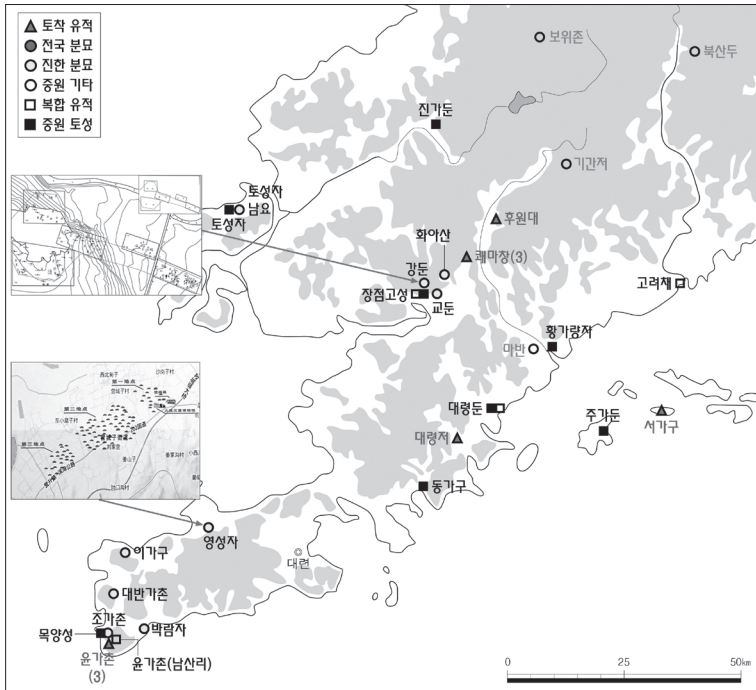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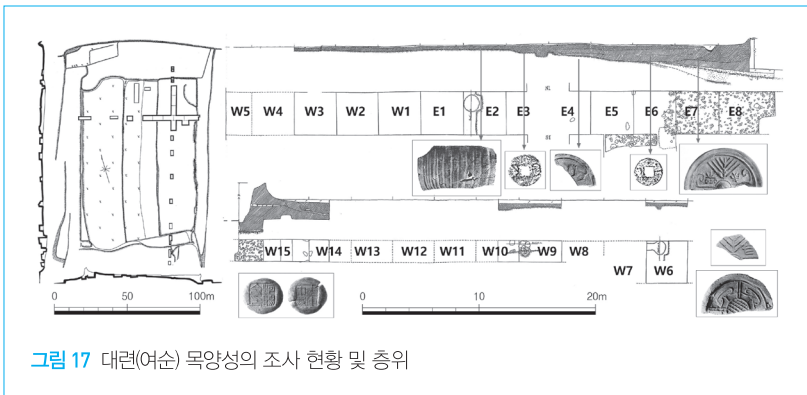


그림 16 요남 남부권역(대련지구) 전국~한초 주요 유적 분포

43 ‘패묘(貝墓)’는 ‘적패묘(積貝墓)’라고도 한다. 요동반도 남부 대련 일대에서 주로 확인되나, 요동반도 북서 해안의 영구~개주 일대 및 요서 발해만권 금주 일대에도 분포한다. 또한 묘도열도에서 산동반도 북변 해안까지 유사분포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해양성의 보존 환경에서 비롯되는 장법으로 생각되며, 대련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과의 해양 교류 일단면을 보여준다.

목양성이 주목된다. 목양성은 요동반도 남단부의 해안 주변 언덕 위에 조성되어 있는 장방형의 토성이다. 주변 윤가촌-조가촌 일대에는 성벽 및 내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유물 출토맥락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축조 연대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최근 재보고되면서 여러 해석들이 시도되고 있다.⁴⁴

목양성은 성벽 외에 그 기저부로 추정되는 곳도 확인된다(그림 17의 E7~E8, W13~E14). 규모는 남북 길이 133m, 동서 너비 82m로 소형이며, 조사 당시 동쪽 및 서쪽 구간 양단에서 확인되는 성벽 높이는 최고 3m 정도였다. 조사구역 하부에서 전국말~전한초 단계 유물들이 주로 확인되고, 상단에서 전한시기 유물들이 주로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나, 층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명화전과 일화전(일도전) 및 반와당이 출토되는 양상으로 보아 전국말~전한초에 축조되었으며, 주변 조사구역에서 명화전과 반량전이 공반되었다는 것과 남쪽 외곽에서 수습되었다는 봉니(河陽令印/武庫中丞) 등을 고려하면, 전한시기를 중심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7).⁴⁵



44 東亞考古學會 編, 1931, 『牧羊城-南滿洲老鐵山麓漢及漢以前遺蹟』; 大貫靜夫 編, 2007,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平成16年度~平成18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研究成果報告書.

45 東亞考古學會 編, 1931, 위의 책.

내부에는 연식부(전형/변형)와 연식관(단경호)을 비롯하여 두형토기 및 분·호 등의 각종 한식 토기류, 동물문반와당, 수목문반와당(또는 원와당), 운문원와당, 승(석)문평기와의 기와류, 철경동축 외에 철촉, 철부, 철삽, 철검(변형), 철착, 환수철도 등의 철기류, 명도전, 명화전, 일화전, 반랑전, 오수전 등의 화폐류가 출토되어 있다(그림 18). 최초 보고 당시 축조 시기를 전한 초기 무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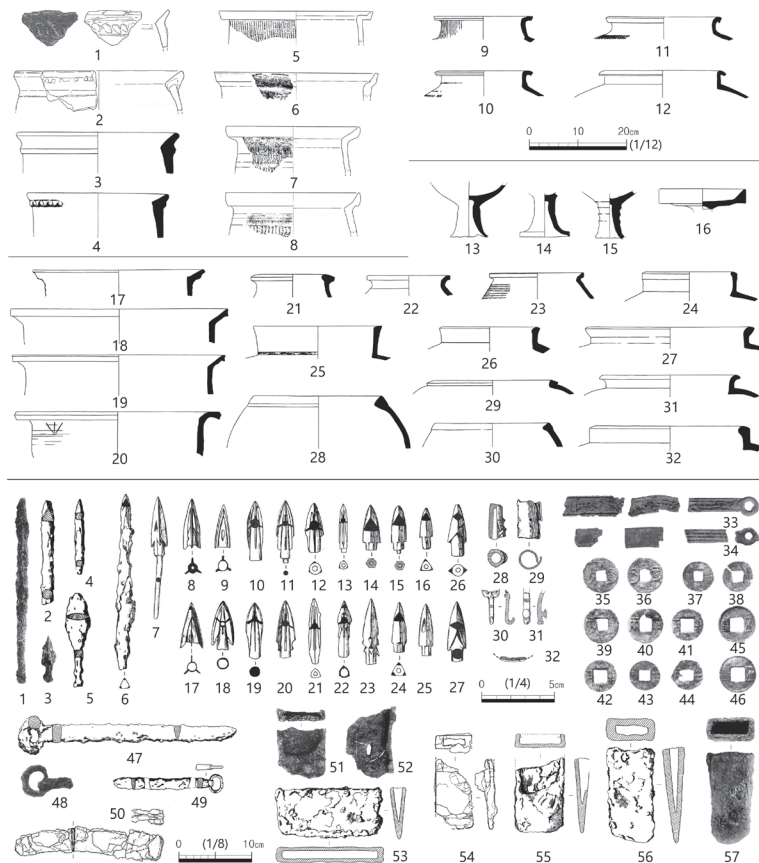


그림 18 대련(여순) 목양성 출토유물<상> 1~2: 정인성, 2014, 5~8: 宮本一夫 2012, <하> 50: 大澤正己, 2007, 이 외 보고서의 유물도면 발췌)

보았는데, 최근 재검토한 결과 축조 시기를 전국 후기까지 올려 보고 있다. 이는 곧 윤가촌 2기문화와 3기문화 사이에서 공백기를 설정하는 주장으로 연결된다.⁴⁶

목양성의 축조 시기는 전국 후기설과 전한 전기설이 있다. 다만 명도전의 불분명한 출토 층위, 명화전과 반량전이 공반되는 양상 및 연식부와 연식점이 변형되어 있는 양상 등을 고려하면 전국 후기로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長)樂(未)央’ 등의 명문 반(원)와당으로 보아 전한 초기 무렵 축조되었다고 생각된다. 전한 초기까지 무문토기류가 확인되며, 출토유물 대부분이 전한시기라는 점도 참고된다.

동아고고학회에서 1932~1933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던 대령둔고성은 요동반도 남단부의 동쪽 변에 위치하며, 대장산도 등의 도서지역과도 인접하는 해안 변에 조성되어 있는 방형 토성이다. 토성 서남 주변에는 청운하(靑雲河)와 왕가둔(王家屯) 한묘군이 위치한다. 성벽 및 내부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아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⁴⁷

대령둔고성은 서쪽 성벽 및 동북 성벽 모서리가 남아 있고, 규모는 동서 길이 약 156m, 남북 너비 154m로 소형이다. 내부 조사 결과 연식부편(전형/변형)과 한식편(단경호)편, 두형토기 등의 토기류가 소량 확인되며, 반와당편, 원와당편, 승문 평기와편 등의 기와편이 적지 않다. 주조철부, 철착, 철부(鐵釜) 등의 연계 철기류도 확인되며, 각종 동축, 철경동축, 청동대구, 동개궁모 등과 명도전과 화천 등의 화폐류도 일부 확인된다. 기본적인 유물 구성 등은 목양성과 흡사하나, 전국~한대 화폐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종류와 수량은 이에 못미친다(그림 19).

대령둔고성의 축조시기는 전한 초기설이 우세하다. 전한 답지현(沓氏縣)과 동한 동답현(東沓縣)의 소재지로 보는 설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근거 제시

46 大貫靜夫 編, 2007, 앞의 책.

47 三宅俊成, 1933, 『大嶺屯城址: 漢及漢以前之遺蹟』, 滿洲文化協會; 三宅俊成, 1997, 『大嶺屯城址의 考察』, 『考古學文化論集』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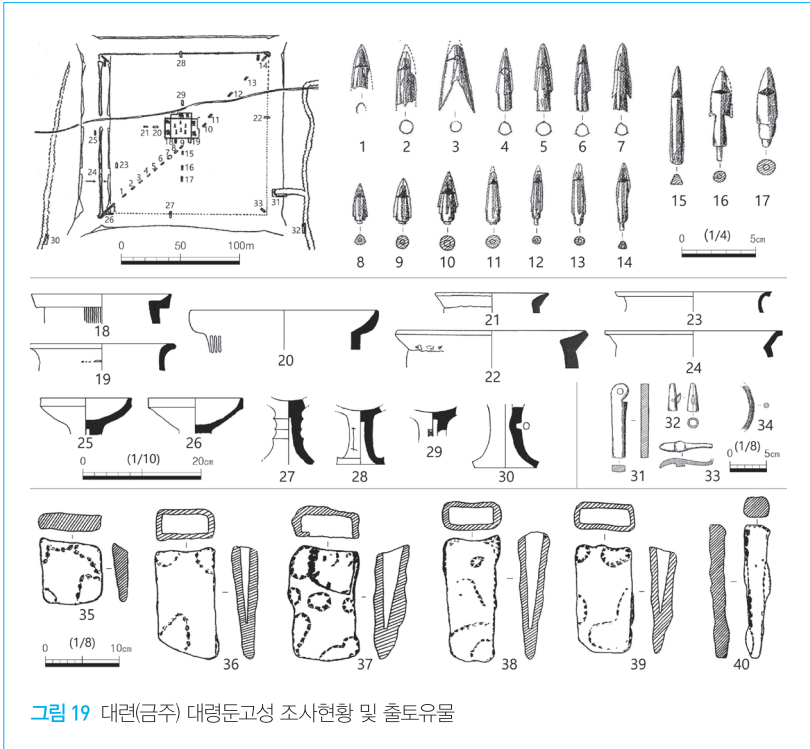


그림 19 대련(금주) 대령둔고성 조사현황 및 출토유물

가 부족하다. 연계 토기류가 일부 보이지만, 변형되어 있어 전한 초기 이후에야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점고성은 서쪽에는 보란점만을 끼고 있고 동쪽에는 사하(沙河) 중하류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발달되어 있어 요동반도 남부에서 대련 중심부나 해안변을 아우르는 곳에 위치하는 점이 특징이다. 토성 위치와 입지는 물론 이중성곽 구조 및 주변 묘지 등을 고려하여 요동반도 남부해안 일대를 통괄하는 요동군 답지현 치소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⁴⁸ 다만 구체적인 조사보고가 없는 점

48 王綿厚·李健才 지음, 동아시아교통사연구회 옮김, 2020, 『고대 동북아시아 교통사』, 주류성; 大貫靜夫, 2007, 「戰國秦漢時代の遼東郡と牧羊城」, 『遼寧を中心

이 한계이다.

전한시기 요동반도 남부지역 거점 군현으로 기능했던 면모들은 토성 규모와 내부에서 출토유물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먼저 규모는 남북 길이 약 340m, 동서 너비 약 240m인데, 일반적인 현급 토성과도 비슷하다. 내부에서 다량 출토되는 한대 기와, 일부 확인되는 변형 연식토기(요동식부), 전한 무제 때의 마제금(馬蹄金)과 ‘臨穢丞印’ 봉니, 전한 전기부터 조영되는 강둔(姜屯), 교둔(喬屯) 등의 한묘군이 주변에서 확인된다.⁴⁹ 그러므로 전한 전기 이후 축소되어 거점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대련 일대에는 전국연계 분묘들은 확인되지 않고, 전한시기의 목관(곽)묘와 옹관묘는 물론 전축묘가 주로 확인된다. 목양성의 주변부에 해당되는 윤가촌-조가촌 일대 및 대반가촌 일대에는 소규모의 분묘군이 확인되며, 장점고성 주변부인 교둔·강둔 일대에는 대규모의 군집묘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단장묘와 합장묘가 모두 확인되며, 토기류의 부장 위치에는 단벽(두항) 쪽에 부장하는 연계 전통 및 장벽 쪽에 부장하는 한계 전통 역시 확인된다. 옹관묘에서는 토착계통과 증원계통 토기류가 조합되는 전환기적 양상 역시 확인된다.

대련 윤가촌-조가촌 일대 한묘들은 1928년 동아고고학회와 1964년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가 각각 조사하였는데, 4~5개소에서 목관곽묘(적패묘)와 옹관묘로 이루어진 분묘군이 확인된다(그림 20).⁵⁰ 인접하는 대반가촌 역시 윤가촌에 비해 작은 규모지만, 목관곽묘로 이루어진 분묘군이 확인된다.⁵¹ 모두 소수 군집묘에 해당되며, 목곽묘도 보이지만, 목관묘가 우세하다. 단장묘와 합장

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49 郭富純·趙錫金 主編, 2010, 『大連古代文明圖說』, 吉林文史出版社; 張翠敏·姜寶憲, 2013, 「大連地區漢代城址考辨」, 『遼寧省博物館館刊 (2012)』.

50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 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東亞考古學會 編, 1931, 앞의 책; 東亞考古學會 編, 1933, 『南山裡-南滿洲旅順老鐵山麓漢代甄墓』;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1996, 『尹家村』, 『雙砬子與崗上』, 科學出版社.

51 劉俊勇, 1995, 「遼寧大連大潘家村西漢墓」, 『考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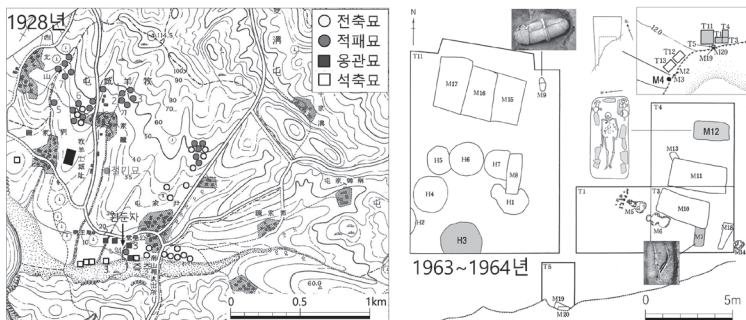


그림 20 대련 전한 묘지 분포 - 여순 조가촌·윤가촌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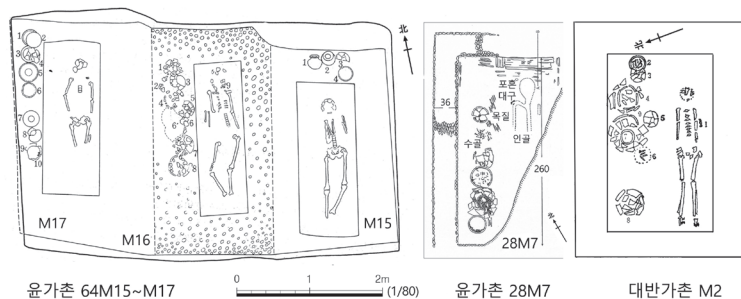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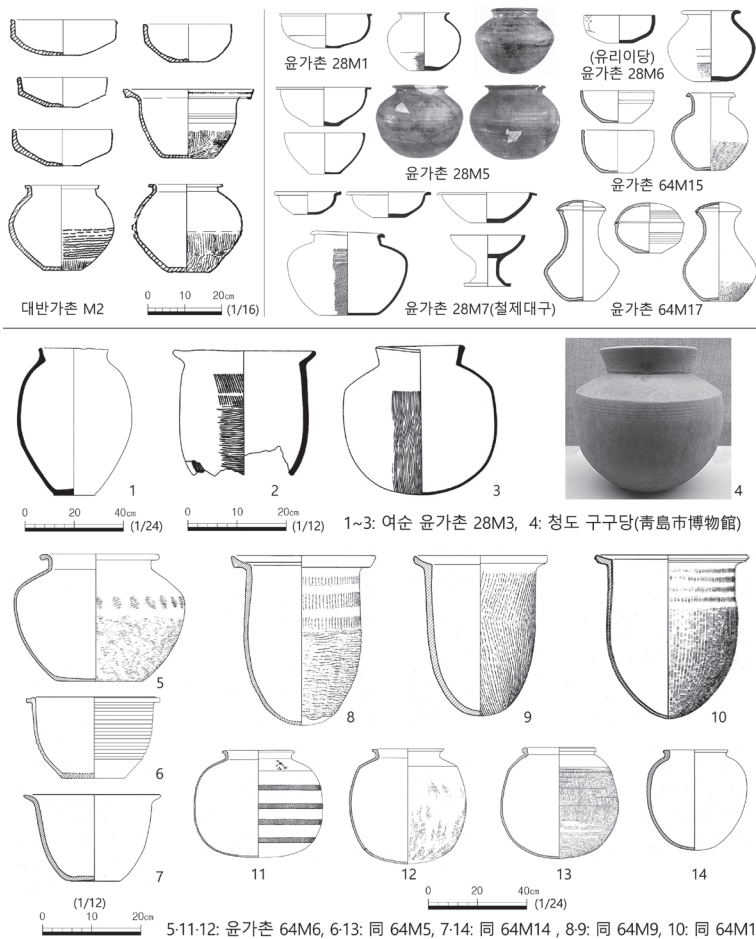


그림 21 대련 한초 분묘(목관묘/목곽묘)-여순 윤가촌·대반가촌

묘가 함께 확인된다(그림 21). 특히 윤가촌 15~17호묘는 가족묘역으로 보이는 데, 15호묘는 전국연계 토기 부장 전통의 선축 무덤이며, 17호묘는 한계 토기 부장 전통의 후축 무덤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패묘(64M16)가 채용되고 있어 전한 전기 경의 장법 변화를 보여준다. 같은 기형의 한초 단계 승문 단계호(윤가촌 28M1·28M5와 대반가촌 M2)가 다수 확인되어 대부분은 전한 전기 경에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2-상).

이 외에도 옹관묘가 적지 않게 조사되었는데, 주로 연계 부형토기(윤가촌



64M1·64M9)나 한계 호형토기(윤가촌 64M5·64M6)가 조합되고 있어 전한 전기~중기 무렵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토착 무문토기옹과 변형 연식부와 한식호가 조합되는 것(28M3)은 전한 초기까지 토착계통 물질문화와 중원계통 물질문화가 공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그림 22-하).⁵²

한편, 보란점 강둔·교둔 한묘군은 장점고성 주변 대규모의 한대 분묘군에 해당된다. 다만 전한 중기 이전에는 소수 군집묘에 불과하여 여순 윤가촌·대반 가촌 일대 한묘군과 같은 양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강둔 한묘군은 교둔 한묘군에 비해 일찍 조영되어 전한 전기 분묘부터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⁵³ 보고서의 시기구분(총 6기) 중에 1기와 2기가 각각 전한 전기와 중기에 해당되며, 각각 17기와 38기의 목관곽묘가 포함되어 있다.⁵⁴ 단장묘(M145, M207)와 합장묘(M94·95, M98·99, M104·105, M81·82, M194·195)가 모두 확인된다(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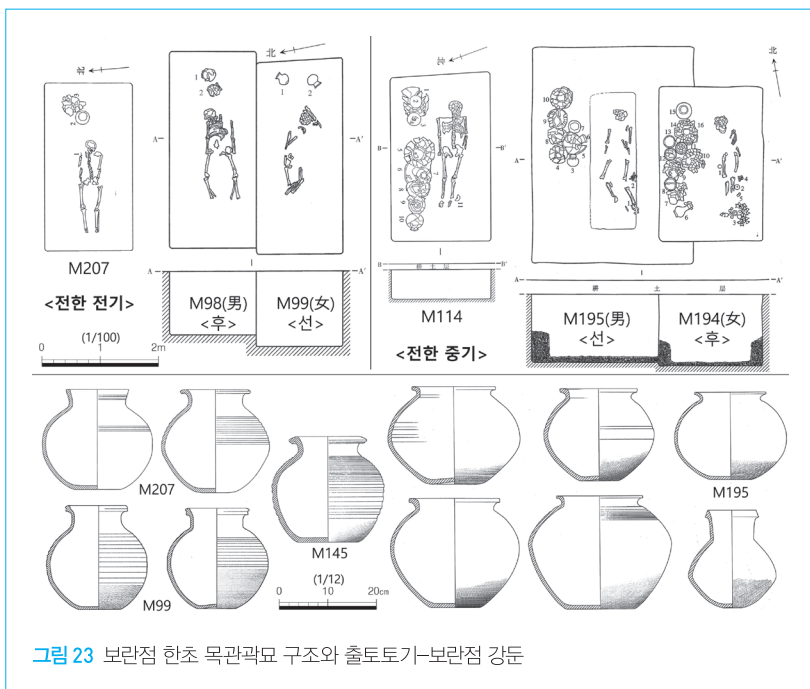


그림 23 보란점 한초 목관곽묘 구조와 출토토기-보란점 강둔

52 東亞考古學會 編, 1931, 앞의 책.

5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3, 『姜屯漢墓』(上/下), 文物出版社.

54 강둔 한묘군의 시기구분은 합장묘의 중첩 관계 및 화폐(반량전·오수전), 한경 등에 근거하는 거시 편년 체계여서 안정적이지만, 세부 편년에는 어려움도 있다. 전한 전기와 중기의 구분에는 만성한묘(滿城漢墓)가 활용되고 있다.

목곽묘에 비해 목관묘가 우세하며, 단장묘에 비해 합장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합장묘는 부부합장으로 추정되는 이혈묘가 우세하며, 보통 여성묘가 남성묘에 비해 깊게 조성되는 것이 눈에 띈다. 전한 전기(M94·95, M98·99, M104·105)~중기(M81·82, M194·195) 중심으로 후기까지 지속된다. 같은 이혈묘라 하더라도 묘광 형태로만 보면, 전한 중기 이전에는 장방형이 주류지만, 이후에는 근방형이 증가한다. 전한 후기(新代 포함)에는 동혈묘(M178)가 등장하며, 주된 묘제 역시 점차 전실묘로 전환된다. 토기 부장 양상 역시 전한 전기에는 연계 장법대로 단축 변의 머리말에 부장하는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나, 전한 중기에는 한계 장법 확산으로 장축 변에 열을 지어 부장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IV. 요동지역 중원계통 물질문화와 요동군의 변천 고찰

1. 요동지역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의 분포와 특징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는 전국시대 연과 고조선의 경쟁·교류 과정, 특히 기원전 3세기경을 전후하는 여러 상호작용으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원전 4세기경에는 전국연계 토기 외에 철기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고, 기원전 2세기경에도 전국연계 물질 자료들이 지속되는 한편 한식 물질문화가 점차 복합되고 있어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의 정착 과정은 단순하게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물질문화 자료들은 요동군이 운영되는 시기부터 본격적인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문헌사료와도 어느 정도 부합되는 면이 있다. 다만 중원계통 물질문화 자료들은 연이 요동군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확인되나, 그 이후에도 급증하는 것은 아니어서 얼마만큼 범주화된 양상인지 현재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중원계통 물질문화는 요동군의 혼란기에 해당되는 전국말~전한초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며, 한이 요동군을 재편하는 전한

전기 이후에야 정착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그림 24).⁵⁵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는 판축 토성이나 목곽묘는 물론 타날회도 등과 같이 중원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시공간적 분포 맥락을 달리 한다. 중원계통 자료들은 천산산맥(특히 무순-본계) 이서지역의 요동 서부지역에는 늦더라도 전국 중기부터 확인되나, 요동 동부지역에는 전국말~전한초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동 서부지역 유적들은 요중 서부권역(심양-요양 중심) 및 요남 남부권역(대련 중심)으로 세분되며, 이 외 요동 동부지역 유적들은 무순-본계 이동지역, 특히 본계-단동 중심으로 분포한다.

〈표 1〉 요동지역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 분포(●: 연, ○: 진, ◆: 한)

지역 \ 종류	토성	고분	금속 (무기)	토기	주요 내용
요중 서부 (요양-심양)	● ○ ◆	● × ◆	● ○ ◆	● ○ ◆	전국 후기 이전 연계 분묘 등장. 전국말~전한초 토성·분묘 점증. 전한 전기 소형 묘지 형성 시작. (연식 토기 변형 위주) (진식 유물 비중 높음)
요남 남부 (대련)	× ? ◆	× ? ◆	● ? ◆	● ? ◆	전국 후기 토착 분묘 잔존. 전한 초기 중원 토성·분묘 축조. (연식 토기 변형 위주) (연·제·조계 금속유물)
요동 동부 (본계-단동)	× × ◆	× × ?	● ○ ?	● ? ◆	전국말~전한초 중원계통 유물 확산 (일상토기, 청동무기, 철농공구) 전한 중기 토성 축조, 묘지 부재. (단, 중원-토착 복합 융관묘지 존재)

55 노태돈, 200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서영수, 2008, 앞의 글. 서영수는 진한시기에야 요중 서부권에 실질적인 군현통치가 가능하였다고 보았으며, 노태돈은 전국 말기 이후 청천강권까지 확장하였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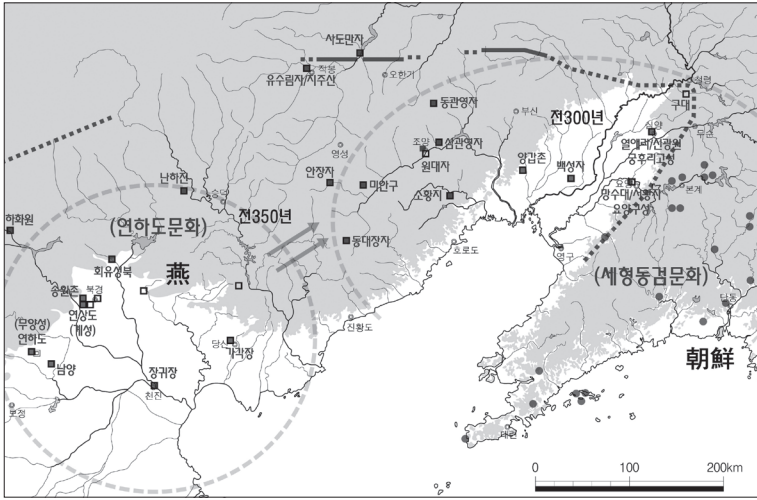


그림 24 전국시대 동북 5군지역 주요 연계 유적 분포

1) 토성 및 묘제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방어시설은 방형 관축(항축) 토성으로 대표된다. 요동지역 중원계통 토성들은 요동군의 중심부(중양)에 해당되는 천산산맥 이서지역, 즉 요중-요남 서부권에 밀집 분포하며, 요동군의 주변부(변경)에 해당되는 천산산맥 이동지역, 즉 요동 동부권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또한 요동군의 범주 외곽에는 적백송고성(赤白松古城)과 같이 현도군과 관련되는 토성들도 보이지만, 군현 외곽으로 판단되는 요북-길림 접경지역에는 이룡호고성(二龍湖古城)과 같이 예맥사회와의 교역 거점으로 추정되는 곳도 확인된다.⁵⁶

요동지역에서 확인되는 중원계통 토성들은 대개 한번 200m 이하의 소형, 200~400m의 중형, 400m 이상 대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대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양 구성인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한계이다. 중형

56 요동군의 변천이나 확장 관련 사항들은 뒤에 다시 상세하게 언급한다.

에는 심양 공후리성지와 청장자성지가 있고, 보란점 장점고성이 다소 크다. 장점고성은 본성 외에 부성까지 포함하면 대형으로 볼 수도 있다. 소형에는 목양성과 대령둔고성이 해당된다. 그러므로 대개 대형 토성은 군치소급 토성으로 볼 수 있고, 중형 토성은 일반 현급 토성으로 볼 수 있다. 소형 토성은 해안이나 변경 방어시설, 즉 장새(障塞) 등에 비견된다. 물론 아직 발굴조사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규모와 등급은 변동 가능성도 있다.

요동지역 중원계통 토성들은 전국말~전한초 무렵부터 확인된다. 요동군의 치소로도 언급되는 요양 구성은 연이 요동(양평)으로 진출하는 전국 후기부터 축조됐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전국말~전한초 이전으로 명확하게 소급되는 것은 없다. 다만 층위 조사 및 반와당·평기와 등과 같은 축조 맥락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을 통해 요중 서부권은 공후리성지가 전국 말기, 청장자성지가 전한 전기 무렵 축조됐을 가능성이 높고, 요남 남부권은 목양성과 대령둔성지가 전한 전기, 장점고성은 늦더라도 전한 중기 무렵에는 축조되었다고 생각된다.

요동지역 중원계통 토성들의 축조 시기로만 보면, 전한 전기 이전에는 요중 서부권에 한정되나, 전한 전기 이후에는 요남 남부권을 비롯하여 주변 지역으로 다소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한 중기 이후에는 요동 동부권에서도 토성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전한시기 요동군의 중심부인 요동 서부권에 한정하면,⁵⁷ 일단 요동군의 군치(襄平城) 또는 양평현은 이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후성현은 공후리성지와 청장자성지의 수축 시기 및 운영 양상 등을 고려하면, 전한 전기 이전에는 공후리성지에 있었다가 한때 청장자성지로 이치되었으며, 전한말~후한초 이후에는 다시 공후리성지로 환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성현이 요동 중부도위에서 귀속 관계가 변화(요동군 → 현도군)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라고

57 배진영, 2008, 「한대 요동군의 군현 지배」,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윤용구, 2008, 「현도군의 군현 지배와 고구려」,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생각된다. 또한 답지현은 토성 규모, 주변 분묘군의 위상(황금상폐), 대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요동반도 남부지역을 통괄하는 지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학계의 견해대로 장점고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⁵⁸ 조위시기(229~240) 요동반도 주민들을 산동지역으로 사민하여 신답현(新沓縣)을 비롯하여 신문현(新汶縣)과 남풍현(南豐縣)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문현(文縣: 汶縣) 역시 요동반도에서 찾을 필요성이 있다. 이 외에도 요동군 주변부인 요동 동부권에서는 요동 동부도위가 설치되었다는 무차현(武次縣)이 확인된다.⁵⁹ 이에 무차현은 전한 전기 경의 본계-단동 일대 중원계통 유적에서 찾을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묘제장법은 목곽묘와 전실묘로 대표된다. 목곽묘는 전국 후기 이전부터 확인되나, 전실묘는 전한 후기부터 축조되고 있어 초기철기시대 묘장제는 목곽묘를 중심으로 살펴진다. 다만 요동지역에는 목곽묘에 비해 목관묘가 훨씬 많다. 이는 요동군의 신분이나 계층 관계에서 목곽묘가 제한되어 축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다. 이 외에도 부수적인 묘제로서 옹관묘가 확인된다. 중원계통 목관묘나 목곽묘가 요동군의 중심부(중앙)에 해당되는 천산산맥 이서지역에만 분포하는 것에 비해 합구형치식의 중원계통 옹관묘는 요동군의 주변부(변경)에서도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중원문화와 토착문화가 복합되는 양상으로 한정된다.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목관묘와 목곽묘는 요동군이 설치되는 전국 후기 이전부터 요중 서부권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요중지역 고조선의 물질문화로 추정되는 ‘정가와자유형’ 중심 분포권에 해당되는 심양 일대에는 열애리(열료로)묘와 같은 전국 중기(또는 전기말~중기초) 경의 목곽묘가 확인되고 있어 요양 일대처럼 같은 역사지리적인 입지 환경을 지닌 곳에서도 중원계통 목곽묘가 조영됐을

58 王綿厚·李健才 지음, 동아시아교통사연구회 옮김, 2020, 앞의 책; 劉俊勇 著, 崔茂藏 譯, 1997, 『中國大連考古研究』, 學研文化社.

59 權五重, 2000, 「滄海郡과 遼東 東部都尉」, 『歷史學報』 168.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요동지역에서 확인되는 중원계통 목관묘나 목곽묘는 심양 일대에서 확인되는 것이 유일하다.

요중 서부권의 다른 중원계통 분묘들은 모두 요동군이 설치되는 전국 후기 이후 자료이다. 심양 일대 분묘들은 신광원묘가 전국 중기말~후기초 또는 후기 전반 무렵으로 편년되는 자료이며, 부영원묘를 인정하게 되면 전한 초기 자료 역시 확인된다. 다만 요동군이 설치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정작 목관묘나 목곽묘는 매우 한정된다. 요양 일대 분묘들도 망수대묘와 서왕자묘로 대표되는 전국 후기 분묘들과 신성촌묘와 석취산묘로 대표되는 전한 초기 분묘들이 보이지만, 극히 한정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요동군의 중심부인 요중 서부권에서도 군집묘는 전한 전기 아방묘지 단계에야 조영되기 시작하는 것이 주목된다.

요남 남부권의 중원계통 분묘들은 전국말~전한초 이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대개 전한 초기 이후부터 확인되기 시작한다. 목양성의 주변부인 여순 윤가촌-조가촌 일대 및 대반가촌 일대에서 확인되는 것이 가장 이른 시기 소수 군집묘에 해당된다. 소위 ‘남산리 철기묘’라는 것이 전국말~전한초 무렵으로 추정되나, 분묘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한계이다. 이후 장점고성 주변부인 보란점 강둔·교둔 일대에는 전한 전기 무렵까지 소급되는 소규모의 분묘군이 확인된다. 대련 일대에는 전한 중기 이후 강둔·교둔 및 영성자 분묘군 등과 같은 대규모의 군집묘가 여러 곳에 대거 조영되는 것이 주목된다. 늦더라도 전한 중기부터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동 서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중원계통 분묘들은 전한 초기 무렵 입지 및 분포 환경에서 획변하는 것이 확인된다. 심양-요양 일대 전국연계 분묘들은 모두 평지 입지, 단독묘에 해당되고, 주축 남북 방향이며, 두향(북쪽) 단벽 쪽에 토기류를 부장하는 것이 일관되는 묘장제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그렇지만 전한 초기 이후 요양 일대 및 대련 일대 중심으로 구릉 입지, 합장묘(이혈)에 해당되고, 주축 남북 방향 또는 동서 방향이며, 두향(북쪽) 외의 장벽 쪽에 토기류를 부장하는 것이 새로 등장하는 묘장제로 주목된다. 상위계층 분묘들은 목곽묘로 구릉

정상부나 능선 평탄면에 단독 또는 합장으로 조영(신성촌묘)되며, 중위계층 이하 분묘들은 대개 목관묘로 평지 또는 낮은 둔덕 위에 분묘군을 형성(아방묘지)하는 것이 요양 일대에서 먼저 보이는데, 이는 요동군의 계층 구조가 전한 전기 무렵 점차 안정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요중 서부권에서는 전국 후기 무렵부터 토착문화 분묘들이 확인되지 않는 것에 비해 요남 남부권에서는 전국 후기까지 토착문화 분묘들이 확인된다. 이는 전국 연이 설치했던 요동군의 지배력이 처음에는 심양-요양 일대로만 한정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남 남부권에서는 토착적인 석곽묘(보란점 후원대)나 중원문화와 토착문화가 복합되는 옹관묘(여순 윤가촌 28M3)가 전한 초기까지 확인되는 것이 주목된다. 대련 일대 물질문화는 전한 전기 이후 토착계통에서 중원계통으로 일변하였는데, 이는 요동군의 확장 양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2) 토기문화

요동군이 설치됨에 따라 주민집단의 정체성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토기문화이다. 연이 요동지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연식 토기문화와 확산되었으나, 전형적인 연식 토기류가 매우 한정되는 것에 비해 변형 연식 토기류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중원계통과 토착계통 토기류가 공반하는 것을 통해 토기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접변 양상들이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문화접변 양상들은 집단 차이 외에 시기 및 지역 차이 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연계 토기류는 전국 후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요동군의 중심부인 천산산맥 이서지역에도 전한 전기까지 확인되며, 요동군의 주변부인 천산산맥 이동지역에는 전한 중기까지 확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요동군의 내부(변경 제외)에는 전한 중기 이후 한식 토기문화가 전면 확산됨에 따라 매우 안정적인 토기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확인된다. 결국 연식 토기문화의 확산 및 변형 과정, 연식에서 한식 토기문화로의 전환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중원계통 토기문화를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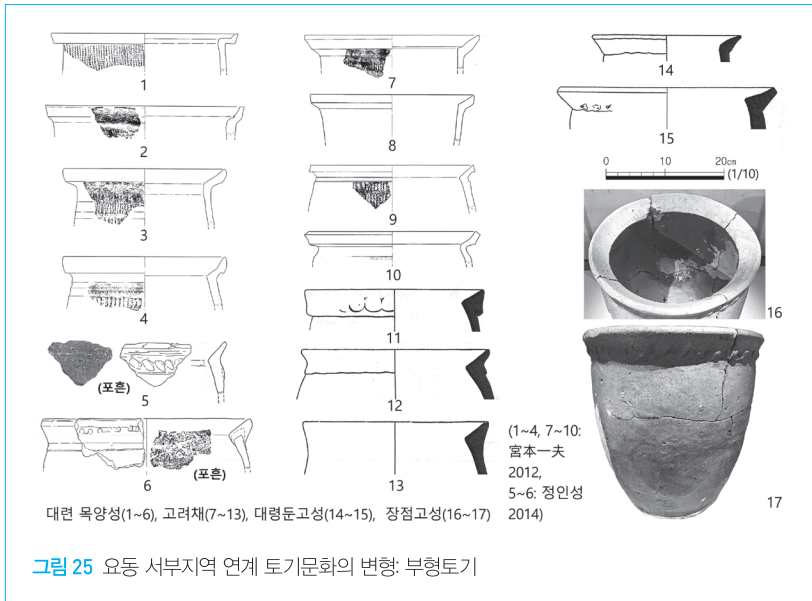


그림 25 요동 서부지역 연계 토기문화의 변형: 부형토기

찰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그림 25, 그림 26).

전국연계 토기문화를 대표하는 기종에는 부(釜)와 관(罐)이 있고, 관(단경호)에 비해 부는 특징적인 속성 변화를 나타낸다. 전형적인 연식부는 극히 소량 확인되며, ‘요동식부’⁶⁰로 언급되는 변형 연식부가 주로 확인된다. 특히 외면에는 타날흔이 없고 내면에는 포흔만이 확인되는 것이 토착민이 제작·했던 ‘요동식부’로 지목된다.⁶¹ 다만 이와 같은 것은 전국말~전한초 무렵 등장하여 전한 전기 무렵에만 한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구연부의 문양장식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이 보이는데, 요동 서부지역 출토품이 돌기상의 지두 조정흔이 일반적인 것과 달리 요동 동부지역 출토품은 이중구연이나 단사선문 역시 적지 않게

60 鄭仁盛, 2014, 「연식토기문화의 확산과 후기고조선의 토기문화」, 『白山學報』 100; 宮本一夫, 2012, 「樂浪土器の成立と擴散－花盆形土器を中心として」, 『史淵』 149.

61 흔히 요동식부 B형으로 언급된다.

形制 期別	罐			壺 (平底壺)		
	A型 (侈口罐)	C型 (矮頸罐)	D型 (折沿罐)	Aa型	Af型	
一期 전한 전기	 신성(M1-M2)	 강둔 M207	 윤가촌 28M1	 강둔 M82	 아방 M19	 윤가촌 64M15
	 강둔 M195	 아방 M13	 강둔 M115		 강둔 M177	 강둔 M104
二期 전한 중기	 강둔 M194			 강둔 M156	 강둔 M177	 강둔 M195
三期 전한 후기	 강둔 M152	 강둔 M197	 강둔 M171		 강둔 M197	보람점 강둔 대련 윤가촌 요양 신성·아방 전한시기 토기

그림 26 요동 서부지역 한식 토기문화의 확산⁶²

확인된다. 그러므로 ‘요동식부’(특히 B형)라고 하더라도 제작·사용 집단들은 같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토기문화의 전환기적 문화접변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전한 전기 무렵에는 연계 토기문화에서 한식 토기문화로의 변천 양상이 확인된다. 한식 토기류는 요동군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요동 서부지역에서 주로 보이는데, 요양 일대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고, 대련 일대에도 거의 동시기에 확인된다. 특히 한식 토기류를 대표하는 관(단경호)와 호(평저호)가 전한 전기부터 요양 신성촌묘, 아방 묘지, 대련 윤가촌과 대반가촌에서 확인되는 여러 분묘에서 확인된다. 또한 전한 중기 직전부터 강둔 한묘군에서도 확인되기 시작하여, 전한 중기 이후에는 보편화된 것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한식 토기문화가 요동 서부지역에서 널리 확산되는 전한 전기이래 늦더라도 전한 중기에는 중원문

6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3, 앞의 책, ‘姜屯韓墓陶器型式表(一)’와 ‘姜屯韓墓陶器型式表(二)’를 관련 유적 출토 토기류를 포함하여 재편집함.

화가 안정되게 정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요동군과 관련되는 전국연계 물질문화는 요중 서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다른 지역에는 극히 일부만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일찍부터 전국연계 물질문화의 광역 확산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후 전국말~전한초 무렵에는 전국연계 물질문화 요소들은 요동 동부지역 외곽까지 널리 파급되는 것이 확인된다. 요동 동부지역에는 중원문화와 토착문화가 복합 또는 공존하는 양상들이 전한 중기 이전까지 다수 확인된다. 다만 전한 중기 이후에는 중원계통 물질문화가 한식 계통으로 일변하는 것이 주목된다. 요동 서부지역에는 거점 토성 외에 한묘군이 널리 확인되며, 요동 동부지역에도 토성 등이 확인되고, 토착문화는 거의 소멸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다.

2.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의 확산과 요동군의 변천

요동지역에서 요동군이 설치되는 것은 연의 요동 진출 결과이다. 연이 요동지역으로 진출하는 때는 소왕(昭王) 재위시기, 특히 기원전 3세기대 초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⁶³ 또한 연 요동군의 지배거점으로 추정되는 토성이나 귀족 분묘들은 전국말~전한초 무렵에야 요중 서부권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대표적인 토성에는 요양 노성이나 심양 궁후리성지가 지목되며, 분묘에는 심양 신광원묘, 요양 서왕자묘 등이 지목된다. 전국말-전한초 단계부터 귀족묘로 볼 수 있는 것이 확인되나, 요동군의 중심부인 요양 일대에만 한정된다.

그렇지만 요동군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요중 서부권에 전국연계 분묘들이 조

63 노태돈, 2000, 앞의 글; 서영수, 2008, 앞의 글. 구체적으로는 기원전 290년대설, 기원전 280년대설 등의 여러 견해들이 있다. 특히 국내 학계 다수설인 기원전 280년대 후반설은 연이 제를 치기 전에 군사력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지만 연은 제와 기원전 280년경까지 산동 방면에서 대규모의 전쟁 중에 있었기에 북방 정벌을 함께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기원전 290년대에는 중산국을 공격하여 군사력을 표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의 요동 진출은 기원전 280년대 후반 이전으로 판단된다.

영되었음이 확인된다. 심양 열애리묘가 가장 대표적인 자료인데, 연속적인 맥락 없이 단독으로 분포하는 중소형의 중하위급 분묘라는 측면에서 연의 군사적인 진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전국시대 고조선과 연의 인적 교류 차원으로 해석된다. 어찌됐든 전국 후기 이후에는 심양-요양 일대에서 연계 분묘 자료들이 증가하고 있어 전국연계 물질문화가 요동지역으로 확산되고 요동군이 설치되는 것은 전국 후기 또는 기원전 3세기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달리 요동 남부권에서는 전국 후기 단계, 동부권에서는 전국말~전한 초 단계의 전형적인 연계 토성이나 분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다.⁶⁴ 전국연계 유물들이 출토되는 유적들은 상당수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세형동검문화 유적에서 소량 출토되는 정도이며, 전국연계 유물이라 하더라도 전국말~전한초 단계의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연의 요동군이 설치되어 지배력을 미친 시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러므로 전국시대 연의 요동군은 천산산맥 이서지역으로 한정되는 범위에서 심양-요양 일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⁶⁵

요동지역에서 요동군이 재편되는 것은 진 시황제기(始皇帝期)이다. 이때에는 ‘군(郡)’과 함께 ‘현(縣)’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한이 요동군을 장악하고 난 후 진의 군현제를 답습하였다는 것을 통해 짐작된다.⁶⁶ 다만 속현 수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한계이다. 진대에는 요동 서부지역을 제외하면 문화 양상이 명확하지 않다. 곧이어서 진한고제기의 혼란기로 접어들어 물질자료가 거의 잔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조선’ 방향으로 실질적인 무력 행위가 거의 없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64 이후석, 2022, 「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과정 - 세형동검문화 네트워크에서 흉노와의 교류까지」, 『고고학』 21-1.

65 이후석, 2017, 「고고자료를 통해 본 만변한: 전국시대 고조선과 연의 경계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57.

66 배진영, 2008, 앞의 글.

그럼에도 『鹽鐵論』 주진편(誅秦篇)에 진이 동쪽으로 ‘폐수(沛水)’를 끊어 조선을 제압하였다는 것⁶⁷을 고려하면, 이때 진은 ‘조선’ 방향으로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진이 천산산맥 남쪽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자 고조선의 영향력은 위축되었다고 생각된다. 요동군의 지배력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음은 심양-무순 교계처의 청장자-유이둔 유적군을 통해 파악된다. 진의 요새 흔적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도량기편, 동모·동과 등의 청동무기(7점)들은 진대 요동군이 일시적이거나 무순 서변까지 관할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진의 요동군이 주변으로 얼마만큼 확장되었는지 검증하기 쉽지 않다. 다만 봉성 삼도만자(三道灣子), 관전 패방자(掛房子), 환인 사하촌(沙河村), 부(傳) 강계⁶⁸ 등과 같이 압록강변에서 진국 청동무기 여러 점이 보이는데, 군사 활동과는 관련 없는 매납유구 출토품이 대부분이어서 진통일기의 것으로는 보기 힘든 면이 있다. 특히 연국 화폐와 진국 동과가 공반되는 것은 무기 유통 체계가 엄격했던 진의 전략물자 관리체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⁶⁹ 진통일기의 자료들이 없지 않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진말한초 혼란기에 해당되는 자료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⁷⁰

요동군이 명확하게 재편되는 것은 전한 무제(武帝) 즉위 전후 무렵인데, 이때 요동군은 요중 주변 지역으로 확장되었다고 생각된다.⁷¹ 이와 관련하여 문헌 기록에는 시기별로 속현 수가 달리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즉, 요동군의 속현은 전한 말기에는 18개 현이 있었다고 하나,⁷² 전한 초기에는 요서군과 요동군을 합쳐 29개 현이 있었다고 한다.⁷³ 요동군의 속현들은 3~4개씩 구역별로 밀

67 『鹽鐵論』 卷8, 誅秦, “秦既并天下 東絕沛水 並滅朝鮮”.

68 藤田亮策·梅原末治, 1948,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養徳社.

69 李成珪, 1982, 「戰國時代 官營産業의 構造와 性格」, 『東方學志』 30.

70 이후석, 2022, 앞의 글.

71 서영수, 2008, 앞의 글.

72 『漢書』 卷28, 地理志 遼東郡, “秦置 屬幽州 戶五萬五千九百七十二 口二十七萬二千五百三十九 縣十八”.

집되어 있고, 천산 이서에서 14~15개 현이, 천산 이동에는 3~4개 현이 각각 비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요동군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요서군과 요동군의 속현들을 합쳐보면, 전한 초기에는 모두 29개지만, 전한



73 『史記』卷57, 絳侯周勃世家, “定上谷十二縣 右北平十六縣 遼西遼東二十九縣 漁陽二十二縣”. 여기에서 ‘漁陽郡’은 22개 현으로 표기하였으나, 5군 중에 가장 작은 규모이며, 전후에도 크게 증가했던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12개현의 오기라고 생각된다. 군현 서술 순서 또한 마지막이라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다(이후석, 2022,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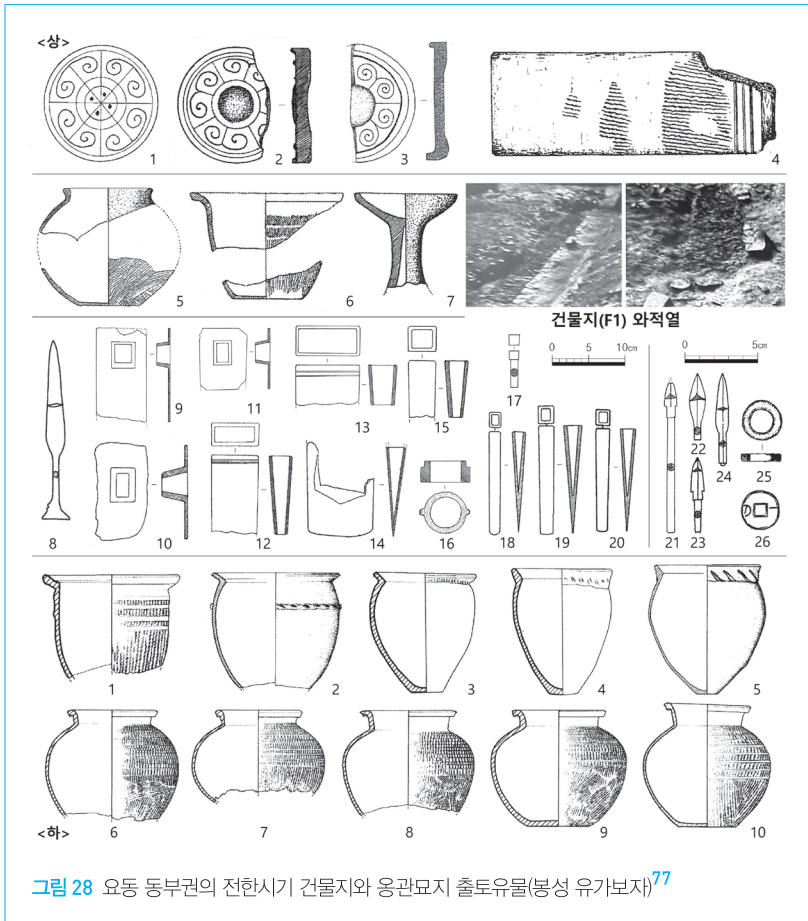
말기에는 도합 32개(요서 14개, 요동 18개)여서 이전보다 3개 현이 증가한다. 물론 이들 중에 요서군에 속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5군 중에 동서쪽의 가장자리 군이 아닌 어양군과 우북평군의 속현 수가 변동되지 않았기에 요서군의 속현 역시 크게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⁷⁴ 상곡군과 요동군의 속현 수가 증가했던 것은 해당 군이 각각 흉노와 위만조선을 상대했던 주요 변군으로 기능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이 국력 회복 후에 천산산맥 주변부를 다시 통제하는 과정에서 요동군의 속현 수가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림 27).⁷⁵

이와 관련하여 전한시기 요동군의 확장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중 서부권과 요남 남부권의 양쪽에서 확인된다. 먼저 요중 서부권은 전한 전기~중기 무렵 궁후리고성과 청장자고성의 운영시기 관계에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후성현의 귀속 관계 변화와도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한 중기 이후 신빈 영릉남성(永陵南城), 전한 후기 이후 상백관둔고성 등이 축조되는 것은 현도군이 무순 방면으로 교치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요남 남부권은 여순 목양성과 대령둔고성은 물론 주된 중원계통 분묘들이 전한 초기 이후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통해 짐작된다. 답지현의 치소라고 하는 장점고성 역시 그 주변에서 한묘군이 조영되는 것은 전한 전기 이후이며, 대규모의 분묘군이 조영되는 것은 전한 중기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대련 일대에는 전한 전기 이후 정체성이 바뀌었고, 군현지배가 점차 본격화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요동 동부권에서의 요동군의 확장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천산산맥 남동 방면으로 요동군의 속현 2~3개가 추가 설치되는 것과 관련된다. 주목되는 것은 요동군의 무차현과 관련되는 것으로도 지목되는 봉성 유가보자(劉家堡子) 유적이다(그림 28).⁷⁶ 봉성 유가보자 유적에

74 이후석, 2017, 앞의 글.

75 이후석, 2022, 앞의 글.



는 전국말~전한초 또는 전한 전기 단계 변형 연식 토기들이 공반되는 합구식용
관묘가 다수 조영되며, 전한 전기말~중기초 무렵에는 권운문원와당, 평기와 와

76 馮永濂·崔寶寬, 2010, 「鳳城劉家堡子西漢遺址發掘報告-兼論漢代東部都尉治武次縣址之地望」, 『遼寧考古文集』 2, 科學出版社.

77 馮永濂·崔寶寬, 2010, 앞의 글 및 徐政, 2018, 앞의 글, 도면 발췌.

적열 등이 확인되는 건물지와 이형 철모, 변형 주조철부 등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토착민과 유이민이 잡거하는 양상으로 추정되나, 나중에는 군현 거점으로 정체성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이해된다.⁷⁸

요동지역에는 전국 후기 이후 서한 중기 이전까지 중원계통 유이민이 계속 유입되었기에 요동 서부지역 외에 요동 동부지역에도 관련 유물들이 확인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다만 본계-단동 일대에는 전한 전기까지 토착계통과 중원계통의 물질문화가 복합 또는 공존하는 양상이었는데, 전한 중기 이후에는 중원계통으로 물질문화의 일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단동 일대에는 전한 중기 무렵부터 정체성이 바뀌었고, 군현지배 하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동지역 중원계통 물질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토성보다 묘제 확산 양상이다. 무엇보다 목곽묘가 주목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목곽묘

〈표 2〉 요동 서부지역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와 요동군의 변천

시기 구분	연대 (기원전)	중원문화 주요 요소			주요 특징
		토성	고분	부장토기	
요동 1기	전국 중기 (4세기경)		열에리	도제예기 한정	경제적인 상호작용 위주 (단독묘, 교역상인 거주?)
요동 2기	전국 후기 (3세기경)	요양구성(?) 공후리(?)	신광원 망수대 서왕자	도제예기 위주	정치적인 상호작용 개시 (단독묘, 거점 지배 시도) 요동군의 설치(요중서부)
요동 3기	전한 전기 (2세기 전엽 전후)	요양구성 공후리 청장자 목양성 대령둔	부영원 신성촌 아방 윤가촌 대반가촌	도제예기 생활토기 (옹관)	정치적인 상호작용 확대 (합장묘, 거점 지배 강화) 요동군의 재편·확장(요남)
요동 4기	전한 중기 (2세기 말엽 전후)	장점고성	아방 강둔·교둔 (영성자)	도제예기 생활토기	정치경제적인 상호작용 (묘지 확장, 토성 확대) 요동군의 확장 완성(요동)

78 이후석, 2022, 앞의 글.

는 연과 교류하는 전국시대부터 조영되나, 전한 초기 이후에는 요동군의 중심부에서는 단장묘와 함께 합장묘(이혈묘)가 확인되기 시작한다. 이후 전한 중기에는 요동군의 범주(변경 제외)에서 중원계통 목곽묘가 합장묘를 수반하여 널리 확산되는 것이 기본적인 변화 양상이다.⁷⁹

V. 맺음말

요동지역 초기철기문화는 전국~한초 중원계통 물질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원계통 물질문화 자료들이 집중 분포하는 요동 서부권의 초기철기문화에 대한 연구성과가 매우 한정되는 것은 중원계통과 토착계통의 물질문화가 복합되는 요동 동부권의 초기철기문화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즉, 초기철기시대 요동지역을 둘러싸고 요동군과 고조선은 서로 경쟁·교류하고 있으므로 요동지역에서 중원계통 물질문화의 확산과 변용 양상을 규명하는 것은 관련 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요동지역 중원계통 물질문화의 정착 과정과 요동군의 정립 과정은 일회적인 단기간의 사건보다, 단속적인 물적·인적 교류 과정 이후 정치경제적인 거점 설치를 거쳐 전면적인 지배 방식으로 전환되는 장기간의 역사문화 변동 과정으로 이해된다. 요동지역 중원계통 고고자료들이 요동 서부권역에서 동부권역으로

79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목곽묘가 전한 전기 이후 이혈합장 목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하고 전한 중기에는 장방형계 외에 방형계가 확인되기 시작한다. 이는 주변 지역에도 순차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위만조선에도 중원계통 주민들이 적지 않게 유입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장방형에 이어 방형 목곽묘가 등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만 서북한권에서 초기 목곽묘로 논의되는 것은 모두 방형 목곽묘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서북한권에는 연계 목곽묘로 연결되는 장방형 목곽묘가 위만조선시기에 먼저 등장하고, 한계 목곽묘와 관련되는 방형 목곽묘는 낙랑 설치 무렵 등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요동지역의 문화변동 흐름과도 합치된다.

확산되는 시공간적 분포 맥락으로 보면 『사기』 조선열전이나 흉노열전 등의 문헌 기록에서 요동군과 관련되는 도식적인 사건 전개와는 달리 요동군의 거점 설치 및 확장 과정은 점진적·과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물질문화는 요동군이 설치되기 전인 전국 중기 또는 기원전 4세기대부터 요중 서부권(심양~요양)에 처음 등장한다. 이는 토착문화(정가와자유형) 속에 일회적·단속적으로 확인되는 전국연계 분묘라는 것을 통해 고조선과 연의 물질·인적 교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요동지역의 중원계통 물질문화는 요동군이 설치되는 전국 후기 또는 기원전 3세기대에도 분포권이 한정되고 점진적인 확산 양상을 나타낸다. 거점 토성이나 전국연계 분묘들은 요동 서부권(심양~요양 및 대련 일대)에서는 일부 확인되나, 요동 동부권(본계~단동 일대)에서는 매우 제한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요동군이 설치되었으나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는 거점 지배 방식에 머물렀던 것을 보여준다.

이후 전국말~전한초 또는 기원전 2세기대 전엽 전후에는 요동 거의 전역으로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가 확산되어 유적 수가 급증한다. 다만 요동 서부지역, 즉 요중 서부권(요양~심양)과 요남 남부권(대련)에 집중되고, 요동 동부지역(본계-단동)에는 한정된다. 전한 초기 이후 요동 서부지역에는 중원계통 토성들이 축조되고 분묘 입지와 장법이 일부 달라지며, 소규모의 분묘군이 형성되어 계층화가 심화되는 면도 엿보인다. 이때 요동 동부지역에는 변새(邊塞)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소규모의 토성 외에 거점 토성이나 중원계통 전형 분묘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에는 연계 물질문화가 요동군의 외곽으로 널리 확산된다. 요동군의 거점 지배가 점차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중원계통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였다는 문헌 기록으로 보아 중원계통 물질문화는 요동군의 군현 지배와는 다른 맥락으로 확산된 것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중원계통 물질문화가 요동군의 거의 전역으로 확장되는 전한 전기말~중기초 무렵 또는 기원전 2세기대 후엽부터 물질문화는 크게 변모한다. 요동 서부지역 중심으로 토성들이 다수 축조되고, 대규모의 한묘군이 조영되는 것이 확인된다. 요동 동부지에도 군현 거점 토성으로 볼 수 있는 유적들이 확인되나, 분묘

군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에는 한식 철기문화가 요동 외곽 지역까지 확산된다. 요동군이 요동 거의 전역으로 확장되더라도 변경지역까지 중원문화가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것은 요동군의 변경까지 관철되는 직접 지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요동지역 초기철기문화는 중원계통 물질문화의 확산 맥락이나 요동군의 설치 및 재편·확장 과정 측면에서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전국시대 요동군의 설치 이전에는 요중 서부권에 한정되는 단속적인 물적·인적 교류 중심이며, 전국 후기 요동군의 설치 이후에도 요중 서부권의 거점 지배 방식으로 한정된다. 전한 전기 무렵에는 요동군이 재편되어 요남 남부권을 중심으로 확장되며, 전한 중기에는 요동군이 요동 동부권으로도 확장되어 지배력이 강화되었으나, 변경 지배에는 많은 한계 또한 있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미야자토 오사무,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戰國秦漢時代の遼東郡と牧羊城」
三宅俊成, 1933, 『大嶺屯城址：漢及漢以前之遺蹟』, 滿洲文化協會.
리순진·장주협, 1973, 『고조선문제연구』, 사회과학출판사.
박대재, 2014,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개정판).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출판사.
박진옥, 1988, 『조선고고학전서(고대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안즈민 지음, 강인옥·정지호 번역, 2024, 『안즈민 일기』, 주류성.
王綿厚·李健才 지음, 동아시아교통사연구회 옮김, 2020, 『고대 동북아시아 교통사』, 周留城.
劉俊勇 著, 崔茂藏 譯, 1997, 『中國大連考古研究』, 學研文化社.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 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郭富純·趙錫金 主編, 2010, 『大連古代文明圖說』, 吉林文史出版社.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93, 『瀋陽市文物志』.
吳啓軍, 2014, 『燕下都瓦當』, 古宮出版社.
遼寧省文物局 編著, 2017, 『遼寧省燕秦漢長城資源調查報告』,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3, 『姜屯漢墓』(上/下), 文物出版社.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西豊西岔溝：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鄒寶庫, 2012, 『遼陽考古紀略』, 遼寧民族出版社.
邢爰文, 2009, 『遼陽博物館 館藏精品圖集』, 遼寧大學出版社.

- 大貫靜夫 編, 2007,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平成16年度～平成18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研究成果報告書.
- 東亞考古學會 編, 1929, 『貔子窩-南滿洲碧流河畔の先史時代遺蹟-』, 東方考古學叢刊 甲種第一冊.
- _____, 1931, 『牧羊城-南滿洲老鐵山麓漢及漢以前遺蹟』, 東方考古學叢刊 甲種第二冊.
- _____, 1933, 『南山裡-南滿洲旅順老鐵山麓漢代軛墓』, 東方考古學叢刊 甲種第三冊.
- 三宅俊成, 1933, 『大嶺屯城址: 漢及漢以前之遺蹟』, 滿洲文化協會.

- Renfrew, C., 1984, *Approaches to Social Archaeolog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Rouse, I., 1986, *Migrations in Prehistory: Inferring Population Movement from Cultural Remain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Wells, S. P., 2001, *Beyond Celts, Germans and Scythians: Archaeology and Identity in Iron Age Europe*, London: Duckworth.

논문

- 權五重, 2000, 「滄海郡과 遼東 東部都尉」, 『歷史學報』 168.
- 김기민, 2023,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영역 변천과 진번의 이동」, 『한국사연구』 200.
- 김병준, 2013, 「秦漢帝國의 이민족 지배」, 『歷史學報』 217.
- 김상민, 2017, 「요령지역 철기문화의 전개와 한반도의 초기철기문화」, 『東北亞歷史論叢』 55.
- 김용성, 2008, 「요동·현도군의 한묘」,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김장석, 2002, 「이주와 전파의 고고학적 구분: 시험적 모델의 제시」, 『韓國上古史學報』 38.
- 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52.
- 金柱昊, 2017, 「中國東北地域 鐵器의 流入과 發展」, 『湖南考古學報』 57.

- 노태돈, 200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 배진영, 2008, 「한대 요동군의 군현 지배」,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배현준, 2017, 「春秋戰國시기 燕文化의 중국동북지역 확산 및 토착집단과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87.
- _____, 2020, 「연계 초기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 I - 선원사시대편』,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4, 「세형동검문화기 요양지역 소위 ‘연’ 무덤의 출현과 그 배경」, 『學林』 53.
- 서영수, 2008,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徐政, 2018, 「요령지구 전국 진한시기 용관묘의 기초적 연구」, 『중국고고학특강』 12, 울산문화재연구원.
- 宋眞, 2014,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韓國古代史研究』 76.
- 吳江原, 2011, 「기원전 3세기 遼寧 地域의 燕나라 遺物 共伴 遺蹟의 諸 類型과 燕文化와의 관계」, 『韓國上古史學報』 71.
- 윤용구, 2008, 「현도군의 군현 지배와 고구려」,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이광명, 2019, 「전국 시기 연의 요동 진출 연구」, 부경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李南珪, 2002, 「韓半島 初期鐵器文化의 流入 樣相-樂浪 설치 以前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30.
- 李成珪, 1982, 「戰國時代 官營産業의 構造와 性格」, 『東方學志』 30.
- _____, 2005, 「中華帝國의 팽창과 축소 : 그 이념과 실제」, 『歷史學報』 186.
- 李盛周, 2009, 「族長墓와 ‘國’의 成立」, 『21세기 한국고고학』 II, 주류성.
- 이종수, 2014, 「요하 평원지역 ‘燕 유적’의 특징과 사용집단에 대한 재검토 - 연 유이민 집단 물질문화와 관련하여 -」, 『동북아역사논총』 44.
- 이청규, 2014, 「遼東·西北韓의 初期鐵器文化와 衛滿朝鮮」, 『동북아역사논총』 44.
- 이후석, 2014, 「遼東~西北韓地域의 細形銅劍文化와 古朝鮮」, 『동북아역사논총』 44.
- _____, 2017, 「고고자료를 통해 본 만변한: 전국시대 고조선과 연의 경계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57.
- _____, 2020, 「요동지역의 후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 - 선원사시대편』,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2, 「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과정 - 세형동검문화 네트워크에서 흉노와의 교류까지」, 『고고학』 21-1.

_____, 2023,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 요동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82.

_____, 2025, 「고조선의 물질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탐색 - 단경식동검문화와 고조선 시대론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탐구』 51.

이후석·조견미·최정훈, 2023, 「2023년 중국 요동지역 답사」, 『2023년 고조선과 유라시아 유적 조사 및 답사의 최신성과』, 제19회 학술회의,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학연구소.

李熙濬,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嶺南考古學』 58.

鄭仁盛, 2014, 「연식토기문화의 확산과 후기고조선의 토기문화」, 『白山學報』 100.

조원진, 2021, 「고대 진변의 변천 연구」, 『先史와 古代』 66.

조진선, 2020, 「재지계 초기철기문화」,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 I - 선원사시대편』, 동북아역사재단.

金殿士, 1959, 「瀋陽市南市區發現戰國墓」, 『文物』 4.

東北博物館, 1957, 「遼陽三道壕西漢村落遺址」, 『考古學報』 1.

穆啓文, 2009, 「遼陽新城戰國墓發現與研究」, 『遼寧省博物館館刊 (2009)』, 遼海出版社.

三宅俊成, 1997, 「大嶺屯城址의 考察」, 『考古學文化論集』 4.

徐家國·劉兵, 1996, 「遼寧撫順市發現戰國青銅兵器」, 『考古』 3.

許志國, 2009,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再探」, 『遼寧省博物館館刊 (2009)』, 遼海出版社.

旅順博物館, 1980, 「旅大市新金縣後元臺發現銅器」, 『考古』 5.

王綿厚, 2014, 「瀋撫交界處“青樁子”古城의 新發現의 考古學意義-兼論秦漢遼東郡“中部都尉”與“侯城縣”的關係」, 『東北史地』 1.

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遼寧省博物館·遼陽博物館, 2019, 「遼陽鵝房漢代墓地 1954年,1955年發掘簡報」, 『中國國家博物館館刊』 9.

劉長江, 2010, 「瀋陽宮后里遺址及相關發現」, 『遼寧考古文集』 2.

劉俊勇, 1995, 「遼寧大連大潘家村西漢墓」, 『考古』 7.

李智裕, 2018, 「遼陽博物館藏秦國有銘矛」, 『考古與文物』 1.

- 李智裕·金巖·唐仁子, 2011, 「遼陽地區出土的兩件漢墓刻銘銅器淺議」, 『文物春秋』 1.
- 李曉鐘, 2007, 「瀋陽地區戰國秦漢考古初步研究」, 『瀋陽考古文集』 1.
- 張喜榮, 1997, 「臺安白城子戰國遺址出土器物簡介」, 『遼海文物學刊』 1.
- 張翠敏·姜寶憲, 2013, 「大連地區漢代城址考辨」, 『遼寧省博物館館刊 (2012)』, 遼海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1996, 「尹家村」, 『雙砬子與崗上』, 科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安志敏·鄭乃武), 1989, 「瀋陽肇工街和鄭家窪子遺址的發掘」, 『考古』 10.
- 馮永謙·崔寶寬, 2010, 「鳳城劉家堡子西漢遺址發掘報告-兼論漢代東部都尉治武次縣址之地望」, 『遼寧考古文集』 2, 科學出版社.
- 鄒寶庫·盧治萍·馬卉, 2017, 「遼寧遼陽市徐往子戰國墓」, 『考古』 8.
- 古澤義久, 2010, 「中國東北地方·韓半島西北部における戰國·秦·漢初代の方孔圓錢の展開」, 『古文化談叢』 64.
- 宮本一夫, 2000, 「戰國燕の擴大」,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 _____, 2012, 「樂浪土器の成立と擴散-花盆形土器を中心として」, 『史淵』 149.
- 吉本道雅, 2008, 「東胡考」, 『史林』 91-2.
- 大貫靜夫, 2007, 「戰國秦漢時代の遼東郡と牧羊城」,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 石川岳彦, 2001, 「戰國期における燕墓葬について」,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16.
- _____, 2011, 「青銅器と鐵器普及の歴史的背景」, 『彌生文化の考古學3』(多樣化する 彌生文化), 同成社.
- Kristiansen, K., 1989, Prehistoric Migrations - the Case of the Single Grave and Corded Ware Cultures, *Journal of Danish Archaeology* 8: 211~225.

요동지역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 탐색

— 요동군의 확장 맥락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

이후석

요동지역 초기철기문화 정립 과정은 요동군(遼東郡)과 관련되는 중원계통 물질 문화의 정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초기철기시대(기원전 3~2세기) 요동지역에서 확인되는 중원계통 물질문화 자료들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의 확산과 변용 양상을 요동군의 설치와 확장 맥락에서 규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연구 목적이다.

요동지역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묘제 또는 유물에만 한정되는 경향인데, 이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종합적인 연구 성과가 적은 탓도 있겠지만, 이에 더해 한중일 학계 간의 자국 중심적인 연구 경향 탓도 적지 않다. 요동지역은 한국사의 시작으로 인식되는 ‘고조선’과 중원국가의 동방 변군을 대표하는 ‘요동군’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이다. 요동지역 고조선과 요동군에 대한 연구들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에 더욱 천착하며, ‘역사적 연고권’의 관점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요동지역 중원계통 물질문화의 정착 과정과 요동군의 정립 과정은 일회적인 단기간의 사건보다, 단속적인 물적·인적 교류 과정 이후 정치경제적인 거점 설

치를 거쳐 전면적인 지배 방식으로 전환되는 장기간의 역사문화 변동 과정으로 이해된다. 요동지역 중원계통 고고자료들이 요동 서부권역에서 동부권역으로 확산되는 시공간적 분포 맥락으로 보면 『사기』 조선열전이나 흉노열전 등의 문헌 기록에서 요동군과 관련되는 도식적인 사건 전개와는 달리 요동군의 거점 설치 및 확장 과정은 점진적·과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요동지역 초기철기문화는 중원계통 물질문화의 확산이나 요동군의 설치 및 확장 맥락에서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원전 4세기대에는 요동군이 설치되기 전에 요중 서부권에 한정되는 단속적인 교류 중심인데, 물적 교류외에 인적 교류까지 확인되는 것이 주목된다. 둘째, 기원전 3세기대에는 요동군이 설치되었으나, 요중 서부권의 거점 지배 방식으로 한정된다. 일부 토성이나 분묘만 단독으로 소량 확인되고 있어 상호작용은 매우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원전 2세기대 전엽 전후에는 요동지역 주변 지역으로 연계 물질문화가 널리 확산된다. 요중 서부권의 거점 지배 또는 상호작용이 강화되어 요동군의 재편되었으나, 전면적인 확장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넷째, 기원전 2세기대 후엽 이후에는 요동 거의 전역으로 직접 지배가 강화되어 요동군이 더욱 확장된다. 한식 철기문화가 군현 외곽까지 널리 확산되나 변경지역 직접 지배에는 많은 한계 역시 있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요동지역, 중원계통, 초기철기문화, 요동군(遼東郡), 연(燕), 한(漢)

ABSTRACT

The Study on the Zhongyuan-style's Early Iron Age Culture of Liaodong Region: Archaeological Perspective of the Expansionary Context of Liaodong Commandery

Yi Huseok

The establishment of the Early Iron Age culture in the Liaodong region can be defined as the process by which Central Plains-style material culture, associated with Liaodong Commandery (遼東郡), took root.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atterns of diffusion and transformation of Central Plains culture—specifically from the Warring States period to the early Han dynasty—within the context of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Liaodong Commandery.

The settlement of Central Plains-style material culture and the establishment of Liaodong Commandery are understood here not as a single, short-term event, but as a long-term process of socio-cultural change. This process evolved from intermittent material and human exchang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tico-economic hubs,

eventually transitioning into full-scale administrative control.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archaeological data—moving from western to eastern Liaodong—suggests that the installation of outposts and the expansion of the commandery were gradual and procedural. This contrasts with the schematic narrative of events related to Liaodong Commandery found in literary records such as the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Shiji).

Accordingly, the Early Iron Age culture of the Liaodong region can be divided into four stages based on the diffusion of Central Plains material culture and the expansion of the commandery:

Stage I: Characterized by intermittent exchange limited to the western part of central Liaodong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andery. Notably, this included both material and human exchange. Stage II: Liaodong Commandery is established, but governance is limited to specific hubs in western central Liaodong. Interaction was minimal, as evidenced by a small number of isolated earthen fortifications and tombs. Stage III: Interaction and hub-based governance in western central Liaodong were strengthened and reorganized, though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constituted full-scale expansion. Stage IV: Direct rule is strengthened across almost the entire Liaodong region, marking the full expansion of the commandery. While Han-style iron culture spread to the peripheries of the commandery and prefectures, direct administrative control still faced limitations in the frontier regions.

Keywords: Liaodong Region, Zhongyuan-style, Early Iron Age Culture, Liaodong Commandery, Yan State, Han Dynasty

길림 중부의 초기철기문화

— 포자연문화의 성립 과정 고찰

배현준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포자연문화의 설정 과정
- III. 포자연문화의 내용
- IV. 포자연문화 형성의 주요 배경 문화
- V. 포자연문화의 성립 과정
- VI. 맺음말

I. 머리말

길림 중부지역은 부여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4·3세기까지는 청동기문화인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가 존재했고, 기원전 2세기 초반부터 새로운 고고학문화인 포자연문화(洮子沿文化)가 출현한다. 서단산문화에서 포자연문화로 전환되는 기원전 3~2세기 길림 지역에는 기존 서단산문화의 석관묘(石棺墓) 전통이 사라지고 토광목곽묘(土壙木槨墓)가 주요 무덤 양식으로 등장하며, 이후 중원 한문화(漢文化)의 영향과 흉노·선비 등 북방초원문화가 다량 확인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물질문화적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외부 문화요소는 서단산문화와 결합하여 기원전 2~1세기경에는 현재 우리가 부여문화라고 일컫는 포자연문화가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 그리고 늦어도 기원전후한 시기부터는 유수(榆樹) 노하심(老河深) 중층 고분군 등의 유적이 대체로 기원후 1~2세기 대까지 부여문화를 대표한다.²

어쨌든 기원전 2세기 대의 부여문화를 대표하는 포자연문화 단계부터는 재지의 서단산문화보다는 흑룡강 서남부지역의 한서문화(漢書文化) 후기단계 요소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며, 동시에 요동 북부와 길림성 접경지대의 보산문화(寶

* 투고: 2026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6년 5월 11일, 게재 확정: 2026년 5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5-기획연구-13)로 수행된 연구임.

1 吳江原, 2000, 「中滿地域의 初期鐵器文化 洮子沿式文化의 成立과 展開樣相」, 『第24回 韓國上古史學會 學術發表大會文集: 轉換期の 考古學 III-歷史時代의 黎明-』, 韓國上古史學會; 이승호, 2018, 「부여 정치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이종수, 2013, 「松花江유역 初期鐵器文化의 변천과 夫餘文化 성립과정 고찰」, 『동양학』 53.

山文化) 요소와 서풍(西豊) 서차구(西岔溝) 고분군 요소 역시 확인된다.³ 이러한 주변 지역과의 관계는 포자연 전산(泡子沿前山) 상층 유적의 출현, 노하심 중층 고분군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⁴

그러나 한서문화와 보산문화와 포자연문화의 관련성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서차구 고분군과의 관계는 다소 축소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포자연문화의 형성과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기원전 4~3세기에는 길림 중부 및 흑룡강 서남부지역의 초기철기문화에 활발한 교류와 변동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포자연문화의 형성 배경을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그런 후 노하심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기원전후의 원주형(圓柱形) 동병철검(銅柄鐵劍) 및 장신구 등 다수의 북방계 유물이 포함되는 유적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기원전 1세대의 상황을 기원전 2~1세기 서차구 고분군과의 관련성 속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즉, 이 글은 기원전 4~3세기와 기원전 2~1세기를 시간 범위로 하며, 공간 범위는 길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흑룡강 서남부와 요길 접경지대를 아우를 것이다. 다만, II장에서는 현재 포자연문화의 내용을 학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점들이 있어, 먼저 포자연문화라는 용어의 출현과 설정 과정을 정리하여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정립된 개념 위에서 포자연문화의 문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일괄하고, IV장에서 포자연문화 형성의 주요 배경이 되는 주변 문화를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V장에서는 포자연문화의 성립 과정을 고찰해본다.

3 오강원, 2018, 「서풍현(西豊縣) 서차구(西岔溝) 고분군의 문화적 성격과 계통 - 토기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8.

4 이종수, 2013, 앞의 글.

II. 포자연문화의 설정 과정

포자연문화의 중심지인 길림 중부지역은 1910년대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문물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1930년대 길림시 소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이문신(李文信)이 독자적으로 동단산(東團山)에 대한 문물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는 동단산에서 성벽과 유물을 발견하고, 동단산 남성벽 바깥의 남성자(南城子)에서는 토축 성벽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성이 ‘처음에는 예성(穢城)으로 사용되었고, 이후에 부여왕국 전기 왕성의 궁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한 여기서 출토된 승문토기편, 백색토기편, 화문(花文) 토기 등은 한 나라의 유물이기에 이곳에 한족이 거주했던 대형 취락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동단산 인근 모아산(帽兒山) 고분군 출토품에서 북방 유목민족의 특징이 강하게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토착민족(土民族)인 부여족이 흉노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⁵

1945년 이후부터 1960년대에 걸쳐 길림, 장춘 일대에 여러 고고학조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1960년에는 길림성 각 현의 문물지를 편찬하기 위해 길림성 전역에 대한 대규모의 문물조사가 이루어져 30여 곳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⁶

이러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장충배(張忠培)는 1963년 길림시와 그 주변의 선사문화를 ‘문화1, 문화2, 문화3’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문화1은嫩江(嫩江) 유역의 ‘세석기문화’와 유사함을 지적하였으며, 문화2는 서단산문화와 관련된 것을 지적하였다. 이때 소달구(騷達溝), 토성자(土城子), 장사산(長蛇山) 등지에서 청동기가 출토된 것을 근거로 이 시기가 청동기시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5李文信, 1946, 「吉林省附近之史跡及遺物」, 『歷史與考古』第1號(沈陽博物館에서 1946年 10月 출판한 내부 자료)(董學增, 2010, 「夫餘文化遺存的發現, 基本面貌及命名之我見」, 『東北史地』2010-4에서 재인용).

6이종수, 2001, 「길림성 중부지역 초기 철기시대 문화유적 연구」, 『백제문화』 30, 51~52쪽.

였다. 문화3은 길림시 교외 송화강 동안에 주로 분포하는데, 동단산, 모아산, 호가분산(胡家墳山), 포수구자(炮手口子), 구개산(龜蓋山), 용담산(龍潭山), 북산(北山), 포자연 전산(泡子沿前山) 등 유적에서 이루어진 지표조사를 통해 해당 문화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그는 이 문화3의 토기가 모두 홍갈색을 띠며 거친 모래가 포함되었고 표면에 마연이 주로 확인되는 점과 토기 제작 기술이나 일부 기물의 형태적 특징에서 문화3이 문화2를 계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⁷ 여기서 문화1은 신석기시대, 문화2는 청동기시대, 문화3은 초기철기시대로 이해된다.⁸

이후 1970년대에는 길림지역의 주요 초기철기시대 유적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영길(永吉) 양둔(楊屯) 대해맹(大海猛) 유적, 학고동산(學古東山) 유적, 동단산, 농안(農安) 전가타자(田家坨子) 유적, 화전(樺甸) 서황산둔(西荒山屯) 묘지, 반석(盤石) 이수상둔(梨樹上屯) 서산(西山) 유적 등에 대한 시굴 또는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⁹ 이 중 1973년에 진행된 동단산 남성자성지 동부의 시굴조사에서는 하층에서 서단산문화의 석기, 토기가 확인되었고, 상층에서는 소량의 서단산문화 유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非)서단산문화 유물과 한문화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층의 유물은 다량의 무문 갈색, 회색 협조사(夾粗砂, 거친 모래가 혼입된 태토) 토기편이 확인되었는데, 크고 작은 환상이(環狀耳, 고리형 파수), 주상두(柱把豆·柱柄豆, 공심·실심의 기둥형 병부를 가진 두)가 있으며, 특히 흑색 슬립이 입혀진 두의 병부가 가장 특징적이다. 그 외에도 료제로 성형된 회색 니질 토기편, 다수의 구연부, 파수, 승문토기편, 증(甗) 저부, 발(鉢), 두,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¹⁰

7 張忠培, 1963, 「吉林省郊古代遺址的文化類型」,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1963-1(해당 글에 사진이나 도면은 거의 제시되지 않아, 장충배의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어려운 실정이다).

8 董學增, 2010, 앞의 글, 4쪽.

9 이종수, 2001, 앞의 글, 52쪽.

10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 『吉林省郊區文物志(內部資料)』[董學增, 2010, 앞의 글에서 재인용. 동학증은 이러한 양상을 통해 남성자 내부에는 처음에 예인(穢人)이 살았고, 후에 부여인과 한족이 살았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1980년에는 서란(西蘭) 황어권주산(黃魚圈珠山)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1980~1984년에 걸쳐 길림 덕혜(德惠), 구대(九臺), 쌍양(雙陽) 등 음마하(飲馬河)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문물조사를 실시하여 초기철기 시대 유적들이 발견되었다.¹¹ 한편, 1980~1981년에는 유수시(榆樹市) 대파향(大坡鄉) 노하심 고부군이 발굴되었다. 이 유적에는 3개의 각기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하층에서는 서단산문화의 주거지, 중층에서는 한대(漢代) 무덤 129기[무덤 128기, 마두갱(馬頭坑) 1기], 상층에서는 말갈시기의 토광묘와 석광묘(石曠墓) 34기가 조사되었다.¹² 이후 1982년 길림성문물국에서 길림시 용담구(龍潭區)에 위치한 포자연 전산 유적과 무덤에 대한 구제성 발굴을 진행한다. 여기서 서단산문화 주거지 4기, 석관묘 11기, 옹관묘 2기를 조사하였으며, 서단산문화층 주거지의 상부 퇴적층에서 출토된 토기 호와 관은 서단산문화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대체로 장춘배가 제시한 ‘문화3’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¹³ 그 외에도 왕가타자(王家坨子) 묘지, 북령(北嶺) 묘지, 량자구(亮子溝) 묘지, 서칠도천자(西七道泉子) 유적 등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¹⁴ 1986년에는 농안(農安) 형가점(邢家店) 북산(北山), 공주령(公主嶺) 후석(猴石), 1988년에는 장춘(長春) 석비령(石碑嶺), 1989년에는 구대 석립산(石砬山), 관마산(關馬山), 1995년에는 구대 동가(董家)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외 동단산 유적 채집 유물은 董學增(1982)에 소개되어 있다(董學增, 1982, 「吉林東團山原始·漢·高句麗·渤海諸文化遺存調查簡報」, 『博物館研究』 創刊號).

- 11 吉林省文物工作隊, 1986, 「吉林省飲馬河沿岸古文化遺存狄村調查簡報」 1986-9; 이종수, 2001, 앞의 글.
- 12 張英·王俠·何明, 1985, 「吉林榆樹縣老河深鮮卑墓群部分墓葬發掘簡報」, 『文物』 1985-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당시는 중층 무덤을 선비(鮮卑)무덤으로 인지하였다].
- 13 吉林市博物館, 1985, 「吉林市泡子沿前山遺址」, 『考古』 1985-6.
- 14 이종수, 2001, 앞의 글.

이처럼 1980년대는 길림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왕성하게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의 고고학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러한 배경 위에서 포자연 전산 유적을 발굴한 장립명(張立明)은 1986년 길림 포자연 전산 유적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유적을 총괄해서 서단산문화와 구별되는 ‘포자연유형(泡子沿類型)’이라는 명칭을 제시한다.¹⁵ 그는 포자연유형의 특징으로 토기가 기본적으로 협조사 계통이며, 무문에 표면 마연이 발달하고, 색조는 흑색과 홍색이 많은 점을 들었다. 그리고 토기 조합에서 삼족기가 없고, 주상두가 다수를 점하는 점, 기형이 크고 경부가 내만(內彎)하다 구연부에서 외경(外侈)하며 동체에 환상파수가 부착된 호, 구연부가 외경 또는 점토대가 부착된 관 등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특징이 장충배의 ‘문화3’과 동일한 문화 특징이라고 이해하였다.¹⁶

포자연유형의 주요 유적으로는 기존에 문화3으로 언급된 유적 외에도 소달구, 마안산(馬鞍山), 관지(官地), 양둔 대해맹, 중사(中沙) 포가후산(包家後山)을 언급하였다. 포자연유형의 분포는 길림시가 포자연유형의 중심지이며, 제2송화강 중하류 장춘지역의 덕혜, 유수, 구대, 쌍양, 제2송화강 상류의 휘발하(輝發河) 유역에서도 포자연유형과 관련된 유적(유물산포지 포함)이 다수 확인된다고 하였다.¹⁷ 한편, 혼강(渾江) 유역에서도 거친 사립이 혼입된 공심의 두형토기(有

15 張立明, 1986, 「吉林泡子沿遺址及其相關問題」, 『北方文物』 1986-2.

16 비록 서단산문화에도 두형토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토기 조합의 주류를 이루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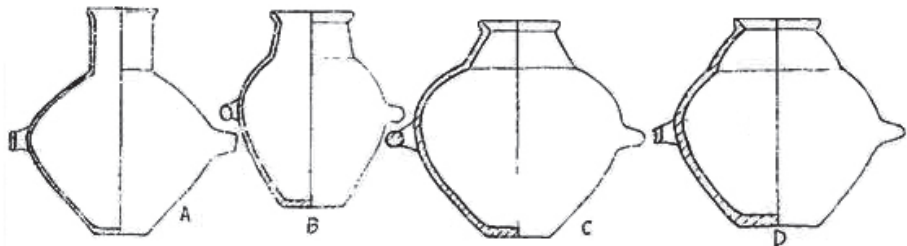
17 장립명이 포자연유형에 휘발하 유역을 언급한 것은 홍봉(洪峰, 1985)의 글을 참조한 것이다. 그러나 홍봉은 휘발하 상류와 휘발하 하류의 문화 양상을 구분하고 있다. 그가 언급한 휘발하 상류의 유적 중 유물이 제시된 주요 유적은 동풍(東豐) 마포포(馬炮鋪) M1, 동풍 고산둔(靠山屯), 동풍 대가산(大架山), 동풍 보산(寶山), 동풍 영벽(影壁) 동산(東山), 해룡(海龍) 화수(樺樹), 해룡 근가구(靳家溝), 해룡 길상(吉祥), 해룡 영안(永安) 유적 등이 있다(해당 논문의 도2). 이 유적들의 토기는 기본적으로 수제의 조사갈도(粗砂褐陶)이며, 두(豆), 관(罐), 호(壺)와 일부 소형 기물인 완(碗), 발(鉢)이 있다. 구연을 이중으로 조성한 토기편, 장경호, 실심·공심 장각두가 특징적이다. 문양은 획문(劃文), 착점문(戳點文), 파수는 유정이(乳丁

柄柱把豆), 단면 원형의 대형 환상 파수 등의 포자연유형 요소가 확인되지만, 이는 장기간에 걸쳐 넓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일 뿐 단순히 해당 요소만을 근거로 혼강 유역까지 포자연유형의 분포범위로 넣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즉, 전체적인 문화양상 속에서 포자연유형의 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일부 공통된 요소가 보인다고 해서 모두 동일 문화권으로 묶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포자연유형은 결국 대체로 제2송화강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포자연유형의 호는 서단산문화의 호, 노하심 중층 고분군의 호와 형태적으로 변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서단산문화(A형 호)-포자연유형(B형 호)-노하심 중층 고분군(C, D형 호)의 상대순서를 설정하였다(그림 1). 포자연유형에서는 철기와 함께 한대 토기(漢陶)가 공반되므로 대부분 전국-전한시기의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1980년대에 이르러 장충배가 제시한 서단산문화 이후에 해당하는 문화3이 포자연유형으로 치환되는 개념상의 전환이 발생한다. 그러나 문화3에는 사실 서단산문화 이후 새롭게 출현한 다양한 문화유형이 포함되는데, 이들 문화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미진한 상황이었다. 가령 장립명이 사제로 든

耳), 일자형 니조이(泥條耳)부터 비교적 큰 판이(扳耳), 유이(瘤耳), 교상이(橋狀耳), 환상이(環狀耳) 등이 다양하게 확인된다. 무덤은 3~5개 혹은 십수 개가 무리를 이루는 편이다. 기본적으로 ‘석봉(石棚)’과 ‘석개(石蓋)’의 돌을 이용한 무덤이 유행한다. 매장 방식은 2인장(雙人葬)과 다인합장(多人合葬)이 유행한다. 휘발하 상류와 휘발하 하류 문화3의 양상은 토기 재질이나 기종, 일부는 특정 기형에서도 매우 유사하지만, 휘발하 상류는 문화3의 권연(卷沿) 또는 절연(折沿)의 고복관(鼓腹罐)이 없으며, 다공증(多孔甗)은 확인되지 않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아직 주변 지역의 문화면모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휘발하 상류의 원시 문화를 별도의 문화유형으로 간주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洪峰, 1985, 「吉林省輝發河上遊地區原始文化簡析」, 『北方文物』 1985-3). 현재 한국학계에서는 이 지역의 고고학문화를 서황산둔유형(西荒山屯類型)에 포함시키거나(오강원, 2007, 「西團山文化和吉林中部地域初期鐵器文化諸類型間的文化的相關關係」, 『진단학보』 104), 보산문화에 포함시키고 있다(李鍾洙, 2005, 「松花江流域初期鐵器時代文化研究Ⅱ-西荒山屯古墳群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22).



A, 長蛇山62F3③:56 B, 泡子沿F3①:1 C, 老河深M58:25 D, 老河深M56:88

그림 1 포자연유형 호 변천도(장립명, 1986)

휘발하 유역의 포자연유형은 대체로 현재의 보산문화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때의 포자연유형 분포 범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포자연유형의 주요 시간대를 전한시기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당시 이미 발굴된 노하심 중층 고분군과는 구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후 임운(林潤)은 1993년 노하심 고분군을 분석하면서 노하심 중층 유존, 즉 노하심2기문화(또는 동단산문화(東團山文化))는 장충배의 문화3에 해당하며, 이는 곧 부여문화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¹⁸ 그리고 노하심2기문화의 토기는 단면 원형의 횡방향 교상이(橋狀耳)가 부착된 호, 관, 완, 두 등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류의 토기 출토 유적으로 영길 학교동산, 길림 포자연 전산, 농안 전가타자 유적 등을 거론하고 있어 대체로 장립명이 제시한 포자연유형에 노하심 중층 유존을 추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노하심 고분군이 부여문화 중 정식 발굴이 이루어지고 조사된 유구와 유물이 풍부하므로 이를 대표 유적으로 선정하여 노하심2기문화로 명명한 것이고, 제일 먼저 발견된 유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단산 유적을 대표 유적으로 선정하여 동단산문화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18 林潤, 1993, 「西岔溝銅柄鐵劍與老河深、彩蘭墓地的族屬」, 『馬韓百濟文化』 13; 林潤, 1998, 「西岔溝銅柄鐵劍與老河深、彩蘭墓地的族屬」, 『林潤學術文集』, 中國大百科全書.

한편, 1993년 교량(橋梁)은 길림, 장춘지역에 대한 서단산문화 이후의 문화 유형에 대해 종합적인 정리를 시도한다.¹⁹ 그는 서단산문화 소멸 이후, 서단산 문화 분포 지역에서 연대가 비슷하지만 문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는 다양한 문화 유형이 병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고고학문화를 甲(포자연 유형), 乙(황어권주산 M1 등 유존), 丙(형가점묘지 등 유존), 丁(전가타자유형), 戊(‘한도(漢陶)’ 유존) 총 5개의 문화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포자연유형의 분포 범위는 기본적으로 서단산문화의 분포 범위와 중복되며, 우수 노하심 중층 고분군은 토기 호, 관, 두, 발 등의 토기류에서 유사성이 매우 강하기에 포자연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도’ 유존의 문화요소는 포자연유형의 유적에서도 보이지만, ‘한도’ 유존은 중원문화 집단이 남긴 것이고, 포자연유형은 서단산문화와 일정한 계승 관계가 있는 토착문화 집단이 남긴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노하심 중층 고분군에도 한문화 요소가 확인되지만 시종일관 독자성을 지키고 있으며 특히 일상용 토기에서 한문화와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⁰ 포자

19 橋梁, 1993, 「吉長地區西團山文化之後的集中古代遺存」, 『遼海文物學刊』 1993-2.

20 학교동산이나 양둔 유적 등에서도 한대 수혈에 재지의 협사도가 출토된다. 이는 중원문화가 이 지역까지 도달했지만 그렇다고 토착문화가 중원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최근 중원문화의 영향을 강조하는 중국학계의 견해와 달리 오히려 토착문화의 독자성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원문화를 의미하는 한도유존을 제외한 나머지 4 유형의 토기는 모두 협사갈도가 주를 이루고, 무문이며, 수제로 제작되었다는 점, 기종에 관, 호, 두, 발이 포함되고, 류상이(瘤狀耳)가 비교적 유행하며 횡교상이(橫橋狀耳)가 대다수를 이룬다는 점의 공통점이 있다. 교량이 구분한 포자연유형 외 토착의 문화유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가타자유형은 서단산문화 계통이지만 한서1기문화와 접경하는 지리적 요인으로 한서1기문화의 홍의도, 승문, 비점문(毚文) 등의 요소가 확인된다.
- ② 황어권주산 M1은 기본적으로 포자연유형의 분포범위 안에 위치하며, 서황산을 제외하고는 영세한 무덤 유존 정도만 확인된다. 석축묘를 쓰고, 화장이 유행하며 명기를 부장하는 점에서 다른 유존들과는 차이가 크다. 서단산문화와는 석축묘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외는 관련성이 적다. 황어권주산M1유형의 특징은 현지나 주위 인접 지역의 동시기 다른 문화 유존들이 복합되는 현상을 들

연 상층 유적은 전국후기~전한시기, 노하심 중층은 전한후기~후한시기로 편년하고, 포자연유형의 전체 시간 범위는 대체로 전한~후한시기에 해당하며 문헌의 부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학계에 적극 수용되었다. 2000년 오강원은 포자연유형이 ‘문화’로까지 명명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발견된 상황이 아니므로 ‘포자연식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²¹ 그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길림 포자연 전산 상층, 모아산, 영길 학교동산 상층(學古墓), 우수 노하심 중층 고분군 등 유적을 중심으로 해당 문화의 연대와 문화내용, 분포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포자연 전산 상층은 기원전 2세기 대, 학교동산 상층은 기원전 1세기 대, 노하심 중층은 기원전후, 모아산은 기원후 1~2세기로 편년하였다. 포자연식문화의 전형 유적들은 대부분 길림-영길-서란-유수의 제2송화강 북안(우안)에 분포하며 전체적으로는 제2송화강 중류역 북안, 흑룡강성과 길림성의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는 랍림하(拉林河) 이남, 우수현(榆樹縣)과 부여현(扶餘縣) 경계의 회당구(灰塘溝) 이동, 교하(蛟河)와 둔화(敦化)의 자연경계를 이루는 위호령(威虎嶺) 이서를 포자연식문화의 주요 분포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종수는 부여의 중심문화로서 길림지역 포자연전산 상층 유적과 학교동산

수 있는데, 가령 서향산의 편체치구절연류이관(扁體侈口折沿瘤耳罐)은 휘발하 유역의 전통적인 기물이며, 관마산 M1(형가점유형의 누공권족두가 있음), 황어권주산 M1의 실심 두는 포자연유형의 영향이며, 공주령 후석묘의 압형호와 지갑문은 서부의 요소이다. 이들의 산발적인 존재는 이들이 길장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분포구역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황어권주산 M1의 류상이(瘤狀耳) 부착 통형관은 장백산지 부근에서만 발견되는데, 그 원류는 길장지역 동측의 장백산지 일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③ 형가점묘지 등 유존은 송눈평원의 요소를 제외하면, 동풍 조추구(東豐趙秋溝) M2에서 출토된 동류의 호(罐)와의 관계, 나팔형 대각의 두(大喇叭圈足豆) 및 심복완(深腹碗) 형태의 두(豆) 양식이 각각 단결문화(團結文化)와 노하심 중층 고분군의 동류 기물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형가점유형과 기타 관련 유적 사이에 교류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21 오강원, 2000, 앞의 글; 오강원, 2007, 앞의 글, 22~26쪽.

유적 상층 유구 등을 포자연문화라는 용어로 지칭하는데,²² 유구가 없고 유물이 소략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여문화의 형성 과정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노하심 고분군을 통해 부여문화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다. 글에서는 포자연유형과 노하심 고분군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²³

최근에는 포자연문화 또는 포자연유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 범위는 대체로 포자연전산 상층 유적과 노하심 중층 고분군, 모아산 고분군을 포함시킨다.²⁴ 필자도 같은 부여문화 내에서 특징적인 토기류가 공유되는 가운데 연속성을 가지는 유적이라면 이들을 하나의 문화유형으로 포괄시키는 것이 어떤가 한다.

-
- 22 이종수, 2004, 「松花江流域 初期鐵器文化 研究」, 『博物館紀要』 1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李鍾洙, 2005, 「松花江流域 初期鐵器時代 文化 研究 II -西荒山屯 古墳群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22, 27~56쪽.
그러나 이후에는 포자연문화에 노하심 고분군을 포함시키기도 한다(이종수, 2007, 「西岔溝 古墳群의 성격과 使用集團에 대하여」, 『백산학보』 77, 99~127쪽).
- 23 이종수, 2013, 앞의 글, 223~246쪽. 이와 유사하게, 포자연전산 상층 단계는 아직 부여국이 성립하지 않고 부여족이 형성되는 상황이기에 ‘선부여문화’로 명명하고, 유수 노하심 고분군 단계부터를 부여국의 성립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를 ‘부여문화’로 구분하기도 한다(劉翀, 2014, 「夫餘文化的淵源與夫餘文化分期研究」, 南京大學碩士學位論文, 64~66쪽).
- 24 朱永剛, 2014, 「東北燕秦漢長城與早期鐵器時代考古學文化研究的若干問題」, 『社會科學戰線』 2014-4.
그는 동북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문화 중, 서류송화강 유역, 길림시를 중심으로 분포한 포자연문화 및 동요하의 보산문화와 대가산문화(大架山文化)를 부여족이 남긴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부여는 예맥계의 일파이며 그 원류는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했던 서단산문화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서황산둔유형 및 신빈 왕청문, 장백 간구자 등 대석개석묘 유존은 대석개묘-대석개석묘-적석석곽묘로 이어지며, 이는 ‘선고구려’ 혹은 고구려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국학계에서도 포자연문화의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오강원, 2014, 「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금속제 이식의 시공간성과 제작 방식」, 『호남고고학보』 48, 65~101쪽; 유은식, 2016, 「前期 扶餘 土器文化의 變遷과 擴散」, 『한국고고학보』 100, 174~211쪽; 유은식, 2017, 「동북아시아 초기철기문화의 병행관계와 교류양상」, 『한국상고사학보』 96, 71~115쪽; 유은식, 2020, 「부여고고학의 쟁점」, 『백제는 부여를 계승하였나』, 2020년 제17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 등).

III. 포자연문화의 내용

포자연문화는 기존의 서단산문화에 이어 제2송화강 유역에 출현한 문화유형이다. 1986년 포자연 전산 유적 조사 후 ‘포자연유형’이 제시되고, 이후 포자연 유형과 분리해서 인식하던 우수 노하심 중층 고분군을 부여 유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아지면서, 노하심중층문화와 문화 양상이 가까운 포자연유형을 부여문화 속에서 함께 논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포자연유형과 우수 노하심 중층 고분군을 하나의 고고학 문화 내에서의 선후 관계로 파악하고, 이를 통칭하여 ‘포자연문화’로 부르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²⁵

포자연문화의 주요 유적에는 길림 포자연 전산 상층 유적, 학교동산 유적, 동단산 유적, 우수 노하심 고분군, 길림 모아산 고분군 등이 있다.²⁶

포자연 전산 유적은 서단산문화 후기에 속하는 주거지 내부 퇴적층의 상층이 포자연문화에 해당한다. 토기는 무문 회갈색 사질도와 무문 홍갈색 조사도, 회색 또는 갈색 니질도가 있으며, 기형은 호, 관, 완, 두 등이 있다. 대체로 수제의 무문이 주를 이루며, 태토는 거친 편으로 모래가 혼입되어 있다. 소성온도는 높은 편이다. 토기 기형에서 서단산문화의 호, 관 및 구연부, 파수 등에서 확인한 차이가 있다.²⁷ 이전 단계 서단산문화의 삼족기가 없고, 토기 기형이 전체적으로 서단산문화 토기에 비해 좁고 길어진 편이다. 그 연대는 기원전 3세기 대로 편년되는 대해맹식 특징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점, 출토된 호가 노하심 고분군의 것보다는 동체와 경부가 날렵하게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원전 2세기 대로 추정된다.²⁸

25 朱永剛, 2014, 「東北燕秦漢長城與早期鐵器時代考古學文化研究的若干問題」, 『社會科學戰線』 2014-4. 포자연문화의 내용, 성립배경, 전개양상 등에 관한 내용은 오강원(2000)의 글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다만, 그는 포자연문화 대신 ‘포자연식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6 이 외에 포자연문화 관련 유적은 국립문화재연구소(2018)에 잘 소개되어 있다.

27 吉林市博物館, 1985, 「吉林市泡子沿前山遺址和墓葬」, 『考古』 1985-6.

길림 영길 학교동산 유적의 하층은 서단산문화에 해당하며, 상층은 한대에 해당한다. 상층에서 관, 두, 발, 증과 다량의 토기편, 그리고 철기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대부분 니질토기이며, 승문, 부가퇴문(附加堆文), 현문(弦文) 등 다양한 문양이 확인된다.²⁹ 두형토기의 대각이 기둥형이고 대각 하단이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어 포자연 전산 F1보다는 다소 늦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흑룡강성 오상(五常) 백기(白旗) 유적에서 포자연문화 주거지가 보고되었다. 주거지는 반수혈식으로 평면이 방형에 가까우며, 나무와 진흙으로 벽체를 만들고, 동벽 중앙부 인근에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주거지 내에서는 복원 가능한 토기 두, 호, 관, 완, 증, 배 등이 출토되었다.³⁰ 호의 구연부편은 포자연 전산 출토품과 유사하고, 다수의 두형토기는 주상두로 전형적인 포자연문화의 두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포자연문화 두형토기는 대체로 기원후 1세기 이후로 편년한다.³¹

길림시의 동단산 유적은 부여의 전기 왕성으로 비정된다.³² 서쪽으로는 송화강에 접하고 동북으로는 용담산산성과 2.5km 정도 떨어져 있다. 동남쪽으로는 모아산 고분군과 1km 떨어져 있다. 유적은 산성과 평지성으로 구성된다. 산성은 유적의 서북부에 위치한다. 평지성은 남성자성(南城子城)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5~2017년 남서자성지의 동남부 모서리 쪽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성벽 절개 조사 결과, 성벽은 생토 위에 축조되고, 성벽의 향토(판축) 내부에서 서단산문화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므로 서단산문화 이후의 유적임을 알

28 吳江原, 2000, 앞의 글, 6~7쪽.

29 董學增·陳家槐, 1981, 「吉林永吉縣學古東山遺址試掘簡報」, 『考古』 1981-6.

30 劉偉·張偉, 2015, 「黑龍江省五常市白旗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 2015-1, 20~25쪽.

31 유은식, 2016, 「前期 扶餘 土器文化의 變遷과 擴散」, 『한국고고학보』 100, 174~211쪽.

32 武國勳, 1983, 「夫餘王城新考—前期夫餘王城的發現」, 『黑龍江文物叢刊』 1983-4.

수 있다. 성 내부의 포자연문화 유구로는 수혈, 구상유구, 주저지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가 주를 이루며 소량의 철기 및 전(磚), 기와 등의 건축 부재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협사도와 니질도로 구분된다. 대형 토기는 굵은 모래가 다량 혼입되어 있고, 소형 토기는 가는 모래가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황갈색이 주를 이루며, 황갈색, 회갈색, 흑피도(黑皮陶) 등이 있다. 모두 수제로 성형되었으며, 일부 흑피도는 마광 처리되어 있다. 주요 기형은 두, 절연관(折沿罐), 왜령관(矮領罐), 호, 분, 증 등이 있다. 환형파수가 많으며, 종방향 파수, 소량의 횡방향 파수가 확인된다. 니질토기는 점토가 정선되어 있고, 소성 온도가 비교적 높는데, 색조는 회흑색, 회색, 황갈색 등을 띤다. 문양은 방격문(方格文), 능형문(菱形文) 등을 찍은 것이 확인된다. 수제 와 룬제(輪制) 모두 확인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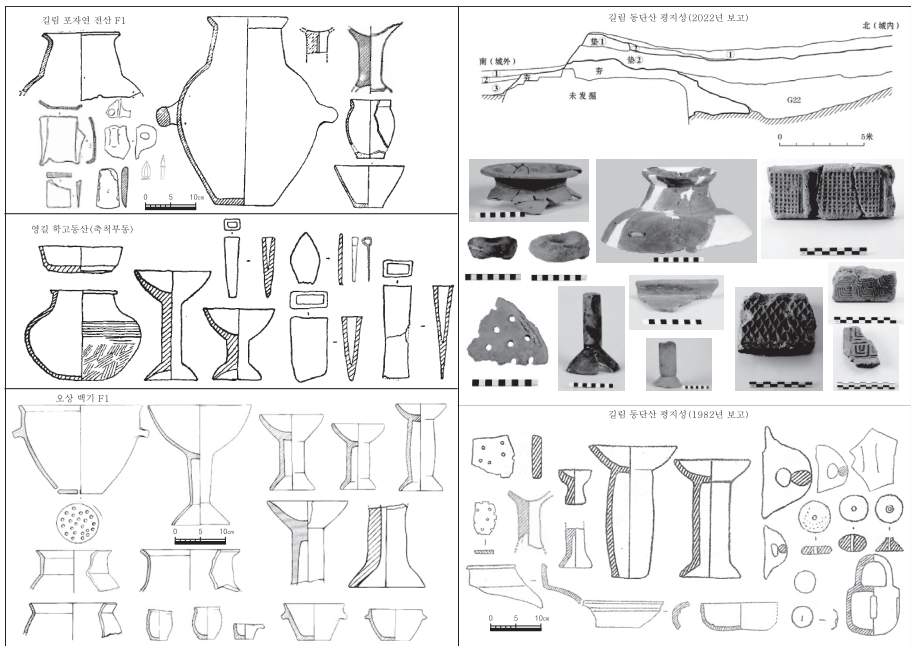


그림 2 포자연 전산 및 주요 유적 출토 유물

성벽은 전기와 후기 성벽으로 구분된다. 전기 성벽 위에는 G22(구상유구)가 형성되었는데, 여기서 측정된 2건의 탄소연대는 $2170 \pm 30\text{BP}$ (220BC $\pm$ 30), $2090 \pm 30\text{BP}$ (140BC $\pm$ 30)이다. 그리고 G22보다 늦게 건축된 F6의 불다짐면 내 탄소연대는 $2020 \pm 30\text{BP}$ (70BC $\pm$ 30)이다. 후기 성벽의 제일 상층 보강토(墊土)에서는 위진(魏晉)시기의 토기편이 출토되어, 성벽의 전체적인 사용연대는 대체로 전한~위진시기로 판단된다.³³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기 성벽의 초축은 대체로 전한 중기인 기원전 2세기 중후반보다 늦지 않을 것이고, 하한은 위진시기 이전인 기원후 3세기 중반 정도로 추정된다.³⁴ 이렇게 되면, 동단산 평지성(남성자성지)의 존속 시기는 포자연문화의 존속 시기와 거의 대응된다.

유수 노하심 유적에서는 발굴조사 결과, 하층에서는 서단산문화의 주거지 2기, 중층에서는 포자연문화 무덤 129기, 상층에서는 말갈 무덤 34기가 확인되었다. 중층의 무덤은 일부 도굴 또는 교란된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완전한 편이다. 무덤은 고분군의 북부와 남부에 비교적 밀집한다. 무덤 129기 중 79기에서 매장시설이 확인된다. 매장시설은 목재를 사용하였는데, 관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목재에서는 홍색 칠이 확인된다. 관 바닥에는 갈대, 동물 가죽 또는 자작나무 껍질을 깔았다. 장식은 단인 양신직지가 주를 이루며, 동시에 남녀동혈합장, 남녀이혈합장, 1남2녀 이혈합장 등이 확인된다. 목관의 형태는 곱자형(矩形), II자형, 제자형(梯子形)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관 뚜껑의 유무, 부곽의 유무 등으로 총 6종류로 세분될 수 있다.³⁵

절대 다수의 무덤이 머리쪽 관 바깥에 비교적 큰 토기 관 또는 호를 안치했는데, 쌍이관 또는 호가 제일 많고, 두형관 또는 고복관을 대형 관 또는 호와 함

33 王聰·夏豔平·於洪洋·裴宇·劉慶斌, 2022, 「吉林省吉林市東團山遺址2015-2017年發掘收獲」, 『北方文物』 2022-6, 36-41쪽.

34 전한의 시기 구분은 전기(기원전 202년~기원전 141년, 한고조~한경제), 중기(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 한무제), 후기(기원전 87년~기원후 9년, 왕망의 신카지)을 기준으로 하였다.

3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계 안치한 사례도 소량 확인된다. 토기 관 또는 호의 크기가 클수록 무덤의 크기도 크고 부장품도 풍부한 편이다. 한편, 목관 상면에서는 불을 사용한 흔적도 확인된다.³⁶

무덤에는 모두 생산공구(낫(鎌), 삽(耒), 곡괭이(鑿) 등), 생활용품(관, 배(杯), 충(盅), 두 등), 무기류(검, 모, 환수도, 화살촉, 화살통, 투구, 갑옷, 호심경(護心鏡) 등), 거마구(재갈멈추개(鑣), 재갈(銜), 차축두(車害) 등), 장신구(금은귀걸이, 골전(骨瑱), 유리전(琉璃瑱), 마노주, 구슬류, 동팔찌, 은·동 완식(腕飾), 금·은 반지, 신수패식(神獸牌飾), 호문패식(虎紋牌飾), 녹문패식(鹿紋牌飾), 화초문패식(花草紋牌飾) 등), 그리고 소량의 동복(銅鍔), 동경(銅鏡), 동대구(銅帶鉤), 대잡(帶卡), 동환(銅環)·동포(銅鈎)·소철도(小鐵刀), 철추(鐵錐), 동전 등이 부장된다(그림 3). 그 외에 말 이빨 등도 확인된다. 남성의 무덤에는 무기류, 여성 무덤에는 간단한 생산공구 및 장신구 등이 부장된다. 부장품은 묘주의 지위, 성별에 따라 수량에 차이가 있다.³⁷ 한편, 동복 및 동물문 패식과 각종 이식(耳飾)은 북방계 부장품에 해당되며, 한경(漢鏡)과 곡봉형대구, 유리전, 오수전 등은 중원계 부장품에 속하여 주검 처리에는 중원식과 북방식이 혼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부여와 중국 중원지역 및 북방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이다.³⁸

노하심 고분군의 무덤은 대체로 북부에서 남부를 거쳐 북서쪽으로 무덤의 구성에 순차가 있으며, 토기는 쌍이호 단독부장에서 쌍이호와 관을 공반하는 양상으로, 남부와 서남쪽에서는 관이 배로 대체되며 다양한 기종이 공반된다. 마지막에는 쌍이호와 배가 주 부장토기로 대체되며, 무덤 양식도 이혈합장묘로 변화한다. 무덤의 시기는 한무제 원수(元狩) 5년(기원전 118년)에 발행을 시작한 오수전이 출토되고, 전한 말~후한 초에 유행한 사신규규경(四神規矩鏡)의 ‘사신

36 강현숙, 2020, 「부여 노하심 중층 무덤의 매장 행위 유추」, 『한국상고사학보』 110, 5~29쪽.

3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이종수, 2009, 앞의 글.

38 박양진, 2005, 「考古學에서 본 夫餘」, 『한국고대사연구』 37; 강현숙, 2020,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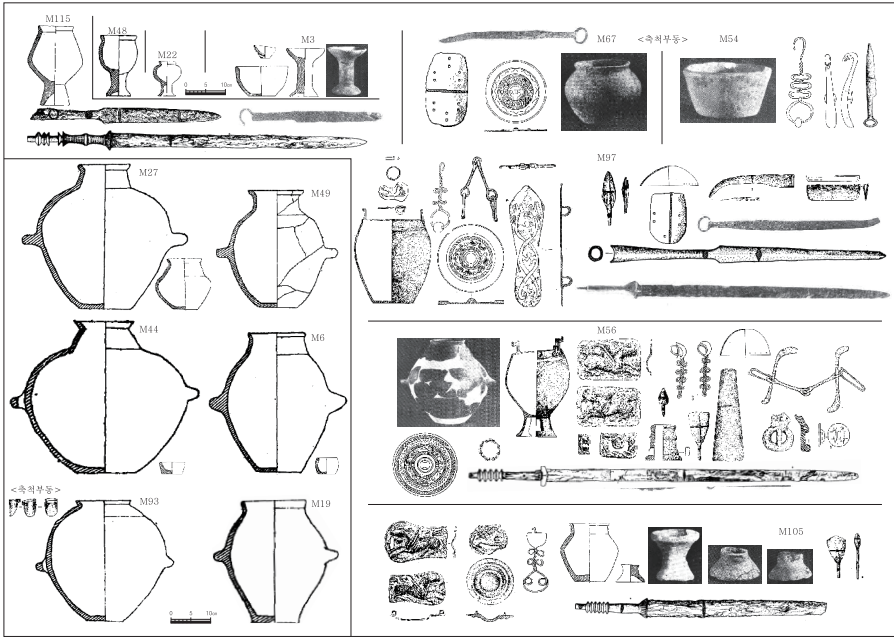


그림 3 유수 노하심 고분군 출토 유물(토기 도면 제외 축척부동)

(四神)+사슴 등의 신수(神獸)’ 문양이 왕망대에 처음 출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경이 출토되는 남부 묘역은 왕망대~후한 초 무렵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경이 부장되지 않은 북부의 무덤은 그 이전에 중심 묘역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유적의 전체 연대는 대략 기원전 1세기 전중반~기원후 1세기 중반 무렵으로 추정된다.³⁹⁾

모아산 고분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굴되어 약 160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모아산 고분군의 무덤은 총 4종류로 구분된다. 제1유형은 얇은 토광묘에

39 정상석, 2012, 『『榆樹老河深』보고서 재검토를 통한 묘역구분과 조성연대에 대한 일고찰』, 『고고학』 11, 25~68쪽.

단인 양신 일차장이고 소량의 부장품이 안치되어 있다. 전체 무덤에서 소량이다. 제2유형은 얇은 토광목곽묘로, 목곽의 부식이 심한데, 곽 주변에 백고니(白膏泥)가 한층 깔려 있다. 대부분 단인 일차장이며 부장품이 많은 편이다. 제3유형은 깊은 토광목곽묘인데 전체 무덤 중 수량이 제일 많다. 목곽의 구조가 복잡하며, 나무 결구를 이용해 결합하였다. 목곽 내부와 외부에 모두 두터운 백고니로 마감하였다. 부장품은 제일 풍부하지만 절반 이상이 도굴되었다. 제4유형은 깊은 석광목곽묘로 수량이 제일 적다. 목곽 구조는 제3유형과 동일하다. 부장품이 풍부하다. 목곽은 단곽, 쌍곽, 삼곽 등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무덤에서는 토기, 석기, 마노장신구, 금은기, 청동기, 철기, 목기, 칠기, 면직물 등이 부장된다(그림 4).⁴⁰

토기는 분, 관, 호, 방륜, 두(대부분 내부 충전토에서 발견) 등이 있는데, 협조사 갈도와 니질회도, 니질갈도가 다수를 점한다. 철기는 곡괭이, 삽, 가래, 환수도, 삭도, 가위, 부, 추, 모, 검, 화살촉, 갑옷편, 재갈, 재갈멈치 등이 있다. 청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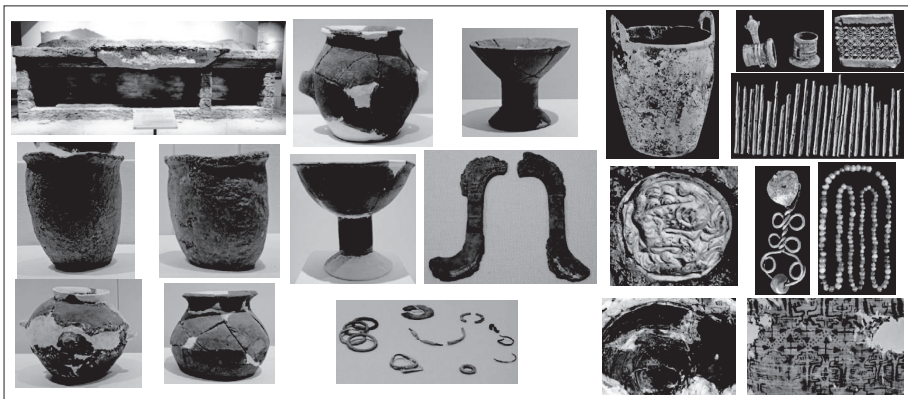


그림 4 모아산 고분군 출토 유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재편집)

40 劉景文, 2008, 「帽兒山墓群」, 『田野考古集粹—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成立二十五周年紀念』, 文物出版社, 45쪽.

기는 삽, 복(鍔), 재갈, 차축두, 권장(權杖), 거울, 팔꿈치 장식(腕飾), 포식(泡飾) 등이 있다. 금은기는 금패식(金牌飾), 금관식(金管飾), 금편식(金片飾), 금접식(金蝶飾), 금포식(金泡飾), 도금등자(鎏金馬鐙), 은반지(銀指環), 귀걸이(耳飾) 등이 있다. 칠기는 반(盤), 합(盒), 이배(耳杯) 등이 있다. 목기는 국자(勺), 자작 나무 껍질로 만든 완(樺樹皮碗) 등이 있다. 구슬류는 마노구슬(瑪瑙珠), 마노관(瑪瑙管), 유리구슬(料珠) 등이 있다. 이 외에 견직물에 그린 그림(絲織品帛畫) 조각과 신망(新莽) 시기의 ‘화천(貨泉)’ 화폐 등이 출토되었다. 이상 모아산 출토 유물은 노하심 고분군 출토품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쌍이호, 쌍이관, 반형 주상두(盤形柱把豆), 도금 동포, 환수도, 검, 화살촉, 모, 동물형 금패식, 금편식, 은 이식, 마노주관 등 외에도, 노하심에서는 출토되지 않은 칠기 구합(匱盒), 이배, 국자, 견직물, 금관식, 인물형 차축두 등이 출토되었다.⁴¹

모아산 고분군의 연대는 정식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존 발표된 탄소연대측정 자료를 고려하여 기원전 2세기~기원후 5세기의 범위에서, 중심연대는 기원전후한 시기에서부터 기원후 4세기 대로 보기도 한다.⁴² 모아산 고분군은 상한이 기원전 2세기까지 올라가기는 하지만, 출토 유물이 노하심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노하심 중층 고분군과 비슷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하한은 부여 전기 왕성으로 비정되는 동단산 유적의 연대를 고려했을 때 기원후 3세기 중반 정도로 보는 것이 안정적인 것 같다.

이상 포자연문화의 주요 유적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기원전 2세기 대는 포자연 전산 유적으로 대표되고, 이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동단산 평지성(남성자성지) 및 학고동산 유적이, 기원전 1세기 전중반~기원후 1세기 중반은 노하심 중층 고분으로 대표된다. 모아산 고분군은 노하심 중층 고분과 비슷하지만 하한은 기원전 3세기 대여서 장기간 존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동단산 평지성은

41 董學增, 2010, 앞의 글.

42 이종수, 2009, 앞의 글; 유은식, 2016, 앞의 글.

부여의 전기 왕성으로 비정되며, 인근의 모아산 고분군은 지배층과 관련된 곳으로,⁴³ 노하심 고분군은 모아산 고분군보다는 낮은 등급의 계층이 매장된 곳으로 이해하는데,⁴⁴ 부여의 사출도(四出道)와 관련지어 제가(諸加) 세력의 집단 무덤으로 언급되기도 한다.⁴⁵

IV. 포자연문화 형성의 주요 배경 문화

포자연문화가 출현하기 전 송화강유역은 서단산문화라는 청동기문화가 동으로는 장광재령(張廣才嶺) 남단과 위호령(威虎嶺) 일대, 서로는 이통하(伊通河) 연안, 남으로는 동요하 상류와 반석(盤石)-화전(樺甸)을 잇는 선, 북으로는 제1송화강 남안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해 있었다.⁴⁶ 서단산문화는 대체로 기원전 10세기~3세기까지 존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원전 5세기경 송화강 서북쪽, 흑룡강성 서남부의 눈강 하류 유역과 요북지역에서 새로운 초기철기문화가 출현한다. 눈강 하류 유역은 기존의 백금보문화에 이어 한서문화가 형성되고, 요북지역은 보산문화가 형성된다. 이 두 문화유형은 중원문화와 함께 포자연문화가 형성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⁷ 여기서는 한서문화와 보산문화의 내용을 정리한다.

43 이종수, 2016, 「부여 초기 및 전기왕성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동양학』 65, 103~124쪽.

44 董學增, 2010, 앞의 글.

45 오영찬, 1999, 「榆樹 老河深 유적을 통해 본 부여사회」,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송호정, 2005, 「扶餘의 國家形成 過程과 文化基盤」, 『북방사논총』 6; 이승호, 2018, 앞의 글; 유은식, 2020, 「부여고고학의 쟁점」, 『백제는 부여를 계승하였나』, 2020년 제17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

46 東北考古發掘團, 1964, 「吉林西團山石棺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64-1.

47 이종수, 2013, 앞의 글.

1. 한서문화

한서문화의 원래 명칭은 한서2기문화(漢書二期文化)이다. 1974년 길림성 대안현(大安縣) 한서(漢書) 유적 발굴 후 유적에서 확인된 문화층 중 M102로 대표되는 하층을 한서1기문화, F104로 대표되는 상층을 한서2기문화로 명명하였다.⁴⁸ 그러나 같은 해 조원(肇源) 백금보(白金寶) 유적이 발굴되면서 백금보문화라는 명칭이 제시되었는데,⁴⁹ 그 문화내용은 한서1기문화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⁰ 그리고 한서2기문화와 백금보문화는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를 가지는 같은 문화 계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⁵¹ 그래서 ‘백금보-한서2기문화’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4년 평양 고분군(平洋墓葬)이 조사되었고, 그 문화 양상에 백금보문화, 한서2기문화, 이극천(二克淺) 묘지 등과의 공통점이 있음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별도의 평양문화(平洋文化)로 명명하였다.⁵² 이후, 평양 고분군의 전체적인 편년과 문화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서2기문화와 평양 고분군의 출토 토기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화계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둘은 하나의 고고학문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⁵³ 즉, 기존의 한서2기문화와 평양문화가 하나의 한서2기문화로 통합된 것이다. 이렇게 눈강 유역의 고고학문화에 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한서1기문화 대신 백금보문화가

48 吉林大學曆史系考古專業 等, 1982, 「大安漢書遺址發掘的主要收穫」, 『東北考古與曆史』 1, 文物出版社.

49 林秀貞·郝思德, 「黑龍江肇源白金寶遺址第一次發掘」, 『考古』 1980-4, 311~324쪽.

50 都興智, 1986, 「試論漢書文化和白金寶文化」, 『北方文物』 1986-4, 21~25쪽.

51 都興智, 1986, 위의 글.

52 黑龍江省文物研究所編, 1990, 『平洋墓葬』, 文物出版社; 張偉, 2005, 「松嫩平原戰國兩漢時期文化遺存研究」, 『北方文物』 2005-4.

53 潘玲·林沄, 2002, 「平洋墓葬的年代與文化性質」, 『邊疆考古研究』 1.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⁵⁴ 따라서 굳이 한서2기문화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이를 한서문화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눈강 유역의 청동기-초기철기 시대 고고학문화는 ‘소랍합문화(小拉哈文化)-고성유형(古城類型)-백금보문화(白金寶文化)-한서문화(漢書文化)-홍마산문화(紅馬山文化)’로 정리되었다.⁵⁵ 최근 발간된 『대안 한서(大安漢書)』 발굴보고서에서도 유적 내에서 한서 제1기 유존(소랍합문화)-한서 제2기 유존(고성문화)-한서 제3기 유존(백금보문화)-한서 제4기 유존(한서문화)이 확인되었기에 기존의 한서2기문화는 현재의 한서 제4기 유존과 대응되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생기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서2기문화를 한서문화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⁵⁶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국에서도 한서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⁵⁷ 이 글에서도 기존의 한서2기문화를 ‘한서문화’로 대체하고자 한다.⁵⁸

한서문화의 분포 범위는 백금보문화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연대는 한서 유적과 무덤을 총 3기로 구분하고, 전기는 전국전기, 중기는 전국후기, 후기는 전한시기로 편년하는 견해가 있다.⁵⁹ 한편, 평양 고분군의 북방계 청동기 등 금속기 조합을 근거로 전기는 전국 전중기, 중기는 전국후기-전한전기, 후기는 전한중후기로 편년하기도 한다.⁶⁰ 또한 이후 보고된 늑하(訥河) 대고퇴 고분군

54 백금보문화와 한서1기문화는 동일한 유존에 대한 서로 다른 명칭이다. 두 명칭은 일정 기간 병용되다가 백금보 유적의 발굴 성과가 한서 유적보다 일찍 발표되었고 유적 자체가 더욱 전형적이었기에 점차 백금보문화를 사용하게 되었다(張偉, 2010, 「嫩江流域夏至東漢時期的五支考古學文化」, 『北方文物』 2010-2, 29~37쪽).

55 張偉, 2008, 「關於黑龍江省考古學文化命名的幾點看法—以嫩江流域青銅至早期鐵器時代爲例」, 『北方文物』 2008-4, 14~15쪽.

5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等 編著, 2018, 『大安漢書—青銅時代遺址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155~157쪽.

57 오강원, 2013, 앞의 글; 유은식, 2016, 앞의 글; 유은식, 2020, 앞의 글.

58 물론 한서2기문화라는 명칭은 학계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59 趙賓福, 2009, 「漢書二期文化研究—遺址材料與墓葬材料的整合」, 『邊疆考古研究』 8, 科學出版社, 98~116쪽.

(大古堆墓地)의 분석을 통해 연대 상한을 춘추후기까지 올리기도 한다.⁶¹ 최근에는 토기 호의 형태 변화를 분석하여, 한서문화의 전기를 춘추말기-전국전기, 중기는 전국 중후기 또는 전한 초기까지, 후기는 전한시기로 대응시키기도 한다.⁶² 이를 종합하면 한서문화는 대체로 기원전 5세기~기원전 1세기 대를 시간범위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서문화의 주거지는 말각장방형과 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반수혈식이다. 돌출된 출입구(門道)는 없으며, 주거지 바닥은 단단하게 다져졌는데 일부 주거면에서는 불다짐 흔적이 확인된다. 주거지 내 기둥 구멍은 규칙적이지 않은 편이다. 토기는 무문이 적고, 문양은 승문(繩文), 착인문(戳印文), 지갑문(指甲文), 부가퇴문(附加堆文), 비점문(篋點文) 등이 있다. 일정 수량의 토기는 ‘홍의(紅衣)’가 입혀져 있고, 일부 내부에 채색을 하였다. 거치문 구연부도 이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 기종은 치구기(侈口器)와 창구기(敞口器)가 주를 이루며, 삼족기와 평저기(平底器)가 있다. 기형은 화변구연(花邊口沿)에 승문이 있는 저당력(低檔甕), 화변구연 관(花邊口沿罐), 홍의호(紅衣壺), 압형 삼족호(鴨形三足壺), 주형기(舟形器), 완(碗), 발(鉢), 단이배(單耳杯), 다리가 작은 삼족기(小三足器), 허리가 들어간 지좌(東腰支座)가 주를 이룬다(그림 5).⁶³

무덤은 평면 장방형의 토광묘가 주를 이루며, 일부 무덤은 묘도가 있거나 이층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매장시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적는데, 목판과 자작 나무껍질을 사용하였다. 이 중 묘도가 있는 무덤은 동실묘(洞室墓)일 가능성이 높다.⁶⁴ 매장방식은 이차장이 제일 많고, 일차장이 그다음이다. 일부 일차장과

60 潘玲, 2011, 「平洋墓葬再研究」, 『邊疆考古研究』10, 科學出版社, 215~243쪽.
 61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黑龍江訥河大古堆墓地發掘簡報」, 『文物』2009-6, 4~25쪽.
 62 井中偉·任平, 2019, 「漢書二期文化的時空框架與葬俗辨析」, 『邊疆考古研究』26, 科學出版社, 205~217쪽.
 63 張偉, 2010, 앞의 글, 29~37쪽.
 64 한서문화에서 동실묘의 존재는 동실묘는 대안(大安) 후토목알(後土木嘎) 유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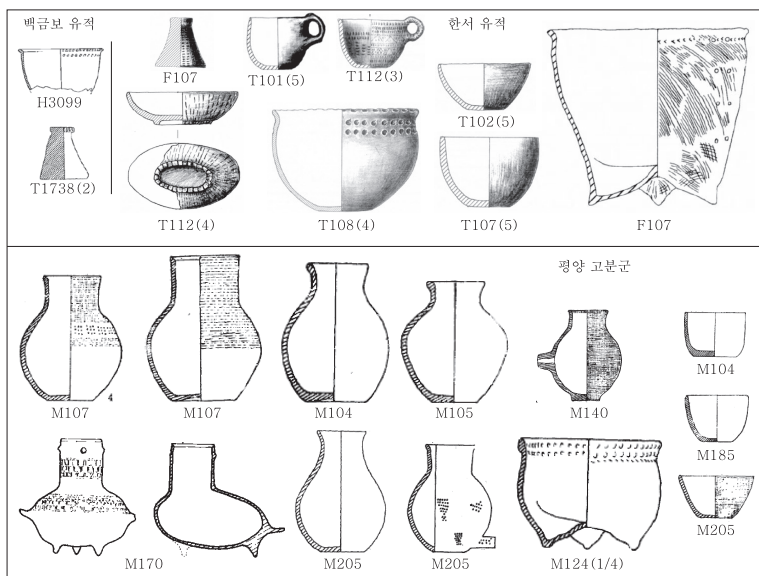


그림 5 한서문화 출토 유물(축척부동)

이차장이 공존하기도 한다. 남녀와 아이를 함께 매장하는 동혈합장이 성행하고, 일차장은 양신직지가 많다. 개, 말의 머리, 다리를 순생하는 사례가 보편적이다. 부장품으로 토기는 니질황갈도와 협사흑갈도, 세사황갈도로 대분된다. 문양은 비점문, 지갑문, 거치문, 획문(劃文), 착인문, 승문, 홍색 채회 등이 확인

처음 판별되었다. 후투목알의 72기의 한서문화 무덤 중 토광수혈묘가 42기이고 동실묘는 30기로, 동실묘는 전체 무덤의 약 41.7%에 이른다. 원래 동실묘는 중국 서북지역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유행하던 묘제인데, 평면 ‘凸’자형 또는 칼 손잡이형(刀把形)에 묘도에 순생을 한다는 점에서 한서문화기의 무덤과 유사성이 있다. 특히 평양 고분군의 묘도가 확인된 무덤들은 동실묘일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경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한서문화 분포지역에 중국 서북지역의 일부 집단이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井中偉·任平, 2019, 앞의 글, 205~217쪽).

되는데 대부분 실용기를 매장하였으며, 일부 명기(明器)도 부장되는데 모두 수제이다.

2. 보산문화

보산문화는 최초로 동요하 유역의 고고문화를 설명하면서, 길림성 남부 휘발하 상류에 분포하는 유적을 대상으로 명명되었다. 김옥동(金旭東)은 1988년 동풍현(東豐縣)의 문화를 대양(大陽) 유적, 용두산(龍頭山) 유적이 포함된 제2종 문화유형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문화 양상이 길림 동요현(東遼縣), 요원시(遼源市) 교외, 해룡현(海龍縣)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며, 요령성 서풍현(西豐縣), 개원현(開原縣), 길림성 이수현(梨樹縣)에서도 그 일부 문화 요소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인 전한대에는 대가(자)산(大架子山) 유적을 대표로 하는 제3종 문화유형이 있다고 소개하였다.⁶⁵ 이후 동요하 유역의 고고문화를 소개하면서, 이 지역에서 휘발하 상류의 보산문화와 유사한 문화유형을 석립자유형(石礫子類型)으로, 보산문화와 유사하지만 서단산문화 요소⁶⁶가 있는 문화유형을 사가가유형(謝家街類型)으로 명명하였다.⁶⁷ 전한대에는 역시 휘발하 상류의 대가산 상층문화와 유사한 문화유형이 있다고 하였다.⁶⁸

65 金旭東·王國範·周傳波, 1988, 「1985年吉林東豐縣考古調查」, 『考古』 1988-7, 584~591쪽.

66 김옥동은 그의 사가가유형에 속하는 대정자산(大頂子山) M3호에서 출토된 횡이도호(橫耳陶壺), 용수산(龍首山)의 수이도호(豎耳陶壺) 등이 서단산문화의 성성초(星星哨) 출토품과 유사한 것을 근거로 들었을 뿐, 유적에서 채집된 유물들은 기본적으로 보산문화와 큰 차이가 없다.

67 한편, 국내에서는 사가가유형을 요북지역의 양천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오강원, 2011, 「기원전 3세기 요녕 지역의 연나라 유물 공반유적의 제 유형과 연문화와의 관계」, 『한국상고사학보』 71, 15~16쪽).

68 金旭東, 1992, 「東遼河流域的若干種古文化遺存」, 『考古』 1992-4, 347~356쪽. 이 논문에서 보산문화의 정의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언급한 보산문화는 김옥동(1988)에서 소개한 동풍현 일대의 제2종 문화유

이들은 관, 호, 두를 기본 토기 조합으로 하며, 착점문, 누공문(鏤孔文)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유적들은 길림 남부와 요령 북부의 요길 접경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데, 길림성에서는 보산문화로, 요령성에서는 양천유형으로 구분해서 명명하고 있다.⁶⁹

보산문화의 토기는 2개 또는 4개의 반이(鑿耳)가 부착된 통형관(筒形罐)과 횡교이(橫橋耳)가 부착되는 장경호가 확인된다. 한편, 맥립형(麥粒形), 원형의 착점문(戳點文)이 삼각형 또는 열을 이루며 장경호의 경부, 장각두의 대각, 관의 구연부 아래, 반이의 표면 등에 시문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두의 배신, 장경호의 동체부, 소형 고복관의 동체 및 발, 완의 동체에 2개 또는 4개의 삼각형 맹이(盲耳)가 부착된다. 주요 묘제는 개석묘(蓋石墓)이며, 연대는 대체로 춘추중기에서 전국중후기에 해당한다.⁷⁰

양천유형은 요령성 북부 요하 지류의 청하(淸河), 구하(寇河) 유역에 주로 분포한다.⁷¹ 보산문화와 마찬가지로 관, 호, 두를 기본 조합으로 하며, 분(盆), 발, 완 등이 확인되는데, 삼족기는 거의 없다. 토기 특징 역시 비슷한데, 문양으로는 원형, 맥립형 착점문이 시문되는 것 외에 이러한 착점문이 열을 이루거나 삼각형, ‘工’자형, ‘L’형 등 모양을 형성하며 두의 대각, 호의 경부, 반이 표면에 시문된다. 그 외 각획현문, 지갑문 장식이 대각에서 확인된다. 주요 묘제는 개석묘(또는 석관묘)이며, 대체로 전국중기~전한 초까지 존속한다.⁷²

이상 보산문화와 양천유형은 유사한 문화유형을 지역별·시기별 차이를 반

형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대양(2026: 11-15)의 논문 참조.

69 李鍾洙, 2005, 앞의 글.

70 李萌·方啟, 2022, 『寶山文化與涼泉類型再探』, 『沈陽考古文集』 8, 科學出版社.

71 鐵嶺市博物館, 1992, 『遼北東部地區幾處青銅時代遺址調查』, 『遼寧省博物館館刊』 1992-1, 31~43쪽.

72 徐志國, 2009,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再探』, 『遼寧省博物館館刊(2009)』, 遼海出版社, 26~34쪽. 기존에는 상한을 춘추시기까지 올리기도 했지만 연식 장각두의 요동지역 출현 시기를 고려하면 전국중기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석립자유형과 사가가유형은 보산문화의 지역형 또는 일부 외부 문화요소의 유무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4개의 문화유형은 큰 틀에서 보산문화로 통칭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다소간의 차이로 인해 몇 개의 지역유형으로 세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그림 6).⁷³ 한편, 이 문화유형은 출현 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춘추중기에 보산문화가 동요하, 휘발하 상류에서 흥기하였고, 점차 번성하면서 요하 동쪽까지 확산한 것으로 이해된다. 분포 범위는 동으로는 제2송화강과 휘발하 교차지대까지 이르고, 북으로는 동요하 중하류까지, 서로는 요하까지, 남으로는 집안지역에서도 보산문화의 영향이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⁴

V. 포자연문화의 성립 과정

포자연문화가 성립하는 기원전 2~1세기 이전 길림 중부지역은 기원전 4~3세기대 기존의 서단산문화가 쇠퇴하고 앞에서 소개한 한서문화와 보산문화, 중원계 철기문화의 영향력이 확인된다. 한서문화는 제1송화강과 제2송화강을 따라 동쪽과 남동쪽으로 확산하며 새로운 소규모 유적군(전가타자식 유적군, 형가점식 유적군 등)이 산발적으로 형성되고, 기원전 3세기경에는 제2송화강 중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서문화의 전면적인 영향보다는 서단산문화가 존속하는 가운데 한서문화 요소가 침투하는 양상이다.⁷⁵

73 최근에는 오강원(2011)의 견해를 구체화하여 서단산문화와 병행하는 시기인 기원전 8~4세기 동요하 상류 및 휘발하 상류의 고고학문화를 보산문화로, 그다음 단계인 기원전 4~2세기 동요하·휘발하 상류와 요동 북동부 개원·서풍 일대의 고고학문화를 사가가유형으로 재정립하기도 한다(오대양, 2026, 「길림 서남부와 요동 북부 접경권 청동기시대 후기문화의 지역성 -소위 보산문화를 중심으로-」, 『高句麗渤海研究』 84).

74 李萌·方啟, 2022, 앞의 글.

75 이종수, 2013, 앞의 글.

길림성 서남부의 보산문화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길림합달령과 대흑산산맥을 통해 서단산문화의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며, 4~3세기에 길림합달령 북동부(휘발하 중·하류)에서는 서황산둔유형을 형성하고, 대흑산산맥 일대에서는 관마산식(關馬山式) 유적군을 형성한다고 한다.⁷⁶ 그런데 관마산식 유적군에서는 보산문화 요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간취되는 반면, 서황산둔유형에서는 고복관(또는 折腹罐) 외에는 보산문화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 서황산둔유형의 표지 유적인 서황산둔 무덤에서 보이는 돌기형의 파수(瘤狀耳)가 있거나 없는 통복관(筒腹罐)의 요소는 오히려 북쪽의 황어권주산 M1에서 볼 수 있다.⁷⁷ 그래서 황어권주산M1유형과 서황산둔유형을 두만강 유역 유정동문화에 기원을 둔 동일 계통의 문화유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⁷⁸ 이렇게 보면 대흑산산맥 및 길림합달령 일대의 새로운 문화유형의 출현 배경은 단순히 보산문화의 확산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데,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포자연문화가 출현하는 기원전 2세기 대 이전부터 길림 서북부 및 흑룡강 서남부의 한서문화와 길림 서남부의 보산문화는 기존의 서단산문화권에 유입되지만, 그 양상은 상당히 복잡하며 소규모 유적군을 형성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길림 중부지역에서 포자연 전산 유적으로 대표되는 포자연문화가 출현하게 되는데, 쌍이호에서는 서단산문화와 한서문화의 토기 호 특징이 결합되어 있고,⁷⁹ 보산문화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생각되는 점토대토기,⁸⁰ 보산문화 및 중원문화의 영향을 받은 두형토기가 확인된다.

76 오강원, 2007, 앞의 글; 이종수, 2013, 위의 글.

77 喬梁, 1993, 「吉長地區西團山文化之後的幾種古代遺存」, 『遼海文物學刊』 1993-2, 64~70쪽; 金旭東·趙俊傑·呂斌, 2011, 「黃魚圈珠山M1類型遺存再辨析」, 『邊疆考古研究』 10, 267~276쪽.

78 金旭東·趙俊傑·呂斌, 2011, 앞의 글.

79 張立明, 1986, 앞의 글; 오강원, 2018, 앞의 글.

80 점토대토기는 포자연전산 F1 출토품만 보고되었을 뿐이다. 포자연문화에서 점토대토기는 주류 토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쌍이호는 파수의 형태와 상관없이 경부와 동체부의 형태를 보았을 때 두 가지 변천 양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자연 전산 F1과 노하심 M27, M44, M93 등에서 확인되는 경부가 내경하고 동체의 건부가 강조된 형태의 쌍이호는 경부가 점차 짧아지고, 동최대경이 상단에서 중단으로 내려오며 대체로 구형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노하심 M49 출토 쌍이호처럼 경부가 대체로 직립하고 장동형 동체부에 건부가 다소 강조된 것은 노하심 M6, M19를 통해 변천 양상을 추정해보면, 동최대경이 대체로 중상단에 위치하며 경부는 짧아지고, 건부의 꺾임이 약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 참조).

두형토기의 양상은 다소 복잡한데, 포자연전산 F1과 동단산 평지성 출토 두형토기를 보면, 단각두와 장각두가 모두 확인된다. 모두 주상두(柱把豆, 柱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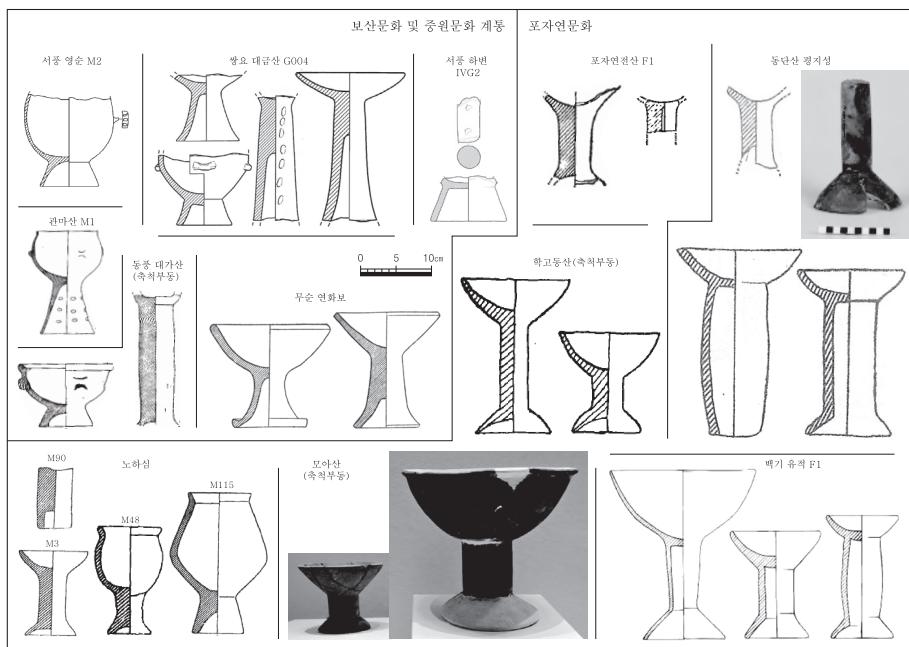


그림 7 포자연문화 두형토기와 주변 유적 두형토기 비교

豆)로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형적인 포자연문화의 주상두로 부르는 것은 동단산 평지성, 백기 F1, 모아산 출토품처럼 대각의 지름이 크고 대체로 속이 비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⁸¹ 학고동산과 동단산 평지성, 포자연 전산 F1에서 보이는 대각의 지름이 작고 실심형에 가까운 것은 증원문화 계통의 장각두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다만 대각 하단이 나팔형으로 뻗는 것이 아니라 볼록하거나 사선 형태를 띠고 있어 전형적인 포자연문화 두형토기의 전환기적 형태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시점은 동단산 평지성의 상한과 학고동산의 대략적인 연대를 고려하면 늦어도 기원전 1세기 대에는 이미 대각 하단이 볼록하거나 사선 형태인 포자연문화 두형토기의 특징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원전후에는 이미 전형적인 포자연문화의 두형토기가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하심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배신이 관형(웅형)을 띠는 단각두는 보산문화권에서 주로 확인되는 단각두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자료만 보면 포자연문화 특징의 두형토기는 기둥 형태의 대각에 대각 하단이 볼록하거나 사선 형태를 띠는 것부터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하심 고분군 출토 두형토기는 다소 예외적으로 보산문화 두형토기의 영향이 강한 편인데, 이는 포자연문화 중심지와 주변부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그림 7).⁸²

어쨌든 기원전 2~1세기 무렵 이후 포자연문화의 쌍이호뿐만 아니라 두형토기에서도 포자연문화의 특징이 출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원전 2~1세기 대 포자연문화는 비록 제2송화강 중류의 길림 중부라는 좁은 범위에 분포하지만, 이미 포자연문화 특징의 쌍이호와 두가 출현했고, 성곽을 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포자연문화 출현기와 시간적으

81 포자연문화의 두형토기는 동단산형두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동단산형두를 포자연식두, 노하심식두, 동단산식두로 세분하는 견해가 있다. 여기서 전형적인 포자연문화의 주상두는 동단산식두에 해당한다(오강원, 2020, 「동단산형두의 확산과 지역적 양상 및 의미」, 『동북아 부장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5~61쪽).

82 따라서 두형토기의 경우 노하심 고분군의 출토 유물을 기준으로 포자연문화의 특징을 일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로 겹치는 서남쪽의 서차구 고분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서차구 고분군이 소멸할 무렵 노하심 고분군과 모아산 고분군 같은 포자연문화의 비약적인 성장이 확인되기 때문이다.⁸³

서풍 서차구 고분군⁸⁴은 포자연문화와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2세기 대 보산문화 분포권에 위치한 유적이다. 약 500여 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진 대형 유적으로 한서문화 요소, 중원문화 요소, 흉노문화 요소, 재지의 보산문화 요소, 부여문화 요소 등이 복합되어 있다. 이 유적의 성격에 대해 부여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오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기층문화를 이루는 토기문화를 비교해보면, 서차구의 토기문화는 소형의 발, 완, 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한서문화의 홍색 슬립을 입히는 방식(홍의도), 구연부와 그 주변에 각획문과 착점문(진주문)을 시문하는 방식이 융합되고, 보산문화의 맹이 또는 반이 부착 특징이 일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선비문화와 관련된 토기는 극소량이지만 서차구 고분군 집단과 선비집단의 인적 교류 과정에서 반입된 것으로 정리된다. 서차구 고분군에서 관련 유물의 수량과 빈도를 고려하면 포자연문화와의 관련성보다는 한서문화와의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8).⁸⁵

그러나 늦어도 기원전 1세기 후엽에는 이 서차구 고분군의 문화요소가 유수 노하심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포자연문화로 대거 전이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서차구 고분군에서 처음 출현하는 원주형 동병철검이 노하심 고분군에서도 출토되며 일부 토기에서 공통점이 확인되는 점, 선비문화(또는 흉노문화)로 대표되는 북방 초원지역과의 네트워크가 노하심 고분군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서차구 고분군은 노하심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포자연문화의 전개에 상당한 영

83 오강원, 2018, 앞의 글.

84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西豊西岔溝: 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85 배현준, 2024, 「서차구 유적의 토기문화와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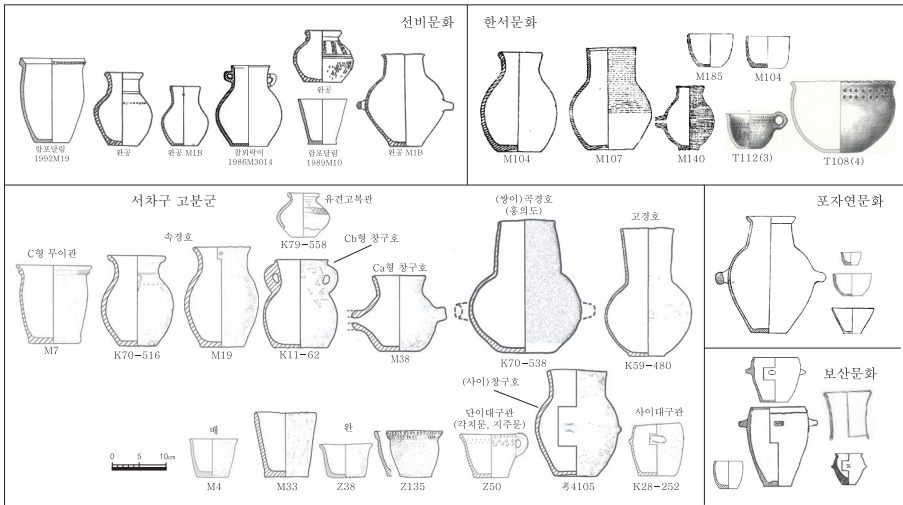


그림 8 서차구 고분군 출토 토기와 주변 지역 출토 토기 비교(서차구 고분군 외 축척부동)(배현준, 2024)

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⁸⁶ 이런 점에서 노하심 고분군의 형성을 한서문화 집단의 이주를 통한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견해⁸⁷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⁸⁸

유수 노하심 고분군의 형성 배경을 설명할 때 한서문화, 특히 평양 고분군과

86 오강원, 2018, 앞의 글; 배현준, 2024, 앞의 글; 이승호, 2025, 「西豊 西岔溝 고분군 조영 집단과 夫餘 -부여 문화에 내재된 초원문화 요소 기원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사립』 91, 1~26쪽.

87 吳江原, 2000, 앞의 글; 이종수, 2009, 앞의 글.

88 부여 토기문화와 한서 토기문화를 비교해보면 토기 문양과 파수 부착 전통에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토기기종의 조합상에서도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부여유적에서 한서문화의 토기가 공반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토기문화로 미루어 보면 부여의 기원과 성장 과정에서 한서문화의 영향은 극히 적었으며, 해당 집단의 이주가 있었을 것이라는 기존의 해석은 고고학자료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유은식, 2016, 앞의 글, 192~195쪽).

의 공통점을 상당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한서문화의 평양 고분군과 포자연문화의 노하심 고분군은 순수토광묘의 존재, 무덤 바닥에 자작나무 껍질을 까는 것 등의 공통점이 있다. 매장방식은 모두 단인장 위주이며, 일부에서 남녀합장과 일남이녀 합장 혹은 남녀아동합장에 대부분 일차장에 앙신직지가 사용되었다. 또한 두 고분군 모두에서 동물을 매납하는 순생행위가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노하심 고분군의 문화적 원류를 눈강 하류 지역에서 찾고 있다.⁸⁹ 그러나 평양 고분군에서는 포자연문화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동실묘가 확인되고, 노하심 고분군에서는 한서문화에서 보이지 않는 관곽의 사용이 확인되는 점에서 동일 집단의 장례 전통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작나무를 까는 것은 서향산둔 무덤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이는 당시 한서문화가 길림지역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것이 동일 집단만 사용하는 특징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또한 출토 유물에서도 노하심 고분군은 물론 이보다 앞선 시기의 포자연 전산 유적, 동단산 평지성 등에서 한서문화의 특징적인 저당력, 호, 지좌, 홍의도, 주형기 등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상당하다.

한서문화의 영향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오히려 노하심 고분군 단계에는 포자연문화의 기초 위에 중원문화 요소와 함께 서차구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요동 북부지역의 문화 요소와 다량의 초원계 문화 요소가 등장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차구 고분군에서는 한서문화나 선비문화, 보산문화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쌍조형(雙鳥形)과 원주형(圓柱形)의 동병철검이 중심 무기로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요동지역에서 줄곧 유행하던 동검은 쌍조형동검이었다.⁹⁰ 그것이 중원계 철기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쌍조형동병철검으로 전환된 것이다. 반면, 원주형

89 이종수, 2009, 앞의 글.

90 박선미·마크 바딩턴, 2012, 「동북아시아 雙鳥形 안테나식검의 성격과 의미」, 『영남고고학』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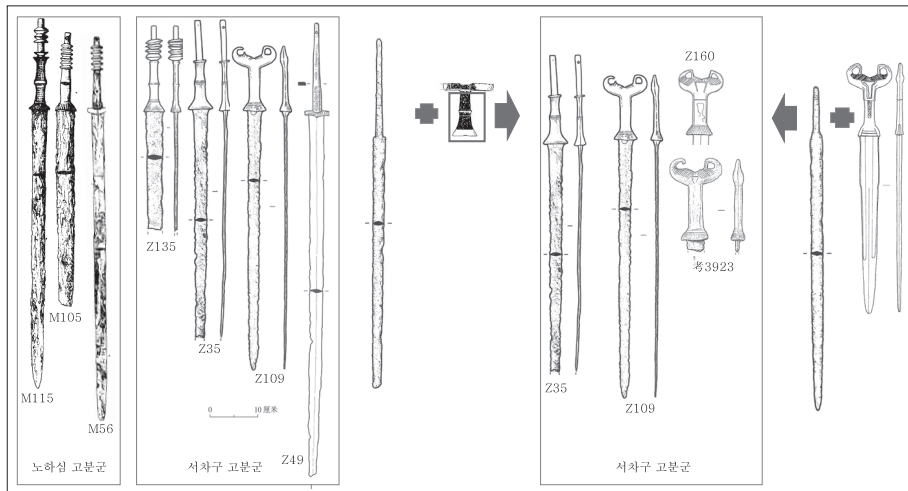


그림 9 중국 동북지역의 쌍조형, 원주형 검 형성 모식도

동병철검은 현재의 자료 중 서차구 고분군 출토품이 제일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쌍조형동병철검이 동검에서 변화된 것과 달리 처음부터 철검으로 출현한다. 서차구 Z49에서는 중원식 철장검이 출토되었는데, 검경(檢莖)이 상당히 길게 뻗어 있고 끝단에는 검경의 표면을 감싸는 노끈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뚫려 있다. 그리고 서차구의 원주형동병철검은 청동제 검병과 원주형 검파두식의 길이가 중원식 철장검의 경부와 거의 같으며 검파두식 끝단에 역시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통해서 원주형 검파두식이 철검의 길다란 검경을 감싸기 위해 제작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주조흔(鑄造痕)은 검병에서만 관찰되고 검파두식 부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검병과 검파두식을 별도로 제작한 후 접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비파형·세형동검에서 검파두식을 별도로 제작하던 전통과도 통하는 것이다. 한편, 검병 부분은 나팔형에 가운데 마디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존의 비파형·세형동검의 검병과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원주형은

쌍조형보다 요동지역 재지의 동검 제작방식과 형태를 더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요동의 재지집단이 중원식 철제장검을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며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9). 또한 철검 및 다양한 철기의 존재는 서차구 고분군이 한(漢) 세력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주요 거점 역할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서차구 고분군은 흉노문화와 관련된 각종 패식(牌式)이 특징적이다.⁹¹ 거치문의 장방형 패식은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 영하(寧夏), 장성지대(長城地帶) 등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패식은 흉노인 또는 흉노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용한 패식으로 판단한다.⁹² 그리고 황소 문양 장방형 패식, 작형(勺形) 장식, 동추식(銅墜飾)은 모두 미누신스크 및 투바지역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서차구 고분군과 미누신스크, 투바지역 간의 밀접한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한편, 투바지역을 포함한 남시베리아는 전한 초기부터 흉노의 침략을 줄곧 받아왔다. 아마 이들 일파가 흉노의 침략을 피해 호룬페이(呼倫貝爾)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인데,⁹³ 일부 인원이 서차구지역까지 이동해 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나무, 동물, 수레, 사람’으로 구성된 문양의 패식은 현재까지 영하(寧夏) 도둔자(倒墩子), 내몽골 옹우특기(翁羽特旗 채집) 등지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초원지대의 남부에서 장성지대를 따라 서차구까지 연결되는 교류 루트도 상정할 수 있다(그림 10).

이러한 서차구 고분군은 기원전 2세기 중후엽부터 조영되어 기원전 1세기대를 끝으로 더 이상 조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이어서 포자연문화(길림시 중북부의 유수 노하십)에서 서차구 고분군의 원주형동병철검이 출토되고, 보산문화의 토기가 출토되는 점 등으로 양자의 계승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노하십 고

91 한진성, 2024, 「중국 요령성 서풍 서차구 출토 흉노 동물문장식품 검토-동물문대식판과 웅문장식품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85.

92 潘玲, 2010, 「論矩形透雕階梯紋青銅牌飾」, 『考古』 2010-7.

93 潘玲·譚文好, 2022, 「呼倫貝爾鮮卑遺存中的西來文化因素-兼談兩漢時期的“草原絲綢之路”」, 『考古』 2022-5.



그림 10 서차구와 주변 지역 유물 비교(축척부동)



그림 11 노하심 고분군과 주변 지역 유물 비교

분군에서 출토되는 동북, 동물문패식, 금·동 이식은 역시 호류패이지역의 선비 문화권과 남시베리아의 흉노문화권에서 모두 확인되는 것이다(그림 11). 즉, 서차구 고분군의 북방 네트워크가 노하심 고분군까지 이어진 것이다.

VI. 맺음말

이상 포자연문화 주요 유적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기원전 2세기 대는 포자연 전산 유적으로 대표되고, 기원전 2세기 중후반에는 동단산 평지성(남성자성지)이, 기원전 1세기 전중반~기원후 1세기 중반은 노하심 중층 고분군으로 대표된다. 모아산 고분군은 상한이 기원전 2세기까지 올라가지만, 출토 유물이 노하심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심연대는 대체로 노하심 중층 고분군과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추정되며 하한은 기원후 3세기 대까지 내려와 장기간 존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포자연문화는 기원전 4~3세기 기존의 서단산문화가 쇠퇴하면서 주변 지역의 문화가 길림지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북쪽의 한서문화와 남쪽의 보산문화, 그리고 중원의 한문화가 서단산문화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포자연문화의 특징적인 물질문화가 형성되었다. 기원전 2~1세기 포자연문화 단계에는 이미 성곽이 축조되었으며, 출토 유물 중 쌍이호는 서단산문화의 호 특징과 한서문화의 호 형태가 결합되면서 나타났고, 주상두는 보산문화 또는 중원 문화를 통해 유입된 토기 기형이 포자연문화에 적응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포자연문화 노하심 고분군의 출현 배경에는 기원전 2~1세기 대 요령 성 서북부 서차구 고분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차구에서 처음 출현하는 원주형동병철검이 노하심에서도 출토되며, 서차구 고분군에서 보이는 다양한 북방계 유물이 노하심 고분군에서도 지속되는 것은 서차구의 북방 네트워크가 포자연문화권으로 흡수 통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포자연문화는 서단산문화라는 토착적 기반 위에서 중원문화와 함께 한서문화 및 보산문화의 요소를 흡수하고, 서차구 유적에서 이어진 북방 초원 및 중원 세력과의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성립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고대국가 부여』.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等編著, 2018, 『大安漢書-青銅時代遺址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 『吉林市郊區文物志(內部資料)』.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22, 『西豐西岔溝: 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黑龍江省文物研究所編, 1990, 『平洋墓葬』, 文物出版社.

논문

강현숙, 2020, 「부여 노하심 중층 무덤의 매장 행위 유추」, 『한국상고사학보』 110.

박선미·마크 바잉턴, 2012, 「동북아시아 雙鳥形 안테나식검의 성격과 의미」, 『영남고고학』 63.

박양진, 2005, 「考古學에서 본 夫餘」, 『한국고대사연구』 37

배현준, 2024, 「서차구 유적의 토기문화와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85.

송호정, 2005, 「扶餘의 國家形成 過程과 文化 基盤」, 『북방사논총』 6.

오강원, 2000, 「中滿地域의 初期鐵器文化-泡子沿式文化의 成立과 展開樣相」, 『전환기의 고고학 III-제24회 한국상사학회 학술발표대회』.

_____, 2007, 「西團山文化和 吉林 中部 地域 初期 鐵器文化 諸 類型 間的 文化的 相關 關係」, 『진단학보』 104.

_____, 2011, 「기원전 3세기 요녕 지역의 연나라 유물 공반유적의 제 유형과 연문화와의 관계」, 『한국상고사학보』 71.

_____, 2013,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상호 작용 및 족

- 속」, 『고구려발해연구』 46.
- _____, 2014, 「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금속제 이식의 시공간성과 제작 방식」, 『호남고고학보』 48.
- _____, 2018, 「서풍현(西豊縣) 서차구(西溝) 고분군의 문화적 성격과 계통 - 토기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8.
- _____, 2020, 「동단산형두의 확산과 지역적 양상 및 의미」, 『동북아 부장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오대양, 2026, 「길림 서남부와 요동 북부 접경권 청동기시대 후기문화의 지역성 - 소위 보산문화를 중심으로 -」, 『고구려발해연구』 84.
- 오영찬, 1999, 「榆樹 老河深 유적을 통해 본 부여사회」,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은식, 2016, 「前期 扶餘 土器文化의 變遷과 擴散」, 『한국고고학보』 100.
- _____, 2017, 「동북아시아 초기철기문화의 병행관계와 교류양상」, 『한국상고사학보』 96.
- _____, 2020, 「부여고고학의 쟁점」, 『백제는 부여를 계승하였나』, 2020년 제17회 정점백제사 학술회의.
- 이승호, 2018, 「부여 정치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5, 「西豊 西岔溝 고분군 조영 집단과 夫餘-부여 문화에 내재된 초원문화 요소 기원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사람』 91.
- 이중수, 2001, 「길림성 중부지역 초기 철기시대 문화유적 연구」, 『백제문화』 30.
- _____, 2004, 「松花江流域 初期鐵器文化 研究」, 『博物館紀要』 1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_____, 2005, 「松花江流域 初期鐵器時代 文化 研究 II - 西荒山屯 古墳群을 중심으로 -」, 『선사와 고대』 22.
- _____, 2007, 「西岔溝 古墳群의 性格과 使用集團에 대하여」, 『백산학보』 77.
- _____, 2009, 「무덤의 변화양상을 통해 본 부여사 전개과정 고찰」, 『선사와 고대』 30.
- _____, 2013, 「松花江유역 初期鐵器文化의 변천과 夫餘文化 성립과정 고찰」, 『동양학』 53.
- _____, 2016, 「부여 초기 및 전기왕성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동양학』 65, 103-124.
- 정상석, 2012, 「『榆樹老河深』보고서 재검토를 통한 묘역구분과 조성연대에 대한 일고

참], 『고고학』 11.

한진성, 2024, 「중국 요령성 서퉁 서차구 출토 흉노 동물문장식품 검토-동물문대식판과 용문장식품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85.

橋梁, 1993, 「吉長地區西團山文化之後的幾種古代遺存」, 『遼海文物學刊』 1993-2. 吉林大學曆史系考古專業等, 1982, 「大安漢書遺址發掘的主要收穫」, 『東北考古與歷史』 1,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工作隊, 1986, 「吉林省飲馬河沿岸古文化遺存狄村調查簡報」 1986-9.

吉林市博物館, 1985, 「吉林市泡子沿前山遺址和墓葬」, 『考古』 1985-6.

金旭東, 1992, 「東遼河流域的若干種古文化遺存」, 『考古』 1992-4.

金旭東·王國範·周傳波, 1988, 「1985年吉林東豐縣考古調查」, 『考古』 1988-7.

金旭東·趙俊傑·呂斌, 2011, 「黃魚圈珠山M1類型遺存再辨析」, 『邊疆考古研究』 10.

都興智, 1986, 「試論漢書文化和白金寶文化」, 『北方文物』 1986-4.

東北考古發掘團, 1964, 「吉林西團山石棺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64-1.

董學增, 1982, 「吉林東團山原始·漢·高句麗·渤海諸文化遺存調查簡報」, 『博物館研究』 創刊號.

——, 2010, 「夫餘文化遺存的發現、基本面貌及命名之我見」, 『東北史地』 2010-4.

董學增·陳家槐, 1981, 「吉林永吉縣學古東山遺址試掘簡報」, 『考古』 1981-6.

武國勳, 1983, 「夫餘王城新考—前期夫餘王城的發現」, 『黑龍江文物叢刊』 1983-4.

潘玲, 2010, 「論矩形透雕階梯紋青銅牌飾」, 『考古』 2010-7.

——, 2011, 「平洋墓葬再研究」, 『邊疆考古研究』 10, 科學出版社.

潘玲·譚文好, 2022, 「呼倫貝爾鮮卑遺存中的西來文化因素—兼談兩漢時期的“草原絲綢之路”」, 『考古』 2022-5.

潘玲·林沅, 2002, 「平洋墓葬的年代與文化性質」, 『邊疆考古研究』 1.

王聰·夏豔平·於洪洋·裴宇·劉慶斌, 2022, 「吉林省吉林市東團山遺址2015-2017年發掘收穫」, 『北方文物』 2022-6.

劉景文, 2008, 「帽兒山墓群」, 『田野考古集粹—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成立二十五周年紀念』, 文物出版社.

劉偉·張偉, 2015, 「黑龍江省五常市白旗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 2015-1.

劉翀, 2014, 「夫餘文化的淵源與夫餘文化分期研究」, 南京大學 碩士學位論文.

- 李萌·方啟, 2022, 「寶山文化與涼泉類型再探」, 『沈陽考古文集』 8, 科學出版社.
- 李文信, 1946, 「吉林市附近之史跡及遺物」, 『歷史與考古』 第1號.
- 林秀貞·郝思德, 1980, 「黑龍江肇源白金寶遺址第一次發掘」, 『考古』 1980-4.
- 林沅, 1993, 「西岔溝銅柄鐵劍與老河深·彩蘭墓地的族屬」, 『馬韓百濟文化』 13.
- , 1998, 「西岔溝銅柄鐵劍與老河深·彩蘭墓地的族屬」, 『林沅學術文集』, 中國大百科全書.
- 張立明, 1986, 「吉林泡子沿遺址及其相關問題」, 『北方文物』 1986-2.
- 張英·王俠·何明, 1985, 「吉林榆樹縣老河深鮮卑墓群部分墓葬發掘簡報」, 『文物』 1985-2.
- 張偉, 2005, 「松嫩平原戰國兩漢時期文化遺存研究」, 『北方文物』 2005-4.
- , 2008, 「關於黑龍江省考古學文化命名的幾點看法—以嫩江流域青銅至早期鐵器時代為例」, 『北方文物』 2008-4.
- , 2010, 「嫩江流域夏至東漢時期的五支考古學文化」, 『北方文物』 2010-2.
- 張忠培, 1963, 「吉林市郊古代遺址的文化類型」,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1963-1.
- 井中偉·任平, 2019, 「漢書二期文化的時空框架與葬俗辨析」, 『邊疆考古研究』 26, 科學出版社.
- 趙賓福, 2009, 「漢書二期文化研究—遺址材料與墓葬材料的整合」, 『邊疆考古研究』 8, 科學出版社.
- 趙俊傑·金旭東, 2014, 「吉林九台市關馬山M1的時代·文化性質及相關問題」, 『考古』 2014-3.
- 朱永剛, 2014, 「東北燕秦漢長城與早期鐵器時代考古學文化研究的若幹問題」, 『社會科學戰線』 2014-4.
- 周海峰·霍東峰·張黛, 2021, 「“平洋墓葬”之墓葬形制辨析」, 『北方文物』 2021-5.
- 鐵嶺市博物館, 1992, 「遼北東部地區幾處青銅時代遺址調查」, 『遼寧省博物館館刊』 1992-1.
- 許志國, 2009,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再探」, 『遼寧省博物館館刊(2009)』, 遼海出版社.
- 洪峰, 1986, 「吉林省輝發河上遊地區原始文化簡析」, 『北方文物』 1986-3.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黑龍江訥河大古堆墓地發掘簡報」, 『文物』 2009-6.

길림 중부의 초기철기문화

－ 포자연문화의 성립 과정 고찰 －

배현준

포자연문화는 기원전 4~3세기 기존의 서단산문화가 쇠퇴하면서 주변 지역의 문화가 길림 지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북쪽의 한서문화와 남쪽의 보산문화, 그리고 중원의 한문화가 서단산문화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포자연문화의 특징적인 물질문화가 형성되었다. 기원전 2~1세기 포자연문화 단계에는 이미 성곽이 축조되었으며, 출토 유물 중 쌍이호는 서단산문화의 호 특징과 한서문화의 호 형태가 결합되면서 나타났다. 주상두는 보산문화 또는 중원문화를 통해 유입된 토기 기형이 포자연문화에 적응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포자연문화 노하심 고분군의 출현에는 기원전 2~1세기 대 요령성 서북부 서차구 고분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차구에서 처음 출현하는 원주형동병철검이 유수 노하심에서도 출토되며, 서차구 고분군에서 보이는 다양한 북방계 유물이 노하심에서도 지속되는 것은 서차구의 북방 네트워크가 포자연문화권으로 흡수 통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포자연문화는 서단산문화라는 토착적 기반 위에서 한서문화 및

보산문화의 요소를 흡수하고, 서차구 유적을 매개로 한 북방 초원 및 중원 세력과의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성립되었다.

주제어: 초기철기, 부여, 포자원문화, 한서문화, 보산문화, 서차구

The Early Iron Culture of Central Jilin Province: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Paoziyan Culture

Bae Hyunjoon

The Paoziyan Culture was formed as the Xituanshan Culture declined between the 4th and 3rd centuries BCE, allowing neighboring cultures to spread into the Jilin region. Specifically, the distinctive material culture of Paoziyan took shape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Hanshu Culture from the north, the Baoshan Culture from the south, and the Han Culture of the Central Plains with the Xituanshan substrate. By the 2nd to 1st centuries BCE phase of the Paoziyan Culture, walled fortresses had already been constructed. Among the excavated artifacts, the characteristic “double-handled jar” (雙耳壺) resulted from the blending of Xituanshan and Hanshu vessel forms, while the “column-shaped stemmed bowl” (柱狀豆) is understood to have evolved as pottery types introduced from the Baoshan or Central Plains cultures

adapted to the local Paoziyan Culture context.

Furthermore, it is posited that the Xichagou cemetery in northwestern Liaoning Province (dating to the 2nd–1st centuries BC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mergence of the Laoheshen cemetery of the Paoziyan Culture. The discovery of cylindrical bronze-handled iron swords (圓柱形 銅柄鐵劍)—which first appeared in Xichagou—at the Yushu Laoheshen site, along with the continuity of various Northern-style artifacts originally seen in the Xichagou cemetery, strongly suggests that the Northern network associated with Xichagou was absorbed and integrated into the Paoziyan Cultural sphere.

In conclusion, the Paoziyan Culture was established by absorbing elements of the Hanshu and Baoshan cultures onto the indigenous Xituanshan Culture foundation, and by constructing a broad regional network with the Northern Steppe and Central Plains Culture powers, facilitated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Xichagou site.

Keywords: Early Iron Period, Buyeo(Puyŏ), Paoziyan Culture, Hanshu Culture, Baoshan Culture, Xichagou site

초기철기시대 함경도와 연해주의 물질자료로 본 집단의 대외 교류

허준양 |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특별연구원

- I. 머리말
- II. 초기철기시대 함경도와 연해주 물질자료의 상호 작용
- III. 함경도와 연해주 물질자료의 대외 교류 검토: ① 황해도
- IV. 함경도와 연해주 물질자료의 대외 교류 검토: ② 전라도
- V. 초기철기시대 함경도와 연해주 집단의 대외 교류와 그 교통로
- VI. 맺음말: 향후의 연구 방향과 과제

I. 머리말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 동북부지역의 함경도 일대와 러시아 동남부지역의 연해주 일대는 중국 동북지역의 요동 일대를 포함한 3국의 접경지대 고고학으로 연구된다. 이 일대의 초기철기시대의 물질자료는 이질성과 동질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문화 양상으로 보이는데, 특히 함경도와 연해주는 동해안이라는 자연·지리적 연결망을 통해 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양 지역은 요동의 물질자료보다 상동성(相同性)이 현저히 높으며, 또한 상호 연계된 유물 복합체를 통해 집단 간의 다각적인 대외 교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 양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기철기시대 함경도와 연해주의 표지적인 물질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함경도의 물질자료는 대체로 함경남·북도 일대에 분포하며, 함흥 이화동,¹ 금야 룡산리,² 신창 하세동리,³ 함주 조양리 유적⁴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물질자료로는 동검, 동모, 동과, 다뉴세문경, 주조철부 등 한반도 초기철기시대의 전형적인 기종으로 확인되며, 이들 유적은 대체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편년된다. 한편, 연해주의 물

* 투고: 2026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6년 5월 7일, 게재 확정: 2026년 5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5-기획연구-13)로 수행된 연구임.

1 박진옥, 1974, 「함경남도일대의 고대유적 조사보고. 하세동리 움무덤」, 『고고학자료집』 4, 고고학연구소.

2 안영준, 1983, 「각지 고대유적 조사보고. 함경남도에서 새로 알려진 고대유물. 함주군 조양리에서 나온 청동방울」, 『고고학자료집』 제6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3 전주능, 1963,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고조선유물에 대하여」, 『고고민속』 1, 사회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박진옥, 1974, 앞의 글; 동광출판사,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2 (고조선·부여·진국편)』, 동광출판사.

4 안영준, 1983, 앞의 글.

질자료는 우수리스크를 중심으로 하여 블라디보스토크, 나훔카, 슬라반카 등에 걸쳐 확인된다. 이 일대는 단결-크로우노브카문화의 분포권으로,⁵ 적갈색 및 흑갈색의 무문토기, 장방형철부, 마제석기 등이 대표적인 출토품이다.⁶ 특히 난방 시설인 온돌 구조를 갖춘 주거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중동부지역의 취락 양상과 결부되어 심도 있는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⁷ 단결-크로우노브카는 러시아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이며, 대체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편년된다.

이상의 물질자료는 양 지역의 연계된 연구로 확인된다. 주된 연구 주제는 함경도 및 연해주 일대의 유적·유물에 대한 소개와 분석,⁸ 단결-크로우노브카문화의 설정과 범위 검토,⁹ 연해주 출토 철기의 새로운 해석,¹⁰ 옥저문화¹¹ 및 연

5 林滢, 1985, 「論團結文化」, 『北方文物』, 創刊號.

6 최몽룡·이현중·강인옥, 2003,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주류성; 정석배, 2007, 「연해주의 초기철기문화와 한반도 - 크로우노브카 문화를 중심으로 -」, 『오르도스 청동기문화와 한국의 청동기문화』, 한국고대학회; 홍형우, 2014, 「극동지역 초기철기시대 지역별 토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한국상고사학보』 84.

7 A. L. 수보티나, 2008, 「한반도의 중도식 토기문화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비교」,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유은식, 2018, 「극동의 초기철기문화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전주농, 1963, 앞의 글; 박진옥, 1974, 앞의 글; 안영준, 1983, 앞의 글; 後藤 直, 1985, 「朝鮮半島青銅器文化の地域性」, 『三上次男博士喜寿記念論文集 考古編』; 平井尙志, 1960, 「沿海州新出土の多鈕細文鏡とその一括遺物について」, 『考古學雜誌』 46-3; 村上恭通, 2000, 『東夷世界の考古學』, 清水書店; 최몽룡 外, 2003, 앞의 책; 姜仁旭·千羨幸, 2003, 「러시아 沿海州 세형동검 관계유적의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42; 강인옥, 2018, 「기원전 4~3세기 초기 옥저문화권의 성장과 대외교류 - 최신 연해주 남부 세형동검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상고사학보』 99.

9 林滢, 1985, 앞의 글; 정석배, 2007, 앞의 글; N. A. 클류예프, 2008, 「러시아 연해주 남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연구현황」,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김재윤, 2016, 「한중러 접경지역 철기시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범위에 대한 검토 - 북부 및 서부 경계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93; 유은식, 앞의 글.

10 홍형우, 2014, 앞의 글; 심재연, 2018, 「한반도 철기의 또 다른 기원: 북방의 철기 및 철 생산」, 『중국 산둥지역의 동이』, 동북아역사재단.

해주의 모방 석기¹² 등의 논의가 그것이다. 이들 연구는 주거, 묘제, 생계 경제 등을 비롯하여 개별 유물(토기, 철기, 청동기)에 대한 형태 검토에 집중되었으며, 나아가 문화의 범위와 확산 및 정치체(집단, 종족)의 형성 과정 등 다각도의 접근이 이뤄져 왔다. 그중 N. A. 클류예프(2008)는 러시아 극동고고학의 문화 계보를 검토하면서, 토기의 기형학적 특성을 토대로 재지문화 기반의 크로우노브카 문화 형성과 안콥스키문화로 이어진 전개 과정을 주목하였다. 특히 크로우노브카문화의 연원이 북한의 오동(2, 3기) 유적에서 비롯하고, 만주지역의 단결문화 및 흥해호 일대로 확산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더불어 그는 연해주 아누치노 1, 3, 4 유적을 직접 발굴·조사한 후 아누치노유형을 설정하고, 그중 1, 4 유적의 토기는 크로우노브카문화의 상동성을 지니는 점에 동일문화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연해주에서 출토되는 한반도 초기철기시대의 물질자료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전개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함경도와 연해주의 물질자료를 토대로 상대 자료의 직접적인 비교와 이들의 교류 양상을 파악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함경도와 연해주 간 물질자료의 상호 양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를 기반으로 황해도와 전라도 일대의 사례를 비교·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대외 교류와 그 교통로를 알아본 뒤 마무리짓도록 하겠다.¹³

11 강인욱, 2008, 「동아시아 고고학·고대사 연구 속에서 옥저문화의 위치」,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08,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송호정, 2008, 「두만강 유역의 고대문화와 정치집단의 성장」, 『역사와 담론』 50;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한림고고학연구소·고조선부여사연구회, 2025, 『춘천 예맥역사문화권 고고학과 문헌의 만남 -예맥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전망-』.

12 손준호·쇼다 신야, 2018, 『무기형 석기의 비교 고고학 문화 수용 과정의 모방과 창조』,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7, 서경문화사.

13 이 글에서는 논지의 전개상 각 지역 일대를 대분류로 묶어 설명한다. 초기철기시대

II. 초기철기시대 함경도와 연해주 물질자료의 상호 작용

함경도와 연해주는 자연·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물질자료의 시·공간적 전개 양상이 유기적으로 파악된다. 즉, 두 지역 간에 공통적이고 병행되는 고고자료의 출토가 주요하게 확인되며, 이 장에서는 이를 한반도 물질자료를 기반으로 유입과 전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반도로의 유입 양상을 살펴보면, 단결-크로우노브카문화의 외반구연토기 확산에 따른 동일문화권의 설정,¹⁴ 중도식토기 제작 기법의 연계성,¹⁵ 장방형철부의 유입과 전파,¹⁶ 생계·경제 체계의 연구¹⁷ 등이다. 이 중 유은식(2018)은 단결-크로우노브카의 토기를 I~Ⅲ기로 세분화하고, I기는 두만강 중하류역권 1기와 수분하류역권으로, Ⅱ기는 두만강 중하류역 2기, 수분하류역 2기, 동해안지역권 1기를 포함한 단결-크로우노브카문화가 동해안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Ⅲ기는 두만강 중하류역 3기, 수분하류역 3기, 동해안지역권 2기를 포함하고, 두형토기, 심발형토기 등 기종이 다양화되는 단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단결-크로우노브카 토기의 전개가 동해안을 넘어 강원도의 영서 및 영동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고, 다양한 형태의 토기 생산과 유통이 성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점토띠를 올려 쌓은 중도식토기의 제작방식이 단결-크로우노브카의 토기 성형 기법과 공통되

의 한반도 동북부지역 일대를 함경도, 러시아 동남부지역 일대를 연해주, 한반도 서북부지역 일대를 황해도, 서남부지역 일대를 전라도(충청도 포함), 중동부지역 일대를 강원도로 설정한다. 반면, 한반도 동남부지역 일대의 경상도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미미하여 제외한다.

14 이현혜, 2010, 「沃土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70.

15 A. L. 수보티나, 2008, 앞의 글; 유은식, 2018, 앞의 글.

16 심재연, 2018, 앞의 글.

17 A. L. Subbotina, 2007, 「연해주, 두만강유역, 영동·영서지역의 생계경제에 대한 차이 연구」,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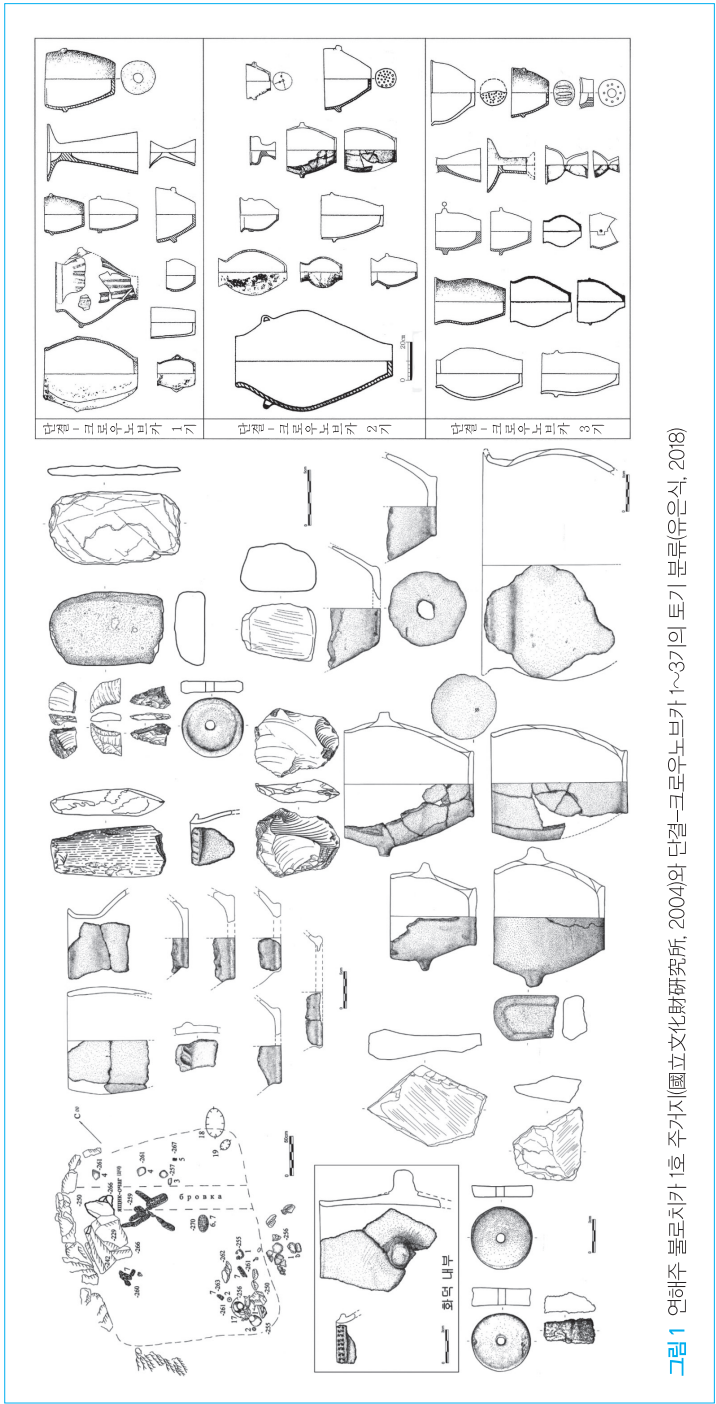


그림 1 연해주 불로지카 1호 주거지(國立文化財研究所, 2004)와 단결-크로우노브카 1~37의 토기 분류(윤은식, 2018)

는 양상으로 관찰되는데, 이와 더불어 크로우노브카문화의 토기를 분석하고 이를 함경북도, 강원도의 토기와 비교한 결과, 발류, 호류, 두형토기와 시루 등이 서로 연동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A. L. 수보티나, 2008). 특히 내만구연 심발, 외만구연 무경식호, 파수부 발형토기, 대접의 파수부 시루, 두형토기 등이 유사한 점을 주목하고, 토기의 성형 및 정면 수법 등의 제작기법이 연동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양상은 양 지역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양상과 더불어 집단 간 교섭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단결상·하층, 크로우노브카, 알레니, 페트로바, 블로치카 등이 있으며, 특히 최근 조사된 블로치카 유적의 1호 주거지에서 노지와 다량의 토기 등이 확인되어 일련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¹⁸

이와 함께 함경도와 연해주 출토 주거지의 구조를 주목하는데, 특히 주거지의 출입시설 형태가 주요한 비교 속성으로 다루어진다. 단결-크로우노브카문화의 쪽구들(단결유적 하층 2기, 크로우노브카 9호 외)은 출입구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이중 출입구가 있는 경우, 평면형태가 ‘—자형’에서 ‘ㄱ자형, 나아가 ‘ㄷ자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¹⁹ 이러한 형태적 변화는 강원도 중도유형의凸·呂자형 주거지 구조와의 계통적 관련성이 띠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쪽구들은 서북한의 세죽리-연화보, 노남리, 블로치카 15-나호, 19-나호 주거지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다음으로 한반도에서 러시아 연해주로의 전파 양상을 살펴보면, 러시아 이즈베스토브카, 스코토보, 아누치노 등의 물질자료가 대표적이다.²⁰ 이들 유적에서 한반도 초기철기시대의 표지적 자료인 다뉴경, 동검, 동사 등이 확인된다. 다뉴경은 연해주 이즈베스토브카와 스코토보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중 이즈베스토브카의 다뉴조문경은 태양문과 삼각집선문의 문양 조합이 아산 남성리 출토

18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연해주 블로치카 유적 I』.

19 유은식, 2018, 앞의 글.

20 平井尙志, 1960, 앞의 글; 姜仁旭·千羨幸, 2003, 앞의 글; 강인옥, 2018, 앞의 글.

품과 유사하며, 뉴와 주연부의 형태는 傳연천,²¹ 단동 조가보²² 등의 사례와 관련된다. 이러한 점은 형태적·문양적 모티프의 조합이라는 특징적인 양상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스코토보의 다뉴세문경은 정교한 세선문이 시문되어 예산 동서리,²³ 부여 구봉리²⁴ 출토품과 흡사하다. 특히 신문의 조각 수법은 다뉴조문경에서 다뉴세문경으로 이행하는 전환기적 기술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 이 시기에 양 지역 간의 기술적 공유 및 직접적 전파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검 역시 러시아 연해주의 이즈베스토브카와 스코토보에서 확인된다. 이즈베스토브카의 동검은 검신의 절대까지 마연된 형태로서, 예산 동서리, 부여 구봉리의 동검과 흡사하며, 다뉴조문경이 공반된 양상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고 동모는 우수리스크시 아누치노에서 출토되었는데,²⁵ 능각과 인부 및 모엽의 형태적 특성은 함흥 이화동, 전주 효자동 등 한반도 물질자료와 공통된 모습이다. 특히 주목할 사례는 이즈베스토브카에서 출토된 동사이다. 동사는 동북아시아 중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토 사례가 전무한 반면, 한반도와 중국 중원 지역에서 대다수 분포된 점이 주요하다.²⁶ 따라서 이즈베스토브카의 동사는 중국 동북지역을 경유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거쳐 연해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더불어 함경도에는 함흥 이화동, 금야 룡산리 등에서 다뉴세문경과 동모가, 신창 하세동리에서 팔주령편이, 함주 조양리에서 간두령 등이 각각 출토되었는데, 이는 후술하는 한반도 각 지역의 거시적 출토와 연동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21 湖巖美術館, 1997, 『金東鉉翁蒐集文化財』, 三星文化財團.

22 許玉林·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青銅短劍」, 『考古』 8.

23 池健吉, 1978, 「禮山東西里石棺墓出土 青銅一括遺物」, 『百濟研究』 9.

24 李康承, 1987, 「扶餘 九鳳里出土 青銅器 一括遺物」,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 考古學篇 -』, 一志社.

25 강인옥, 2018, 앞의 글.

26 片岡宏二, 1999, 『彌生時代 渡來人と土器・青銅器』, 雄山閣; 윤태영, 2010, 「한반도 鉞의 출현과 전개양상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림 2 연해주의 물질자료(좌: 이즈베스토브카, 우: 스코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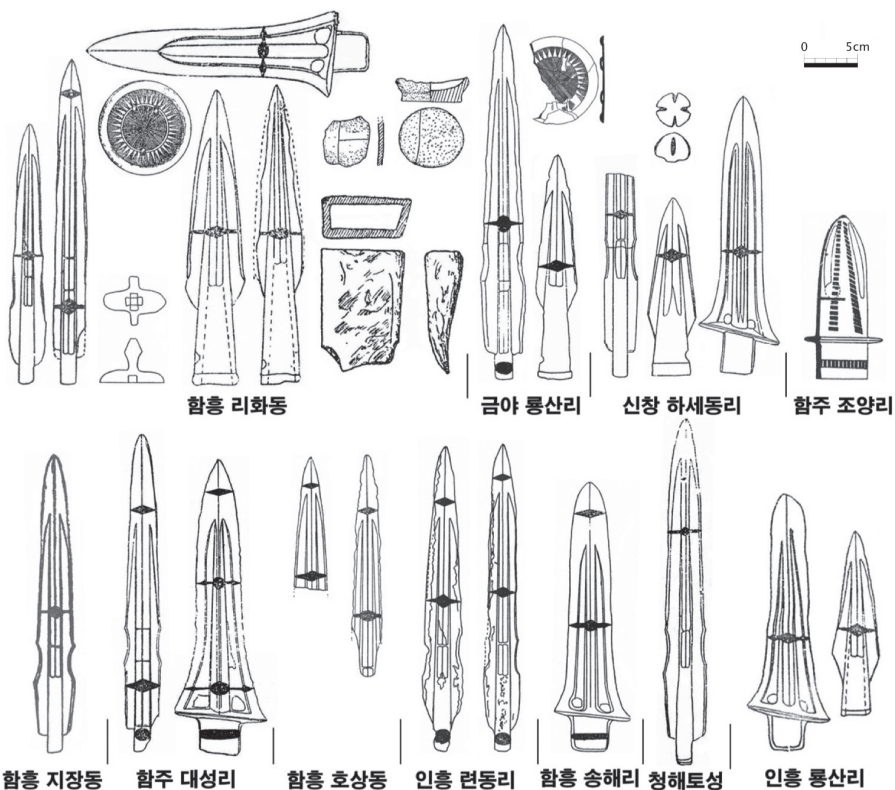


그림 3 함경도의 물질자료(허준양, 2022)

이상의 함경도와 연해주 물질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 각 장에서는 황해도와 전라도의 대외 교류 양상을 구분하여 비교·검토해본다.

III. 함경도와 연해주 물질자료의 대외 교류 검토: ① 황해도

이 장에서는 함경도와 연해주의 물질자료를 토대로, 황해도 일대에서 출토된 초기철기시대 물질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그 연관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황해도는 한반도 북부의 지리적 특성상 함경도와 비교 대상이 되며, 또한 양 지역 간 초기철기시대 물질자료의 공통 요소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황해도의 신계 정봉리,²⁷ 연안 오현리,²⁸ 재령 고산리²⁹ 등에서 출토된 동검, 동모, 동과는 함경도, 연해주의 사례와 뚜렷하게 연동되는 형태적 요소가 관찰되지 않아 이 논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다뉴조문경, 다뉴세문경, 동사, 간두령, 팔주령편 등의 출토품을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평양 신성동의 다뉴조문경³⁰은 배면에 뇌문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중국 동북지역의 양상과 연동되며, 연해주 출토품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반면, 황해도의 다뉴세문경은 봉산 송산리 솔피골,³¹ 신천 룡산리,³² 대동 반천

27 라명관, 1983, 「각지 고대유적 조사보고 1. 신계군 정봉리 돌곽무덤」, 『고고학자료집』 6,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28 無記名, 1983, 「각지 고대유적 조사보고 9. 평양부근과 황해남북도일대에서 알려진 좁은꼴단검관계유물」, 『고고학자료집』 6,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29 황기택, 1974, 「최근에 새로 알려진 비파형단검과 좁은꼴단검 관계의 유적유물」, 『고고학자료집』 4, 사회과학출판사.

30 김재용, 2012, 「신성동 돌곽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31 황기택, 1963, 「황해 북도 봉산군 송산리 솔피골 돌돌림 무덤」, 『고고학 자료집 제 3집 각지 유적 정리 보고』, 과학원출판사.

32 리규태, 1990, 「최근년간 황해남도에서 드러난 좁은꼴단검 관계유물」, 『조선고고연구』 2, 사회과학출판사.

리,³³ 강서 증산면, 성천, 순천 등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함경도 출토 다뉴세문경의 문양적 속성과 일부 상동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평원 신송리,³⁴ 봉산 송산리 솔피골, 대동 반천리와 성천 백원로동자구 9호 지석묘³⁵ 등에서 출토된 동사는 연해주 출토 사례와 형태적으로 연동되지만 이들의 공반품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전라도에서 다수 연동되는 점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이와 더불어 봉산 송산리, 배천 석산리 등에서 출토된 주조철부는 함경도 출토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간두령과 팔주령이 황해도에서 출토된 사례가 없어 오히려 전라도와 연동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상을 종합하면, 황해도의 물질자료는 함경도, 연해주의 물질자료와 제한적인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다. 봉산 송산리, 대동 반천리, 신천 룡산리 출토 동검과 다뉴세문경 등은 함경도 함흥 이화동의 공반품과 관련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 물질자료는 세부적이고 미세한 양상의 차이가 관찰되어 직접적인 교류망의 결과라기보다는 간헐적이고, 제한적 접촉으로 판단된다. 반면, 연해주 출토 다뉴조문경은 예산 동서리의 것과 흡사하고, 함경도의 다뉴세문경은 십자일광문이 관찰되는 함평 초포리 출토품과 강한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함주 조양리 간두령과 신창 하세동리 팔주령편은 전라도에서 대다수 확인되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따라서 황해도의 물질자료는 함경도, 연해주의 자료와 일부 동일성이 확인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양 지역을 연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즉, 양 지역 간의 간접적이고 한정적인 영향 때문에 주된 대외 교류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지역 간 교류의 한계성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요인으로 보인다. 양 지역 사이에는 백두산에서 함경남도 두류산으로 이어지는 낭림산맥과

33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鏡鑑(第一卷)』, 養徳社; 성철, 2004, 「우리 나라 나무곽무덤의 발상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34 송순탁, 1997, 「새로 알려진 고대시기유물」, 『조선고고연구』 3, 사회과학출판사.

35 성철, 2004, 「백원로동자구9호고인돌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3, 사회과학출판사.



그림 4 황해도의 물질자료

언진산맥이 자연 경계를 형성하고, 함경도 내륙에는 개마고원이라는 척박한 지형적 특성이 있어 집단의 이동이나 물질문화의 적극적 전파를 제약하였을 것이다.

IV. 함경도와 연해주 물질자료의 대외 교류 검토: ② 전라도

여기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함경도와 연해주에서 확인되는 초기철기시대

물질자료를 전라도 출토품과 상호 비교하여 대외 교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비교 대상은 다뉴조문경, 다뉴세문경, 동검, 간두령, 주조철부 등이며, 각 기종을 세분하여 알아본다.

먼저 다뉴조문경의 경우, 연해주의 이즈베스토브카에서 태양문이 시문된 사례가 확인되는데, 이는 전라도의 성문, 태양문이 시문된 다뉴조문경과 문양적 유사성이 관찰된다. 또한 연해주 스코토보에서 출토된 선문의 다뉴세문경 역시 연동되는 모습이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다뉴조문경의 반구연(주연부) 형태를 근거로 이를 중국 동북지역 출토품과 계통적으로 연결시킨 시각도 있다.³⁶ 이와 더불어 함경도 금야 룡산리에서 일광문이 시문된 다뉴세문경은 함평 초포리,³⁷ 부여 구봉리 출토품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들 자료는 傳익산의 원형유문동기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³⁸ 즉, 이들 자료는 특정 문양의 모티프를 채택하고, 생산 및 유통한 점이 연계된 양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반도 내 다뉴세문경은 여러 유형의 문양이 시문되지만 십자일광문의 구성은 이들의 계통적 제작과 지역적 확산의 근거를 보여주는 사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³⁹

다음으로 동검의 경우, 연해주 스코토보 출토품에서 구분마연 기법이 관찰되며, 이는 부여 구봉리와 청주 오송 12지점 1호묘⁴⁰ 동검과 상호 연동된다. 중심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동일한 구분마연 기법이 관찰된 점은 이 동검의 기능을 명확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형태적 모방에 그치지 않고, 세밀한 마연 기법이 적용된 점은 단순한 유물의 전파를 넘어 제작 기술자의 이주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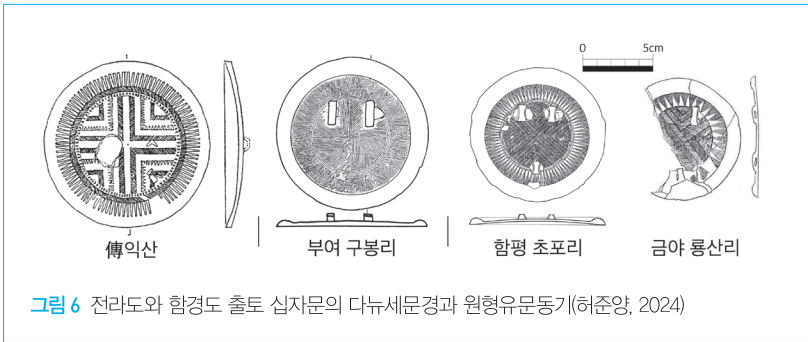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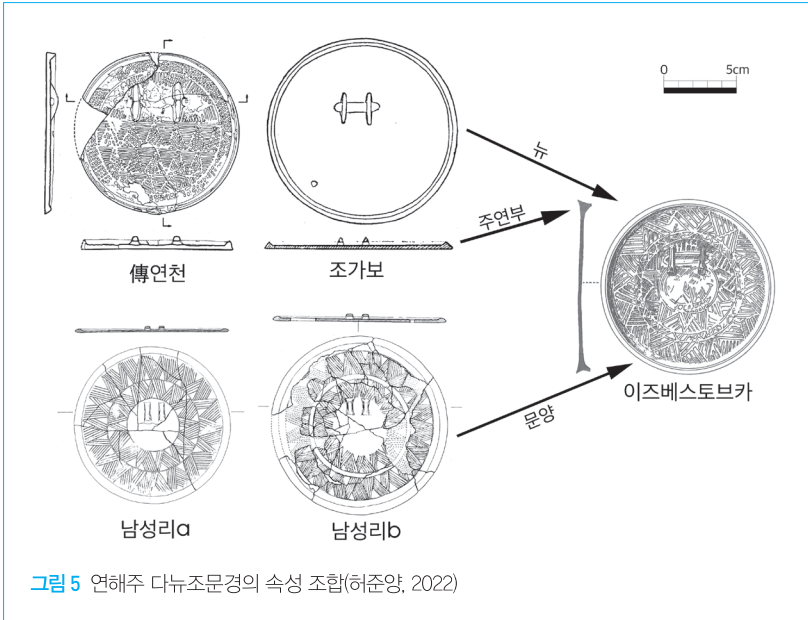
36 조진선, 2024,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의 다뉴조문경」, 『청동기·철기Ⅱ-청동거울』, 2024 국립전주박물관 소장품 학술총서, 국립전주박물관.

37 國立光州博物館, 1988, 『咸平 草浦里 遺蹟』.

38 李健茂, 1984, 「傳 益山出土 圓形有文青銅器」,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通川文化社.

39 허준양, 2024, 「다뉴세문경의 사용, 그리고 문양 조합으로 본 거점지: 전북 완주」, 『청동기·철기Ⅱ-청동거울』, 2024 국립전주박물관 소장품 학술총서, 국립전주박물관.

40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청주 오송유적』.



기법 자체의 계승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⁴¹

위와 함께 팔주령의 양상도 주목된다. 팔주령은 한반도에서 5건 9점이 출토

41 허준양, 2022, 「러시아 출토 한국식 청동기의 이해」, 『민족문화논총』 81.

되었는데, 그 사례는 傳상주 낙동강유역의 2점,⁴² 傳논산 연무읍의 2점,⁴³ 傳예산 덕산면의 2점,⁴⁴ 화순 대곡리의 2점⁴⁵과 함께 함경남도 신창 하세동리 팔주령의 방울편 1점이 이에 해당한다. 함경도 출토 신창 하세동리 팔주령편의 형태적 속성은 傳논산의 것과 흡사하며, 또한 공반품인 동검, 동모, 동과의 유물 조합은 동검, 동사, 유견동부, 다뉴세문경, 팔주령, 쌍두령의 화순 대곡리 및 팔주령, 조합식쌍두령, 쌍두령, 간두령의 傳논산·傳덕산의 공반품과 계통적으로 연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재까지 함경도 일대에서 팔주령의 추가 사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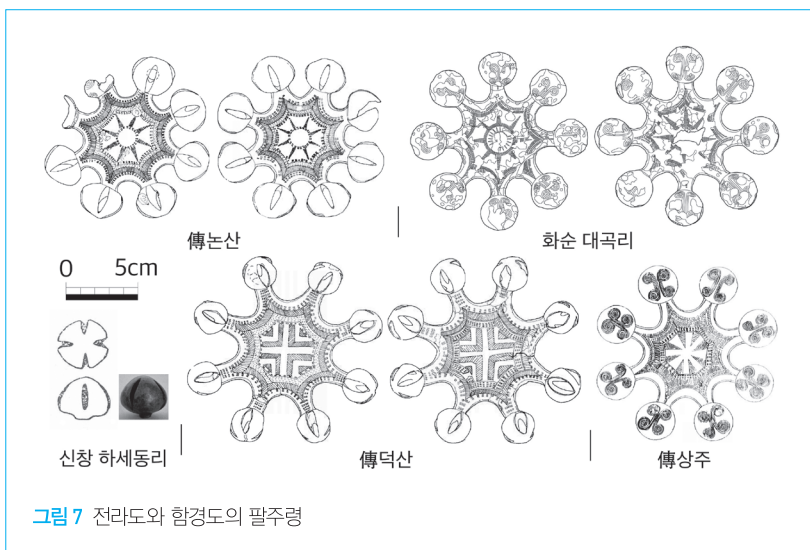


그림 7 전라도와 함경도의 팔주령

- 42 朝鮮總督府, 1922,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大正十一年古蹟調査報告』 2.
 43 國立中央博物館, 1973, 『韓國先史時代青銅器』; 李健茂, 1987, 「韓國 青銅儀器的研究 - 소위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 漢陽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4 李健茂, 1987, 앞의 글; 李健茂, 1991, 「傳 忠南出土 青銅방울一括」,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90指定篇』, 文化部·文化財管理局.
 45 趙由典, 1984, 「全南和順青銅遺物一括出土遺蹟」, 『尹武炳博士回甲記念論文集』, 通川文化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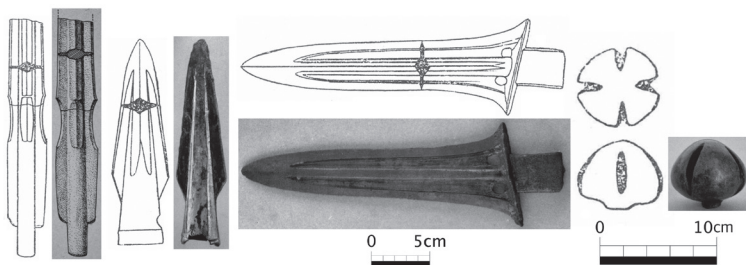


그림 8 신상 하세동리 팔주령편과 공반품(도면: 박진욱, 1974, 사진: 동광출판사, 1990)

확인되지 않아 아쉽지만 추후의 출토를 기대하게 한다. 이와 함께 함주 조양리에서 출토된 간두령⁴⁶은 완주 신평 54호묘,⁴⁷ 함평 초포리, 부여 청송리⁴⁸ 출토품 등과 병행 관계를 이루는데, 특히 함평 초포리와 국박M296의 간두령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련의 모습은 양 지역 출토품이 시기적으로 병행되어 상호 연계된 양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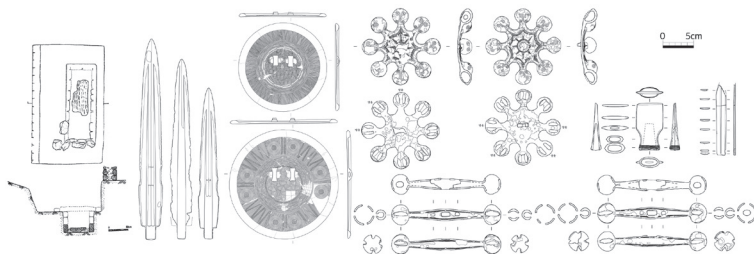


그림 9 화순 대곡리의 팔주령과 공반품

46 안영준, 1983, 앞의 글.

47 湖南文化財研究院, 2014, 『完州 新豊遺蹟 I -가지구-』.

4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7, 『부여 청송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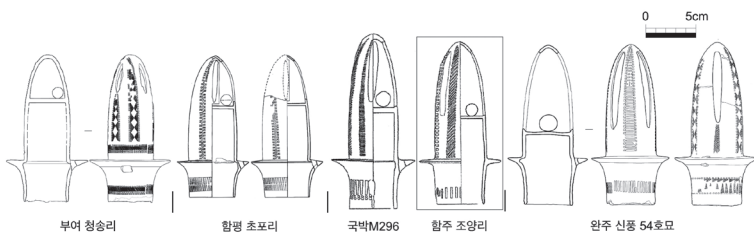


그림 10 전라도와 함경도의 간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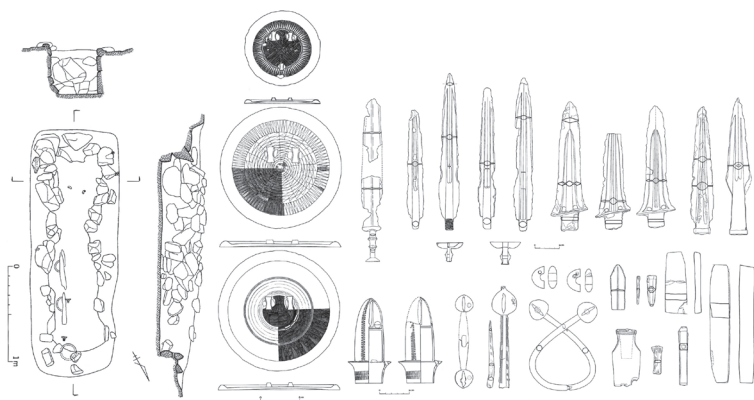


그림 11 함평 초포리의 간두령과 공반품

마지막으로 주조철부의 양상을 살펴보면, 연해주의 크로우노브카와 함경도의 함흥 이화동 등에서 출토된 철부들은 모두 단면 장방형의 모습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⁴⁹ 이러한 형태의 주조철부는 전라도 완주 갈동·신평,⁵⁰ 익산 마동⁵¹

49 H. A. 클류예프 저, 김재운 역, 2014, 『연해주의 고금속기시대 최신 자료 - 드보란 카 석관묘와 바라바쉬 제철유적-』, 『한국청동기학보』 14.

등에서 10여 점 이상이 출토된 양상과 연동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특히 완주 신평 유적군에는 주조철부뿐만 아니라 간두령, 동검, 동과 등이 공반되어 함경도 물질자료와 동일한 양상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출토된 익산 마동의 주조철부도 동일한 양상의 측면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은 지역 간 집단의 교류(전파) 및 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물질자료의 전파 및 계통의 해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반도 동북부를 거쳐 동부(중남부)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상징하는 연구와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⁵² 일찍이 A. P. 데레비안코가 제기한 연해주 및 아무르 유역과 함경도의 회령 오동과 무산 호곡동(범의구석) 철기의 유사성, 그리고 반월형철도의



그림 12 연해주와 함경도의 주조철부

50 湖南文化財研究院, 2005, 『完州 葛洞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 2009, 『完州 葛洞遺蹟(Ⅱ)』; 湖南文化財研究院, 2014, 『完州 新豊遺蹟 I -가지구-』.
 51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2, 『익산 마동유적』.
 52 심재연, 2018,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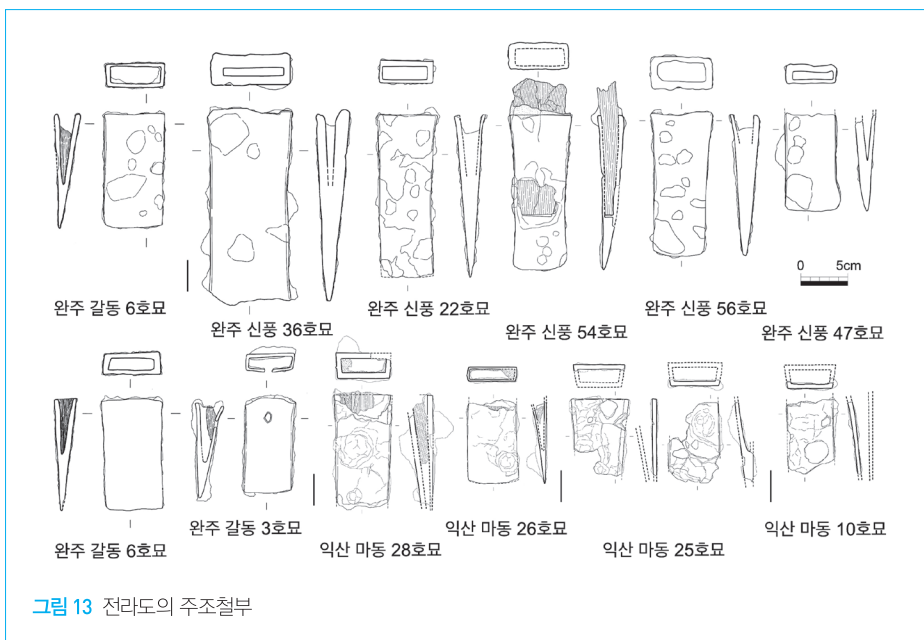


그림 13 전라도의 주조철부

자체 생산 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이 그것이다.⁵³ 이는 중국 중원지역에서 철기의 유입을 단일 계통에 대한 기존의 연구 시각을 지적한 점이 주요하다. 이러한 논지에 대해서는 한반도 출토 주조철부와와의 상호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함경도와 연해주의 초기철기시대 물질자료는 전라도의 직접적인 교류망 속에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러시아 연해주 다뉴조문경은 예산 동서리의 문양적 속성과 연동되고, 또한 함평 초포리의 다뉴세문경과 간두령의 공반 양상은 함경도 금야 룡산리의 다뉴세문경, 함주 조양리의 간두령과 관련된 점이 상호 연결된다. 무엇보다도 간두령과 팔주령이 황해도에서 출토되지 않는 정황은 전라도와 함경도를 잇는 적극적인 교류의 산물로 해석할 수

53 A. P. 데레비얀코, 2000, 「폴체문화와 그 동아시아 철기시대문화의 형성에서의 역할」, 『東아시아 1~3世紀의 考古學 - 考古學研究의 爭點 -』, 國立文化財研究所.

있다. 다만, 토기, 석기 등 생활 용품의 물질자료가 공반되지 않아 해석에 아쉬움이 남으며, 추후의 출토 사례를 기대하는 바이다. 따라서 전라도는 함경도와 연해주의 직접적 교류에 따라 이들 물질자료가 출토되고, 지리적 거점을 통해 상호 전파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통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V. 초기철기시대 함경도와 연해주 집단의 대외 교류와 그 교통로

Ⅲ·Ⅳ장의 검토를 통해 초기철기시대 함경도와 연해주의 물질자료는 전라도의 양상과 상호 연동된 모습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연해주 이즈베스토브카의 다뉴조문경은 아산 남성리의 다뉴조문경, 이즈베스토브카의 동사는 군산 선제리의 동사, 스코토보의 구분마연 동검은 청주 오송 1호묘의 동검, 아누치노의 동모는 전주 효자동, 함흥 이화동의 동모 등이다. 또한 함경도 신천 룡산리의 다뉴세문경은 함평 초포리의 다뉴세문경, 함주 조양리의 간두령은 완주 신평 54호묘의 간두령, 팔주령편은 傳논산·傳덕산의 팔주령과 관련된다. 따라서 함경도와 연해주의 물질자료는 전라도 일대 집단의 대외 교류망 속에 생산 및 유통된 결과물로 파악되며,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외 교류를 공간적인 거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교통로를 파악할 수 있다. 다뉴조문경이 출토된 아산 남성리와 예산 동서리 유적 또는 다뉴세문경이 출토된 완주 신평 유적을 기점으로, 청주 오송 → 충주 호암동 → 횡성 강림리 → 양양 정암리 → 금야 룡산리, 함주 조양리 → 함흥 이화동, 신창 하세동리 → 청진 → 연해주 이즈베스토브카·스코토보 → 우수리스크 아누치노의 교통로와 거점지이다. 이는 한반도 내륙의 육로에서 동해안의 해안로(환동해)를 따라 북상하는 원거리 교역망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과정에 각 지역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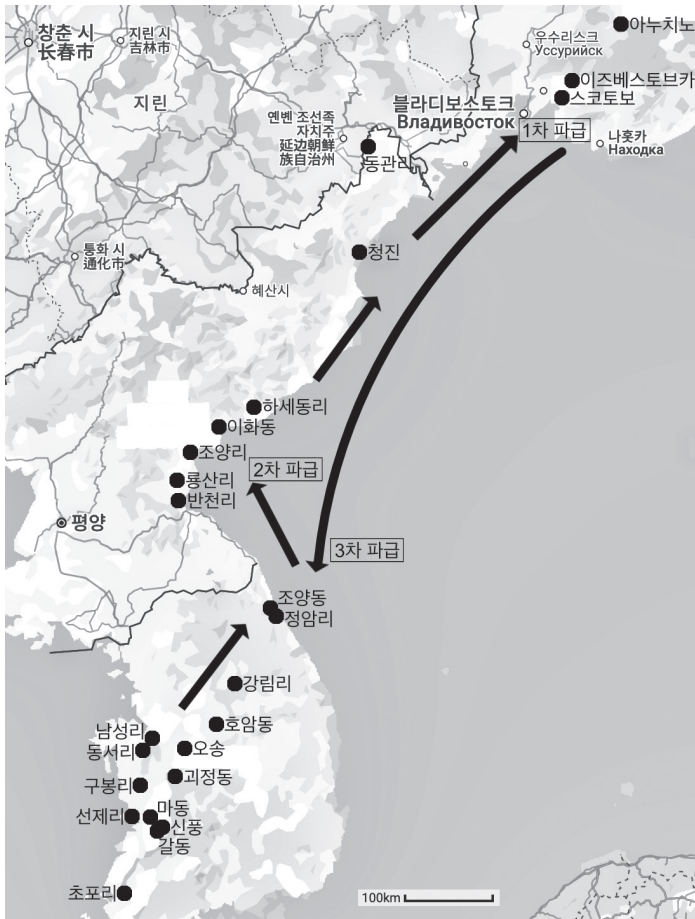


그림 14 초기철기시대 전라도-함경도-연해주-강원도의 1~3차 파급과 대외 교통로(지도: Google)

점의 물질자료가 다채롭게 확인되는 모습이다.

또한 이러한 물질자료의 전개는 시·공간적인 전개에 따라 1~3차의 파급으로 세분할 수 있다. 1차 파급은 전라도의 다뉴조문경과 동사, 동검 등이 러시아 연해주로 전파된 원거리 양상이며, 2차 파급은 전라도의 다뉴세문경과 간두령,

팔주령(편), 동과 등이 함경도로 전파된 양상이다. 그리고 3차 파급은 앞선 방향이 역전된 흐름으로서, 북방의 단결-크로우노브카문화(토기 및 주거지 등)가 한반도로 유입된 것이다. 이는 우수리스크(단결-크로우노브카문화)에서 함경도를 거쳐 강원도(중도식토기문화)로 남하하는 양상으로 파악된다. 특히 3차 파급에 대해서 단결-크로우노브카문화는 주거의 입지, 돌출된 출입구 시설, 쪽구들 축조 방식 등 건축 구조뿐만 아니라 토기의 성형 및 기종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중도유형의 출현기와 공통된 점이 많아 중부지방 예(濊)문화의 실체를 연계하여 파악한 바 있는데,⁵⁴ 기록된 문헌사와 병행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1·2차와 3차의 물질자료는 차별성이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집단과 그 성격 등 기층 문화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1~3차 파급은 각 지역 집단의 물적·인적 자원이 원거리 대외 이동으로 확인되고, 그 과정에 파악되는 지역 거점은 상호 연계된 유기적인 양상으로 확인된다. 일련의 파급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물질자료이며, 이는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를 잇는 구체적인 고고학 자료와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VI. 맺음말: 향후의 연구 방향과 과제

이상을 종합하면, 한반도 함경도와 러시아 연해주의 초기철기시대 물질자료는 시·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며, 그 전개는 1~3차 파급 과정으로 확인된다. 이 중 함경도와 연해주는 전라도 출토품과의 상관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는데, 이는 양 집단 간의 매우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망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함경도의 함흥 이화동, 금야 룡산리, 신창 하세동리로 2차 파급된 다뉴세문경, 주조철부, 간두령 등은 전라도 출

54 유은식, 2018,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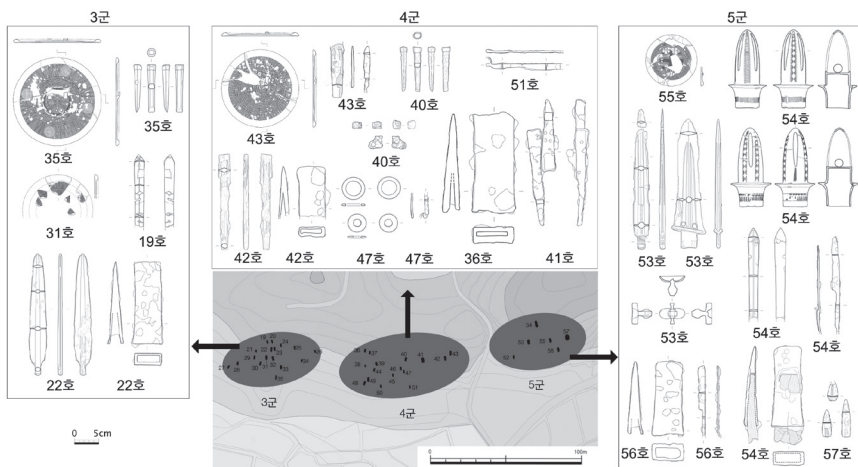


그림 15 완주 신평 유적군 출토 물질자료

토포와 직접적인 계통적 연관성이 확인되는데, 이 중 완주 신평 유적군에서 이들 자료가 모두 출토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뉴세문경은 31·35·43·55호묘에서, 간두령은 54호묘에서, 주조철부는 22·36·42·54·56호묘에서 공반된다. 이러한 기종별 공반 양상은 완주 신평 일대를 조영한 거점 집단이 함경도 집단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특화된 물질자료를 유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⁵⁵ 이는 대규모 집단의 이동 또는 물품 확산 등과 관련되므로 추후 개별 자료에 대해 면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련의 물질자료 파급은 초기 옥저, 동예, 예맥 등 북방 사회의 형성 과도 밀접하게 맞물린다.⁵⁶ 이와 관련하여 송호정은 두만강 유역의 소영자문화

55 최근 청동기 제작의 송풍관 연구가 주목되는데, 연계된 고찰이 요구된다. 심재연, 2025, 「한반도 남부지역 출토 청동기 주조용 송풍관 연구」, 『중원문화연구』 34.

56 村上恭通, 2000, 앞의 책; 강인옥,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2008, 앞의 책; 송호정, 2008, 앞의 글; 강인옥, 2020, 앞의 책;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외, 2025, 앞의 책.

가 철기를 사용하는 단결문화로 발전하는 과정을 주목하고 이를 연해주 크로우노브카와 함께 북부여의 문화로 파악한 바 있다. 또한 문헌의 해석을 통해, 부여 사회는 읍락공동체로 나뉘어 있고, 각 읍락에는 우두머리를 삼노(三老)라 일컬으며 두만강 유역 일대를 통솔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강인옥은 우스리스키시 일대의 단결-크로우노브카문화를 기원전 4세기대의 초기 옥저세력으로 파악하고, 특히 니콜라예프 일대의 반경 20km 안에 대형 취락이 확인되는 점도 관련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이 집단이 한카호 남부에서 아무르만 사이의 라놀나야강 일대에 대규모 취락을 조영하고, 잡곡 농업을 기반한 정착 경제를 영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울러 고고학적 분석을 통해 송화강 중류의 선(先)부여 또는 부여세력, 나아가 중원의 삼진세력과 폭넓게 교역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일련의 문헌자료와 함께 함경도와 연해주 및 전라도의 고고자료와 연동하여 새로운 해석을 진행한다면, 초기철기시대의 북방 및 동해안 집단의 성격과 그 출현에 대한 기왕의 연구사와 차별된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료

- 國立光州博物館, 1988, 『咸平 草浦里 遺蹟』.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연해주 불로치가 유적 I』.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7, 『부여 청송리유적』.
- 國立中央博物館, 1973, 『韓國先史時代靑銅器』.
- _____, 1997, 『南城里石棺墓』.
- 國立中央博物館·國立光州博物館, 1992, 『韓國의 靑銅器文化』.
- 동광출판사,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2 고조선·부여·진국편』.
- 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13, 『益山 五龍里 遺蹟』.
-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1, 『거푸집鎔范과 청동기靑銅器』.
- 全南大學校博物館, 2000, 『南陽里』.
- _____, 2005, 『和順 大谷里 遺蹟』.
-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完州德洞遺蹟』.
- _____, 2022, 『익산 마동유적』.
- 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全州 孝子4遺蹟』.
- _____, 2013, 『전주 원장동유적』.
- _____, 2018, 『全州 萬成洞·如意洞遺蹟』.
- 全州大學校博物館, 1990, 『全州, 如意洞先史遺蹟』.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論山 院北里遺蹟』.
- _____, 2018, 『청주 오송유적』.
-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淸原 主城里·倉里 遺蹟』.
- _____, 2017, 『忠州 虎岩洞 遺蹟』.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5, 『完州 葛洞遺蹟』.
- _____, 2009, 『完州 葛洞遺蹟(Ⅱ)』.
- _____, 2014, 『完州 新豐遺蹟 I -가지구-』.

湖巖美術館, 1997, 『金東鉉翁蒐集文化財』, 三星文化財團.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鏡鑑(第一卷)』, 養德社.

단행본

강인옥, 2020, 『옥저와 읍루』, 동북아역사재단.

宮里 修,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동북아역사재단, 2008,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손준호·쇼다 신야, 2018, 『무기형 석기의 비교 고고학 문화 수용 과정의 모방과 창조』,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7, 서경문화사.

정백운, 1957, 『조선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 과학원출판사.

최몽룡·이현종·강인옥, 2003,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주류성.

村上恭通, 2000, 『東夷世界の考古學』, 青水書店.

片岡宏二, 1999, 『彌生時代 渡來人と土器·青銅器』, 雄山閣.

논문

강인옥, 2008, 「동아시아 고고학·고대사 연구 속에서 옥저문화의 위치」,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8, 「기원전 4~3세기 초기 옥저문화권의 성장과 대외교류 - 최신 연해주 남부 세형동검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상고사학보』 99.

姜仁旭·千羨幸, 2003, 「러시아 沿海州 세형동검 관계유적의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42.

김용간·황기덕, 1967, 「기원전 천년기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 2.

金元龍, 1967, 「益山五金山出土一括遺物」, 『고고미술』 8-3.

김재용, 2012, 「신성동 돌곽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金載元, 1964, 「扶餘·慶州·燕岐出土 銅製遺物」, 『震檀學報』 25·26·27.

김재운, 2016, 「한중러 접경지역 철기시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범위에 대한 검토 - 북부 및 서부 경계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93.

라명관, 1983, 「각지 고대유적 조사보고 1. 신계군 정봉리 돌곽무덤」, 『고고학자료집』

6.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리규태, 1990, 「최근년간 황해남도에서 드러난 좁은놋단검 관계유물」, 『조선고고연구』

2, 사회과학출판사.

無記名, 1983, 「각지 고대유적 조사보고 9. 평양부근과 황해남북도일대에서 알려진 좁

은놋단검관계유물」, 『고고학자료집』 6,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박진옥, 1974, 「함경남도일대의 고대유적 조사보고. 하세동리 움무덤」, 『고고학자료집』

4, 고고학연구소.

성철, 2004, 「우리 나라 나무곽무덤의 발상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

출판사.

_____, 2004, 「백원로동자구9호고인돌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3, 사회과학출

판사.

송순탁, 1997, 「새로 알려진 고대시기유물」, 『조선고고연구』 3, 사회과학출판사.

송호정, 2008, 「두만강 유역의 고대문화와 정치집단의 성장」, 『역사와 담론』 50, 호서

사학회.

심재연, 2018, 「한반도 철기의 또 다른 기원: 북방의 철기 및 철 생산」, 『중국 산둥지역

의 동이』,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5, 「한반도 남부지역 출토 청동기 주조용 송풍관 연구」, 『중원문화연구』

34.

안영준, 1983, 「각지 고대유적 조사보고. 함경남도에서 새로 알려진 고대유물. 함주군

조양리에서 나온 청동방울」, 『고고학자료집』 제6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원산력사박물관, 1983, 「각지 고대유적 조사보고 7. 문천군 남창리 움무덤」, 『고고학자

료집』 6,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유은식, 2018, 「극동의 초기철기문화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태영, 2010, 「한반도 鎚의 출현과 전개양상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李康承, 1987, 「扶餘 九鳳里出土 青銅器 一括遺物」,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

念論叢 I -考古學篇-』, 一志社.

李健茂, 1984, 「傳 益山出土 圓形有文青銅器」,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通川

文化社.

_____, 1987, 「韓國 青銅儀器의 研究 -소위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_____, 1991, 「傳 忠南出土 青銅방울一括」,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90指定篇』, 文化部·文化財管理局.

_____, 1992, 「韓國 青銅儀器的 研究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28.

李殷昌, 1968, 「大田 槐亭洞 青銅器文化的 研究 -石器·黑陶·青銅器·裝身具의 結合文化를 中心으로-」, 『亞細亞研究』 XI-2,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이현혜, 2010,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70.

全榮來, 1975, 「益山, 多松里青銅遺物出土墓」, 『全北遺蹟調查報告』 5, 全州市立博物館.

_____, 1977, 「韓國青銅器文化的 系譜와 編年 -多鈕鏡의 變遷을 中心으로-」, 『全北遺蹟調查報告』 7, 全州市立博物館·韓國文化財保護協會全北支部.

_____, 1987, 「錦江流域 青銅器文化圈 新資料」, 『馬韓·百濟文化』 10, 馬韓·百濟文化研究所.

전주농, 1963, 「신창군 하세동리에서 드러난 고조선유물에 대하여」, 『고고민속』 1, 사회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정석배, 2007, 「연해주의 초기철기문화와 한반도 -끄로우노브가 문화를 중심으로-」, 『오르도스 청동기문화와 한국의 청동기문화』, 한국고대학회.

趙由典, 1984, 「全南和順青銅遺物一括出土遺蹟」, 『尹武炳博士回甲記念論文集』, 通川文化社.

趙鎮先, 2005, 「北韓地域 細形銅劍文化的 發展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47.

_____, 2024,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의 다뉴조문경」, 『청동기·철기Ⅱ - 청동거울』, 2024 국립전주박물관 소장품 학술총서, 국립전주박물관.

趙現鐘·殷和秀, 2005, 「화순 백암리유적 조사보고」, 『考古學誌』 14.

池健吉, 1978, 「禮山東西里石棺墓出土 青銅一括遺物」, 『百濟研究』 9.

_____, 1989, 「長水 南陽里 出土 青銅器·鐵器一括遺物」, 『考古學誌』 2.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한림고고학연구소·고조선부여사연구회, 2025, 『춘천 예맥 역사문화원 고고학과 문헌의 만남 -예맥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전망-』.

황기덕, 1963, 「황해 북도 봉산군 송산리 솔피골 돌돌림 무덤」, 『고고학 자료집 제3집 각지 유적 정리 보고』, 과학원출판사.

- _____, 1974, 「최근에 새로 알려진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 관계의 유적유물」, 『고고학자료집』 4, 사회과학출판사.
- 허준양, 2022, 「러시아 출토 한국식 청동기의 이해」, 『민족문화논총』 81.
- _____, 2024, 「다뉴세문경의 사용, 그리고 문양 조합으로 본 거점지: 전복 완주」, 『청동기·철기Ⅱ - 청동거울』, 2024 국립전주박물관 소장품 학술총서, 국립전주박물관.
- 홍형우, 2014, 「국동지역 초기철기시대 지역별 토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한국상고사학보』 84.
- A. L. Subbotina, 2007, 「연해주, 두만강유역, 영동·영서지역의 생계경제에 대한 차이 연구」,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8, 「한반도의 중도식 토기문화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비교」,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A. P. 데레비얀코, 2000, 「폴체문화와 그 동아시아 철기시대문화의 형성에서의 역할」, 『東아시아 1~3世紀의 考古學 - 考古學研究의 爭點 -』, 國立文化財研究所.
- N. A. 클류예프, 2008, 「러시아 연해주 남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연구현황」,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H. A. 클류예프 저, 김재운 역, 2014, 「연해주의 고금속기시대 최신 자료 - 드보란카 석관묘와 바라바쉬 제철유적-」, 『한국청동기학보』 14.
- 林滢, 1985, 「論團結文化」, 『北方文物』, 創刊號.
- 許玉林·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青銅短劍」, 『考古』 8.
- 榎本龜生, 1935, 「南鮮小鹿島發見の多鈕細紋鏡・其他」, 『考古學』 6-3, 東京考古學會.
- 朝鮮總督府, 1922,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大正十一年古蹟調査報告』 2.
- 平井尚志, 1960, 「沿海州新出土の多鈕細文鏡とその一括遺物について」, 『考古學雜誌』 46-3.
- 後藤 直, 1985, 「朝鮮半島青銅器文化の地域性」, 『三上次男博士喜寿記念論文集 考古編』.

초기철기시대 함경도와 연해주의 물질자료로 본 집단의 대외 교류

허준양

한반도 동북부지역의 함경도와 러시아 동남부지역의 연해주는 초기철기시대 물질문화의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띠며, 이들은 다양한 고고학적 근거를 통해 확인되는데, 한국식동검문화는 다뉴경, 동검, 동사, 간두령 등을, 단결-크로우노브카문화는 심발형토기와 주거지 등을 대표적인 속성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함경도와 연해주 집단의 대외 교류와 전개를 규명하기 위해 한반도 서북부지역의 황해도와 서남부지역의 전라도 출토 물질자료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황해도 물질자료의 교류는 간접적이고 한정적인 전파 양상으로 파악된 반면, 전라도 물질자료의 교류는 보다 직접적이고 다채로운 자료의 유입으로 확인된다. 즉, 함경도와 연해주의 물질자료는 전자보다 후자와 연동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이 중 태양문의 다뉴조문경, 십자문의 다뉴세문경, 구분마연의 동검 및 간두령과 팔주령(편)의 존재 등은 이들 간의 적극적인 대외 교류를 보여준다. 따라서 양 지역은 직접적인 시·공간적 전개 양상으로 연결되고, 또한 지역 내 거점을 통해 확산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초기철기시대 함경도와 연해주의 물질자료는 전라도 일대 집단과의 원거리 교류망을 통한 직접적인 물품·기술·정보의 대외 교류 및 전파로 확인된다. 이는 지역 거점으로 전개된 1~3차의 파급과 그 교통로를 설정할 수 있는데, 1차 파급은 연해주, 2차 파급은 함경도, 3차 파급은 강원도로 파악되고, 이들은 동해안로(환동해)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 간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은 새로운 문화의 정착 과정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 변동의 양상은 초기 옥저 및 동예 등 이들 지역 집단의 형성과도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주제어: 함경도와 연해주, 전라도, 초기철기시대 물질자료, 대외 교류, 교통로

External Exchanges of Groups as Seen Through the Material Culture of Hamgyeong-do and Primorye in the Early Iron Age

Heo Junyang

Hamgyeong-do in the northeastern Korean Peninsula and Primorye in southeastern Russia are recognized through interconnected material data of the Early Iron Age, represented by the Korean-style Bronze Dagger Culture and the Tuanjie-Kroynovka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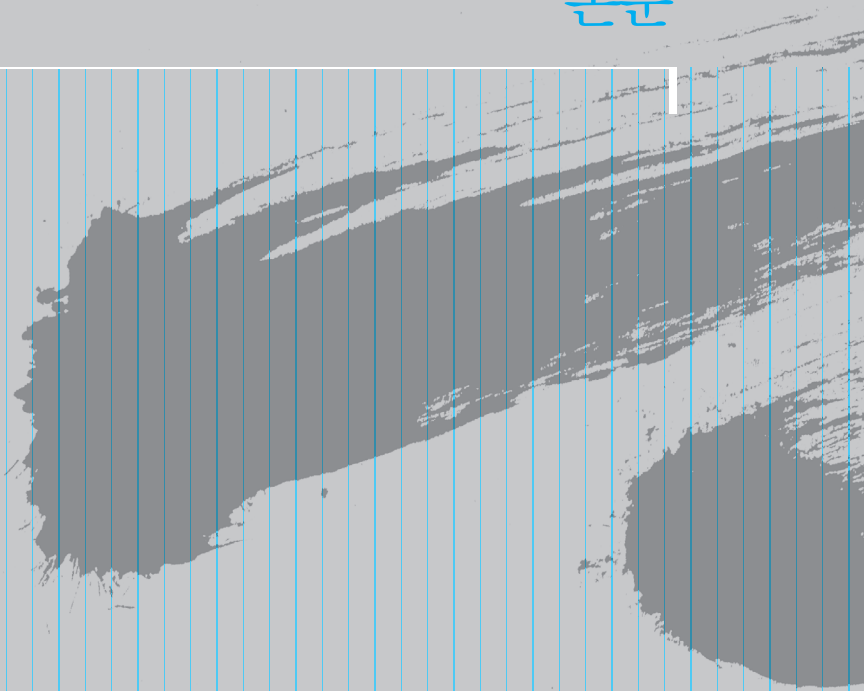
Based on these frameworks, this study examines the spatial contexts and routes of external exchanges conducted by the Hamgyeong-do and Primorye group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material data from Hwanghae-do in the northwestern and Jeolla-do in the southwestern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sults indicate that while the interaction involving Hwanghae-do material data is identified as an indirect and limited diffusion, the exchange with Jeolla-do is confirmed to be direct, involving a diverse range of materials. In other words, the material culture of

Hamgyeong-do and Primorye shows a higher probability of being synchronized with the latter. Consequently, the spatio-temporal development of the two regions is closely linked, and regional expansion has progressed through the diffusion and migration of both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Ultimately, the material culture of Hamgyeong-do and Primorye during the Early Iron Age is interpreted as the outcome of direct external exchange and diffusion by the Jeolla-do group, leading to the subsequent establishment of a new culture. Furthermore, the regional expansion among these groups establishes the first to third phases of diffusion and their corresponding routes, operating through the respective nodes of Jeolla-do, Hamgyeong-do, and Primorye. Specifically, the first phase of diffusion is identified in Primorye, the second in Hamgyeong-do, and the third in Gangwon-do, all of which appear to have advanced via coastal routes.

Keywords: Hamgyeong-do and Primorye, Jeolla-do, Material Culture of the Early Iron Age, External Exchange, Routes of Exchange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예맥에 대한 중국 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

조원진 | 한양대학교 ERICA 문화유산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최근 중국 학계의 예맥 논문 검토
- III. 주요 단행본을 통해 본 중국 학계의 예맥 연구
- IV. 『중국동북민족사』와 「고대문헌 중의 “예맥”연구」의 예맥 연구
- V. 맺음말 – 중국의 예맥 연구 문제점과 향후 과제



I. 머리말

예맥(濊貊)은 한국 고대사 및 동북아시아사의 전개 과정에서 시원적 기반을 이룬 핵심 종족 집단이다. 이들은 고조선의 주요 구성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등 초기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종족적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한국 고대사의 전개와 큰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예맥의 실체와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중국 선진 문헌에서는 일찍이 예(濊)와 맥(貊)을 개별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 및 주변 집단과의 교류 양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와 맥은 점차 ‘예맥’으로 병칭되거나 혼용해서 사용되었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광범위한 여러 집단을 포괄하는 범주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와 개념의 모호성은 예맥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예맥의 기원에 대한 인식은 한국 학계와 중국 학계가 뚜렷하게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예맥이 섬서·하북 지역에서 요령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며,¹ 최근에는 이미 춘추 중기 이전에 섬서·하북 지역과 요령지역에서 각기 분포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² 반면 중

* 투고: 2026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6년 5월 11일, 게재 확정: 2026년 5월 19일

** 이 글은 한림고고학연구소·고조선부여사연구회·춘천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 『춘천 예맥역사문화권 고고학과 문헌의 만남』(2025.12.19.)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김상기, 1948, 「예맥한이동고」, 『사해』 1(1974, 『동방사논총』, 서울대학교출판부, 355~368쪽).

2 박준형, 2008, 「예맥의 분포양상과 그 이해」, 『인문학보』 34, 196~198쪽.

국 학계에서는 예맥의 기원을 토착설과 이동설(예는 토착, 맥은 이동 등)로 나누어 논의되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후자, 즉 이동설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예맥의 기원을 중원 또는 내륙 지역에서 찾음으로써, 고대 예맥과 중원 지역 간의 역사적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현재의 지역적·민족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논리적 흐름을 구축하고 있다.³

예맥에 대한 연구는 근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채호와 최남선 등은 한민족의 중심 종족을 부여계로 설정하고, 이들이 한족(漢族), 동호(東胡), 흉노(匈奴) 등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종족임을 강조하였다.⁴ 특히 중국 문헌상에 나타나는 예맥을 바로 이 부여계로 간주하며, 고조선 역시 예맥족(부여계)으로 파악하였다.⁵ 이는 고조선을 기씨·위씨조선으로 한정하고 예맥계와 분리했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⁶ 등 일본 학계의 연구와 명확하게 대비되는 지점이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일본의 만주 침략을 계기로 동북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부사년(傅斯年)은 『동북사강(東北史綱)』(1932)에서 예맥의 기원을 기자(箕子)의 건국에 두었으며, 예족은 부여, 구려, 옥저를 포함하고, 한대 예족의 분포를 요령성 동부와 길림성 대부분, 그리고 북으로는 흑룡강성 남단과 한반도 동부에 이르렀다고 보았다.⁷ 김육불(金毓黻)은 『동북통사(東北通史)』(1941)에서 고대 동북 지역 민족을 한족, 숙신족, 부여족, 동호족의 4계통으로

3 조우연, 2011, 「중국 학계의 ‘濊貊’ 연구 경향」, 『동아시아고대학』 25, 302쪽.

4 신채호 저·이만열 주석, 1992, 「讀史新論」, 『(註釋) 朝鮮上古文化史: 讀史新論 朝鮮史研究草』,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최남선, 1973a, 「松漠燕雲錄」, 『六堂 崔南善 全集』 6(白頭山 觀參記·金剛禮讚 外), 玄岩社; 최남선, 1973b, 「滿蒙文化」, 『六堂 崔南善 全集』 10(論說·論文Ⅱ), 玄岩社.

5 조원진, 2024a, 「최남선의 만주기행과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인식-『송막연운록』과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130, 125~126쪽.

6 白鳥庫吉, 1933, 「濊貊は果して何民族と見做べきか」, 『史學雜誌』 45-12(1970, 『白鳥庫吉全集』 4(塞外民族史研究 上), 岩波書店); 白鳥庫吉, 1934, 「濊貊民族の由來を述べて, 夫餘高句麗及び百濟の起源に及ぶ」, 『史學雜誌』 45-12(『白鳥庫吉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7 傅斯年 著·정지호 역, 2017, 『동북사강』, 주류성, 220~224쪽.

분류하였다. 그는 예맥은 맥인(貊人)의 또 다른 호칭이며, 부여·고구려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보았다.⁸

해방 후 한국 학계는 고대사의 중심 종족에 대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을 포함하는 예맥족으로 정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⁹ 중국 학계는 1980년대부터 손진기(孫進己)를 중심으로 동북 지역 종족 연구를 주도하며 예맥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손진기는 예와 맥이 단일민족이 아니고 많은 민족의 복합체였기에 그 종족 기원도 단일 계통이 아니라고 보았다.¹⁰ 이러한 예맥족의 복합 기원설은 시라토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결국 한민족과의 관련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내재된 것이다.¹¹ 따라서 한민족 형성의 시원적 기반을 부정하려는 중국 학계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을 지속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학계에서 예맥 관련 사료의 집성¹² 및 관련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학계 역시 꾸준히 관련 연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동북민족사(中國東北民族史)』(2014)를 통한 동북 민족에 대한 통사적 정리가 다시 이루어지고, 「고대문헌 중의 “예맥” 연구(古代文獻中的“濊貊”研究)」(2021)라는 예맥 관련 박사 학위 논문이 나오는 등 종합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 내에서 예맥 관련 종합 성과가 꾸준히 축적되어 온 것에 반해 국내 학계의 동향 파악은 2011년,¹³ 2012년¹⁴ 두 차례 정리에 머물러 있어 최근 10여 년간의 변화를

8 金毓黻 저·동북아역사재단 역, 2007, 『(김육불의)東北通史』上, 동북아역사재단, 87~88쪽.

9 李丙燾·金載元, 1959, 『韓國史』1(古代篇), 乙酉文化社, 7쪽.

10 孫進己, 1987, 『東北民族源流』, 黑龍江人民出版社(林東錫 역, 1992, 『東北民族源流』, 동문선, 220~221쪽).

11 조영광, 2019, 「중국 학계의 東北 東夷 연구 현황과 쟁점」, 『사학연구』 134, 15~16쪽.

12 윤용구, 2012, 『예맥 사료집성 및 역주』, 백산자료원; 박대재, 2013,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景仁文化社.

13 조우연, 2011, 앞의 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0년 이후 중국 학계의 예맥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제Ⅱ장과 제Ⅲ장에서는 최근 중국 학계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과 단행본을 중심으로 연구의 전반적인 추이와 핵심 주제를 파악한다. 이어 제Ⅳ장에서는 최근 중국 학계의 대표적인 성과인 『중국동북민족사』와 「고대문헌 중의 “예맥” 연구」의 주요 논지와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근 중국 학계의 예맥 연구가 지난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최근 중국 학계의 예맥 논문 검토

이 장에서는 최근 중국 학계에서 발표한 예맥 관련 논문들을 CNKI에서 검색하여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는 기존 연구사의 정리부터 건국 신화와 언어 계통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나아가 중원 왕조와의 정치·경제적 관계 및 고고학 자료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심도 있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중국 학계의 예맥 연구와 고구려의 기원에 대한 연구사 정리가 이루어졌다. 왕우랑(王禹浪)·왕준쟁(王俊錚)¹⁵은 예맥의 족칭, 지리적 분포, 고고학 문화 및 민족 연원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며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 외의 세부 주제를 비롯하여 예맥과 중원 왕조 간의 교류 및 관련 인장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왕우랑(王禹浪)·정공(程功)·유가명(劉加明)·곽충충(郭叢叢)¹⁶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4 박준형, 2012, 「동북공정 이후 중국 학계의 고조선·부여·예맥연구 동향」,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15 王禹浪·王俊錚, 2016, 「機猶研究述評」, 『渤海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8-2.

16 王禹浪·程功·劉加明·郭叢叢, 2012, 「近十年來中國高句麗民族歷史問題研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족원(族源) 문제에 대해서는 고이, 맥족, 동이, 은상, 다원적 구성 등의 견해를 소개하였다. 고구려라는 국호의 유래와 관련해서는 맥이라는 명칭에서 유래한 음역어라고 본 견해를 소개하였다.

시인달(時仁達)·진백림(陳伯霖)¹⁷은 『삼국지(三國志)』 예전(濊傳)에 나오는 병이 들어 죽으면 새집을 짓고 산다는 기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세계 민족지와 비교하여 이 풍습은 고대인의 종교적 행위이자 영혼불멸의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예맥의 언어에 대한 연구가 고구려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합찬온(合燦溫)·장사동(張士東)¹⁸은 맥족이 몽골 고원에서 동북으로 이주했다고 보면서 그 근거는 ‘호맥(胡貉)’(『순자』), ‘만맥(蠻貉)’(『사기』) 등의 기록을 들었다. 따라서 고구려어의 기원은 몽골 초원의 맥계 언어와 동북 토착 예계 언어 모두에 있다고 보았다. 이후 장사동¹⁹은 고구려어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였다. 그는 조선어족을 백제어, 신라어, 현대 조선어(한국어)로, 숙신어족을 발해어, 여진어, 만주어, 시버어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고구려어를 조선어족과 숙신어족의 기층 언어로 보았으나, 두 어족의 직접적인 기원으로는 보지 않았다.

장사동²⁰은 ‘예(濊)’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예(濊)’의 본래 의미는 ‘큰 물’이며, 예족이 위치했던 곳은 송화강 유역, 압록강 유역 및 한반도의 강원도와 함경남북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예(濊)’가 족칭

究成果綜述(2000-2012)』, 『哈爾濱學院學報』 33-12.

17 時仁達·陳伯霖, 2020, 「濊貊人“病亡則作新居”的歷史人類學解析」, 『黑龍江民族叢刊』 3.

18 合燦溫·張士東, 2015a, 「高句麗及語言與周邊民族及語言的關係」, 『蘭台世界』 21; 合燦溫·張士東, 2015b, 「從高句麗民族的濊系來源及其與周邊民族關係看高句麗語」, 『通化師範學院學報』 3.

19 張士東, 2019, 「高句麗語與朝鮮語及後期肅慎語族關係辨析」, 『東疆學刊』 36-2.

20 張士東, 2012, 「“濊”、“粟”語義考釋」,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3.

(族稱)으로서 가진 본뜻은 물가에 사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송화강은 예수(濊水)로 불렸으며, ‘속말(粟末)’ 역시 ‘예맥’에서 유래했다고 보았다.

동북공정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고구려 기원 관련 연구 중 근래에 나타난 경향 중 하나는 고구려 언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²¹ 특히 장사동이 고구려어를 중심으로 예맥의 언어 및 ‘예’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종전보다 한층 심화된 연구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맥계 국가의 건국 신화 비교도 이루어졌다. 진건(陳健)·강유동(薑維東)²²은 부여, 고구려, 백제 등 고대 동북아 예맥계 국가의 건국신화에 정형화된 패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부여 건국 신화를 본국 시조에게 차용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여기에는 고대 동북아시아 민족의 이주와 융합이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예맥과 중원 왕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주덕귀(朱德貴)·제단단(齊丹丹)²³은 갑골에 나오는 동이의 범주에 예맥이 포함되었다고 보았으며, 『시경』 한혁의 한후(韓侯) 기사, 『일주서』 왕회해, 『맥자유』 등의 금문 자료 등을 근거로 예맥이 상·주시대에 중원에서 활동했다고 보았다. 이후 예맥은 점차 이동했는데, 중원지역 잔존 세력은 중원 문화에 동화되거나 북방 세력에게 융합되고, 진·한(秦·漢) 이후에는 주로 동북 지역 및 한반도 일부에 모여 살면서 진·한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하였다. 즉, 예맥족의 발전은 사실상 중원 왕조의 흥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방호(李方昊)²⁴는 예맥이 중국 동북 남부부터 러시아 연해주와 한반도까지 거주했고, 예(濊), 옥저(沃沮)가 모두 예맥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한 나라 때 중원 왕조와 책봉-조공 관계를 수립했으며, 예인은 진번과 임둔을 세

21 조영광, 2017, 「초기 고구려사」,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역사공간, 85쪽.

22 陳健·薑維東, 2014, 「濊貊族建國傳說共用模式研究」, 『東北史地』 4.

23 朱德貴·齊丹丹, 2016, 「先秦兩漢時期“穢貊”族問題探討」, 『北方文物』 2.

24 李方昊, 2012, 「濊、沃沮概況及與中原王朝的封貢關係」, 『學理論』 26.

왔다고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들 세력은 고조선에 신복되어 기자의 팔조지교가 이곳에서 실행되었다고 보았다.

왕문일(王文軼)·뢰은리(賴銀莉)²⁵는 선진 시기 예맥과 중원 왕조 간의 교류를 중화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저자들은 예, 맥, 고이, 탁리 등의 예맥계가 인구 이동(기자, 맥족, 고족의 이주), 조공(성주대회), 무역(『관자』의 문피), 전쟁(연의 동진)이라는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서주, 연, 제 등 중원 세력과 맺은 다각적인 교섭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예맥과 중원왕조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예맥의 발전 과정을 중원 왕조와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한 것인데 동북공정 이후 나타나는 중국 중심 사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같은 인식은 동아시아 세계를 함께 만들었던 주변 민족의 자발성이나 선택을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²⁶

부여와 고구려의 종족 기원과 관련하여 예맥을 논한 연구도 있었다. 왕우랑(王禹浪)·왕준쟁(王俊錚)²⁷은 부여 족칭의 의미에 대해 예(濊) 설 등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며 아직 정론이 없으나,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한자 표음일 뿐 실제 의미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여 전기 도성과 관련하여 길림 용담산성, 동단산 산성, 남성자고성, 모아산고분군의 발견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정리하고, 부여 후기 왕성은 다양한 견해에도 고고학적 확증이 없어 여전히 논쟁 중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신군(劉信君)·등수평(鄧樹平)²⁸은 부여가 예나 맥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종족임을 주장하였다. 저자들은 예족의 주요 분포 중심지가 송화강 유역

25 王文軼·賴銀莉, 2025, 「先秦時期穢貊族系與中原的交往交流」, 『民族歷史與邊疆學』 2.

26 이준성, 2017, 「고구려 대외관계사」,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역사공간, 160쪽.

27 王禹浪·王俊錚, 2015, 「夫餘族稱與王城研究綜述」, 『黑河學院學報』 4.

28 劉信君·鄧樹平, 2018, 「夫餘與穢貊考辯」, 『社會科學戰線』 9.

이 아닌 한반도 중남부 및 동부 지역에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예군 남려가 예왕이며, 『삼국지』 부여전의 ‘예왕지인(濊王之印)’ 기사는 부여로 들어온 예인이 조상의 일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며, 부여가 예족인 근거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대동강 유역의 예족 문화는 부여의 기반인 서단산문화와는 상이한 문화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부여는 탁리국에서 기원한 집단으로서 예족과는 별개의 종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여의 기원을 탁리국으로만 한정 짓고 부여와 예맥의 관계를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왕면후(王綿厚)·온과학(溫科學)²⁹은 왕면후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예맥 내에서 북예(北穢)와 동예(東穢), 그리고 북부여와 동부여에 대해 고증하였다. 북예(北穢)는 훗날 북부여의 중심지가 된 예성(穢城) 일대에 해당하며, 서단산문화를 북예인의 문화로 규정하였다. 동예는 한반도 낭림산맥(단단대령) 이동의 동해안 지역에 분포했던 집단으로 파악하였다. 이 지역은 창해군의 옛터이자, 훗날 광개토대왕릉비에 등장하는 동부여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고증하였다. 또한 북예에 대응하여 요동의 혼강 및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했던 맥족을 남맥으로 지칭하였다.

묘위(苗威)는 예맥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먼저 예(穢), 맥(貊), 예맥(穢貊)의 다양한 용례를 분석하였다.³⁰ 선진시기 예는 주로 길림성 대부분과 한반도 낭림산맥 이동 및 러시아 연해주의 일부 지역에 널리 분포하였다고 보았다. 후에 서한 시기에 이르러 부여, 옥저, 동예 등의 민족이 모두 이 예족 계통의 분포 영역을 분할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맥은 발(發)이나 박(亳)과 상통하는 명칭으로 보았다. 예·맥은 요서 동부에도 섞여 살았으나 춘추 후기 동호에 융합되었다고 한다. 연나라가 요동군을 설치함에 따라 요동 지역 맥족의 상당수는 연나라 사람들과 융합되었으며, 요동에 남아 있던 맥족의 잔여 세력은

29 王綿厚·溫科學, 2019, 「關於北穢、東穢與北夫餘、東夫餘的再考察」, 『渤海大學學報』 6.

30 苗威, 2010, 「關於穢、貊或穢貊的考辨」, 『社會科學戰線』 8.

후에 고구려에 흡수된 것으로 보았다. 묘위는 고조선이 예맥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고조선의 선조는 양이(良夷)라고 주장한다. 고구려의 원류 역시 맥족이 아닌 고이(高夷) 집단이지만, 요동의 맥족이 고구려에 융합되었기 때문에 후대 사서에서 고구려를 ‘맥’으로 칭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묘위는 맥족을 문헌자료와 신석기 시대부터 서한 시대까지의 요동 지역 고고학 자료를 통해 통사적으로 검토하였다.³¹ 그는 『일주서』 왕회편과 『춘추좌전』 소공 9년 기사 등을 근거로 맥족은 하·상 시기부터 중원과 조공관계를 맺었으며 서주대에는 중원의 판도(북토)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 연의 동진으로 장성 내부에 편입된 맥족은 한족(漢族)으로 동화되어 사라졌고, 요동에 거주하던 맥족의 잔여 세력(소수맥, 양맥)은 고구려에 의해 융합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묘위는 주나라 시기 연나라와 요서 지역 종족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³² 저자는 문헌상의 발(發)이나 박(亳)을 맥의 동음이표기(同音異寫)로 파악하였다. 특히 『시경』 한혁편에 나오는 주 선왕(周宣王)이 한후(韓侯)를 임명하여 예(潑, 追)와 맥(狽) 등을 전담하게 한 기사를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예맥이 주나라 북토(北土) 통치 질서에 편입되어 연·한 등 접경 제후국들의 통제 아래 중원과 체계적인 정치·경제적 교섭을 전개했다고 주장하였다.

묘위의 연구는 실체가 불분명한 양이나 고이를 고조선과 고구려의 원류로 파악함으로써 예맥 중심의 종족적 연속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한후(韓侯)를 통한 교섭 관계를 중원의 일방적인 지배·편입 논리로 전개하고 있다. 이는 당시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대외 교섭 양상을 현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하여 역사에 소급 적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창해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먼저 왕우랑(王禹浪)³³은 길림시 일대에 먼저 예족이 예국을 건립하였으나, 북방에서 남하한 색

31 苗威, 2011, 「狽人史跡考述」, 『朝鮮·韓國歷史研究』, 延邊大學出版社.

32 苗威, 2024, 「周代燕與遼西族群的互動」,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57-2.

33 王禹浪, 2017, 「漢·滄海郡地理位置考—以普蘭店市張店古城爲中心」, 『東北

리인이 이를 멸망시키고 부여를 세움에 따라, 예왕 세력은 남천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후 예군 남려가 한나라에 투항하자 한무제가 이들을 요동 내지에 안치하고 창해군을 설치했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대련(大連) 보란점(普蘭店) 장점한성(張店漢城)을 규모와 지리적 조건 측면에서 창해군의 치소로 비정하였다. 같은 해 왕우량은 왕천자(王天姿)와 함께 발표한 논문³⁴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였다. 특히 장점한성에서 출토된 ‘임예승인(臨穢丞印)’ 봉니를 근거로 임예현이 창해군의 수현으로서 장점한성에 함께 설치되었거나, 혹은 본래 예지(濊地)와 인접한 사평(四平) 이룡호(二龍湖) 고성에 위치했다가 예인들의 남천과 함께 장점한성으로 교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조홍매(趙紅梅)³⁵는 창해군의 관할 영역에 관해서는 예군 남려가 이끌고 투항한 28만 명이라는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광활한 북옥저 지역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해군의 설치가 한반도에 군현제를 최초로 실시하고, 예족과 소통하는 통로를 열었음을 부각하였다.

양군(楊軍)³⁶은 『사기』에 나타난 ‘예맥(穢貉)’과 ‘예(濊)’ 개념을 구분하였는데 먼저 사용된 한자 표기가 ‘예(濊)’이며 ‘예(穢)’나 ‘예(蔑)’는 후대에 파생된 용어라고 보았다. 특히 『사기』에서 ‘예맥조선(穢貉朝鮮)’은 위만조선의 지배하에 있던 예맥 거주지 전체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인 반면, ‘예조선(濊朝鮮)’은 예군 남려가 통제하던 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두 개념이 내포하는 의미와 범주가 다르다고 구분하였다. 창해군의 위치는 요동군 해외에서 낭림산맥을 넘어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평안남도 일부도 포괄하는 광역의 지역이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손영(孫穎)³⁷은 『후한서』의 “요동에 이르러 내속했다”는 기사를 부정

之窗』23.

34 王天姿·王禹浪, 2016, 「西漢“南閭穢君”, 蒼海郡與臨穢縣考」, 『黑龍江民族叢刊』1.

35 趙紅梅, 2017, 「蒼海郡考述」, 『社會科學戰線』8.

36 楊軍, 2018, 「濊人與蒼海郡考」, 『地域文化研究』4.

37 孫穎, 2018, 「漢蒼海郡地望考」, 『黑龍江史志』5.

하고 예군 남려는 한반도 동부의 원거주지에서 한나라에 항복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역사지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창해군은 한반도 동부(강원도 일대)에 위치했으며, 대련 지역의 장점고성은 창해군이 아닌 요동군 답씨현의 치소였다고 보았다.

왕면후(王綿厚)·도석청(都惜靑)³⁸은 창해군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동예설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왕면후의 기존 연구서인 『고구려와 예맥연구(高句麗與濊貊研究)』(2004)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창해군과 동예의 실체를 고고·역사 지리학적으로 구체화하고, 낭림산맥을 경계로 고조선(낙랑군)과 동예(창해군)의 문화권이 뚜렷이 구분되었음을 논증하였다.

임예승인(臨穢丞印) 봉니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왕준쟁(王俊錚)³⁹은 봉니 출토지인 요남 지역의 장점한성을 창해군이나 임예현의 치소로 보던 종래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그는 봉니의 유동성을 지적하며 ‘임예(臨穢)’라는 명칭이 ‘예수(穢水)’ 또는 ‘예맥수(穢貊水)’에 인접했다는 뜻으로 보아 제2송화강에 인접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풍부한 한(漢) 문화 유물이 출토된 길림시의 동단산 고성 일대를 임예현의 치소로 비정하였다. 나아가 임예현이 현도군에 속하여 남하한 부여국과 토착 예인을 견제·관리하는 행정 거점이었다고 보았다.

이처럼 창해군의 위치 비정을 둘러싸고 중국 학계 내에서는 요동 지역설이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는 한편, 이를 반박하며 전통적인 동해안설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하는 주장이 공존하며 다각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⁴⁰ 요동 지역(요남 지역)을 창해군으로 비정한 견해는 한국 학계에서도 제기된 바 있으나⁴¹

38 王綿厚·都惜靑, 2019, 「對《漢書》和《三國志》中“單單大嶺”和“蒼海郡”再考辨」, 『地域文化研究』 3.

39 王俊錚, 2020, 「“臨穢丞印”封泥與“臨穢縣”考」, 『地域文化研究』 3.

40 창해군 위치 논의와 쟁점에 대해서는 최슬기, 2021, 「蒼海郡 위치비정의 쟁점과 전제」, 『고조선단군학』 44 참조.

41 權五重, 2000,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 168; 조영광, 2010, 「초기 고구려 중족 계통 고찰 -예맥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7; 조원진, 2017, 「衛滿朝鮮의 대외관계에 대한 검토 -朝·漢 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白

왕우랑의 견해는 나아가 창해군 설치를 부여의 정치적 동향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한국 학계에서도 일찍이 창해군을 부여 지역으로 비정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으며,⁴² 최근에는 서차구 유적 발굴보고서 출간과 함께 창해군과 부여 초기사의 연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⁴³ 따라서 창해군의 위치와 부여 초기사의 관련성을 심화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한서(後漢書)』동이열전을 검토하며 예맥을 논한 연구도 있다. 왕문광(王文光)·강야천(江也川)⁴⁴은 『후한서』동이열전 속의 동이는 시기적으로 선진 시기 황하와 회수 유역 사이에서 동이로 불렸던 민족과 함께 진한 시기 동북 변경에서 동이로 불렸던 민족도 가리킨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선진 시기의 화하족과 후대의 한족 및 그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을 강조하였다. 단홍운(段紅雲)·왕기(王琦)⁴⁵는 해당 열전이 동북 변경 민족의 민족지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하며, 동이 제종족이 농경 문화를 공유하며 화하족의 언어·문화적 영향과 한자 문화권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후한서』동이열전 원전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증원 왕조와의 관계와 한족(漢族)이 예맥계 집단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한편, 예맥과 다우르족(達斡爾族)의 연관성을 논한 연구도 있었다. 대광우(戴光宇)⁴⁶는 다우르어의 음운 현상이 고대 예맥어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음을

山學報』109.

42 박경철, 1992, 「부여사 전개에 관한 재인식 시론」, 『白山學報』40, 39~40쪽.

43 서영수, 2024, 「고조선·부여사 像의 새로운 복원」, 『동양학』96, 108쪽.

44 王文光·江也川, 2016, 「先秦·秦漢時期的東夷研究—以《後漢書·東夷列傳》爲中心」, 『學術探索』12.

45 段紅雲·王琦, 2017, 「《後漢書·東夷列傳》與秦漢時期東北邊疆民族的民族志述論」, 『思想戰線』43-2.

46 戴光宇, 2016, 「達斡爾族族源和穢貊—夫餘族系民族的聯系」, 『滿學論叢』第六輯.

주목하며, 다우르족의 기원과 예맥-부여 족계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저자는 부여 정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그 문명 요소가 동북 지역의 만주-통구스계 종족들에게 광범위하게 계승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왕우랑(王禹浪) 등에 의해 예맥 문화에 대한 고고학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왕우랑(王禹浪)⁴⁷은 요하 유역의 역사 문화와 고대 문명을 고찰하며 예맥족계의 지리적 분포와 문화적 융합 및 고대 국가로의 발전 과정을 규명하였다. 저자는 상·주 교체기 무렵 요하 하류 및 동요하 유역, 요동반도 일대에 분포했던 예, 맥, 발(發) 등의 집단이 점진적으로 융합함으로써 훗날 부여, 고구려, 조선 등의 고대 민족 집단을 형성했다고 보았다. 또한 저자는 중원문화와 밀접하게 교류한 예맥의 활동지를 도시 문명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왕천자(王天姿)·왕우랑(王禹浪)·왕준쟁(王俊錚)⁴⁸은 혼강(渾江) 유역 맥족의 유적과 고구려 초기 문명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맥족이 송화강·눈강 유역의 예족과 교섭하며 예맥을 형성한 과정에 주목하며, 특히 혼강 유역을 소수맥의 거주지이자 선진문헌 속 고이(高夷)의 활동지로 비정하여 이들을 고구려 형성의 주체로 보았다. 아울러 이들의 문화를 대석봉·적석총·석관묘 중심의 석구묘(石構墓) 문화 및 요령식 청동단검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고구려의 건국과 초기 도시 문명(오녀산성·하고성자)을 탄생시킨 토대가 되었다고 논증하였다.

왕우랑(王禹浪)·하진천(夏振泉)⁴⁹은 예맥 족계의 융합 과정과 이들 특유의 산성(山城) 문화를 주목하였다. 저자들은 전국시대 연나라의 동진으로 요동에 서 밀려난 맥족이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송화강 상류의 예족과 융합함으로써 비

47 王禹浪, 2012, 「遼河流域의歷史文化與古代文明」, 『哈爾濱學院學報』 33-4.

48 王天姿·王禹浪·王俊錚, 2015, 「渾江流域의古代歷史與文化」, 『哈爾濱學院學報』 36-12.

49 王禹浪·夏振泉, 2014, 「東北古族의形成與東北築城發展因素初探」, 『黑河學院學報』 5.

로소 예맥이 형성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족이 사용하던 예왕 지인은 훗날 남하한 색리인들이 세운 부여로 승계되었으며, 고구려 역시 이러한 예맥족계의 발전 과정에서 성장했다고 보았다. 또한 축성 문화와 관련하여 동단 산 등 초기 유적이 예족에 의해 축조되어 부여로 이어졌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예맥의 축성 전통은 고구려로 계승되어 발전했다고 한다.

이처럼 예맥 관련 고고학 연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왕우랑의 성과이다. 그는 고구려와 발해의 축성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부여 초기 왕성의 위치를 재비정하는 등 기존 학설을 보완·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외에도 왕우랑(王禹浪)·왕준쟁(王俊鏞)·허영(許盈)⁵⁰은 한국 학계의 말갈(靺鞨)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백산말갈과 속말갈의 일부는 예맥에 그 연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중견 학자가 한국에 유학 중인 신진 연구자와 함께 한국 학계의 시각을 분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고학 분야의 권위자인 위존성(魏存成)⁵¹은 화하(한족), 숙신, 예맥, 동호 등 4대 족계를 중심으로 동북 민족사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전개를 바탕으로 동북 지역의 민족이 중국의 통일 다민족 국가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음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2010년 이후 중국 학계의 예맥 관련 개별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종합하면 몇 가지 뚜렷한 흐름이 확인된다. 첫째, 연구 방법론의 다각화와 다학제적 접근이다. 문헌 고증을 넘어 언어학, 인류학, 고고학을 망라하여 예맥의 건국 신화, 장례 풍습, 언어 등을 분석함으로써 예맥 연구의 외연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둘째, 예와 맥의 기원적 분리와 맥족 주도성의 강조이다. 예맥을 단일한 집단이 아닌 기원과 생업 기반이 상이한 별개의 족군으로 파악하는 경향

50 王禹浪·王俊鏞·許盈, 2022, 「韓國學界的靺鞨研究—朝鮮半島古史體系的一項檢視」, 『黑龍江流域文明研究』 2.

51 魏存成, 2017, 「東北古代民族源流述略」, 『中國邊疆史地研究』 27-4.

이 뚜렷하다. 셋째, 예맥의 발전 과정을 중원 문명에 종속시키고 중화민족공동체의 형성 과정으로 편입하려는 경향이다. 넷째, 창해군의 위치를 두고 이를 요동반도 대륙 일대로 비정하는 새로운 견해와 한반도 동해안 일대로 비정하는 기존 학설 간의 역사지리학적 논쟁이 활발히 전개된 점도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결국 최근 중국 학계의 예맥 논문들은 학술적 심화를 이루고 있으나, 그 저변에는 예맥의 주체적인 발전 과정을 축소하고 이들을 중국 북방 변방사의 일원으로 귀속시키려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III. 주요 단행본을 통해 본 중국 학계의 예맥 연구

단행본에서 예맥에 대한 연구가 수록된 사례는 주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동북 지역과 한반도 지역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한 저서나 교통로, 축성 등의 특정 주제를 다루면서 예맥이 검토된 연구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니나(程妮娜)⁵²는 고대 동북 지역 민족의 행정 구역 설치의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예맥에 대해서는 한대부터 남북조 시기까지 동북 민족 지역의 발전 속에서 다루며, 부여와 고구려의 발전 및 예맥족의 분포와 사회 상황을 설명하였다. 기씨조선과 위만조선 이후 부여는 주변 부족들과 함께 중원 왕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 시기 동북 예맥족 계통은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의 4개 주요 부족으로 분할되었다가, 점차 ‘부여-옥저’ 계통과 ‘고구려-예’ 계통이라는 2개의 큰 흐름으로 나뉘었다고 보았다.

동북 지역 고고학 및 역사지리를 대표하는 연구자인 왕면후(王綿厚)는 일찍이 『동북역사지리1(東北歷史地理1)』(1989), 『진한동북사(秦漢東北史)』(1994), 『고구려고성연구(高句麗古城研究)』(2002), 『고구려와 예맥연구(高句麗與濊貊

52 程妮娜, 2011, 『古代中國東北民族地區建置史』, 北京: 中華書局, 17~22쪽.

研究』(2004)⁵³ 등의 방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했고⁵⁴ 최근에도 관련 단행본을 지속적으로 출간하였다. 왕면후는 먼저 2017년 저서⁵⁵에서 동북아 주량의 고고학, 민족, 문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교통사의 시대별 양상을 정리하였다. 그는 고구려가 맥을 지칭함이 명확함을 논의하고, 고구려의 기원지를 압록강과 혼강 유역 및 태자하와 소자하로 비정하였다.

또한 박문영(樸文英)과 공저로 출판한 저서⁵⁶에서는 시대별 동북아시아 종족 교통로를 고고학 유물과 문헌 기록을 결합하여 고찰하였다. 그는 압록강과 혼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시대의 석봉(石棚)과 대석개묘(大石蓋墓) 문화가 고구려 특유의 적석총으로 계승되는 계보를 추적하여 고구려의 기원지가 선진 시기 맥족(고이)의 활동 영역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불함산(장백산) 남북로’라는 종족 교통로를 제시하고, 이러한 교통로가 고대 동북 민족 간의 조공과 문화 교류를 매개하는 핵심 축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왕면후의 이 시기 저서로 주목되는 것은 『장백산구계 고고와 민족 요론(長白山區系考古與民族要論)』⁵⁷이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중국 장백산문화(中國長白山文化)』(劉厚生 主編, 2014)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53 이 책에서 왕면후는 요동의 ‘이강(二江, 혼강·압록강)’과 ‘이하(二河, 태자하·소자하)’를 거점으로 자생한 토착 맥족을 고구려 건국의 주체로 규정하였다. 그는 이 맥족을 산동 동이계인 고이(高夷)로 파악하였으며, 이들의 초기 문화로 묘후산 유형(廟後山類型)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는 문헌학·고고학·역사지리학적 성과를 종합하여, 선진(先秦) 시기 고이로부터 이강의 맥을 거쳐 고구려로 이어지는 통사적인 발전 계보를 체계화하였다(王綿厚, 2004, 『高句麗與濊貊研究』, 哈爾濱: 哈爾濱出版社, 3~60쪽).

54 이건재와 공저로 집필한 『동북고대교통(東北古代交通)』은 한국에도 번역되어 출간된 바 있다(王綿厚·李健才 著, 동아시아교통사연구회 역, 2020, 『고대동북아시아 교통사』, 주류성).

55 王綿厚, 2017, 『東北亞走廊考古民族與文化八講』, 哈爾濱: 黑龍江人民, 47~52쪽.

56 王綿厚·樸文英, 2016, 『中國東北與東北亞古代交通史』,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26~28쪽.

57 王綿厚, 2022, 『長白山區系考古與民族要論』,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있다. 저자는 장백산 구계의 민족 구성을 크게 4대 족계(四大族系)로 분류한다. 첫째, 남계(南系)는 요동 지역에 토착한 남맥(南貊) 족계로 훗날 고구려의 직계 선조가 되는 부족들을 포함한다. 둘째, 북계(北系)는 장광재령 동서 양측의 숙신과 탁리 계통을 가리킨다. 셋째, 동계(東系)는 한반도 낭림산맥 양측과 동해안에 분포한 고조선 및 동예·옥저 집단을 의미한다. 넷째, 서계(西系)는 송화강 중상류의 북예(北濊)와 북부여를 지칭하며 남계(남맥)와 함께 장백산 구계의 가장 주요한 두 대부족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예맥 인식은 예와 맥을 서로 다른 기원과 고고학적 문화를 지닌 독립적 실체로 파악하는 ‘남맥북예설(南貊北濊說)’에 있다. 저자는 예맥을 지리적·문화적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북예는 송화강 중류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한 서단산문화의 주인공으로, 토광묘를 위주로 하는 문화를 남겼으며 훗날 부여(夫餘)를 건국한 직접적인 선조로 규정된다. 반면 남맥은 요동의 압록강 및 혼강 유역과 태자하 및 소자하 유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마성자문화로 대표되는 석구묘(石構墓)와 화장 습속을 고유한 전통으로 삼았다. 이들 남맥은 훗날 압록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고구려를 건국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낭림산맥(단단대령) 이동의 동해 서안에 분포했던 동예 집단은 북예와 연원을 같이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비파형동검문화에 대해 요동기원설 입장에서 쌍타자3기문화를 그 배경 문화로 보면서 주체를 남맥으로 이해하였다.

왕면후는 고조선(기자조선, 위만조선)을 부여와 고구려를 형성한 예맥(북예·남맥) 집단과 의도적으로 분리하였고, 고조선의 영역을 청천강 이남으로 파악하여 중원 왕조(연·한) 문화권에 종속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예(濊)와 맥(貊)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부여와 고구려도 종족적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고조선을 예맥에 포함시키고, 예맥을 예와 맥 두 종족의 단순한 합칭이 아니라 종족적으로 예(濊)를 일컫는 단일 범주로 이해⁵⁸하는 한국

58 여호규, 2002, 「高句麗 初期의 梁貊과 小水貊」, 『한국고대사연구』 25; 조영광,

학계의 입장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⁵⁹

그리고 왕우랑(王禹浪)은 그동안의 연구를 집성하여 『동북유역문명연구(東北流域文明研究)』(2016)과 『동북고대민족축성연구(東北古代民族築城研究)』(2017)를 펴냈다. 먼저 『동북유역문명연구』⁶⁰는 자연적 수계인 유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고대 문명을 재해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동북 5대 유역(흑룡강, 요하, 대·소능하, 압록강, 두만강) 문명의 역사적 위상을 총괄한 뒤, 각 유역별 지리 환경, 고대 종족의 분포, 고성(古城) 유적, 그리고 문명 간의 교류 양상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저자는 예맥을 압록강 및 혼강 유역의 핵심 주체로 파악하면서도 이들의 성장을 증원 문명의 영향력과 연결 지어 설명한다.

『동북고대민족축성연구』⁶¹은 청동기 시대부터 청대까지 동북아시아 고대 성곽의 형성부터 변천 과정을 정리하며 예맥·색리 및 초기 부여의 축성도 다루었다. 이를 통해 예맥계 종족의 초기 축성 형식이 고구려 산성 기술의 원류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예맥계가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며 정치체를 발전시켜나간 과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 ‘동북고대방국속국사연구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된 『기씨조선사』와 『부여사』가 주목된다.⁶² 먼저 묘위의 『기씨조선사』⁶³는 기씨조선을 은 말주초에 증원의 선진 기술과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성립된 정치체로 보며,

2010, 앞의 글.

59 해당 저서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승호, 2023, 「王綿厚의 ‘長白山區系’論과 중국 長白山文化論의 현단계 -王綿厚의 『長白山區系考古與民族要論』(遼寧人民出版社, 2022)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조선단군학』 51 참조.

60 王禹浪, 2016, 『東北流域文明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61 王禹浪, 2017, 『東北古代民族築城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6~53쪽.

62 『기씨조선사』와 『부여사』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원진, 2021, 「최근 중국 학계의 기자조선 연구 동향 검토」, 『韓國史學報』 85; 조원진, 2022, 「중국의 최근 고조선·부여사 연구 현황과 평가」, 『동북아역사논총』 77 참조.

63 苗威, 2019, 『箕氏朝鮮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그 종족적 기반을 중원 유민과 동이계 양이(良夷)의 결합으로 파악한다. 저자는 기자가 한반도 남부에 진국(辰國)을 건립한 후 후손들이 점차 북상하여 국호를 조선을 고쳤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기씨조선이 중원 왕조와 긴밀한 신속 관계를 유지했음을 강조한다. 특히 요동의 맥인(貊人)과 서북쪽의 동호는 기씨조선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군사적 동맹 관계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연나라의 동진으로 동화와 요동지역 맥인 문화는 연나라 문화로 대체되었다고 보았다. 이 책은 고조선(기씨조선)의 역역을 청천강 이남으로 축소 비정하는 한편, 이를 중원 왕조의 부속국으로 규정함으로써 예맥계와의 연관성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유신군·등수평의 『부여사(夫餘史)』⁶⁴는 부여의 기원을 『논어주소(論語注疏)』에 언급된 구이(九夷)의 일원인 ‘부유(廬夷)’로 상정하고, 이를 북방 탁리국에서 남하한 이주 세력과 길림 지역 토착 집단이 결합하여 부여족계가 나왔다고 규정한다. 저자들은 예와 맥을 공간적·문화적으로 엄격히 분리하여, 예족은 한반도 중남부의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지식묘와 적석총을 영위한 집단으로, 맥족은 요동 산간 및 압록강 유역에서 수렵과 기마에 능했던 족군으로 비정한다. 특히 부여의 선대 문화인 서단산문화가 토광수혈묘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석조 묘제를 선호한 예족과의 종족적 차별성을 강조하며 부여를 독자적 계통으로 설정한다. 결국 부여는 예맥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기 간행된 단행본 중에서 특히 양군(楊軍) 등의 『조선반도고대사연구(朝鮮半島古代史研究)』⁶⁵는 동북 고대사와 민족사를 오랫동안 연구한 저자가 지역사의 틀에서 역대 한반도 왕조 및 강역 변천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한반도 문화의 중심이 대동강 유역에서 후기 한반도 남부 삼도(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로 이동하는 궤적을 정리하고 조선 왕조의 동북 확장 및 청대 강희제 시기 이후 양국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국경을 확정한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각 장에서 다룬 내용은 1장 기씨조선, 2장 위씨조선, 3장 예국

64 劉信君·鄧樹平, 2019, 『夫餘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65 楊軍 等, 2024, 『朝鮮半島古代史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91~104쪽.

과 진국 및 삼한, 4장 군현체제, 5장 신라, 6장 백제, 7장 고구려, 8장 임나(가야), 9장 왕씨고려, 10장 이씨조선이며, 부록에서는 단군조선의 기원, 장백산(백두산) 경계 문제를 다루었다.

이 중 3장을 중심으로 예맥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국(穢國)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시기에 공존했던 주요 고대 국가로, 예인(穢人) 또는 예맥족(穢貊族)으로 불렸으며 동이의 한 갈래로 보았다. 예국은 오늘날 강원도 및 함경남도 일대에 분포했으며, 서주 초기 이전에 출현하여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다가 창해군이 설치되면서 위만조선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나 창해군 폐지 후 예국은 위만조선에 병합되어 사실상 멸망했다고 보았다.

이 책은 『산해경』에 나오는 연나라에 멸망했다는 맥국이 강원도 춘천의 맥국과 동일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맥국’이라는 명칭을 제외하고는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연나라의 요동군 관할 구역이 대동강 유역에 이르렀다고 보는 등 기존 중국 학계의 주장을 무리하게 전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⁶⁶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개별 논지를 단행본 형식으로 재정리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처럼 예맥 관련 논의들이 지역사 및 통사의 체계 속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 학계의 예맥 인식이 국가적·대중적 차원의 역사 서술로 확산되며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문화권의 재구축이다. 왕면후의 ‘장백산 구계론’과 ‘남맥북예설’, 왕우량의 ‘동북 5대 유역 문명론’ 등은 동북아시아의 자연·지리적 공간 틀을 새롭게 설정하여, 예맥의 고고학적 문화를 중국 동북 지역 역사·지리의 체계에 편입시키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둘째, 다민족 통일 국가론에 입각한 변방사

66 이미 유자민(劉子敏)·김영국(金榮國)은 『산해경』에 나오는 맥국(貊國)의 위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맥국 부근을 흐르는 한수(漢水)를 청천강으로 파악하며 맥국의 위치를 한반도 내부로 비정한 바 있다(劉子敏·金榮國, 1995, 『『山海經』貊國考』, 『北方文物』 4).

의 대중화 및 공식화이다. 『기씨조선사』, 『부여사』, 『조선반도고대사연구』 등 특정 고대 국가와 지역을 망라하는 통사적 저작들이 시리즈로 출간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단행본을 통해 전개되는 중국 학계의 동향은 예맥을 한민족(韓民族)의 기원으로 보는 시각을 배제하고, 예맥의 역사를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형성 과정 속에서 소멸한 중국의 변방사로 규정지으려는 작업의 연장선이라 평가할 수 있다.

IV. 『중국동북민족사』와 「고대문헌 중의 “예맥”연구」의 예맥 연구

1. 『중국동북민족사』와 『동북아고대민족사』의 예맥 연구

이 장에서는 최근 중국 학계의 예맥 연구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동북민족사』와 「고대문헌 중의 “예맥”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⁶⁷

『중국동북민족사』 상권의 주편을 맡은 양군은 같은 해에 공저로 『동북아고대민족사』를 펴내기도 했는데 이 절에서 같이 살펴본다.

『중국동북민족사』⁶⁸는 2014년에 출간된 총 3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67 이 두 가지 책 외에도 예맥을 단독으로 다룬 만암(滿岩)의 저서 『예맥원류(穢貊源流)』(2019)가 출간되었다. 이 글의 집필 과정에서 이 책의 출간 사실을 인지했으나 해당 도서의 절판 및 국내의 주요 소장처 부재로 인해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출판사가 제공한 서지 정보에 따르면 본서는 문헌 연구와 고고학 성과를 결합하여 예맥의 기원과 분포, 그리고 부여·고구려로의 역사적 계승 과정을 정리한 전문 학술서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검토는 후후 자료를 확보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68 姜維公 主編, 楊軍 分卷 主編, 2014, 『中國東北民族史』 上卷,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동북 지역 민족사 연구서이다. 본 저작의 전체 주편(主編)은 강유공(姜維公)이며, 각 권의 분권 주편은 상권 양군(楊軍), 중권 손위상(孫偉祥), 하권 진봉(陳鵬)이 맡았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고대 예맥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상권의 주편인 양군은 이미 『고구려 민족 및 국가 형성과 변천(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2006) 등을 통해 동북 민족 관련 심층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상권은 선사시대부터 기원후 6세기까지의 동북 민족사를 다루며, 동호(東胡)·속신(肅慎)·예맥(穢貊)의 3족계 형성을 핵심 축으로 민족 집단의 변천과 문화 교류 양상을 정리하였다. 또한 동북 민족과 중원 왕조 간의 역동적인 관계, 한사군을 포함한 군현 체제의 변화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특히 고고학 유적과 문화 변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동북 민족사의 역사적 틀을 정립하고 족군 계보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동북민족사』 상권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론(導論)

제1편 동북 3대 족계의 형성 (선사시대~기원전 3세기 말)

- 제1장 동북 민족의 지리적 무대
- 제2장 동호 연맹과 동호 족계
- 제3장 동이에서 속신 족계로
- 제4장 혼혈 족군의 형성
- 제5장 동북 민족과 주변 지역의 관계

제2편 동호 족계의 천이와 진화 (기원전 2세기~기원후 6세기)

- 제1장 동호의 분화
- 제2장 오환과 선비의 흥기
- 제3장 모용 선비와 제연(諸燕)
- 제4장 제1차 북조: 탁발 선비와 북위
- 제5장 혼혈 족군의 강성: 부여국

제6장 혼혈 족군의 강성: 고구려
제7장 동북 한족
제8장 숙신 족계
제9장 동북 민족과 주변 지역의 관계

후기(後記)

『중국동북민족사』 상권은 동북 고대 민족사의 주요 종족으로 인식되던 예맥족, 숙신족, 동호족에 대한 분류를 다시 시도하여 한족, 동호족, 숙신족의 3대 족계로 내세우며, 예맥은 독립된 족계가 아닌 동호족계와 숙신족계의 혼혈 종족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의 논지는 예·맥·부여·숙신·읍루·옥저 등을 포괄하여 ‘맥족류(貊族類)’ 또는 ‘용맥족계(戎貊族系)’에 속하는 광범위한 동북 혼혈 종족군(混血族群)으로 규정하는 데 집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맥은 부여, 옥저, 동예 등과 함께 예맥족계로 묶이면서도 동시에 숙신족과 융합하여 발전한 계통으로 이해되며 결국 동북 민족 전반은 맥(貊)을 상위 표지로 하는 대규모 혼성 집단의 다양한 분파로 서술된다. 이는 예맥을 동북 혼혈 종족군의 일부로 재구성하며 예맥의 역사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의도를 내포한다.

『중국동북민족사』는 동북 혼혈 종족군 형성의 핵심 계기로 기자(箕子)의 동래를 설정하고, 기자를 서주의 예악(禮樂)과 형정(刑政), 유학(儒學)과 문물 제도 등을 동방에 전파한 문명 전파자로 상정한다. 은나라 유민과 기자조선의 이주가 동북과 한반도에 예의와 제도, 특히 ‘팔조지교’를 도입했으며, 기자의 동래가 예맥의 풍속을 변화시키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고 주장한다.⁶⁹

69 양군은 이미 『고구려 민족 및 국가 형성과 변천』에서 팔조지교를 자세히 분석하고 그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楊軍, 2006,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83~193쪽). 이 책에서는 고조선사가 은 유민 등 중원 지역의 유이민 주도로 전개되었다고 보면서 고조선과 한사군을 중국사로 편입하고, 이를 토대로 고구려사도 중국사로 귀속시키려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문제

저자는 맥을 몽골 초원에서 동북으로 이주해 온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 분포 범위를 연(燕)·진(秦)·조(趙) 북부에서 부여와 대해(大海)에 이르는 광역의 공간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맥족은 서주 후기부터 동북 지역으로 들어와 정착했으며, 맥계는 부여와 숙신계와 함께 민족 융합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민족 융합 과정이 전국시대부터 한대까지 110여 년을 거치면서 예와 맥 간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졌고, 맥이라는 단어 역시 점차 부여와 예 등의 혼혈 종족군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변했다고 보았다. 혈연 관계로 볼 때, 서주 중후기에 동북 지역으로 들어온 맥계 종족은 후대의 동호계 종족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따라서 학계에서 말하는 예맥은 사실상 동호계 종족과 숙신족의 혼혈 종족 계통이라고 이해한다. 맥계 종족이 동쪽으로 이주한 것은 역사 기록에 있는 몽골 초원 민족의 대규모 동북 이주에서 비롯되었으며, 맥족이 현지 예족 토착민과 융합하여 동북 중부와 동남부 지역에서 큰 혼혈 종족군을 형성함으로써 예족의 분포 지역은 한층 더 축소되었다고 한다. 맥족이 동북으로 이주하여 기존의 예족 토착민과 융합함으로써 예맥족 계통이라는 새로운 혼혈 종족군이 형성되었으며, 부여, 옥저, 동예 등은 모두 이 예맥족 계통에서 분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숙신족계는 동호족계 및 용맥족계와의 융합을 통해 동북 동부·북부에 분포한 혼합 집단을 이루었으며, 최종적으로 부여, 고구려, 읍루, 숙신 등으로 분화된 것으로 설명된다. 부여에 대해서는 그 기원이 예맥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동호계와 숙신계가 융합한 종족이거나, 숙신계 토착민을 정복한 용맥 지배층이 세운 국가라는 관점을 중심에 둔다. 고고학적으로 백금보 문화를 부여국의 핵심 유적으로 비정하고 송눈평원 일대를 활동 공간으로 상정한다. 부여의 최초 활동 범위가 대흥안령과 송화·논강 합류 지점 일대에 자리했

점에 대해서는 여호규, 2010, 「양군(楊軍)의 『고구려 민족 및 국가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사 연구논저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101~153쪽 참조.

으며, 이곳에서 출발한 일부 부여 집단이 남하하여 토착 숙신족과 융합함으로써 부여, 고구려, 읍루, 숙신 네 민족으로 정착했다고 한다. 특히 부여와 고구려를 각각 혼혈 종족군 최초 및 가장 강성한 정권으로 기술하였다. 나아가 혼혈 종족군은 대부분 전성기 고구려 내부로 융합되었으나,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예맥이라 불리던 혼혈 종족군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동북민족사』가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혼혈 종족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기한 것이다. 이 책은 목차에서도 드러나듯이 부여와 고구려 등을 예맥계의 독자적인 국가가 아닌 ‘동호족 계통’의 하위 범주인 혼혈 집단으로 편입시키는 서술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혼혈 종족군은 예·맥·숙신·부여 등 서로 다른 시기와 공간에서 형성된 집단들을 하나의 상위 범주에 편입하여 이들을 중화민족 내부의 지역적 분파로 재구성하게 한다. 이러한 주장은 예맥을 한민족 형성의 고유 집단으로 파악하는 한국 학계의 견해와 충돌하며, 예맥을 광역 혼혈 집단으로 재규정하여 예맥의 독자성과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기자 동래와 팔조지교를 그 형성 계기로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맥계를 중화 문명 확산의 수혜자이자 다민족 중화민족의 일부로 포섭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동북민족사』와 같은 해에 출간된 『동북아고대민족사』의 예맥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양군(楊軍)·영파(寧波)·관윤화(關潤華)의 『동북아고대민족사』⁷⁰는 원고(遠古) 시대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시아 제(諸) 민족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지정학적 관점과 유역을 중심으로 5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작이다. 이 책은 춘추전국시대의 대규모 민족 융합을 거쳐 중국 동북 지역의 고대 민족이 크게 4대 족계(四大族系)로 재편되었다고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부의 한족(화하족), 서부의 유목 민족인 동호(東胡) 족계, 북부의 가장 오래된 민족인 숙신(肅慎) 족계, 그리고 중부 및 동남부의 예맥(濊貊) 족계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민족 분포 국면을 형성했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중부 및

70 楊軍·寧波·關潤華, 2014, 『東北亞古代民族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동남부에 자리 잡은 예맥 족계의 기원과 관련하여, 저자들은 예와 맥이 본래 서로 다른 연원을 가진 집단이었으나 장기간의 이동과 융합을 통해 거대한 혼혈 민족으로 형성되었다고 규명한다.

예족은 동이의 한 갈래로서, 서주 초기에 이미 중원 왕조에 복속된 바 있으며, 동해 연안에서 송눈평원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던 토착 집단이었다. 맥족은 본래 종족 연원상 북적(北狄)에 속하며 북방 몽골 초원 지대에서 활동하던 기마 유목 민족이었다. 춘추시대 초기부터 험윤(獫狁) 등 북방 세력의 압력을 받은 맥족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이동하여 예족의 거주지로 유입되었으며, 전국시대와 진한(秦漢)시대를 거치는 동안 두 집단이 섞여 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맥계 민족은 예계 민족의 영향을 받아 유목 경제에서 농경 경제로 변모했고, 한대에 이르러서는 두 종족 간의 차이가 모호해지면서 마침내 예맥 족계라는 새로운 혼혈 공동체가 완성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융합된 예맥 족계는 한·위(漢·魏) 시기에 이르러 부여, 옥저, 고구려, 예맥의 4대 민족으로 구체적으로 분화하여 발전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는 예맥을 몽골 초원에서 유입된 맥족과 토착 예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거대한 혼혈 종족군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고구려, 부여 등으로 발전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중원 한족, 발해, 신라 등에 흡수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동북민족사』와 『동북아고대민족사』는 모두 양군(楊軍)이 주도하여 같은 해(2014년)에 출간된 공통점이 있다. 『중국동북민족사』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아 강유공이 총주편을 맡아 수행된 대규모 편찬 사업의 결과물이고, 『동북아고대민족사』는 양군, 영파, 관운화 3인이 공동으로 동북아시아라는 더 넓은 시야에서 지역사를 서술하고자 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두 도서의 예맥 관련 부분은 모두 양군의 주도적인 역사관이 투영되어 있어 고대 민족의 형성 및 분류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론을 공유하고 있다. 두 도서 모두 예맥을 단일 기원의 민족이 아니라, 몽골 초원 등지에서 이동해 온 유목 민족

인 맥족과 농경을 영위하던 토착 동이 계열의 예족이 지속적으로 섞여 만들어진 거대한 혼혈 종족군으로 규정하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한편, 두 도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공간적 범위와 거시적 역사관의 지향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동북민족사』는 제목 그대로 ‘중국동북’이라는 현대 중국의 영토적 경계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동북 민족사에 대해 지리적 환경과 중원 왕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변방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동북아고대민족사』는 ‘동북아’라는 공간을 무대로 삼는다. 중국 동북 지역뿐만 아니라 몽골 동부, 러시아 극동,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까지 모두 통합하여 서술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중국동북민족사』는 예맥 등 고대 종족을 중화민족 형성 과정의 일환으로 편입시키려는 중국 내부의 통사적 체계화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고대민족사』의 경우 ‘다원일체’라는 중화민족공동체의 내부 통합 논리를 한반도와 일본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 지역의 역사로 확장하여 적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저작이라 할 수 있다.

2. 「고대문헌 중의 “예맥”연구」의 예맥 연구와 문제점

다음에 살펴볼 연구는 이명호(李明浩)가 2021년 동북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여 통과한 「고대문헌 중의 “예맥”연구」⁷¹이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동북 지역 민족 연구의 권위자인 이덕산(李德山) 교수이다. 이덕산은 특히 난범(獮凡)과 함께 저술한 『중국동북고민족발달사(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2003)에서 동북 고민족을 1) 숙신계 2) 예맥계 3) 동호계 4) 기타 고민족과 한족(漢族)으로 나누어 정리한 바 있다.⁷² 이명호는 이러한 스승의 견해를 수용하여 고대 동북의 종족을 예맥계, 동호계, 숙신계, 한계의 4종족

71 李明浩, 2021a, 「古代文獻中的“濊貊”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72 이 책에서 난범은 1장을 집필하는 데 그쳤으며, 나머지 장의 집필과 전체적인 저술 방향은 이덕산이 주도하여 완성되었다.

으로 보고, 이 중에서 예맥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緒論)

제1장 역사 문헌 속의 “예”

제2장 역사 문헌 속의 “맥”

제3장 『일주서·왕회해』 중의 “동이”, “동북이”와 예, 맥의 관계

제4장 맥국 및 그 사회 상황

제5장 예인 및 그 사회 상황

제6장 “맥”인의 동쪽 이주와 “예”인과의 융합

제7장 고려 문헌 『삼국사기』 속의 “예맥” 및 그 소멸

결론(結論)

「고대문헌 중의 “예맥” 연구」는 예맥을 고대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핵심 민족으로 규정하고, 동쪽의 숙신계, 서쪽의 동호계, 남쪽의 화하 민족과 함께 고대 동북의 ‘4대 민족’을 구성하였다고 전제한다. 예맥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먼저 예가 고조선(기자·위만조선)의 통치 아래에서 존재하였고, 이후 맥의 동천과 양자의 융합을 통해 부여·고구려·옥저 등으로 분파되었다는 흐름을 강조한다. 이 가운데 부여와 고구려는 예맥 집단 가운데 국가를 건립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강성한 지방 정권으로 성장하고, 주변 예맥 집단을 흡수·융합하였다. 그러나 예맥이 숙신계·동호계·한족 및 삼한 계열 집단에 차례로 흡수됨으로써, 결국 독립된 민족적 실체로서의 예맥은 역사 속에서 소멸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고대 문헌에 다양한 이체자(追, 藏, 穢, 穢)로 표기된 예(穢)와 맥(穢)을 검토하면서, 선진(先秦) 시기에는 이 둘이 생활 지역과 사회 생산 방식이 전혀 다른 두 민족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는 비

교적 이른 시기에 중원 동부에서 동쪽으로 이주하여 송화강·압록강·두만강 유역 및 한반도 동북부에 정착한 농경 민족으로 규정되고 맥은 중국 북부 초원 시대에서 활동하던 기마 유목 민족으로 파악된다. 기원전 3세기 말 흉노의 팽창을 계기로 맥인이 예인의 거주지를 향해 동진하면서 양자의 접촉과 융합이 촉진되었고, 이러한 융합 과정을 거쳐 예맥은 한대(漢代)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의 통합된 민족 범주로 인식되었으며, 이 속에서 부여·고구려·옥저 등 분파 민족 및 정치체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기자의 동래와 함께 중원에서 이주해 온 예인이 고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 통치하의 주체 민족이 되었다고 보았다.

제2장에서는 예(濊)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게 전승된 것과 대조적으로, 맥(貊)은 『시경』·『사기』 등 고대 문헌에 다양한 표기(毫·發·貊·貉)로 빈번히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기 맥인의 생활 지역과 생존 양태를 추정한다. 선진 시기 문헌에서 맥은 예와 명확히 다른 족명으로 기록되지만, 저자는 양자를 동일 계통 민족의 두 분파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친연성을 전제로 맥인이 동북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 예인과 빠르게 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융합 구조가 동호·숙신 등 타 민족과의 접촉과는 달리 곧바로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진 배경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제3장에서는 고조선 통치 하에서 가장 핵심적인 민족 구성 요소가 예인이었으며 다수의 문헌에 나타나는 고조선인은 실질적으로 예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한다. 고조선은 연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 환발해 일대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고, 한반도 지역으로 물러났다고 한다. 『일주서』 왕회해에 보이는 동이(東夷)·동북이(東北夷) 명칭과 관련해서는, 이들 대부분을 고조선 통치권 안에 있던 예인과 맥인의 지계(支系) 부락으로 파악하고, 특히 요서·요동 지역에 거주하던 맥인의 실체를 확인한다. 또한 해당 기사에는 조선의 이름 대신 직신(稷愼, 숙신)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맥인의 원래 분포 범위가 산서·섬서·하북 북부에서 동북 남부에 이르는 광역의 지역이었으며, 주(周)의 경기(京畿)와 인접했던 맥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주인(周人)과 교류한 유목 민족이었다고 강조한다. 기원전 9세기 말 험윤의 압박으로 맥인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진(晉)·연(燕) 북부 일대로 진입하였고, 춘추 시기에는 산융과 함께 연 북부 및 동북 남부로 이동함으로써, 이후 중원 문헌에서는 ‘맥’이 동북 민족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동북 남부로 이주한 맥인은 거주 지역에 따라 구려·소수맥·양맥 등으로 분파되었다고 보았다.

제5장에서는 평양시 정백리 고분에서 출토된 부조예군 인장을 근거로 예인의 거주지가 서한 낙랑군의 직접 관할 아래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서한 무제 때 예군 남려의 내속 이후 예인은 일관되게 중원 왕조 동북 변군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예인의 중원 의존성이 예인 문화와 한(漢)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예맥 사회가 중원 문명권에 편입되는 과정을 촉진했다고 해석한다.

제6장에서는 최초의 예와 맥을 생활 방식이 다른 별개의 민족으로 파악한다. 맥족은 묵특선우 시기 흉노를 피해 중원 북부 초원에서 동천한 기마민족인 반면, 예족은 동방의 토착 농경민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부여·고구려·동옥저 등의 농경문화와 계급 발생은 맥족이 예족을 정복·융합한 결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초기 부여 사회 및 고구려 사회의 맥 문화는 일부 북방 유목 기마민족 문화의 흔적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제7장에서는 예맥에 대한 문헌 기록이 『사기』 이후 『삼국지』·『후한서』에 이르러 점차 소략해지는 현상을 동북 지역 민족의 상황과 예맥의 부여·고구려로의 흡수·융합 과정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 특히 고구려의 팽창 이후 동북의 예맥은 대부분 고구려의 직접 통치 아래 편입되어 고구려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중국 사서에서는 예맥 관련 기사가 고구려 기사 속에 흡수·변형되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삼국사기』에서 예맥 후예를 대부분 ‘말갈’로 호칭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요사(遼史)』에 보이는 ‘예맥국왕부(濊貊國王府)’ 설치 기록을 통해 요 초기까지 예맥의 독립된 부락 실체가 존재했다고 파악한다. 하지만 발해 멸망 이후 남하한 생여진 속에 예맥 잔존 세력이 완전히 용

합되면서 요대(遼代)를 전후한 시점을 기준으로 예맥이 최종 소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명호는 같은 해 「예맥연구총술(濊貊研究綜述)」로 발표하기도 하였다.⁷³ 이 논문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핵심 논지를 바탕으로 예맥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폭넓게 제시하였다.

이명호의 연구는 맥족의 기원을 중원 북부 초원의 유목 민족, 예족의 기원을 동이계 농경 민족으로 구분하고, 예맥 융합이 부여·고구려 등 국가 형성 과정에서 계급 분화와 경제 구조에 미친 영향을 ‘맥의 정복’과 ‘예의 농경 기반’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설명한다. 또한 『일주서』, 『삼국사기』, 『요사』 등 문헌을 폭넓게 활용해 예맥의 소멸 과정을 추적하고, 요대 생여진인으로의 최종 융합이라는 구체적인 소멸 시점과 경로를 제시한 점 역시 처음 제시되는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또한 이명호는 고조선(기씨조선, 위씨조선)을 예맥 집단이 세운 대표적인 고대 민족 정권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는 고조선의 최고 지배층을 중원 출신의 유민(기자)으로 보는 시각을 수용하면서도, 국가의 기층을 이루는 주민 다수는 토착 예맥인(특히 예족)으로 보았다. 나아가 예족이 본래 기자의 봉지가 있던 중원 하남(河南) 예수(濊水) 지역에 거주하다가 기자가 동천(東遷)할 때 동행하여, 점진적으로 발해 연안과 한반도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논문은 예맥의 기원과 전개를 중국 북방사의 연장선으로 파악하려는 중국 학계의 경향을 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도 작지 않다. 우선 예맥의 기원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특히 맥족의 이주 경로를 산서·섬서·하북 등 중국 북부 초원에서 험윤의 압박을 받아 동천한 유목 기마 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맥족을 중국 북방 이주 세력으로 강조한다. 나아가 맥족 동천의 역사적 배경을 흉노나 험윤 등 중국 북방의 정세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예맥 계통의 역사를 중국 북방사의 일부로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다

73 李明浩, 2021b, 「濊貊研究綜述」, 『中國邊疆史地研究』 31-1.

음으로 예인의 중원에서 이주와 중원 의존성 역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예맥 사회의 발전과 문명화가 주로 중원 왕조의 통치와 보호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관점은 예맥 내부의 자체적 발전보다는 중국 중심적 역사관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예맥 등은 중국 북방에서 기원한 맥족과 중원 한족 문화가 합류한 융합 종족의 한 갈래로 설정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예맥을 한국 고대 국가의 중심 종족으로 파악하는 한국 학계의 인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예맥과 한민족(韓民族) 간의 관계를 부정하는 중국 학계의 경향과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맺음말 – 중국의 예맥 연구 문제점과 향후 과제

이 글에서는 2010년 이후 중국 학계에서 발표된 예맥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맺음말에서는 그간의 검토 내용을 요약하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는 한편, 향후의 대응 과제를 전망하기로 한다.

최근 중국 학계의 예맥 관련 논문들은 언어, 풍습, 고고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연구 주제를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선진 시기 이래 예맥과 중원 국가와의 조공, 무역, 전쟁 등 정치·경제적 교류를 강조하여 예맥을 중화민족공동체 형성 과정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시각을 공유한다. 고고학 연구에서는 송화강 유역의 서단산문화를 예족의 문화로, 요동 지역의 마성자문화와 비파형동검 문화 및 압록강·혼강·태자하·소자하 유역의 문화를 맥족의 문화로 파악하고 있다.⁷⁴ 그리고 전자는 부여, 후자는 고구려의 배경문화가 된다고 본다.⁷⁵ 한편

74 요령성박물관 등의 전시에서도 마성자문화와 쌍방문화를 맥족과 연계시키고 있다 (배현준, 2025, 『예맥 관련 중국 소재 박물관의 전시』, 『춘천 예맥역사문화권 고고학과 문헌의 만남』,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92~93쪽).

으로는 맥족이 몽골 초원에서 이주해왔다는 견해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창해군의 위치와 관련하여, 이를 요동반도 대련 일대로 파악하는 새로운 견해와 한반도 동해안 일대로 바라보는 기존 견해 간의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단행본 연구들은 이러한 개별 논문들의 성과를 취합하여 동북 지역의 교통로, 축성, 행정 구역 변천 등 특정 주제를 지역사 및 통사적 체계 속에서 정리하고 있다. 『중국동북민족사』와 「고대문헌 중의 “예맥” 연구」, 그리고 최근 발간된 주요 단행본들에서 나타난 예맥 연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濊)와 맥(貊)의 기원을 분리하고 이주한 맥족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예맥을 광역의 동북 혼혈 종족군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관점도 확인되는데, 특히 맥은 중국 북방 초원 지대에서 동천해 온 유목 기마 집단으로 설정된다. 둘째, 예맥 사회의 발전을 중원 문명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다. 기자(箕子)의 동래와 팔조지교 등을 통해 예맥의 발전 과정을 중원 왕조와의 관계 및 중원 이주민의 영향과 밀접하게 연관시킨다. 셋째, 예맥의 역사적 공간과 문화를 거시적인 지역사 체계로 재편하여 통사적 단행본으로 구축하는 경향이다. 왕면후의 ‘남맥북예설’이나 왕우량의 ‘유역 문명론’처럼 예맥의 문화를 통합적 지역사로 정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중국 학계의 연구 경향은 한국 학계와의 본질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학계에서 고조선은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가리키며 기자조선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중국 학계는 고조선을 기자(기씨)조선과 위만(위씨)조선으로 파악하며, 고조선의 종족은 양이로 보아 예맥과 분리하거나 예맥을 주민으로 인정하더라도 중원에서 이주한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화강 일대의 부여를 예족으로, 압록강·혼강 유역의 고구려를 맥족으로

75 고구려 기층문화와 관련된 한국 학계의 최근 연구는 하문식, 2019,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①: 소자하와 부이강 유역의 유적」, 『白山學報』 115; 하문식, 2020,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② - 신빈 지역 동굴무덤의 신자료 -」, 『先史와 古代』 63 참조.

파악하는 것은 한국 학계와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예와 맥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점에서 예와 맥을 같은 예맥 범주 안에서 이해하는 한국 학계의 견해와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예맥과 부여·고구려의 연관성마저 부정하는 연구도 확인된다.

특히 중국 학계의 연구 방식은 사료에 대한 엄격한 문헌 비판과 객관적 해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중국 학계의 예맥 연구는 『일주서』 왕회해의 성주대회, 『시경』 한혁편의 한후 기사나 고이·양이 기사 등 선진~한대 문헌이나 후대 주석에 나오는 실체가 불분명한 집단, 혹은 충분한 사료 비판이 필요한 기록들을 깊이 있는 검토 없이 예맥과 중원 국가의 일방적인 조공·복속 관계로 규정하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후대에 윤색된 기자조선설과 기자에 의한 팔조지교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도 존재한다.⁷⁶ 아울러 ‘호맥’이나 ‘만맥’ 등 범칭으로서의 맥과 실체로서의 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하다 보니, 맥족이 북방에서 동북으로 이동했다고 보게 되는 무리한 견해로 나타난다.⁷⁷

결국 중국 학계의 최근 예맥 연구 동향은 학술적 깊이를 더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예맥 집단이 한민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한국 학계의 인식과 충돌하면서 예맥의 역사적 비중을 약화시키고, 예맥을 중국 동북 변방사 체계 안에 편입·흡수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학계의 예맥 연구 동향은 여전히 동북공정식 논리가 반복되거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⁸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한국 학계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예맥을

76 기자조선설의 형성 과정과 팔조지교 등 고조선 관련 자료가 기자와 결부되어 윤색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조원진, 2023, 「기자동래설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9; 조원진, 2024b, 「『魏略』·『三國志』에 나타난 기자조선설의 형성」, 『한국사연구』 205 참조.

77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90~91쪽; 조원진, 2019, 「예맥·조선과 서주·춘추 제와의 교류」, 『한국고대사탐구』 33, 31쪽.

78 박준형, 2012, 앞의 글, 248쪽.

종합적으로 다른 단행본이나 박사학위논문이 아직 없는 실정이며, 동북 지역 종족을 우리의 시각에서 통사적으로 정리하여 중국 학계의 통사적 시각에 대응할 만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중국 학계의 경우 예맥 연구만이 아니라 『동북고대방국속국사』 편찬의 일환으로 『고족·동호·영지·도하사(孤竹·東胡·令支·屠何史)』(2019)가 출간되고, 몽골고원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고대북방민족사(中國古代北方民族史)』(2021) 10권이 출간되는 등 다른 종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연구나 자료집 발간이 주로 예맥에 한정되고 이마저도 미진한 형편이며,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또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학계는 동북 지역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시각을 확보해야 한다. 예맥의 실체와 한민족 형성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종족 통사 연구를 심화하여,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설 학술적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金毓黻 著·동북아역사재단 역, 2007, 『(김육불의)東北通史』 上, 동북아역사재단.
- 박대재, 2013,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景仁文化社.
-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 傅斯年 著·정지호 역, 2017, 『동북사강』, 주류성.
- 윤용구, 2012, 『예맥 사료집성 및 역주』, 백산자료원.
- 李丙燾·金載元, 1959, 『韓國史』 1(古代篇), 乙酉文化社.
- 姜維公 主編, 楊軍 分卷 主編, 2014, 『中國東北民族史』 上卷,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苗威, 2019, 『箕氏朝鮮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孫進己, 1987, 『東北民族源流』,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林東錫 역, 1992, 『東北民族源流』, 東문선).
- 楊軍, 2006, 『高句麗民族與國家的形成和演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楊軍·寧波·關潤華, 2014, 『東北亞古代民族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楊軍 等, 2024, 『朝鮮半島古代史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王綿厚, 2004, 『高句麗與濊貊研究』, 哈爾濱: 哈爾濱出版社.
- _____, 2017, 『東北亞走廊考古民族與文化八講』,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_____, 2022, 『長白山區系考古與民族要論』,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 王綿厚·樸文英, 2016, 『中國東北與東北亞古代交通史』,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 王綿厚·李健才 著, 동아시아교통사연구회 역, 2020, 『고대동북아시아 교통사』, 주류성.
- 王禹浪, 2017, 『東北古代民族築城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劉信君·鄧樹平, 2019, 『夫餘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程妮娜, 2011, 『古代中國東北民族地區建置史』, 北京: 中華書局.

논문

- 權五重, 2000,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 168.
- 김삼기, 1948, 「예맥한이동고」, 『사해』 1(1974, 『동방사논총』,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경철, 1992, 「부여사 전개에 관한 재인식 시론」, 『白山學報』 40.
- 박준형, 2008, 「예맥의 분포양상과 그 이해」, 『인문학보』 34.
- _____, 2012, 「동북공정 이후 중국 학계의 고조선·부여·예맥연구 동향」,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 배현준, 2025, 「예맥 관련 중국 소재 박물관의 전시」, 『춘천 예맥역사문화권 고고학과 문헌의 만남』,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 서영수, 2024, 「고조선·부여사 像의 새로운 복원」, 『동양학』 96.
- 신채호 저·이만열 주석, 1992, 「讀史新論」, 『(註釋) 朝鮮上古文化史: 讀史新論朝鮮史研究草』,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 여호규, 2002, 「高句麗 初期의 梁貊과 小水貊」, 『한국고대사연구』 25.
- _____, 2010, 「양군(楊軍)의 『고구려 민족 및 국가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사 연구논저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 이승호, 2023, 「王綿厚의 ‘長白山區系’論과 중국 長白山文化論의 현단계 -王綿厚의 『長白山區系考古與民族要論』(遼寧人民出版社, 2022)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조선단군학』 51.
- 이준성, 2017, 「고구려 대외관계사」,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역사공간.
- 조영광, 2010,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 - 예맥족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27.
- _____, 2017, 「초기 고구려사」,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역사공간.
- _____, 2019, 「중국 학계의 東北 東夷 연구 현황과 쟁점」, 『사학연구』 134.
- 조우연, 2011, 「중국 학계의 ‘濊貊’ 연구 경향」, 『동아시아고대학』 25.
- 조원진, 2019, 「예맥·조선과 서주·춘추 제와의 교류」, 『한국고대사탐구』 33.
- _____, 2021, 「최근 중국 학계의 기자조선 연구 동향 검토」, 『韓國史學報』 85.
- _____, 2022, 「중국의 최근 고조선·부여사 연구 현황과 평가」, 『동북아역사논총』 77.
- _____, 2023, 「기자동래설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9.
- _____, 2024a, 「최남선의 만주기행과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인식 -『송막연운

- 목』과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130.
- _____, 2024b, 「『魏略』·『三國志』에 나타난 기자조선설의 형성」, 『한국사연구』 205.
- 최남선, 1973a, 「松漠燕雲錄」, 『六堂 崔南善 全集』 6(白頭山 觀參記·金剛禮讚外), 玄岩社.
- _____, 1973b, 「滿蒙文化」, 『六堂 崔南善 全集』 10(論說·論文Ⅱ), 玄岩社.
- 최슬기, 2021, 「蒼海郡 위치비정의 쟁점과 전제」, 『고조선단군학』 44.
- 하문식, 2019,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①: 소자하와 부이강 유역의 유적」, 『白山學報』 115.
- _____, 2020,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② - 신빈 지역 동굴무덤의 신자료-」, 『先史와 古代』 63.
- 段紅雲·王琦, 2017, 「《後漢書·東夷列傳》與秦漢時期東北邊疆民族的民族志述論」, 『思想戰線』 43-2.
- 戴光宇, 2016, 「達斡爾族族源和穢狔一夫餘族系民族的聯系」, 『滿學論叢』 第六輯.
- 苗威, 2010, 「關於穢、狔或穢狔的考辨」, 『社會科學戰線』 8.
- _____, 2011, 「狔人史跡考述」, 『朝鮮·韓國歷史研究』, 延邊大學出版社.
- _____, 2024, 「周代燕與遼西族群的互動」,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57-2.
- 孫穎, 2018, 「漢蒼海郡地望考」, 『黑龍江史志』 5.
- 時仁達·陳伯霖, 2020, 「濊狔人“病亡則作新居”的歷史人類學解析」, 『黑龍江民族叢刊』 3.
- 楊軍, 2018, 「濊人與蒼海郡考」, 『文化區研究』 4.
- 王綿厚·都惜青, 2019, 「對《漢書》和《三國志》中“單于大嶺”和“蒼海郡”再考辨」, 『地域文化研究』 3.
- 王綿厚·溫科學, 2019, 「關於北穢、東穢與北夫餘、東夫餘的再考察」, 『渤海大學學報』 6.
- 王文光·江也川, 2016, 「先秦、秦漢時期的東夷研究—以《後漢書·東夷列傳》爲中心」, 『學術探索』 12.
- 王文軼·賴銀莉, 2025, 「先秦時期穢狔族系與中原的交往交流」, 『民族歷史與邊疆學』 2.
- 王禹浪, 2012, 「遼河流域的歷史文化與古代文明」, 『哈爾濱學院學報』 33-4.

- _____, 2017, 「漢·滄海郡地理位置考—以普蘭店市張店古城爲中心」,『東北之窗』23.
- 王禹浪·王俊錚, 2015, 「夫餘族稱與王城研究綜述」,『黑河學院學報』4.
- _____, 2016, 「穢貊研究述評」,『渤海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8-2.
- 王禹浪·王俊錚·許盈, 2022, 「韓國學界的靺鞨研究—朝鮮半島古史體系的一項檢視」,『黑龍江流域文明研究』2.
- 王禹浪·程功·劉加明·郭叢叢, 2012, 「近十年來中國高句麗民族歷史問題研究成果綜述(2000-2012)」,『哈爾濱學院學報』33-12.
- 王禹浪·夏振泉, 2014, 「東北古族的形成與東北築城發展因素初探」,『黑河學院學報』5.
- 王俊錚, 2020, 「“臨穢丞印”封泥與“臨穢縣”考」,『地域文化研究』3.
- 王天姿·王禹浪, 2016, 「西漢“南閭穢君”,蒼海郡與臨穢縣考」,『黑龍江民族叢刊』1.
- 王天姿·王禹浪·王俊錚, 2015, 「渾江流域的古代歷史與文化」,『哈爾濱學院學報』36-12.
- 魏國忠, 2017, 「漢蒼海郡治所的地理考察」,『大連幹部學刊』9.
- 魏存成, 2017, 「東北古代民族源流述略」,『中國邊疆史地研究』27-4.
- 劉信君·鄧樹平, 2018, 「夫餘與穢貊考辯」,『社會科學戰線』9.
- 劉子敏·金榮國, 1995, 「『山海經』貊國考」,『北方文物』4.
- 李明浩, 2021a, 「古代文獻中的“濊貊”研究」,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_____, 2021b, 「濊貊研究綜述」,『中國邊疆史地研究』31-1.
- 李方昊, 2012, 「濊、沃沮概況及與中原王朝的封貢關係」,『學理論』26.
- 張士東, 2012, 「“濊”、“粟”語義考釋」,『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3.
- _____, 2019, 「高句麗語與朝鮮語及後期肅慎語族關係辨析」,『東疆學刊』36-2.
- 朱德貴·齊丹丹, 2016, 「先秦兩漢時期“穢貊”族問題探討」,『北方文物』2.
- 趙紅梅, 2017, 「蒼海郡考述」,『社會科學戰線』8.
- 陳健·薑維東, 2014, 「濊貊族建國傳說共用模式研究」,『東北史地』4.
- 合燦溫·張士東, 2015a, 「高句麗及語言與周邊民族及語言的關係」,『蘭台世界』21.
- _____, 2015b, 「從高句麗民族的濊系來源及其與周邊民族關係看高句麗語」,『通化師範學院學報』3.

예맥에 대한 중국 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

조원진

이 글에서는 예맥(濊貊)에 대한 2010년 이후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학술적 쟁점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최근 중국 학계의 예맥 연구는 고고학, 언어학, 풍속, 교류 등 다학제적 접근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중국 학계의 예맥 연구 중 종합적인 성과로 『중국동북민족사(中國東北民族史)』(2014)와 박사학위논문 「고대문헌 중의 “예맥” 연구(古代文獻中的“濊貊”研究)」(2021)가 주목된다. 이들 연구는 맥족을 북방 초원에서 동천한 유목 세력으로, 예족을 토착 농경민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기원을 분리함으로써, 예맥의 독자성을 약화시키고 이를 중국 북방 변방사로 편입하려는 시각을 공유한다. 또한 예맥 사회의 발전이 중원 문명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예맥을 광범위한 혼혈 종족군으로 규정하려는 새로운 시각도 확인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고조선을 예맥에 포함시키는 연구도 일부 확인되지만 대체로 고조선은 예맥과 무관하다고 보아 분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예족의 부여와 맥족의 고구려도 종족적으로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예맥과 부여·고구려의 연관성마저 부정하는 연구도 확인된다. 이는 고조선·부여·고구려를 모두 예맥의 범주로 이해하고, 예맥을 한민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

악하는 한국 학계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국 학계는 동북 지역 종족 전체를 큰 틀에서 조망하는 넓은 시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맥의 종족적 실체와 이들이 한민족 형성에 기여한 영향을 규명할 통사적·종합적 연구를 심화함으로써 중국 학계의 연구에 대응할 학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예맥, 맥족, 예족, 중국학계, 고조선, 부여, 고구려

Recent Research Trends in Chinese Academia on the Ye-Maek (濊貊)

Cho Wonchin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s the research trends in Chinese academia concerning the Ye-Maek (濊貊) since 2010 and examines the associated academic disputes and characteristics. Recent Ye-Maek research in Chinese academia exhibits an expansion toward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ombining archaeology, linguistics, customs, and historical exchanges.

Among recent comprehensive achievements in Chinese academia's Ye-Maek research, *A History of Ethnic Groups in Northeast China* (2014) and the doctoral dissertation *A Study on "Ye-Maek" in Ancient Literature* (2021) are noteworthy. Identifying the Maek people as a nomadic force that migrated eastward from the northern steppes and the Ye people as indigenous agriculturalists, these studies share a perspective that weakens the autonomy of the Ye-Maek and incorporates them into the history of China's northern

frontier by strictly separating their origins. Furthermore, they emphasize that the social development of the Ye-Maek was achiev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Plains civilization, while a new perspective is also identified that defines the Ye-Maek as a broad mixed ethnic group.

In Chinese academia, some studies include Gojoseon within the Ye-Maek, but there is a strong overarching tendency to separate Gojoseon from the Ye-Maek, viewing them as unrelated. Moreover, Buyeo of the Ye people and Goguryeo of the Maek people are also strictly distinguished ethnically. Furthermore, some studies even deny the connection between the Ye-Maek and Buyeo/Goguryeo. Thi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perception of Korean academia, which understands Gojoseon, Buyeo, and Goguryeo all within the category of Ye-Maek, regarding them as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Korean nation.

Therefore, moving forward, Korean academia must secure a broad perspective that oversees the entire ethnic landscape of the Northeast region from a macroscopic framework. Based on this, Korean academia should systematically establish an academic foundation to respond to the research of Chinese academia by deepening diachronic and comprehensive studies to clarify the ethnic reality of the Ye-Maek and the influence the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Korean nation.

Keywords: Ye-Maek, Maek People, Ye People, Chinese Academia, Gojoseon, Buyeo, Goguryeo

흑수말갈 발리와 발해 덕리진의 위치 문제

정석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발리와 덕리진의 위치에 대한 의견들
- III. 발리와 덕리진의 위치
- IV. 맺음말



I. 머리말

발리(勃利)는 흑수말갈의 치소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곳이며, 덕리진(德理鎭)은 남흑수말갈과의 경계에 있던 발해의 최전방 군진이었을 것이다. 『신당서』 「흑수말갈전」의 “개원 10년(722)에 그 추장 예속리계(倪屬利稽)가 내조하니 현종이 그를 발리주자사(勃利州刺史)에 제수하였다”라는 기록은 발리가 흑수말갈의 중요 거점이었음을 증명한다. 더욱이 당나라는 726년에 흑수부(黑水府) 혹은 흑수주(黑水州)(도독부)를 설치하였는데, 아마도 그 치소를 발리(주)에 두었을 것이다.

덕리진과 관련하여 『신당서』 「지리지」에는 “발해 왕성 … 그 북쪽으로 덕리진을 지나 남흑수말갈에 이르기까지 1천 리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덕리진을 지나 남흑수말갈까지 1천 리라고 하였으니, 1천 리라는 거리는 발해 왕성에서 남흑수말갈과 발해의 경계까지를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남흑수말갈의 중요 거점까지를 말할 수도 있다. 만약 그것이 남흑수말갈의 중요 거점이라면 발리를 말할 것이다. 따라서 발리와 덕리진의 위치는 상호 유기적인 관점에서 탐색해야 한다.

사실 발리와 덕리진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최근 중국학계에서 특히 덕리진·덕리부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유가명(劉加明)은 덕리부와 덕리진을 동일 장소로 판단하면서, 덕리진이 지금의 흑룡강성 화천·집현·우의·보청 일대에 있었을 것이라고 했으며,¹ 2022년에 왕효화(王孝華)·유효동(劉曉東)은 덕리부는 행정구획을 말하고, 덕리진은 군진(軍鎭)을 말한다고 지적하면서 흑룡강성 목

* 투고: 2026년 4월 14일, 심사 완료: 2026년 5월 11일, 게재 확정: 2026년 5월 19일

1 劉加明, 2020, 「渤海國“北進”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57~59쪽.

단강시(牡丹江市) 화림진(樺林鎮) 남성자고성(南城子古城)에 발리주 및 덕리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²

발리와 덕리진의 위치 문제는 발해가 흑수말갈을 완전 복속하기 전 발해와 흑수말갈의 경계 설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흑수말갈 발리에 있었을 흑수주도독부는 강안고성(江岸古城)에 있었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한 적이 있고,³ 또 발해 덕리진은 지금의 와리화탄성(瓦里霍呑城)에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⁴ 그렇지만 이 주제에 관한 최근 중국학계의 동향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료 보완을 통해 한 번 더 이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발리와 덕리진의 위치에 대한 의견들

먼저 흑수말갈 발리주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당서』 「흑수말갈전」: 개원 10년(722)에 그 추장 예속리계(倪屬利稽)가 내조하니 현종이 그를 발리주자사(勃利州刺史)에 제수하였다(開元十年 其酋長倪屬利稽來朝 玄宗卽拜勃利州刺史).⁵

『책부원구』 (권975 外臣部 褒異 2): 흑수 추장 예속리계가 내조하자 발주(勃州) 자사에 제수하였다(黑水酋長倪屬利稽來朝 授勃州刺史).⁶

2 王孝華·劉曉東, 2022, 「渤海德里府, 德理鎮與邊州軍鎮設防問題考」, 『中州學刊』 7, 125~129쪽.

3 정석배, 2023, 「흑수말갈 나이펠드-동인문화 1단계의 유적과 흑수주 치소 문제」, 『고구려발해연구』 76.

4 정석배, 2024, 『발해 강역 연구』, 예지안, 312~316쪽.

5 국사편찬위원회, 1990,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 2』, 신서원, 440, 446쪽.

다음에는 덕리진(德里鎮), 덕부(德府), 혹은 덕리부(德理府, 德里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당서』 「지리지」: 발해 왕성 … 그 북쪽으로 덕리진을 지나 남흑수말갈에 이르
기까지 1천 리이다(渤海王城 … 其北經德里鎮 至南黑水靺鞨千里).⁷

『태평환우기』 (권175) 「물길진」: 지금의 흑수말갈 경계는 발해의 덕부(德府)에
이른다(今黑水靺鞨界至渤海德府).⁸

『당회요』 권96 「말갈전」: 지금의 흑수말갈 경계는 남쪽으로 발해국 현덕부(顯德
府)와 경계한다(今黑水靺鞨界南 與渤海國顯德府).⁹

그런데 『태평환우기』와 『당회요』에는 각각 이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가명(劉加明)에 의하면, 북경 중화서국(中華書局)이 2007년에 발간한 『태평
환우기』에는 “지금의 흑수말갈 경계는 남쪽으로 발해국 덕리부에 이른다(今黑
水靺鞨界南至渤海國德理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¹⁰ 김육불도 『태평환우
기』에 덕리부(德理府)로 기록된 것으로 보았다.¹¹

또한 왕효화·유효동에 의하면, 사고본계통(四庫本系統)의 『당회요』에는
“흑수말갈의 경계는 남쪽으로 발해국 덕리부(德里府)에 가까이 있다(在黑水靺

6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발해사 자료집 하』, 고구려연구재단, 536쪽.

7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위의 책, 412쪽.

8 臺灣商務印書館, 1983 (影印本, 1988), 『景印 文淵閣四庫全書 第470冊』, 617쪽.

9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앞의 책, 561쪽.

10 劉加明, 2020, 「渤海國“北進”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57쪽.

11 김육불 편저, 발해사연구회 옮김, 2008, 『신편 발해국지장편(중)』, 신서원, 344~345쪽.

靺鞨 南近渤海國德府)”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¹²

따라서 현덕부(顯德府)는 덕리부(德里府)의 오기임이 분명한데, 발해 현덕부는 중경이 있던 곳으로서 발해 상경성보다 남쪽에 위치하므로 북쪽이라는 방향과도 모순된다.

발리의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 발리 자체보다는 발리주에 설치한 흑수주도독부의 위치가 주로 탐색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많은 연구자가 흑수말갈 발리, 흑수말갈의 치소 혹은 중요 거점, 흑수주(도독부)가 동일 장소에 있었다고 여기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당나라는 722년에 흑수말갈의 주장 예속리계를 발리주자사로 임명하였고,¹³ 725년에 안동도호(安東都護) 설태(薛泰)가 흑수군(黑水軍) 혹은 흑수부(黑水府)를 두자고 청하자,¹⁴ 다음 해인 726년에 흑수주(黑水州)를 설치하였다.¹⁵ 이 일련의 사건에서 흑수주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발리가 흑수말갈의 통치 중심지였으므로 당나라가 설치한 흑수부 혹은 흑수주의 치소는 발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흑수주도독부 위치에 대한 의견은,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발리 위치에 대한 의견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백력(伯力, 하바롭스크) 설, 아뉴이강 하구설, 동강(同江)설, 봉림고성(鳳林古城)설, 강안고성설, 목단강(연화수고) 시하진(柴河鎮) 일대설, 남성자고성설 등이 확인된다(그림 1).¹⁶

백력설은 발리주에 흑수부(黑水部)가 있었는데 그곳은 백력(伯力) 일대이며, 마찬가지로 흑수주도독부 역시 백력 일대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¹⁷

12 王孝華·劉曉東, 2022, 앞의 글, 125~126쪽.

13 『新唐書』「黑水靺鞨傳」: 開元十年 其酋長倪屬利稽來朝 玄宗卽拜勃利州刺史.

14 『舊唐書』「靺鞨傳」: 開元十三年 安東都護薛泰請於黑水靺鞨內置黑水軍.

15 『舊唐書』「渤海靺鞨傳」: (開元)十四年 … 黑水靺鞨遣使來朝 詔以其地爲黑水州.

16 王禹浪·王俊錚, 2020, 「唐代黑水都督府的歷史地理學考察」, 『歷史地理研究』 4; 정석배, 2023, 앞의 글.

17 孫進己·馮永謙 等主編, 1989, 『東北歷史地理』 第2卷, 黑龍江人民出版社.

이강 하구 지역에 흑수주도독부의 치소가 있었다는 의견이다.¹⁹

동강설은 동강시 관내 도사극고성(圖斯克古城)을 흑수주도독부 치소로 보는 의견이다. 이곳을 혁철족(赫哲族) 사람들이 만주어로 “흑성(黑城)”을 뜻하는 “살이곽통(薩爾霍通)”이라고 부른다는 등 언어학적 자료에 근거한다.²⁰

목단강 시하진 일대설은 발리주가 남성자고성에 있었다는 전제하에 흑수군(黑水軍)의 주둔지가 발리주 치소와 멀지 않은 하구(河口)와 진흥(振興)유적 등이 조사된 연화수고(蓮花水庫) 시하진(柴河鎮) 일대에 있었고, 그곳에 흑수주도독부가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²¹

봉림고성설은 덕리부의 위치 문제와도 관련되므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이 의견은 1997년에 왕우랑(王禹浪)이 제시하였다. 화천현과 보청현 사이의 봉림고성이 읍루의 통치 중심이었는데, 나중에 흑수부(黑水部)의 통치 중심이 되었고, 또 후에는 당나라가 그곳에 흑수부(黑水府)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발해가 흑수부(黑水部)를 정복한 다음에는 그곳에 정리부, 즉 덕리부를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봉림고성을 지목한 것은 첫째, 발해 때에는 읍루(挾婁, yilou)를 우루(虞婁, yulou)로 불렀다는 관점에서 정리부를 우루의 옛 땅, 즉 읍루의 옛 땅에 설치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 덕리(德理)와 정리(定理)를 같은 음을 다르게 적은 동음이사(同音異寫)로 본 것이다. 왕우랑은 『태평환우기』의 “지금의 흑수말갈 경계는 남쪽으로 발해국의 덕리부에 이른다”에서 “지금”을 원화(元和) 11년(816)으로 보고 816년 이후에 발해가 흑수부(黑水部)를 정복하고 그곳에 덕리부, 즉 정리부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²²

이 의견에서 발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흑수부(黑水部)의 통치 중심에 흑수부(黑水府)가 설치되었고, 또 이곳에 덕리부가 설치되었다는 주장은 흑수말

19 張博泉, 1985,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209쪽.

20 王禹浪·王俊錚, 2020, 앞의 글, 56쪽.

21 魏國忠, 2016, 「黑水靺鞨人的再度勃興與勃利州, 黑水府的相繼建立」, 『黑河學院學報』 6, 11~13쪽.

22 王禹浪, 1997, 「靺鞨黑水部地理分布初探」, 『北方文物』 1, 58~63쪽.

갈의 통치 중심, 즉 발리에 덕리부가 설치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왕우랑은 덕리부와 덕리진은 다른 장소로 보았다. 덕리진은 발해 왕성의 북쪽 해림현(海林縣) 경내에서 찾아야 하는데, 해림현 동북쪽에서 칠성하유역의 봉림고성까지 마침 약 1천 리가 된다고 하였다.²³

『신당서』에 발해 왕성이 그 북쪽으로 덕리진을 지나 남흑수말갈에 이르기까지 1천 리라 하였는데, 덕리진이 있다고 한 해림현 동북쪽에서 덕리부가 있다고 한 봉림고성까지 1천 리라고 한 것은 “발해 왕성에서 남흑수말갈까지 1천 리”라는 『신당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잘못 이해하였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봉림고성에서는 아직 발해나 말갈 유물이 보고된 것이 없다. 왕우랑도 이후 이 유적에서 말갈의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의견을 스스로 폐기하였다.²⁴

남성자고성설은 연구자에 따라 남성자고성에 발리주, 흑수주도독부, 덕리진이 있었다는 의견²⁵과 그곳에 발리주는 있었지만, 흑수주도독부는 다른 곳인 시하진 일대에 있었다는 의견²⁶이 구분된다. 전자는 덕리진의 위치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남성자고성에 발리주, 흑수주도독부, 덕리진이 있었다는 의견은 1987년에 유효동 등이 처음 제기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발해 상경용천부에 설치된 발주(渤海)가 둘레 길이 2,060m의 남성자고성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흑수말갈의 발주(勃州) 혹은 발리주(勃利州)도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남성자고성을 발리주와 관련시킨 근거 중 하나는 남성자고성 북쪽의 들판을 과거에 박늑과전자(博勒棵甸子, 博勒, bole)라고 부르고, 또 성 남쪽 40리의 산을 박력합달(博力哈達, 博力, boli)이라 부르는 등 주변의 지명 등 명칭이 발리와 같다는

23 王禹浪, 1997, 위의 글, 58~63쪽.

24 王禹浪·王俊錚, 2020, 앞의 글, 56쪽.

25 劉曉東·羅葆森·陶剛, 1987, 「渤海國渤海州考」, 『北方文物』 1, 42~44쪽; 王孝華·劉曉東, 2022, 앞의 글, 125~129쪽.

26 魏國忠, 2016, 앞의 글, 11~13쪽.

것이다. 발해 덕리진을 이곳으로 보는 근거는 발리(勃利, boli)와 덕리(德里, deli)는 음이 서로 가깝고, 서로 다르게 표현된 한자 역음(譯音)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신당서』 「지리지」의 “발해왕성 … 그 북쪽으로 덕리진을 지나 남 흑수말갈에 이르기까지 1천 리이다” 등의 기록으로 보아 덕리진은 발해왕성에 서 멀지 않는 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유효동 등은 발해가 부와 주를 고구려나 말갈의 옛 땅에 설치한 것이 다수인데, 발주(渤海)도 흑수의 발주(勃州)에 설치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 사서와 묘지 등에 발(渤)과 발(勃)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예속리계가 발리주 자사에 임명된 후인 개원 14년(726)에 대무예가 흑수를 공격하였고, 이후 개원 20년(732)에는 다시 수륙양로로 당나라를 공격하였고, 또 대무예가 사망한 다음에는 흑수가 당에 조공한 기록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고, 대무예의 흑수 공격 때 흑수가 크게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흑수의 여러 부 중에서 발리부(勃利部)가 가장 남쪽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²⁷

최근 2022년에 왕효화·유효동은 다시 한번 흑수말갈 발리주와 발해 덕리진이 남성자고성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먼저 『당회요』와 관련하여 북송의 왕부(王溥)가 당나라 소면(蘇冕)의 『회요(會要)』와 최현(崔鉉)의 『속회요(續會要)』를 포괄하여 편찬하였으나 송(宋) 각본 『당회요』는 전하지 않고, 전해진 초고가 청나라 건륭 연간에 “사고전서(四庫全書)”를 개관하면서 관신(館臣)의 교정과 보정을 거쳐, 무영전취진본(武英殿聚珍本)과 사고전서(四庫全書本) 2개의 판본이 형성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전자를 전본계통(殿本系統) 혹은 통행본계통(通行本系統)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사고본계통(四庫本系統)이라 부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한 전본계통 『당회요』에는 “지금의 흑수말갈 경계는 남쪽으로 발해국 현덕부(顯德府)와 경계한다(今黑水靺鞨界 南與渤海國顯德府)”라고 적혀 있지만, 사고본계통 『당회요』에는 “흑수말갈의 경계는 남쪽으로 발해국 덕리부(德里府)에 가까이 있다(在黑水靺鞨界 南近渤海國德里府)”라고 적

27 劉曉東·羅葆森·陶剛, 1987, 앞의 글, 42~44쪽.

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본의 “덕리부(德里府)” 명칭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또한 『신당서』 「발해전」에 “상경 … 그 남쪽을 중경으로 삼고 현덕부라 하였다(上京 … 其南爲中京 曰顯德府)”라 하였으니, 『당회요』의 “현덕부”는 당연히 오기라고 하였다.

다음에는 덕리부는 행정구획을 말하고, 덕리진은 군진(軍鎭)을 말한다고 지적하면서, 덕리진은 흑수말갈과의 경계에 설치한 군진이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신당서』 「지리지」에 인용된 가탐 『도리기』의 “발해왕성 … 그 북쪽으로 덕리진을 지나 남흑수말갈에 이르기까지 1천 리이다”라는 기록은 바로 발해 왕성에서 흑수로 가는 길(渤海入黑水道), 혹은 그 반대로 흑수에서 발해로 가는 길(黑水入渤海道)을 보여주며, 덕리진은 바로 그 교통로의 요충지에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둘레길이 2,060m의 남성자고성(南城子古城)은 상경성 북쪽으로 목단강 연안에서는 발해성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동쪽의 노아령이 천연의 장벽을 이루고, 서쪽에 목단강 수로가 있고, 그 너머에는 목단강장성이 있어 발해 흑수도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임을 지적하였다.

두 연구자는 『신당서』 「흑수말갈전」과 『책부원구』의 기록을 통해 흑수에 발리주(勃利州) 혹은 발주(勃州)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흑수 발주 혹은 발리주를 남성자고성으로 보는 근거는 1987년에 유효동 등이 제시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 이곳을 발해 덕리진으로 보는 근거는 남성자고성의 규모와 위치 외에도 덕리(德里), 덕리(德理), 발리(勃利)가 서로 다른(不同) 한자 역음(譯音)이라는 것도 있다. 두 연구자는 대무예가 흑수의 발리주를 취하여 덕리부(德里府)를 설치하고, 발해 후기에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때 흑수말갈 처음의 주(州)의 지위를 복구하여 발주(渤海)로 개칭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²⁸

남성자고성은 발해 상경성의 북쪽이기는 하나 상경성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직선거리 약 76.7km) 이곳에 흑수말갈 발리주, 흑수주도독부, 발해 덕리진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사실 남성자고성에서는 아직 흑수말갈뿐

28 王孝華·劉曉東, 2022, 앞의 글, 125~129쪽.

만 아니라 일반적인 말갈 유물도 발견된 것이 없어 적어도 발리주나 흑수주도독부로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강안고성설은 발리주와 흑수주도독부가 흑룡강 중류 곡류 지역의 강안고성에 있었다는 의견으로서 고고학 자료에 근거한다.²⁹ 이 의견은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백력설, 봉림고성설, 남성자고성설, 강안고성설에서는 발리주에 흑수주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봉림고성설과 남성자고성설에서는 발리주에 흑수주뿐만 아니라 덕리진 혹은 덕리부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발리주에 흑수주 혹은 흑수부(黑水府)를 설치하였다는 의견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그곳에 덕리진도 설치하였다는 의견은 문헌자료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백력, 즉 하바롭스크, 아뉴이강 하구, 동강 도사극고성, 봉림고성, 남성자고성에서는 말갈 유물이 발견된 것이 없다. 시하진 일대설과 관련하여 하구와 진흥유적에서는 말갈 유물이 출토된 것은 맞지만, 흑수말갈 초기 유물과는 거리가 멀며, 이 의견에서 발리주와 흑수주 치소 위치를 달리 본 것도 수긍하기 힘들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중국학계에서 제기된 발해 덕리진 혹은 덕리부 위치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경박호 북쪽의 덕림옥혁(德林沃赫)설, 삼성, 즉 의란 일대설, 목단강 중하류 삼도하자 하구 홍농촌성지(홍농고성)설, 화천현과 보청현 사이의 봉림고성설, 화천(樺川)·집현(集賢)·우의(友誼)·보청(寶淸) 일대설, 남성자고성설 등이 제기된 바 있다(그림 2).

덕리진의 위치에 대한 의견은 1778년(청나라 건륭 43년)에 완성된 흔히 『만주원류고』로 불리는 『흠정만주원류고(欽定滿洲源流考)』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 책에는 덕리진의 위치에 대해 “지금 영고탐성 서쪽 90리의 악마화호(鄂摩和湖) 동쪽에 있는 요사란참(繞沙蘭站) 남쪽으로부터 호이합하(呼爾哈河)

29 鄧樹平, 2011, 「黑水靺鞨地域範圍與黑水府治所初探」, 『滿族研究』 1; 王禹浪·王俊錚, 2020, 앞의 글.

에 이르기까지 큰 돌이 있는데 너비가 20여 리요, 면적이 100여 리에 달한다. 이 돌은 거울과 같이 편평하고, 크고 작은 구멍이 수도 없이 나 있는데, 어떤 것은 둥글고 어떤 것은 네모나고, 6각과 8각형으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물 같기도 하고, 대야 같기도 하고, 혹은 아가리가 주발 같은 것도 있다고 한다. ... 이름하여 덕림옥혈(德林沃赫)이라고 하고 세간에서는 흑석전자(黑石甸子)라고 한다. ... 호이합하는 바로 발해의 옛 도읍지가 있었던 곳이므로 진(鎭)의 이름은 여기서 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다.³⁰

영고탑 서쪽 90리에 있다는 악마화호(鄂摩和湖)는 거리로 보아 지금의 경박호를 말함이 분명하다. 호이합하는 목단강이다. 오늘날 경박호 북쪽에는 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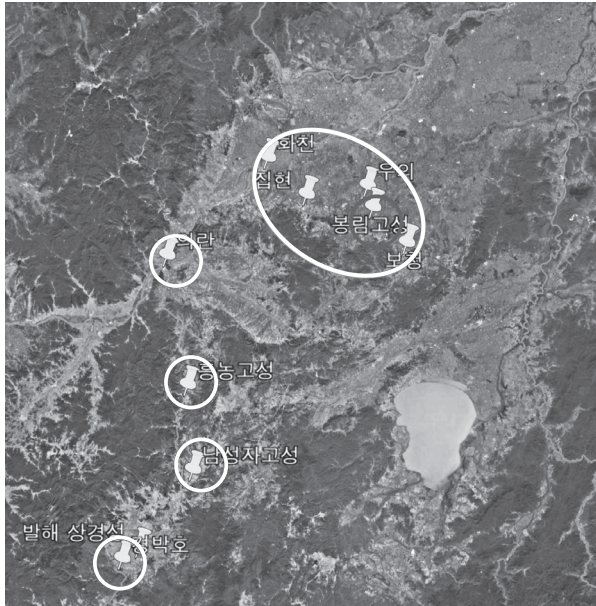


그림 2 덕리진 소재 추정 장소들(필자 작성)

30 장진근 역주, 2008, 『滿洲源流考』, 파워북, 293~294쪽.

암 대지가 아주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위가 편평하고, 가까이에서 보면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다. 현무암의 색이 검어 세간에서 흑석(黑石)이라고 했을 것이다. 기술된 내용으로 보아 경박호 북쪽의 현무암 대지를 덕림석(德林石)이라 하였고, 이곳이 발해 덕리진이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다만 이곳은 상경용천부 서쪽 15km 내로서 발해 왕성의 북쪽이 아니므로 북쪽이라는 방향과도 맞지 않고, 또 발해와 남흑수말갈의 사이로 보기에는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다.

이후 오승지(吳承志, 1844~1917)는 『당가탐기변주입사이도리고실(唐賈耽記邊州入四夷道里考實)』에서 삼성(三姓)은 삼객라, 즉 낙뢰객라(諾雷喀喇), 극의극낙객라(克宜克勒喀喇), 호십합리객라(訥什哈哩喀喇)로 인하여 이름을 얻었다는 『만주원류고』의 내용을 전하면서, 『명일통지(明一統志)』에서 호십합리(訥什哈哩)를 올사합리(兀思哈里)라고 했는데, 사(思)와 십(什)은 모두 군더더기이므로 줄여 읽으면 올합리가 되고 또 올리(兀里)가 되며, 올(兀, wu)과 특(特, te)은 소리가 비슷하므로 올리는 아마도 덕리(德里)일 것이라고 하였다.³¹

김육불은 1934년에 발간한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編)』에서 오승지의 의견을 따라 덕리진은 삼성에 가깝고, 올(兀)과 특(特)은 소리가 비슷하므로 덕리일 것이라고 하였다.³²

다만 필자는 올(兀, wu)과 특(特, te)이 어찌하여 소리가 비슷한지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올리(兀里)가 어찌하여 덕리(德里)가 되는지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후 많은 연구자가 덕리진 혹은 덕리부가 삼성, 즉 지금의 의란 일대에 있었다는 의견에 동조하였다. 예를 들어, 1955년에 와다 세이(和田清)는 발해의 15부 중에 덕리부(德理府, delifu)라는 명칭이 없으므로 덕리부는 동음의

31 장재진, 2011, 「『당가탐기변주입사이도리고실(唐賈耽記邊州入四夷道里考實)』 선역」, 『발해 대외관계사 자료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355~356쪽.

32 김육불 편저, 발해사연구회 옮김, 2008, 앞의 책, 346~347쪽.

철리부(鐵利府, tielifu)가 틀림없을 것이고, 그곳은 목단강과 송화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좌안, 즉 삼성 대안의 진명(鎭名)일 것이라고 하였다.³³

한편, 1985년에 진현창(陳顯昌)은 음루는 우루라는 관점에서 정리부를 설치한 “음루의 옛땅”은 “우루의 옛땅”의 오기라고 하면서, 『삼국지(三國志)』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에 음루가 부여 동북 천여 리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농안 기준으로 동북 천여 리는 지금의 의란 북·동북·동·동남 일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당회요』의 “흑수말갈은 남쪽으로 발해 덕리부와 접한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발해에 덕리부가 없고 정리부가 있었으니, 덕리부가 바로 정리부(定理府)일 것이고, 그 소재지는 의란 일대 송화강의 동쪽·동남쪽 지역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덕리부는 덕리진을 계승하여 설치한 것으로 여겼다.³⁴

그런데 1988년에 출간된 『중국역사지도집석문화편·동북권(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東北卷)』에서도 덕리부가 정리부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덕리부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삼도하자와 목단강이 만나는 부분의 삼도하자 하구에 있는 흥농촌성지(興農村城址)로 판단하였다. 이 성을 목단강 중하류에서 가장 큰 성이라고 판단하고, 또 이 성의 구조가 발해 상경 및 중경과 같은 형식이라고 하면서 덕리부의 소재지로 판단한 것이다.³⁵ 하지만 이 성의 구조가 어떤 점이 상경 및 중경과 같은 형식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의견이 제시되기 전인 1960년에 발표된 흥농촌성지, 다시 말해서 흥농고성(興農古城) 관련 자료를 보면, 평면이 정방형이고, 네 벽을 모두 토축으로 쌓았으며, 잔존 성벽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4.2m, 기저부 폭은 4m, 성벽 둘레에 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³⁶ 이후 이 성은 연화수고 공사와 관련

33 和田清, 1955, 『東亞史研究(滿洲篇)』, 東洋文庫, 99~100쪽.

34 陳顯昌, 1985, 「論渤海國の疆域」, 『學習與探索』 2, 131쪽.

35 譚其驤 主編, 1988, 『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東北卷』, 中央民族出版社, 112쪽.

36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60, 「牡丹江中下游考古調查簡報」, 『考古』 4,

하여 1994년에 일부 발굴되었는데 성의 평면 모양은 사다리꼴이고, 성벽의 둘레 길이는 642m임이 밝혀졌다. 성 내에서 발해에 특징적인 2줄 고래 구들 주거지가 조사되었고, 또 말갈계 및 고구려계 토기도 함께 출토되었다.³⁷

밝혀진 사실로 볼 때 흥농고성은 둘레 길이 16,293m인 상경성뿐만 아니라 둘레 길이 약 2,700m인 서고성과도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고, 또 삼중성인 상경성 및 이중성인 서고성과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이 의견은 그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알려져 있던 가장 북쪽의 발해 성을 덕리진으로 지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왕우랑(王禹浪)도 덕리부가 정리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상기한 바와 같이 발해 덕리부가 흑수부(黑水部) 통치 중심이었다가 나중에 당나라 흑수부(黑水府) 통치 중심이었던 봉림고성에 있었을 것이고, 다만 덕리부와 덕리진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덕리진은 발해 왕성의 북쪽 해림현(海林縣) 경내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³⁸

이후 2020년에 유가명(劉加明)도 덕리부는 정리부이고 정리부를 설치한 읍루는 발해 때에 우루로 불렸다고 하였다. 하지만 왕우랑과는 달리 덕리부와 덕리진은 같은 장소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무왕 대무예 때 발해 군대의 진군 노선과 방향을 추정하여 덕리진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발해 군대가 지금의 돈화 지방에서 출발하여 묵단강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진군하면서 나중에 조성한 상경성 지역을 지나고, 또 남성자고성을 지나 먼저 지금의 의란 일대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바로 우루의 세력 범위인데 바로 지금의 화천, 집현, 우의, 보청 일대에서 발해국의 덕리진에 도달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곳이 바로 발해국과 흑수말갈의 경계구역일 것인데 덕리진을 지나

27쪽.

37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5, 「黑龍江海林市興農渤海時期城址的發掘」, 『考古』 3; 정석배 외, 2023, 『발해유적총람Ⅱ-중국지역2』, 예지안, 628~630쪽.

38 王禹浪, 1997, 앞의 글, 58~63쪽.

복상하여 남흑수말갈의 땅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유가명은 왕 우랑과는 달리 정리부의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³⁹

덕리진이 목단강 유역의 남성자고성에 있었다는 유효동 등의 의견⁴⁰ 및 왕 효화·유효동의 의견⁴¹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두 의견에는 남성자고성에 발리주, 흑수주도독부, 덕리진이 차례로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 덕리진 혹은 덕리부의 위치와 관련된 설들을 보면, 먼저 흥농고성으로 보는 의견은 이 성이 상경성 및 서고성과 유사하다고 하여 덕리진으로 비정한 것이나, 규모나 구조가 전혀 비슷하지 않고 그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경박호 북쪽의 덕림옥혁(德林沃赫)으로 보는 의견은 덕림과 덕리의 음이 비슷하여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성 일대로 보는 의견은 삼성(三姓)의 하나인 호십합리(祜什哈哩)를 올리합리(兀里哈里)라고 했는데, 올(兀, wu)과 특(特, te)은 소리가 비슷하니 올리는 아마 덕리일 것이라는, 혹은 덕리부(德理府, delifu)는 철리부(鐵利府, tielifu)와 동음(同音)일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화천현-보청현 사이의 봉림고성으로 보는 의견은 덕리(德理)와 정리(定理)가 같은 음을 다르게 적은 동음이사(同音異寫)이고, 정리부가 읍루의 옛 땅에 설치하였기에, 덕리부와 정리부를 읍루의 옛 땅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덕리진을 화천·집현·우의·보청 일대로 보는 의견도 덕리부가 정리부라는 전제하에 발해가 흑수를 공격할 때 발해 군대의 진군노선이 고려된 것이며, 그 기저에는 음성학적 근거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남성자고성으로 보는 의견은 상경성 북쪽으로 목단강 연안에서는 발해성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도 고려되었지만, 주요 근거는 이 성이 발해 발주(渤海)이고, 발주(渤海)는 흑수 발주(勃州) 혹은 발리주(勃利州)에 설치하였고, 발리(勃利)와 덕리(德里)는 음이 서로

39 劉加明, 2020, 앞의 책, 57~59쪽.

40 劉曉東·羅葆森·陶剛, 1987, 앞의 글, 42~44쪽.

41 王孝華·劉曉東, 2022, 앞의 글, 125~129쪽.

비슷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덕리진의 위치 비정과 관련된 의견들은 주로 음성학적 유사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실증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리에 덕리부 혹은 덕리진을 설치하였다는 잘못된 전제도 깔려 있었다고 하겠다.

III. 발리와 덕리진의 위치

흑수말갈 발리와 발해 덕리진의 위치 비정에는 『신당서』 「지리지」의 “발해 왕성 … 그 북쪽으로 덕리진을 지나 남흑수말갈에 이르기까지 1천 리이다”라는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덕리진을 지나 남흑수말갈까지 1천 리라고 하였으니, 1천 리라는 거리는 발해 왕성에서 남흑수말갈과 발해의 경계까지를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남흑수말갈의 중요 거점까지를 말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것이 남흑수말갈의 중요 거점이라면 발리를 말할 것이다. 이 기록을 문자 그대로 보면, 발해 왕성 → 덕리진 → 남흑수말갈(발리)이 남북 방향으로 차례로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덕리진 혹은 덕리부는 흑수말갈의 발리가 아니라 그 남쪽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왕효화·유효동은 대무예가 흑수의 발리주를 취하여 덕리부(德里府)를 설치하고, 그곳이 바로 덕리진 혹은 덕리부 남성자고성이라고 하였다.⁴² 다시 말해서 덕리진·덕리부와 (남)흑수말갈 발리주를 동일 장소로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전 왕우량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봉림고성이 읍루의 통치 중심이었고, 이후 물길 말갈이 점유하면서 흑수부(黑水部)의 통치 중심이 되었다가, 나중에 당대의 흑수부(黑水府)가 이곳에 설치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42 王孝華·劉曉東, 2022, 위의 글, 125~129쪽.

발해가 흑수부(黑水部)를 정복한 다음에는 이곳에 발해의 정리부, 즉 덕리부를 설치하였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⁴³

이 의견들에서는 모두 흑수말갈의 유적분포 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늘날 흑수말갈이 남긴 유적은 고고학적으로 나이펠드-동인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⁴⁴ 이 고고학 문화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서기 5~7세기, 2단계는 8~9세기, 3단계는 10~12세기로 각각 편년된다.⁴⁵ 이 세 단계 시기 구분은 발해 이전 시기, 발해 시기, 발해 말기~멸망 이후라는 역사적 사건을 고려하여 구분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단계와 2단계 분기의 기준은 당나라가 흑수부(黑水府) 혹은 흑수주(黑水州)를 설치하고, 발해가 대흑수말갈 군사원정을 한 서기 726년 즈음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⁴⁶ 그것은 흑수말갈이 한편으로는 당의 기미주가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해의 군사적인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펠드-동인문화 유적으로 지목된 적이 있는 모든 유적을 흑수말갈과 관련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이 문화는 어깨 부분이 다치(多齒) 압인문, 침선문, 혹은 이들이 함께 있는 음각의 문양으로 장식된 협타 심발형 혹은 화병형 토기가 특징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토기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중국 흑룡강성의 제1 송화강 남쪽 지역에서도 발견된 것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O. V. 디야코바와 S. P. 네스테로프는 연해주의 다수 말갈계통 유적을 나이펠드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는 심지어 두만강 북쪽 하

43 王禹浪, 1997, 앞의 글, 62쪽.

44 С. П. Нестеров, 1998, *Народы Приамурья в эпоху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Новосибирск;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6, 「黑龍江綏濱同仁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 네스테로프 S.P., 2021, 『초기 중세 시대 아무르강 유역의 민족들』, 국립문화재연구소.

45 С. П. Нестеров, 1998, 위의 책.

46 정석배, 2023, 앞의 글.

산 지구에 위치하는 트로이차-5 유적도 포함되어 있다.⁴⁷ 이 유적은 위도상 발해 동경 용원부가 있었던 팔련성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다. 나이펠드 문화를 흑수말갈이 남긴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신당서』 「지리지」의 “발해왕성 … 그 북쪽으로 덕리진을 지나 남흑수말갈에 이르기까지 1천 리이다”라는 기록과 완전히 모순된다. 따라서 러시아 연해주나 제1 송화강 남쪽의 관련 유적들을 나이펠드 문화와 관련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O. V. 디야코바와 S. P. 네스테로프는 마찬가지로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동류 송화강 남쪽 지역에는 트로이츠크예 문화에 속하는 유적들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Ya. E. 피스카료바의 의견이 주목되는데, 그는 연해주와 아무르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고 기후 및 지형 조건도 달라서 두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의 경제는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연해주의 말갈계통 유적에 대해 나이펠드 문화나 트로이츠크예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⁴⁸

흑수말갈의 초기 분포 범위와 관련이 있는 나이펠드-동인문화 1단계에는 반구 혹은 광구 화병형 토기, 나팔 모양 목-구연부가 있는 홀구순 협타형 토기, 동인 3호 주저지 출토 토기와 흡사한 특징의 이중 구순 협타형 토기가 특징적이다. 그중 광구 혹은 반구 화병형 토기가 이 단계를 가장 잘 대표한다(그림 3).

광구 혹은 반구 화병형 토기가 출토된 나이펠드-동인문화 1단계 유적으로서 는 아무르지역의 블라고슬로벤노예-2 유적, 페트롭스코예 오제로 고분군, 나이펠드 고분군, 아무르제트 유적, 코치코바트카 유적, 흑룡강성 지역의 동인유

47 O. B. Дьякова, 1998, *Мохэские памятники Приморья*, Владивосток; С. П. Нестеров, 2001, *Этнокультурная история народов Приамурья в эпоху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Институт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Новосибирск, p. 145.

48 Я. Е. Пискарева, 2005, Локальные группы мохэ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ье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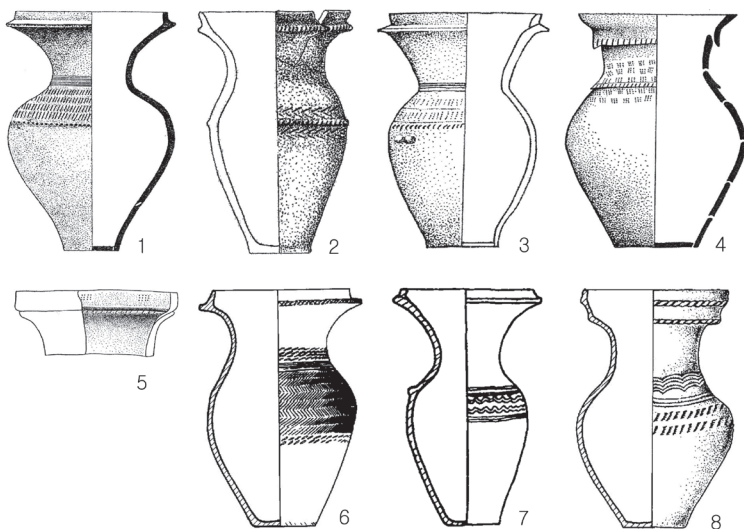


그림 3 나이펠드-동인 문화 1단계의 광구 혹은 반구 화병형 토기: 1-블라고슬로벤노예-2 유적(Дьякова, 1984), 2-아무르제트 유적(Медведев, 2009), 3-페트롭스코예 오제로 유적(Дьякова, 1984), 4-나이펠드 고분군(Деревянко et al., 1999), 5-코치코바트카 고분군(Дьякова, 1984), 6-동인유적(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6), 7-단결고분군(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89), 8-사십련유적(鄭哈, 2006)

적, 사십련유적, 단결고분군, 강안고성 등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⁴⁹ 아마도 여기에 필자와 동료들이 2025년 봄에 송화강 하류와 흑룡강성 남안 지역을 답사하면서 명산(名山)의 흑룡강유역박물관(黑龍江流域博物館)에서 확인한 반구 화병형토기 발견 나북현 공청농장(共靑農場)과 나북현 명산진(名山鎮)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그림 1 참조).

이 두 곳은 유적의 명칭은 아니지만, 이 유형 토기의 분포권은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명산진은 흑룡강을 사이에 두고 북안(좌안)의 러시아 아무르제트 마

49 정석배, 2023, 앞의 글.

을과 서로 마주 보는 곳이다. 공청농장은 나북과 학강 사이 오동하의 동안(좌안)에 위치한다.

다른 한편으로, 발해 덕리진의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고구려계 발해유적의 분포 범위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08년에 중국의 강옥가(姜玉珂)·조영군(趙永軍)은 발해유적의 분포를 통해 흑룡강성 내 발해의 북쪽 경계 문제를 고찰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흑룡강성에서 가장 북쪽의 발해유적으로 목단강 하류 지역의 연통립자유적과 오도하자 고성, 목릉하 하류 지역의 반립성자고성, 목릉하 하구에서 조금 남쪽인 우수리강 가까이 있는 안흥고성(남가기고성) 등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들이 말하는 “발해유적”은 고구려계를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 유적들보다 조금 북쪽의 서쪽 의란과 동쪽 이만(비킨) 일대를 잇는 선을 흑룡강성에서 발해의 북쪽 경계일 것으로 판단하였다.⁵⁰

그런데 2015년에 발간된 『중국문물지도집 - 흑룡강분책』에는 흑룡강성 내에 발해유적이 제1 송화강 중하류 북쪽에도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선마구(仙馬溝)유적, 복안(復安)유적, 복흥(復興)유적, 난전(蘭田)유적, 학립북(鶴立北)유적, 덕상(德祥)고분군 등이다(그림 1 참조).⁵¹ 이 유적들이 고구려계통 유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학계에서 발해유적으로 보고하였다는 사실은 발해의 북쪽 경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1 송화강 중하류 우안(동안)의 가목사시구(佳木斯市區) 이룡산성(二龍山城)도 주목된다. 이 유적은 『중국문물지도집 - 흑룡강분책』에서는 한·위 시기 유적으로 보고되었지만,⁵² 2023년 3월 조사에서 발해 시기의 성임이 확인되었다. 산성의 둘레 길이는 약 1.3km이고, 성벽의 기저부 너비는 3~5m, 성벽

50 姜玉珂·趙永軍, 2008, 「渤海國北界의考古學觀察」, 『北方文物』 2.

51 國家文物局 主編, 2015, 『中國文物地圖集 - 黑龍江分冊』, 文物出版社, 577~579쪽.

52 國家文物局 主編, 2015, 위의 책, 5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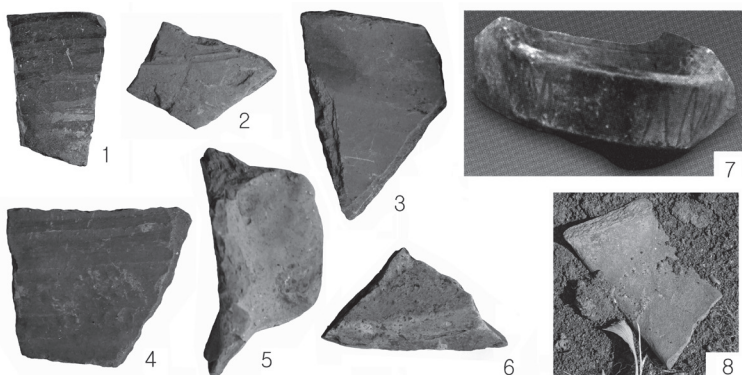


그림 4 송화강 하류 지역 발견 고구려계 발해 토기편: 1-죽림촌 부근, 2~6-와리확탄성, 7~8-희이합성(1~6, 8-필자 촬영, 7-國家文物局 主編, 2015)

의 높이는 0.5~2.7m이다.⁵³ 이 외에도 필자와 동료들이 2025년 봄에 이룡산 성 맞은편의 제1 송화강 중하류 좌안(서안) 들판에서 발해에 전형적인 암회색 광택무늬 토기편을 1점 발견한 바 있다(그림 4: 1). 이곳은 탕왕하 하구에서 남쪽으로 약 7.5km 떨어진 곳으로서 죽림촌(竹簾村)의 동쪽 가까이 있는 들판이다(그림 1 참조). 이곳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유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발해 취락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제1 송화강 하류 지역에서도 고구려계 유물이 발견된 발해유적이 있어 주목된다. 바로 와리확탄성(瓦里霍呑城)과 희이합성(希爾哈城)이다(그림 1 참조).

와리확탄성(瓦里霍呑城)은 흑룡강성 화천현(樺川縣) 열래진(悅來鎮) 만리하촌(萬里河村)의 제1 송화강 하류 우안(남안)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있다. 성은 지세에 따라 쌓아 평면이 부정형이나 대체로 사다리꼴에 가깝다(그림 5). 성벽의 둘레 길이는 약 3,500m이다. 동문지와 남문지에서 반원형의 옹성이 확인되었고, 성내에서 외편, 정요 백자편, 윤제 니질 회색 토기편, 송대 송녕통보, 금대 대정

53 <https://baike.baidu.com/item/二龙山城址/64041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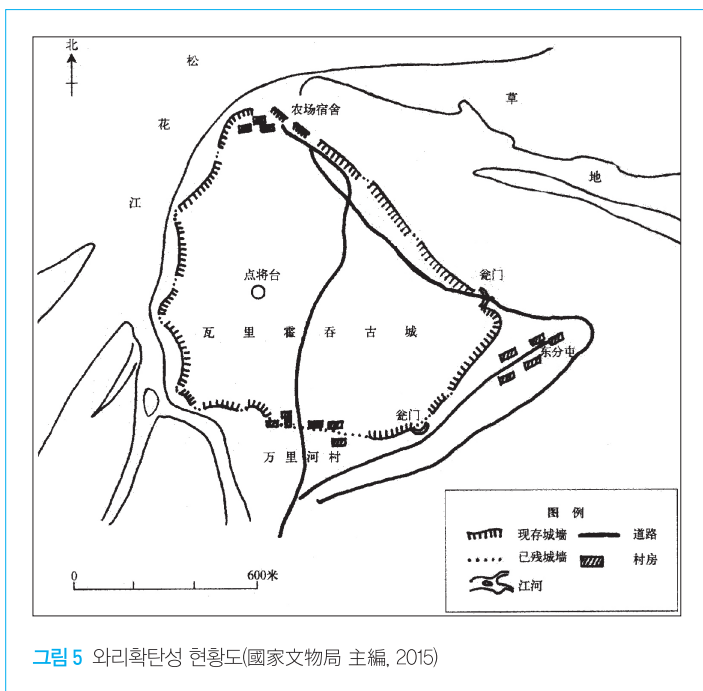


그림 5 와리확탄성 현황도(國家文物局 主編, 2015)

통보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성은 요대 오국부 월리독부(越里篤部) 고성으로 알려져 있고, 요대에 완리성(宛里城)이라고 불렸다. 원대에는 탈간련군민만호부(脫幹憐君民萬戶府)가 있었고, 명대에는 만리하위성(萬里河衛城)이었으며, 청대에는 혁철인(赫哲人) 주거의 완리화둔(宛里和屯)이었다.⁵⁴

그런데 2016년에 이 성의 몇몇 지점에 대해 정리 및 시굴 조사를 하였는데, 동벽 단면 노출부의 정리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시굴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이곳에서 4차에 걸쳐 대규모 축성과 수축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가장 아래의 1차 성벽은 지세에 따라 지면을 정지한 다음에 퇴토(堆土)하여 성벽을 쌓았다.

54 國家文物局 主編, 2015, 앞의 책, 575쪽; 정석배 외, 2023, 앞의 책, 274~276쪽.

2차와 3차 성벽은 향타(夯打), 즉 층다짐하여 성벽을 쌓았다. 남쪽 내측 성벽과 북쪽 성벽에서 1기 성벽을 파괴하면서 시설된 목주 결구가 확인되었는데, 이곳의 5개 목주에서 채취한 5건의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수료보정연대가 720~860년 사이로 나와 목주결구의 형성 연대가 ‘당대(唐代)’, 다시 말해서 발해 시기인 것으로 보고되었다.⁵⁵

이 사실은 와리확탄성의 초축 시기가 발해 이전 혹은 발해 초기에, 2차 성벽은 발해 초기 혹은 중기에 각각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⁵⁶ 와리확탄성의 현재 성벽은 발해 이후에 증축한 것이 분명하고, 또 성 내에서 발견되는 발해 이후의 유물은 이 성이 발해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2019년에 필자가 동료들과 이 성을 답사할 때 발해에 특징적인 회색 광택무늬 윤제 토기의 편들과 귀 모양 손잡이 등을 확인하였다(그림 4: 2~6). 이 유물들 역시 이 성이 발해 때에도 사용되었음을 증명한다.⁵⁷

희이합성은 와리확탄성에서 동쪽으로 약 24km 거리의 들판에 위치하며(그림 1 참조), 성벽 둘레 길이가 3,200m인 평지성이다. 이 성도 요금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성 내에서 발해 유물이 확인되었다. 2015년에 발간된 『중국문물지도집-흑룡강분책』에 이 성에서 발견된 외면이 광택무늬로 장식된 토기 대상파수를 사진으로 소개하였는데(그림 4: 7),⁵⁸ 발해 것이 분명하다. 2019년에 필자와 동료들이 이 성을 방문하였을 때 성 내에서 그와 같은 대상파수를 비롯하여 다수의 발해 토기편을 볼 수 있었다(그림 4: 8).⁵⁹ 희이합성의 겉으로 드러

55 劉曉東, 2018, 「樺川縣瓦里霍吞隋唐時期城址考古調查」,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56 정석배, 2023, 앞의 글, 274쪽; 정석배 외, 2023, 앞의 책, 274~276쪽.

57 정석배 외, 2023, 위의 책, 274~276쪽.

58 國家文物局 主編, 2015, 앞의 책, 280쪽.

59 정석배 외, 2023, 앞의 책. 2025년 5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와리확탄성과 희이합성에서 발견된 그 토기편들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는데, 발해 토기 전문가인 E. I. 겔만도 발해 토기가 분명하다고 하였다.

난 성벽은 요급대의 특징을 가지지만, 그 아래에 와리화탄성과 마찬가지로 발해 때의 초축 성벽이 있을 수도 있다.

발해유적과 나이펠드-동인 문화 1단계, 즉 초기 흑수말갈 유적의 분포 양상으로 볼 때 송화강 하류 일대에 한때 발해와 흑수말갈의 경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리는 송화강 하류의 북쪽에서, 덕리진은 그 남쪽에서 각각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발리주의 위치에 대해서는 흑수주도독부의 위치라는 관점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된 바 있지만, 그중 강안고성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⁶⁰

강안고성설은 2011년에 등수평(鄧樹平)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학강시(鶴崗市) 지역에 약 100곳의 당나라 시기 흑수말갈 유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곳은 남흑수말갈 분포의 중심 지역이었음이 틀림없고, 학강시 소속의 나북 강안고성은 흑수말갈이 분포한 흑룡강 중류 양안 지구에서 가장 큰 고성이기 때문에 당대 흑수주도독부의 치소였을 것이라고 하였다.⁶¹ 등수평은 먼저 예속리계를 발리주 자사에 임명한 일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흑수주도독부를 흑수말갈의 본부에 설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흑수말갈 본부라고 한 것은 발리주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등수평이 제기한 이 의견은 과거 봉림고성에 당나라 흑수부, 발해 정리부 및 덕리부가 있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왕우량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다. 필자가 볼 때도 발리주 혹은 흑수주도독부 치소에 대한 여러 의견 중 강안고성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

강안고성(江岸古城)은 흑룡강성 나북현 연군(延軍)농장 3대 동남쪽 약 2.5km 거리에 위치한다(그림 1 참조). 이곳은 흑룡강과 압단하(鴨蛋河) 및 소니하(小泥河)가 만나는 곳으로서 소흥안령의 동쪽 가장자리 부근에 해당한다. 바로 흑룡강(아무르강)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곡류 지역으

60 王禹浪·王俊錫, 2020, 앞의 글, 55~56쪽; 정석배, 2023, 앞의 글.

61 鄧樹平, 2011, 앞의 글, 52쪽.

로서 동남쪽의 명산(名山)과는 약 8km 떨어져 있다.

강안고성은 대성(大城)과 위성(衛城)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6: 1). 대성은 둘레 길이가 700m이며, 성벽이 서쪽은 삼중(그림 6: 2), 남쪽은 이중이다. 토축 성벽이며, 북쪽의 흑룡강과 약 140m 떨어져 있다. 소성(小城)인 위성은 대성의 서쪽 237m 거리에 위치한다. 위성은 평면이 타원형이며, 둘레 길이는 220m이고, 대성보다 지세가 조금 높다. 성벽은 1줄이고, 성벽 두께는 약 1.4m, 높이는 약 0.8m이다. 바깥에 너비 약 2m, 깊이 약 0.6m의 해자가 있다. 대성과 위성 내부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장방형과 방형의 건축지 그리고 약 300기의 수혈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는 크기가 대형은 8×8m, 소형은 5×5m이다. 주거지 함몰부에서 불에 탄 흔적이 있는 판석도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 편들이 수습되었는데 대부분 반구관(盤口罐), 반구교연관(盤口翹沿罐), 통형관이며, 문양은 망격문, 수선각문(堅線劃紋), 퇴문(堆紋), 구연의 거치문 등이 확인되었다.⁶²

강안고성에서 발견된 반구관(盤口罐), 다시 말해서 반구 화병형 토기는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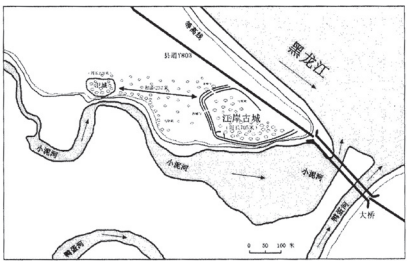


그림 6 강안고성 현황도(王禹浪, 2020)와 북서쪽 모서리 부분 모습(필자 촬영)

62 鄧樹平, 2011, 앞의 글, 51~52쪽; 王禹浪·王俊錚, 2020, 앞의 글, 66쪽. 등소평은 이 성의 둘레 길이가 대성은 1,200m, 소성은 136m로 보고하였으나, 구글어스 등으로 볼 때 나중에 왕우랑 등이 보고한 둘레 길이 대성 700m, 소성 220m가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1기 1단계, 즉 나이펠드-동인문화 1단계에 속하는 유물임이 분명하다. 이 유적은 나이펠드-동인 문화 1단계 유적분포권 내에 위치하는 거주와 방어를 위한 대형 방어·취락 복합유적이다. 아직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유적의 양상이 분명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지만, 유적의 규모나 구조로 보아 나이펠드-동인 문화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강안고성은 발해 왕성 상경성에서 북쪽으로 약 4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한편, 유적 분포로 본 흑수말갈과 발해의 경계였다고 생각되는 송화강 하류는 와리확탄성을 기준으로 하여 상경성에서 송화강 가운데까지 거리가 약 363km이다. 당나라의 대리 1천 리는 531.486km, 소리 1천 리는 442.905km였다.⁶³ 다만 영주(조양)-돈화 성산자산성(동모산) 사이 혹은 영주(조양)-연길 마반촌 산성(동모산?) 사이의 거리 2천 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1천 리는 약 330km 혹은 약 385km가 된다. 당시의 리는 대략적이어서 절대 수치의 km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신당서』 「지리지」의 “발해왕성 … 그 북쪽으로 덕리진을 지나 남흑수말갈에 이르기까지 1천 리이다”라는 기록과 관련하여, 상경성에서 남흑수말갈의 중심지 발리주까지 1천 리이든 혹은 남흑수말갈 경계까지 1천 리이든 420km 혹은 363km는 수치는 1천 리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흑수말갈의 중심지인 발리주(勃利州)이자 나중에 흑수부(黑水府) 혹은 흑수주(黑水州)가 설치된 곳은 강안고성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덕리진의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가명(劉加明)의 의견이 특히 주목된다. 유가명은 발해 제2대 무왕 대무예의 군대가 흑수말갈을 공격할 당시 진군노선을 돈화 일대에서 출발하여 묵단강 연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영안 발해진의 상경성 지역, 묵단강 중류 우안의 남성자고성, 그 북쪽으로 발해 유적이 다수 분포하는 하구(河口)와 목란집(木蘭集) 일대를 지나 먼저 묵단강과 송

63 聞人軍, 1989, 「中國古代里畝制度概述」, 『杭州大學學報』 19-3, 132쪽.

화강이 합류하는 의란 일대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에는 의란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우루(虞婁)의 세력 범위인 화천, 집현, 우의, 보청 일대의 덕리진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로 이곳이 발해와 흑수말갈의 경계 지역이고, 또 덕리진에서 북쪽으로 가면 남흑수말갈의 땅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유가명은 덕리진의 위치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다만 제1 송

화강 하류 동쪽의 화천, 집현, 우의, 보청 일대 어느 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그림 2), 또 자신이 그린 〈발해국군지흑수말갈교통로선도(渤海國軍至黑水靺鞨交通路線圖)〉에 제1 송화강 하류 동쪽에 덕리진을, 제1 송화강 하구 부근에 흑수말갈을 표시했으며, 덕리진을 지나 제1 송화강 하구 쪽으로 발해 군대가 진군한 것으로 표시하였다(그림 7).⁶⁴

필자도 발해의 군대는 목단강 우안을 따라 먼저 의란 일대까지 진군하였다가, 다시 동북쪽으로 제1 송화강을 따라 진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덕리진을 지나 제1 송화강 하구 쪽으로 발해 군대가 진군하였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힘든데, 그것은 남흑수말갈의 근거지가 송화강 하구 쪽이 아니라 흑룡강(아무르강) 중류 곡류 지역의 강안고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강안고성이 흑수말갈의 중심 거점이 거의 분명하므로 덕리진부터는 송화강을 건너 북쪽으로 진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덕리진은 강안고성과 가장 가까운 동류 송화강 하류 지역의 어느 곳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7 유가명의 〈渤海國軍至黑水靺鞨交通路線圖〉(劉加明, 2020)

64 劉加明, 2020, 앞의 책, 57~59쪽, 圖 1.

상기한 바와 같이, 제1 송화강 중하류와 하류 지역에는 발해의 관방유적으로 이룡산성, 와리확탄성, 희이합성이 확인된다(그림 1). 필자는 그중 와리확탄성이 덕리진에 가장 잘 상응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⁶⁵ 송화강 하류 강변 언덕 위에 위치하는 와리확탄성은 송화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관방유적으로서 송화강 건너 북쪽의 강안고성과 약 59km 떨어져 있다. 와리확탄성은 관방유적이라는 점, 1기 혹은 2기 성벽의 축조 시기가 발해 초기일 가능성이 있는 점, 송화강 남쪽에서 흑수말갈 지역을 멀리 조망할 수 있는 점, 발해와 흑수말갈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는 점, 발해 왕성에서 ‘북쪽으로 덕리진을 지나 남흑수말갈까지 1천 리’라는 문헌자료의 내용과 방향이 부합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북쪽으로 발리주였던 것이 거의 분명한 강안고성이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발해 덕리진으로 충분히 비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발리는 흑수말갈의 중심 거점으로서 나중에 흑수주도독부가 설치된 곳이다. 덕리진은 발해의 북방 군진으로서 발해 제2대 무왕 대무예의 대흑수말갈 군사원정 때 발해 군대의 국경 관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발리주와 덕리진 사이에는 발해가 흑수말갈을 완전 복속하기 전 발해와 흑수말갈의 경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흑수말갈 발리주와 발해 덕리진의 위치 문제는 발해의 북방 전략 및 발해와 흑수말갈의 상호 관계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발리(주)의 위치 문제는 그 자체보다는 당나라가 설치한 흑수주도독부의 위치 탐색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리주에 흑수주도독부가 설치되고, 나중에 발해가 발리주를 점령한 후 발해 덕리부 혹은 덕

65 정석배, 2024, 앞의 책, 312~316쪽.

리진을 설치하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까지 흑수주도독부의 위치에 대해 백력(하바롭스크)설, 아뉴이강 하구설, 동강설, 봉림고성설, 목단강 시하진설, 남성자고성설, 강안고성설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그중 백력설, 봉림고성설, 남성자고성설, 강안고성설은 직접적으로 발리주의 위치 비정과 겹친다. 백력설은 백력이 발리와 음이 비슷하다는 데 근거한다. 봉림고성설은 읍루의 중심지=우루의 중심지=흑수말갈의 중심지, 즉 발리주에 흑수주도독부를 설치하였다고 보는 의견이다. 남성자고성설은 부근의 박력 등이 발리와 음이 비슷하다는 데 근거한다. 강안고성설은 학강시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방어 유적이므로 흑수말갈의 중심지 발리주라는 의견이다.

덕리진의 위치에 대해서는 경박호 부근 덕림옥혈설, 삼성(의란)설, 봉림고성설, 남성자고성설, 흥농고성설, 화천·집현·우의·보청 일대설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주목되는 점은 봉림고성설과 남성자고성설은 발리주 및 흑수주도독부의 위치 비정과 겹치는 의견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발리주와 덕리진의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초기 흑수말갈, 즉 나이펠드-동인 문화 1단계 유적들의 분포 범위 및 고구려계 유물이 출토된 발해 유적의 분포 범위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흑수말갈 발리주의 위치는 제1 송화강 하류의 북쪽 지역에서, 덕리진의 위치는 제1 송화강 하류 남쪽 지역에서 각각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흑수말갈 발리주는 강안고성에, 발해 덕리진은 와리확탄성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발해사 자료집 하』, 고구려연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1990,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 2』, 신서원.
김육불 편저, 발해사연구회 옮김, 2008, 『신편 발해국지장편(중)』, 신서원.
네스페로프, S. P., 2021, 『초기 중세 시대 아무르강 유역의 민족들』,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진근 역주, 2008, 『滿洲源流考』, 파워북.
정석배, 2024, 『발해 강역 연구』, 예지안.
정석배·구난희·이병건·윤재운·김은옥·김영길·최슬기·최재경, 2023, 『발해유적총람Ⅱ-중국지역2』, 예지안.

- 國家文物局 主編, 2015, 『中國文物地圖集-黑龍江分冊』, 文物出版社.
譚其驤 主編, 1988, 『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東北卷』, 中央民族出版社.
臺灣商務印書館, 1983 (影印本, 1988), 『景印 文淵閣四庫全書 第470冊』.
孫進己·馮永謙 等主編, 1989, 『東北歷史地理』 第2卷, 黑龍江人民出版社.
張博泉, 1985,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 和田清, 1955, 『東亞史研究(滿洲篇)』, 東洋文庫.

- Дьякова, О. В, 1998, *Мохэские памятники Приморья, Владивосток*(디아코바 O. V, 1998, 『연해주의 말갈 유적들』, 블라디보스토크).
Нестеров, С. П, 1998, *Народы Приамурья в эпоху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Новосибирск(네스테로프 S. P., 1998, 『중세 초기 아무르 유역의 민족들』, 노보시비르스크).

논문

- 장재진, 2011, 「『당가담기변주입사이도리고실(唐賈耽記邊州入四夷道里考實)』 선

역」, 『발해 대외관계사 자료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정석배, 2023, 「흑수말갈 나이펠드-동인문화 1단계의 유적과 흑수주 치소 문제」, 『고구려발해연구』 76.

姜玉珂·趙永軍, 2008, 「渤海國北界의考古學觀察」, 『北方文物』 2.
鄧樹平, 2011, 「黑水靺鞨地域範圍與黑水府治所初探」, 『滿族研究』 1.
聞人軍, 1989, 「中國古代里畝制度概述」, 『杭州大學學報』 19-3.
王禹浪, 1997, 「靺鞨黑水部地理分布初探」, 『北方文物』 1.
王禹浪·王俊錚, 2020, 「唐代黑水都督府의歷史地理學考察」, 『歷史地理研究』 4.
王孝華·劉曉東, 2022, 「渤海德里府, 德理鎮與邊州軍鎮設防問題考」, 『中州學刊』 7.
魏國忠, 2016, 「黑水靺鞨人的再度勃興與勃利州, 黑水府의相繼建立」, 『黑河學院學報』 6.
劉加明, 2020, 「渤海國“北進”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劉曉東, 2018, 「樺川縣瓦里霍吞隋唐時期城址考古調查」,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劉曉東·羅葆森·陶剛, 1987, 「渤海國渤海州考」, 『北方文物』 1.
陳顯昌, 1985, 「論渤海國의疆域」, 『學習與探索』 2.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60, 「牡丹江中下游考古調查簡報」, 『考古』 4.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5, 「黑龍江海林市興農渤海時期城址의發掘」, 『考古』 3.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6, 「黑龍江綏濱同仁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

Пискарева, Я. Е., 2005, Локальные группы мохэ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ье //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피스카료바 Ya. E., 2005, 「연해주 말갈 유적의 국지적 그룹들」, 『고대와 중세의 러시아 극동: 발견, 문제, 가설』, 블라디보스토크).
Нестеров, С. П., 2001, *Этнокультурная история народов Приамурья в эпоху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

пени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Институт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Новосибирск(네스테로프 S. P., 2001, 『중세 초기 아무르 유역의 민족문화사』, 역사학 박사학위논문,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소 고고학민족학연구소, 노보시비르스크).

기타 자료

<https://baike.baidu.com/item/二龙山城址/64041051>

흑수말갈 발리와 발해 덕리진의 위치 문제

정석배

발리(勃利)는 흑수말갈의 중심 거점이었고, 덕리진(德理鎭)은 진(鎭)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발해와 흑수말갈의 경계에 있던 군진(軍鎭)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선행 연구자들의 관련 의견들을 세밀히 살펴보고,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이 두 곳의 위치 문제를 고찰해보았다.

지금까지 발리의 위치는 흑수주도독부의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백력(하바롭스크)설, 아뉴이강 하구설, 동강설, 봉림고성설, 목단강 시하진설, 남성자고성설, 강안고성설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덕리진의 위치에 대해서는 경박호 부근 덕림옥혈설, 삼성(의란)설, 봉림고성설, 남성자고성설, 흥농고성설, 화천·집현·우의·보청 일대설 등이 제시되었다.

『신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발해 왕성에서 북쪽으로 덕리진을 지나 남흑수말갈까지 1천 리였고, 『신당서』 「흑수말갈전」에 의하면 당 현종이 개원 10년(722)에 흑수말갈 주장 예속리계를 발리주자사에 제수하였으며, 『구당서』 「발해말갈전」에 따르면 당은 726년에 흑수주(도독부)를 설치하였다.

남흑수말갈까지는 발해와의 경계까지를 말할 수도 있고, 남흑수말갈의 중심 거점까지를 말할 수도 있다. 남흑수말갈의 중심 거점은 곧 흑수말갈의 중심

거점으로서 바로 발리를 말하는 것이다. 즉, 발해 왕성 → 덕리진 → 흑수말갈 발리(726년 흑수주도독부 설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차례로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초기 흑수말갈의 분포 범위는 나이펠드-동인문화 1단계 유적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 모두 송화강 하류에서 북쪽에 분포한다. 송화강 하류의 남쪽에는 발해 유적들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 일대에서는 흑수말갈의 남쪽 경계가 송화강 하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발리는 송화강 하류 북쪽에서, 덕리진은 송화강 하류 남쪽에서 각각 찾아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흑룡강(아무르강) 중류 남안(우안)의 강안고성이 발리에, 송화강 하류 남안의 와리확탄성이 덕리진에 각각 잘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발해 왕성, 즉 상경성에서 강안고성은 약 420km, 와리확탄성을 기준으로 발해와의 경계였다고 생각되는 송화강 하류 가운데까지는 약 363km이다. 당나라의 1천 리는 대리로는 531.486km, 소리로는 442.905km였지만, 실제로는 대략적인 거리였다. 따라서 이 둘은 남흑수말갈의 중심 거점 발리까지이든 혹은 남흑수말갈의 경계까지이든 모두 대략 1천 리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발해, 흑수말갈, 발리, 덕리진, 강안고성, 와리확탄성, 흑수주도독부

The Issue of the Location of Heishui Mohe Bali (勃利, Boli) and Balhae (Bohai) Deokrijin (德理鎮, Delizhen)

Jung Sukbae

Bali(Boli) was a central stronghold of the Heishui Mohe, and as the word “jin (鎮, garrison)” suggests, Deokrijin was likely a military garrison located on the border between Balhae and the Heishui Mohe.

The author has closely examined the relevant opinions of previous researchers and considered the location issues of these two places through literature and archaeological data.

Until now, various hypotheses have been proposed regarding the location of Balior the Heishuizhou Dudufu such as: Boli (伯力, Khabarovsk), the mouth of the Anuyi River, the Tongjiang (同江), Fenglin Fortress (鳳林古城), Chaihezhen (柴河鎮) on the Mudan River (牡丹江), Nanchengzi fortress (南城子古城), and Jiangnan Fortress (江岸古城). Regarding the location of Deoklijin various

hypotheses have also been proposed, including Deokrimokhyeok (Basalt area north of Jingbohu Lake), Sanxing (Yilan area), Fenglin Fortress (鳳林古城), Nanchengzi fortress (南城子古城), Xingnong Fortress (興農古城), and the Huachuan (樺川)-Jixian (集賢)-Youyi (友誼)-Baoqing (寶清) regions.

According to the «Xintangshu» (sect. Geography), the distance from the royal capital of Balhae northward, via Deokrijin, to the Southern Heishui Mohe was one thousand li. According to the «Xintangshu» (Biography of the Heishui Mohe), Emperor Xuanzong of Tang appointed the Heishui Mohe chieftain Yesoknigye (倪屬利稽, Nishuliji) as governor of Bali Prefecture (勃利州刺史) in the 10th year of Kaiyuan (722). According to the «Jiutangshu» (Biography of Balhaemagal), the Tang also established the Heishuizhou Dudufu in 726.

The term “Southern Heishui Mohe” could refer to the border with Balhae, or it could refer to the central stronghold of the Southern Heishui Mohe. The central stronghold of the Southern Heishui Mohe refers to Bali. In other words, the Balhae Royal City → Deokrijin → Heishui Mohe Bali (where the Heishuizhou Dudufu was established in 726) were located successively from south to north.

Today, the distribution of the early Heishui Mohe can be archaeologically reconstructed through Phase 1 sites of the Naifeld-Tongren culture. These sites are all located north of the lower Songhua River. Balhae sites have been repor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lower Songhua River. Therefore, in this area, the southern boundary of the Heishui Mohe may be regarded as the lower reaches of the Songhua River. In other words, Bali must be found

north of the lower Songhua River, and Deokrijin south of the lower Songhua River. In this regard,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Jiangnan fortress (江岸古城), located on the southern (right) bank of the middle reaches of the Heilongjiang (Amur) River, corresponds well to Bali, while Walihuotun fortress (瓦里霍吞城), located on the southern bank of the lower reaches of the Songhua River corresponds well to Deokrijin. From the royal city of Balhae, that is, Sanggyeongseong, to Jiangnan fortress is about 420 km, while from Walihuotun fortress to the middle of the lower Songhua River, which is thought to have been the boundary with Balhae, is about 363 km. The 1,000 li in the Tang Dynasty corresponded 531.486 km in dali (大里) and 442.905 km in xiaoli (小里), although in practice it represented an approximate distance. Therefore, both distances may be regarded as corresponding approximately to 1,000 li, whether measured to Bali, the central stronghold of the Southern Heishui Mohe, or to the boundary of the Southern Heishui Mohe.

Keywords: Balhae, Heishui Mohe, Bali(Boli), Deokrijin, Jiangnan fortress, Walihuotun fortress, Heishuizhou Dudufu

1920년대 초 남만주 대한광복군 총영(大韓光復軍總營)의 국내 진입작전(1920~1922)

김용진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 I. 머리말
- II. 대한광복군총영의 조직과 운영
- III. 대한광복군총영의 국내 진입작전 실태
- IV. 맺음말

I. 머리말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을 당한 한국민들은, 그로부터 10년 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1920년에 ‘독립전쟁 원년(獨立戰爭元年)’을 선포하였다. 특히 임정은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남만주 지역에 산재한 독립군의 군사력을 활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임정과 기설립된 남만주(南滿洲)¹ 지역 독립군 간의 지휘체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대한광복군총사령부(大韓光復軍總司令部)와 대한광복군총영(大韓光復軍總營)이다. 광복군총사령부는 정규군인 일본군을 상대로 대규모 독립전쟁을 수행해갈 정부 직속의 군사총지휘부로 상정된 반면에, 광복군총영은 압록강 너머로 정예부대를 특파하여 식민지 통치기관 파괴, 일제 관리 및 친일파, 밀정 암살 등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독립전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령부가 정규전을, 총영이 비정규전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² 이러한 총영과 임정이 조직한 국내 비밀결사가 1920년 독립전쟁

* 투고: 2026년 4월 13일, 심사 완료: 2026년 5월 12일, 게재 확정: 2026년 5월 19일

** 이 글은 2024년 10월 18일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의 지원으로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주최한 《1920년대 남만주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1920년대 남만주 독립군 광복군총영의 국내진입작전」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부족한 글임에도 글의 완성도를 위해서 세심한 심사과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 선생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심사평의 지적사항 모두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바란다.

1 남만주는 백두산 서쪽과 압록강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강 중·상류 지역인 집안(輯安)·통화(通化)·봉천(奉天)·무순(撫順)·안도(安圖)·흥경(興京) 등을 가리킨다. 원래 서간도 지역으로 명칭되었다가 1920년 초에 이르러 남만주로 불리워졌다(채영국, 2000, 『韓民族의 만주독립운동과 正義府』, 국학자료원, 31쪽; 신화철, 2022, 「1920년대 남만주 통의부 의용군 5중대의 구성과 활동 - 5중대장 金鳴鳳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쪽).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간도 대신 ‘남만주’로 통일하였다.

의 해를 계기로 연합하여 국내 작탄투쟁(의열투쟁)을 벌인 사례를 밝힌 연구가 주목된다.³

기존 연구에서 사령부와 총영의 조직 시기, 두 군사단체의 상관 관계, 활동 등 많은 부분이 해명되었다.⁴ 윤대원은 사령부와 총영은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에 명칭만 달리한 동일한 성격의 조직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령부와 총영의 창설 시기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는 등 개척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⁵ 이에 반해 김영범은 사령부와 총영의 창설 시기를 고려하여 두 조직의 성격을 역할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하였다. 예컨대, 사령부는 임정 군무부 산하의 정규군 총지휘부, 총영은 비정규전 무장조직의 본영 겸 국내 공작 특별기관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박성순은 『독립신문』, 『이차해자전』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양자가 별개의 조직임을 분명히 하여 김영범의 주장에 동조하였다.⁶

한편, 임정의 군사제도와 주요 인물을 통해서 임정과 만주 독립군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도 있다. 신호승은 임정이 1920년 3월 16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속에 담긴 임정의 군사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보여주었다. 임시군제가 당시의 국제 정세와 기존 독립군과의 관계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변모하였다고 보았다.⁷ 그는 ‘임시군제’라는 군사제도를 통해서 임정과 만주 독립군의 상하 관

2 김영범, 2009, 『의열투쟁 I: 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경인문화사).

3 김은지, 200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비밀결사 의용단의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4 대표적으로 채영국은 광복군사령부가 먼저 성립된 후에 광복군총영이 군사 목적의 특수부대로 조직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광복군총영이 1920년 7월 1일, 광복군사령부는 같은 해 8월 1일에 성립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5 윤대원, 2006,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와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제133호, 한국사연구회.

6 박성순, 2020, 「대한독립단의 위상과 대한광복군사령부의 성립」, 『송실사학』 제45집, 송실사학회.

7 신호승, 2018a,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전략과 ‘陸軍臨時軍制’ 변화」,

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상도는 이탁(李鐸)을 매개로 임정과 남만주 지역 독립군 단체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탁은 사령부의 ‘사령장 대리’와 총영의 ‘참모총장’을 역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해 임정과 남만주 지역 독립군 단체 간의 의견을 조율·조정하는 산과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임정의 광복군사령부 설치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달여 전에 결성된 총영이 이를 대신하여 지방사령부의 역할을 함으로써 두 단체의 이름이 혼용되었다고 보았다.⁸ 이 역시 윤대원의 의견을 부연 해석한 것이다.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서 사령부와 총영의 관계와 역할, 조직 시기 등 많은 부분이 해명되었다. 주로 총영과 사령부의 설립 전후 시기를 둘러싸고, 총영을 사령부의 후신으로 보았던 이전의 쟁점들은 해결되었으나, ‘광복단’, ‘광복군총영’, ‘광복군사령부’의 조직과 성립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⁹

『역사민속학』 제5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 8 한상도, 2017, 「이탁의 독립운동 역정과 생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8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9 ① 반병률은 광복군총영과 광복군사령부의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총영의 오동진이 사령부가 성립되면서 제2영장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총영과 사령부, 군영을 동일 단체로 파악하였다(반병률, 2009,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 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경인문화사), 201쪽). ② 김호진은 임정 직속의 통일군사기관을 설립하기로 협의를 끝낸 이탁(7.21.)과 김승학(9.26.)이 각각 두 달간의 격차로 관전현(寬甸縣) 내 다른 지역에 따로 복귀함으로써 명칭을 다르게 불러졌다고 봤다. 즉, 이탁을 중심으로 한 대한청년단연합회는 관전현 안자구(安子溝)에서 ‘광복군총영’을, 김승학을 중심으로 한 민국과 대한독립단은 장음자(長陰子)에서 ‘광복군사령부’라고 달리 명명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선 윤대원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김호진, 2024, 「3·1운동 이후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의 동향과 大韓統義府의 결성」, 충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28쪽). 그러나 12장 33조로 구성된 대한광복군총영 약장(約章) 마지막 쪽에는 ‘대한민국 2년(1920) 7월 1일’로 명시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총영은 이미 1920년 7월 1일에 창립되어 있었다(高警제29525호, 1922년 1월 7일, 「國外情報: 大韓光復軍總營ノ約章」,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上海假政府ノ部4』;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자료번호(5-001866-002)). ③ 박찬은 1920년 8월 미의원단 방문 시에 거행한 의열투쟁을 ‘광복군총영’이 아니라 ‘광복단’의 의거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의거가 실패한 후, 안창호와 이탁이 ‘광복단’을 개편하여 정부 직속의 정규군 편성으로

이들 연구에는 임정의 지도자급 인사들의 일기와 서한, 만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무장투쟁을 수행한 지휘관급 인사들의 검사국 기록·예심종결서·판결문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자료군의 활용은 사령부와 총영으로 대변되는 임정과 남만주 독립군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항일무장투쟁의 구체적 양상과 전투 과정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국내 진입작전¹⁰을 전개하였던 광복군총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총영은 남만주 지역에 설치된 임시정부 군무부 직할의 유일한 군사단체였다.¹¹ 총영의 국내 진입작전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사령부와 총영의 군사지휘체계, 더 나아가 임정과 남만주 지역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지휘권 실상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어서 사령부와 총영 그리고 벽창의용단의 관계를 살펴보고, 벽창의용단과 벽파별영의 동일 단체 여부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신문 기사를 다각적으로

서 ‘광복군총영’이 1920년 7월 1일에 조직되었다고 보고 있으나(박찬, 2024, 「吳東振의 서간도지역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8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18~119쪽), 미의원단 방한시의 의거는 이미 광복단이 광복군총영으로 탈바꿈된 뒤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기가 맞지 않다.

- 10 ‘국내 진입작전’에는, 일제 식민지 통치기관 파괴, 일본인 관료·친일조선인 경찰 및 밀정 등의 암살과 더불어 군자금 모집활동이 포함된 개념이다. 만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무기와 식량 등의 공급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군자금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즉, 항일무장투쟁과 군자금 모집활동은 서로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신문기사를 조사한 결과, ‘군비 강령’ 등으로 표현된 군자금 모금 활동 직후에는 독립군과 일본 헌병·경찰 간의 총격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자금 모집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국내 진입작전’으로 통일하였다.
- 11 광복군총영은 1924년 6월에 ‘만주에 주둔하는 임정의 군대(大韓民國臨時政府陸軍駐滿參議部)’인 참의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임정 직속의 유일한 군사 단체였다(한상도, 2017, 앞의 글, 111쪽). 참의부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는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이에 대해 윤대원은 임정의 참의부 승인 일자를 근거로 1924년 6월 26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윤대원, 2013, 「참의부의 ‘法名’ 개정과 상해 임시정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4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분석했다. 교차 검증만 잘한다면 신문은 일제 정보기록에서 걸러졌을 당시의 생생한 목소리를 낱것의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신문 보도 내용을 통계로 정리하여, 총영의 국내 진입작전을 재구성하였다. 예컨대 신문 기사 내용 가운데 확인 가능한 범위의 지역별, 발생 일자, 시간, 작전의 주도 인물, 주변 인물, 수행 직책, 본적(현주소), 독립군 단체명, 무기·소지품 및 복장 등을 조사·세분화하였다. 여기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독립신문』과 일본 외무성의 『불령단관계잡진』,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고등경찰관계연표』 등으로 보완하였다.

조사 시기는 1920년 7월 총영의 창립 시점부터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로의 발전적 해체가 마무리된 1922년 8월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상 지역과 주체는 평안남·북도에서 활발하게 전개한 국내 진입작전을 주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방법은 행동 면에서 ‘격투’, ‘교전’, ‘충돌’, ‘기습’, ‘음습’, ‘잠복’, ‘군비(軍費) 강척’ 등의 키워드로, 주도 세력은 ‘광복단’, ‘독립단’, ‘무장단’, ‘권총단’, ‘배일조선인’ 등으로 다양하게 조사·검색하여 광복군총영의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총영의 경우 광복단·광복군·대한광복군·대한광복군총영·광복군총영·대한광복군 모험단·대한광복단·광복군영 결사대·광복군총영 결사대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들 용어 가운데 사령부와 총영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령부 자체가 실체가 없는 편제상의 조직처럼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임정의 실질적인 지방사령부 역할을 한 것이 총영이었기 때문에 서로 혼용된 것으로 추측된다.¹²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관에서 생산된 정보 기록을 중심으로 서술해오던 독립운동사를, 운동 당사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임정 군무부의 실질적인 지방사령부 역할을

12 김영범, 2009, 앞의 책, 77쪽.

하면서, 1920년대 초반 남만주 지역의 국내 진입작전을 주도한 총영¹³의 주요 침투 지역과 동선 등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대한광복군총영의 조직과 운영

1. 광복군총영과 광복군사령부의 병립

임시정부는 1920년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 일본과의 항일독립전쟁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인적, 물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일제와의 전면전은 무리였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안창호는 독립전쟁 준비론을 추창하였다. 이는 막강한 전력을 갖춘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면전을 위해서는 독립전쟁을 단행하기 위한 실력양성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그렇다고 그가 독립전쟁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독립전쟁을 위해서는 완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안창호는 1920년 안동현 광복군영 조직을 주도하는 등 독립전쟁 구현의 중심 인물로 활약했으며, 이에 따라 안창호 계열 역시 준비론에 입각한 독립전쟁을 주창하였다. 1920년 1월 13일 러시아·만주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발포된 ‘국무원 포고 제1호’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제1년’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 동포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¹⁵ 1월 21일 안창호는 독립전쟁에 대한 보다 분명한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가 천명한 독립전쟁 방략은 온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해외에서는 정식적인 전쟁을, 국내에서는 기습적인 돌격을 시작하

13 한상도, 2017, 앞의 글, 107쪽.

14 ‘실력준비론’과 ‘외교론’은 방법론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독립전쟁론에 따른 무장력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신효승, 2018b, 「20세기 초 국제 정세 변동과 한인 무장 독립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쪽).

15 박성순, 2020, 앞의 글, 187쪽.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국민개병제를 규정하였는데 그 실현에도 안창호의 역할이 컸다. 임정 군법국장 손두환(孫斗煥)과 김보연(金甫淵)은 1920년 1월 18일 안창호를 방문하여 국민개병제 실현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이를 위한 군적등록사업은 1920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군적등록 대상은 국내의 모든 18세 이상 남자로 규정되었지만, 상해 지역 한인사회를 1차 대상으로 삼았다.¹⁶

군무부도 1월 24일 ‘군무부 포고 제1호’를 공포하여 지금이 바로 전쟁을 일으킬 시기라고 밝히고,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대 양성과 조직에 민족 전원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 전에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18일 대한민국육군임시군구제를 공포하였다. 군구에서는 서간도군구(하얼빈 이남 길림성 부근 봉천성 전역), 북간도군구(연길부 일대), 그리고 강동군구(연해주 일대) 등을 두도록 정했다. 초창기 임시정부의 군사 활동은 주로 시베리아와 만주 일대의 독립군 단체에 의지하고 있었다. 당장 독립전쟁을 수행할 만한 군사 활동을 벌이기 어려웠던 임시정부로서는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면서도 무장독립군을 거느리고 있던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에게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을 맡겼다.

하지만 1920년에 들어서 임시정부는 스스로 독립군을 조직하거나 군사력을 기르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직할부대를 편성하거나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약하던 군사조직을 임시정부 아래로 편입하는 정책이 그 핵심이었다. 직할부대를 편성하거나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약하던 군사조직을 임시정부 아래로 편입하는 정책이 그 핵심이었다. 임시정부는 만주 지역의 독립군 조직을 내세워 독립전쟁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¹⁷ 예컨대, 대한청년단연합회와 대한광복군총영은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대한광복군사령부와 대한광복군참리부 그리고 후일의 육군주만참의부는 임시정부의 직할 단체로 설립되

16 박성순, 2021,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노선과 義勇團의 성격」, 『東洋學』 제84집,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4쪽.

17 박성순, 2020, 앞의 글, 187~188쪽.

었다.¹⁸

1920년 5월 상해에서 안창호(安昌浩)와 이탁(李拓)이 광복군사령부 조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조직된 광복군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광복군사령부는 대한독립단 외에 대한청년단연합회, 광복단 등 남만주 지역 활동 단체들을 토대로 임정 군사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성립되었다.¹⁹

김승학(金承學)은 6월 16일 이탁, 안창호와 함께 대한독립단과 청년단연합회를 연합하여 광복군을 조직하기로 합의했다.²⁰ 6월 25일 안창호·김승학·이탁은 정부의 광복군 신설방침을 협의하여 7개 항을 결의하였다.²¹ 7개 항의 합의 내용은 대한독립단과 대한청년단연합회를 통합하여 군무부에 직속한 광복군영을 조직하고 이들 단체들이 통치하던 민사는 내무부에 직속한 민단으로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안창호는 이 무렵 국내에서 의용단을 조직하고 상해로 돌아온 김석황(金錫璜)을 설득하여 의용단도 광복군영에 부속하게 했다.²² 이로써 안동현의 광복군 조직은 대한독립단, 대한청년단연합회 의용대 그리고 국내의 의용단 등 세 단체가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²³ 1920년 7월 12일 군무부에서 광복군 편제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고, 7월 26일 대한광복군참리부규정·대한광복군사령부규정·대한광복군영규정을 확정하여 8월 1일을 시행일로 공포하고 8월 10일 광복군 직원을 임명하였다.²⁴

18 김병기, 2019,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만주 무장독립운동 -서로, 북로군정서 및 참의부와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23집, 국학진흥원, 10쪽.

19 박성순, 2020, 앞의 글, 188쪽.

20 『도산일기』, 1920년 6월 15~16일(주요한 편, 2015, 『증보판 安島山全書』 4, 홍사단).

21 『도산일기』, 1920년 6월 25일.

22 『도산일기』, 1920년 7월 4·5·8일.

23 윤대원, 2006, 앞의 글, 120쪽.

24 『도산일기』, 1920년 8월 1일.

사령부 기반 병력은 대한청년단연합회의 부설 조직인 의용대였다. 의용대는 1920년 2월 관전현에 설치했는데, 1920년 3월(음력 정월)경에 광복단으로 개칭했다. 단장은 이탁, 부단장은 오동진이며, 안동현의 청년단원이 아니고는 광복단에 가입할 수 없었다.²⁵

1920년 5월 초에 이탁과 안창호가 광복군 조직을 논의할 때 이미 조직된 광복군을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²⁶ 이탁이 안창호를 만나 대화하는 자리에서 광복군으로 지칭한 기설 조직은 실은 대한광복단이었다. 다만 1개 단체 부속이 아닌, 정부군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광복단’이 아닌 ‘광복군’으로 표현된 것이다.²⁷ 광복군, 즉 광복군사령부는 안동현(安東縣)에 이미 설립되어 있던 광복단을 확대·발전한 것이다. 대한광복단은 안동임시교통사무국을 대신하면서 그 실체가 되고 있던 청년단연합회의 의용대를 1920년 3월경에 개편한 것으로, 한족회·대한독립단·대한청년단연합회 등 3개 단체 연합의 통일적 행동 기관으로 여겨졌다.²⁸

한편, 광복군사령부가 성립되기 한 달 전에 남만주 관전현(寬甸縣)에서는 광복군총영이 창설되어 있었다. 총영은 1920년 3월 대한청년단연합회 의용대를 개칭한 광복단이 4월 이후 청년단연합회 제2차 정기총회를 계기로 대한독립단에서 분화된 민국독립단과의 결합²⁹에 의해서 관전현 향로구(香爐溝)³⁰에서 창

25 국사편찬위원회, 1997, 「광복단원의 폭탄투척미수사건 경찰신문조서-金最明·金聖澤 심문조서(1920년 8월 22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 29.

26 『도산일기』, 1920년 5월 10일; 윤대원, 2006, 앞의 글, 116쪽.

27 김영범, 2009, 앞의 책, 59쪽.

28 김영범, 2009, 위의 책, 58쪽.

29 윤대원, 2006, 앞의 글, 133쪽.

30 성립 초기 광복군총영 군영의 근거지는 관전현 향로구(香爐溝)에서 관전현 모전자(毛甸子)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독립유공자협회, 1997, 『中國東北지역 韓國獨立運動史』, 集文堂, 297쪽). 그러나 1921년 5월 중·일 합동 수색으로 부대가 노출되자, 다시 환인현(桓仁縣)과 관전현 동부 대평초(太平哨)·석두자(石柱子)·대백채(大白菜)로 진영을 옮겼다(박찬, 2024, 앞의 글, 123~124쪽).

립되었고, 총영장은 당시 광복단 부단장이었던 오동진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사령부의 편제가 완성되고 조직이 정식 출범하게 되자 오동진의 총영도 그 예하로 들어갔다. 이로써 오동진은 정규군 형태의 기관인 사령부에서는 제2영장, 특파부대 기관이었던 총영에서는 영장을 겸임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사령부와 총영의 역할과 임무가 다르게 상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사령부는 만주로부터 국내로 대규모로 진입하는 독립전쟁을, 총영은 국내 작탄투쟁의 국내 진입작전에 주력했던 것으로, 달리 말하면 전자는 정규전, 후자는 게릴라식 비정규전으로 구분된다.³¹

2. 광복군사령부와 벽창의용단(벽파별영)의 관계

필자는 당시 보도된 신문 기사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광복군총영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지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광복단·광복군·대한광복군·대한광복군총영·광복군총영·대한광복군 모험단·대한광복단·광복군영 결사대·광복군총영 결사대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광복단’이라는 용어가 고유명사 혹은 일반명사로 쓰여졌는지 여부를 검증했는데 총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총 40건이었다. 여기에는 광복군총영 산하의 천마산대(천마부, 天摩別營, 鐵馬別營), 벽파별영(벽창의용단, 碧波別營)을 포함한 수치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벽파별영의 실체가 어느 단체를 가리키느냐는 것이다. 벽파별영은 1920년 8월 즈음에 사령부의 6대장³²을 역임한 양승우(楊承

31 김영범, 2009, 앞의 책, 60~61쪽.

32 여기서 말하는 사령부 6대장은 사령부의 광복군지방영(光復軍地方營)인 제6영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1영의 6대를 말한다. 김승학은 양승우를 광복군사령부 제1영 4대장으로 보고 있다(김승학, 1970, 『韓國獨立史』(상권), 독립문화사, 357쪽). 한편, 사령부 제1영 4대장 이용진(李龍鎭, 28)과 부관 박연일(朴演日, 28) 등 사령부 제1영 4대원 15명은 1920년 11월경부터 이듬해 1월 20일까지 평안 북도를 횡행하며 친일파 암살, 군자금 모집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光復軍營第四隊長 李龍鎭 外 十四名」, 『동아일보』, 1921.3.1, 석간 3면 사회). 이를 통해

雨)가 사령부와 분리하여 국내의 벽동(碧潼) 파저강(波瀾江) 연안에서 조직한³³ 벽창의용단(碧昌義勇團)일 개연성이 높다. 벽창의용단의 ‘벽창’은 벽동군(碧潼郡)과 창성군(昌城郡)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양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활용하여 게릴라식 유격전을 활발하게 추진한 사령부 직속 국내 진입활동의 별동대였다.³⁴

벽창의용단은 천마산대가 일찍부터 충영과 연합작전을 벌이면서 천마별영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과 달리, 같은 해 8월에 사령부 직속의 제1영 6대장이던 양승우가 국내 진입작전이라는 특수 목적을 띠고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한 것이다.³⁵ 하지만 관전현에 본부를 두고 있던 사령부가 편제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정 군무부의 지방사령부 역할을 담당하던 충영의 산하로 들어가 ‘벽파별영’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경의 남만주 독립군 탄압정책과 중국 관헌의 압박이 사령부가 산간벽지로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벽창의용단이 충영의 별동대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⁶

이러한 개연성은 1922년 8월 7일에 벽파별영지에서 개최한 충영의 제1·2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벽파별영장 김영화(金永和)의 행적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³⁷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의 부하인 김영화는 소대장의 직

불 때 양승우는 제1영 4대장이 아니라 제1영 6대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 김승학, 1970, 위의 책, 362쪽.

34 김영범, 2009, 앞의 책, 92쪽.

35 「密偵을 多數 銃殺한 壁昌義勇團員 公判」, 『동아일보』, 1924.8.4, 2면 사회; 「碧昌義勇團長 楊承雨公判 이십삼일 오후 한시반에 平壤覆審 第二號 法廷」, 『동아일보』, 1924.4.25, 2면 사회; 「義勇團長 公判: 新義州地方法院에서 국경 일대를 소요케하든 양승우 사건 제일회공판」, 『매일신보』, 1924.8.4, 3면 사회 1단; 「碧昌義勇團長 楊承雨 控訴 公判」, 『조선일보』, 1925.4.26, 석간 2면 사회 1단.

36 김승학, 1970, 앞의 책, 357~358쪽.

37 김영화는 제1 정기총회에서 벽파별영장을 선출하는 투표에서 41대 28표로 당선되었다(「光復軍總營 第二回 定期大會」, 『독립신문』, 1922.9.20, 3면 4단; 關機高

책으로 압록강변 평북 지방에서 국내 진입작전을 벌인 인물이라는 점이다.³⁸ 임정 군무부 총장 노백린의 부하가 벽파별영장을 역임했다는 것 자체가 벽파별영이 일찍부터 임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사령부의 별동대 역할을 띠고 조직한 것이 벽창의용단이고, 이 벽창의용단이 충영 산하로 개편되면서 벽파별영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또한 벽창의용단원들이 1923년 관전현에서 철마별영(혹은 천마별영) 단원들과 함께 삼일절 5주년 독립선언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통해서도 벽창의용단이 벽파별영일 개연성은 충분하다.³⁹

벽파별영원 김모 등 3명은 1922년 2월 6일 국내 진입 후 돌아오는 길에 평북 벽동군 태평면 양구천(碧潼郡 太平面 楊口川)에서 일본 경찰 10여 명과 1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여서 일경 1명을 즉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경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히는 성과를 거뒀다.⁴⁰ 이처럼 사령부 직속의 별동대로 설치된 벽창의용단(벽파별영)은 창단 직후부터 양승우의 진두지휘 아래 주재소 및 금융조합 습격, 일본 경찰과의 교전, 밀정 총살, 군자금 및 단원 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⁴¹ 한편, 벽파별영은 박준모(朴俊模)·김용원(金龍苑)·박정창(朴貞昌)·김운섭(金允涉) 등의 대원들이 사망하자, 1922년 3월 5일 광복군총영의 주최하에 여타의 별동대인 평남도영(平南道營), 철마별영(천마별영), 각지 기관들과 함께 추도식을 거행했다.⁴²

收 第14925號-1; 機密受 第1166號, 1922년 10월 26일, 『臨時報 第648號(光復軍總營 第一回 總會會議錄)』,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34』).

38 「慈城 對岸에서 接戰」, 『동아일보』, 1921.6.19, 3면 사회; 「上海假政府 軍務部 小隊長 金永化 平北 慈城警察署에 逮捕」, 『조선일보』, 1921.6.21, 석간 3면 사회 5단.

39 「寬甸의 三月一日」, 『독립신문』, 1923.3.14, 3면 2단.

40 「敵我 間 一大 衝突」, 『독립신문』, 1922.4.15, 3면 5단.

41 김영범, 2009, 앞의 책, 92쪽.

42 「殉國 諸氏 追悼會」, 『독립신문』, 1922.4.15, 3면 6단.

Ⅲ. 대한광복군총영의 국내 진입작전 실태

1920년 1월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한 임정은 남만주의 독립군 단체를 활용하여 독립전쟁의 준비 단계로서 ‘국내 진입작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서간도(西間島)를 비롯한 남만주에서만 30여 개에 이르는 독립운동 단체가 병립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1920년 7월 1일⁴³에 설립된 광복군총영은 이러한 임정의 군사 방침에 따라 압록강 국경 부근에서 게릴라식 비정규전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총영은 오동진이 1920년 7월경 봉천성 관전현 안자구(安子溝)에서 이탁[李綽(鐸)], 안병찬(安秉瓚) 등과 함께 조선 독립 달성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독립군 단체이다.⁴⁴ 이러한 총영의 조직과 운영에는 총영장(總營長) 오동진의 역할이 지대했다.

오동진은 광제청년단(廣濟靑年團, 1919.6.) → 대한청년단연합회 의용대(1919.11.) → 광복단(1920.3.) → 광복군총영(1920.7.) → 광복군사령부(1920.8.) → 대한통의부(1922.8.) → 정의부(1924.11.) 등 남만주 지역 독립군 단체에서 일관된 무장투쟁의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이 장에서는 임정의 독립전쟁 군사 방침에 따라 192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인 국내 진입전을 실천하였고, 오동진이 영장으로 활약한 광복군총영의 국내 진입작전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침투 지역·날짜·시간

광복군총영의 확인된 침투 건수는 총 45건이었다. 이 가운데 평북 32건, 평남 13건을 기록하였다. 특정 지역을 보면 평북의 경우, 의주군(10)·창성군(7)·철

43 윤대원은 광복군총영의 성립 시기를 1920년 7월 1일에서 12일 사이라고 주장하였다(윤대원, 2013, 앞의 글, 124~125쪽).

44 「吳東振事件判決」(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1990, 『思想月報』 5 第二卷 第四号~第八号, 高麗書林, 50~57쪽).

산군(6) 등이 가장 많고, 평남은 상대적으로 성천군(5)과 강동군(2) 두 곳이 다른 군에 비해 근소하게 많은 편이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총영의 국내 진입 작전이 평안북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평안북도에 인접한 압록강 대안의 관전현에 본부를 두고 있던 총영으로서의 국내 유격전을 펼치기에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평안남도의 침입 진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은 총영 산하로 편제되어 국내에서 특수 공작을 전개하던 천마별영과 벽파별영의 활동 때문으로 보인다. 즉, 총영이 압록강의 국경 수비망을 뚫고 진입해 오면 국내의 별동대들이 이에 호응하여 내륙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데 엄호와 안내 등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였기에 가능하였다.

〈표 1〉 광복군총영의 침투 지역·날짜·시간 일람표

순번	도	부·군	면동리	침입 날짜	시간	출처
1	평안북도	의주군	천마동 천마산	1920년 3월경		『조선일보』, 1924.11.13.
2	평안북도	의주군	고령삭면 대하동	1920년 7월 2일	밤	『동아일보』, 1924.11.13.
3	평안북도	구성군	사기면 신시주재소	1920년 7월 3일	저녁	『동아일보』, 1924.11.13.
4	평안북도	의주군	월화면 화하동	1920년 7월 8일		『동아일보』, 1924.11.13.
5	평안남도	안주군	연호면 동사리	1920년 7월 30일	오전 10시쯤	『조선일보』, 1937.1.26.
6	평안남도	평양부		1920년 8월경		『동아일보』, 1921.8.12.
7	평안남도	순천군	북창면 한령리	1920년 8월		『조선일보』, 1936.7.3.
8	평안남도	평양부	평남도청	1920년 8월 3일	오후 9시	관계연표, 35. 『동아일보』, 1936.5.13.
9	평안남도	강동군	강동경찰서	1920년 8월 9일	밤	『동아일보』, 1931.6.25.
10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사무소, 주재소, 우편소	1920년 8월 13일	밤	『동아일보』, 1924.11.13.
11	평안북도	창성군	창주면 사창동	1920년 8월 16일		『동아일보』, 1924.8.4.
12	평안북도	창성군	대유동	1920년 8월 21일		
13	평안북도	철산군 운산군		1920년 9월		『동아일보』, 1921.10.27.

순번	도	부·군	면동리	침입 날짜	시간	출처
14	평안북도	의주군	비현면 정산동	1920년 9월 28일		『매일신보』, 1920.10.17.
15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하삼리	1920년 10월		『동아일보』, 1924.8.4.
16	평안북도	철산군	운산면 산대동	1920년 10월 2일	오후 3시경	『동아일보』, 1921.11.24.
17	평안북도	의주군	비현면 도봉동	1920년 11월 9일	오후 8시경	『동아일보』, 1921.11.24.
18	평안남도	성천군	영천면	1921년 1월		『매일신보』, 1921.12.3.
19	평안남도	성천군	아파(丫波)	1921년 1월 12일		『동아일보』, 1923.3.13.
20	평안북도	철산군	여한면 상석동	1921년 1월 14일	밤 10시경	『동아일보』, 1921.11.24.
21	평안북도	철산군	여한면주재소	1921년 1월 20일경		『동아일보』, 1921.8.9.
22	평안북도	철산군	백량면 경찰관주재소	1921년 1월 21일	오후 7시	『동아일보』, 1921.11.24.
23	평안북도	철산군	백량면 경찰관주재소	1921년 1월 31일	오후 10시경	『동아일보』, 1921.10.27.
24	평안북도	벽동군	오북면, 운시면, 태평면	1921년 3월 6일		『동아일보』, 1921.3.13.
25	평안북도	희천군	북면 응동 용곡	1921년 3월 13일	오전 8시	『동아일보』, 1921.3.23.
26	평안북도	의주군	송장면 허장로	1921년 3월 15일경		『동아일보』, 1921.8.9.
27	평안북도	창성군	신창면 화풍동	1921년 5월		『동아일보』, 1924.8.4.
28	평안북도	창성군	창성면 송창동	1921년 5월 4일(음력)		『동아일보』, 1925.4.25.
29	평안북도	창성군	신창면 연풍동	1921년 5월 4일	밤	『동아일보』, 1925.4.25.
30	평안북도	초산군	도원면 의창동	1921년 5월 5일	오후 4시	『동아일보』, 1921.5.10.
31	평안북도	의주군	주내면 어적동	1921년 5월 16일경		『동아일보』, 1921.10.27.
32	평안북도	의주군	군내	1921년 5월 17일		『동아일보』, 1921.11.24.
33	평안북도	자성군	여연면 만흥동 오봉산	1921년 7월 10일	오후 11시경	『조선일보』, 1921.7.20.
34	평안북도	자성군	여연면 만흥동	1921년 7월 11일	오후 11시경	『동아일보』, 1921.7.18.
35	평안북도	자성군	여연면 견하동	1921년 7월 13일	오전 2시경	『동아일보』, 1921.7.18.
36	평안북도	초산군	주재소, 면사무소	1921년 10월 7일	밤	『동아일보』, 1921.10.13.
37	평안남도	강동군	원탄면 삼성리	1922년 1월 7일	새벽	『동아일보』, 1922.1.13.
38	평안남도	성천군	통선면 아파리 금융조합	1922년 1월 11일	밤	『동아일보』, 1933.12.28.
39	평안남도	개천군	외서면 현룡리	1922년 1월 18일	밤	『조선일보』, 1934.2.25.
40	평안북도	창성군	전창면 신동	1922년 1월 20일		『동아일보』, 1925.4.25.

순번	도	부·군	면동리	침입 날짜	시간	출처
41	평안남도	성천군	삼흥면 난산주재소	1922년 5월 11일	오후 10시경	『조선일보』, 1934.2.25.
42	평안남도	성천군	통선면사무소	1922년 9월		『동아일보』, 1933.12.28.
43	평안남도	성천군	삼흥면 난산주재소, 면사무소	1922년 9월 11일	오후 9시경	『동아일보』, 1933.12.28.
44	평안북도	의주군	광평면 조계암 경찰관 출장소	1922년 12월		『동아일보』, 1929.7.11.
45	평안북도	창성군	창주면	1923년 8월 15일		『동아일보』, 1925.4.25.

〈표 2〉 광복군총영의 평안남·북도 침투 지역

평안북도(32)		평안남도(13)	
의주군	10	성천군	5
창성군	7	강동군	2
철산군	6	평양부	2
자성군	3	안주군	1
초산군	2	대동군	1
구성군	1	개천군	1
벽동군	1	순천군	1
운산군	1	—	
희천군	1		

침투 시간대를 알 수 있는 총 21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밤(12진) → 저녁(6진) → 오후·새벽(2진) → 오전(2진)⁴⁵순으로 국내 진입작전이 전개되었음을 보았다. 광복군총영의 침투한 월(月)을 분석한 결과, 1월과 8월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결빙기(結氷期)와 한여름에 독립군의 국내

45 시간대는 오전(07:00~12:00), 오후(13:00~17:00), 저녁(18:00~21:00), 밤(22:00~24:00), 새벽(01:00~06:00) 등으로 조사하였다.

진공작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된 셈이다. 신문 기사에 ‘월’이 기재된 총 45건 중에 8월이 10건이고, 이어서 1월이 9건을 차지했다. 1월과 8월의 침투 건수를 점유율로 환산하면 전체 41.3%를 기록한다.

〈표 3〉 광복군총영의 월별 침투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	·	4	·	7	·	7	10	3	3	1	1

월별로 침투가 많았던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8월(10건) → 1월(9건) → 5,7월(7건) → 3,9,10월(3건) → 11,12월(1건) → 2,4,6월(0건)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위와 같은 수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겠지만, 총영의 전체적인 국내 진 입작전 전모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수치를 범위를 넓혀 한겨울과 한여름으로 각각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예컨대, 통상 만주의 한겨울이 최소 11~3월까지라고 했을 때 이를 수 치화하면 약 32.5%를 차지한다. 반면에 수풀이 무성해지는 한여름이 5~9월까 지라고 한다면, 총 26건으로 전체 약 60.4%라는 과반수 이상의 점유율을 보 인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총영이 국내 진입작전을 펼치기에 적합한 시간대와 계 절은 자신들의 신체를 은닉하거나 잠복하는 데 용이한 한여름과 밤 시간이었음 을 알 수 있다.⁴⁶

46 대한통의부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김용진, 2025,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의 국내 진입작전과 조선지부 설치」,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39집,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158~159쪽).

2. 전과 내용

오동진(吳東振)의 예심종결서에 따르면, 총영이 1920년 한 해 동안 압록강을 건너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한 횃수를 기재해두었는데 다음과 같다. 일제 군경과의 교전이 78차, 주재소 습격이 56개소, 면사무소 및 영림창 소각이 20개소, 경찰 사살 95명의 전과를 올렸다고 기록하였다.⁴⁷

다음은 필자가 신문기사 보도 내용 가운데 광복군총영의 전과(戰果) 총 75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본 것이다(표 4 참조). 참고로 주의할 점은 한 건의 국내 진입작전 안에서도 파괴·암살·교전·군자금 모집 등 여러 유형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여러 유형을 횃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군자금 모집(36건) → ② 일본 군·경 교전 및 총살(24건) → ③ 주재소·면사무소·도청 습격, 폭탄 투척(13건) → ④ 친일파·밀정 총살(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군자금 모집이 가장 많은 수위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만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자금 확보가 선결 과제였던 것이다. 즉, 국내 진입작전으로 대변되는 항일무장투쟁과 군자금 모집 활동은 분리해서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신문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군비 강척’ 등으로 표현되는 군자금 모집 활동 직후에는 독립군과 일본 헌병·경찰 간의 총격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총영의 주 목적은 군자금 모집이고, 그에 따른 일본 군경과의 총격전은 부수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내 진입작전이란 적의 세력권 안에서 상주하며 지형을 활용하거나 주민들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거점을 마련한 이후에 전개되는 게릴라식 유격전에 군자금 모집 활동이 포함된 개념이다.

47 국사편찬위원회, 1983, 「오동진예심종결결정」, 『한국독립운동사』 3, 811~813쪽.



〈표 4〉 광복군총영의 침투 일자·전과 일람표

침투 일자	전과	출처
1920년 이래	(대한광복단) 군자금 모집	『동아일보』, 1922.5.29.
1920년 2월 중	(상하이 임시정부 교통국, 대한독립연합청년단, 정의단, 광복군총영) 군자금 모집, 김관섭(金觀燾) 집: 17만 원	『동아일보』, 1922.2.21.
1920년 5월 10일	(천마산대) 군자금 모집, 동암동 동장 노관호(盧寬?) 집: 1백 원 증서 받음	『동아일보』, 1921.12.4.
1920년 5월 30일	(천마산대) 군자금 모집, 장인환(張仁桓) 집: 1백 원 강탈	『동아일보』, 1921.12.4.
1920년 7월 3일	(광복단 천마산대, 천마부) 경찰관주재소 습격 및 발포	『매일신보』, 1924.7.21.
1920년 7월 8일	(천마산대) 친일파 최학정(崔學貞) 총살, 면리원, 경찰관리 총살	『동아일보』, 1921.12.4.

48 (2015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동아출판사, 164쪽.

침투 일자	전과	출처
1920년 7월 15일	(천마산대) 독립운동자금 모집 - 강세홍(姜世興), 강문섭(姜文涉), 강병로(姜炳魯)의 집, 현금 30원 모집	『동아일보』, 1920.9.12.
1920년 8월 13일	(천마산대) 순사 도변창장(渡邊倉藏) 중상, 면사무소 방화	『동아일보』, 1921.12.4.
1920년 8월 13일	(광복단 천마산대, 천마부) 옥상면주재소, 면사무소 습격, 총격, 도변(渡邊) 순사 살해	『매일신보』, 1924.7.21.
1920년 8월 21일	(광복군영 결사대) 김영철 등 8명 체포	『동아일보』, 1920.8.24.
1920년 8월 21일	(천마산대) 군자금 모집 활동	『동아일보』, 1921.12.4.
1920년 8월 21일	(광복단 천마산대, 천마부) 경찰관주재소 습격, 중국인 1명 살해, 탄환 및 총기 강탈	『매일신보』, 1924.7.21.
1920년 8월 30일	(천마산대) 옥상면주재소 기습 공격, 순사 총살, 방화	『동아일보』, 1920.9.12.
1920년 9월	(광복단) 군자금 모집, 부호 협박	『동아일보』, 1921.10.27.
1920년 9월 중	(대한광복군) 주인 협박 및 군자금 강청: 김종걸(金宗杰), 양제설(楊濟高) 집	『동아일보』, 1922.6.4.
1920년 9월 중	(대한광복군) 군자금 강탈: 이호익(李虎翼) 등 7명의 집 음습: 1천 8백 30원	『동아일보』, 1922.6.4.
1920년 9월 1일	(광복군총영) 경찰서장 이하 순사 9명과 총격전, 경찰서 폭탄 투척	『동아일보』, 1920.9.9.
1920년 9월 1일	(광복군총영 결사대) 선천경찰서 폭탄 투척	『동아일보』, 1920.9.19.
1920년 9월 1일	(광복군영 결사대) 선천경찰서, 선천군청 폭탄 투척	『동아일보』, 1920.9.22.
1920년 9월 11일	(천마산대) 군자금 모집, 장관현(張寬鉉) 집: 20원	『동아일보』, 1921.12.4.
1920년 9월 28일	(광복단) 부호 문치무(文致武) 집 음습 및 참살, 방화	『매일신보』, 1920.10.17.
1920년 10월 중	(대한광복군) 군자금 강청 - 이명덕(李明德) 유인, 협박: 1천 5백 원	『동아일보』, 1922.6.4.
1920년 10월 2일	(한족회, 광복단, 광한단, 독립단 지단) 군자금 모집, 이종진(李鍾鎭) 집: 현금 40원, 어음 1백 원	『동아일보』, 1921.11.24.
1920년 10월 10일	(대한청년승의단, 광복군총영 특과원) 철산경찰서 서장 이하 12명에게 체포됨	『매일신보』, 1920.12.6.
1920년 11월 9일	(한족회, 광복단, 광한단, 독립단 지단) 군자금 모집, 박윤권(朴允權) 도망, 총살	『동아일보』, 1921.11.24.
1921년 1월	(광복단 의용군) 권총 협박, 군자금 강청, 실패	『매일신보』, 1921.11.25.

침투 일자	전과	출처
1921년 1월	(광복단, 광복군총영) 친일파 평남 성천군 영천면장 이면규(李冕奎)에게 사형 집행 및 협박, 군자금 3천 원 강청	『매일신보』, 1921.12.3.
1921년 1월 그믐께 (음)	(광복군) 최경원(崔京源) 집 습격, 현금 1백 60원 강탈	『매일신보』, 1922.5.26.
1921년 1월 9일	(광복군, 대한청년단, 대한광복군 모험부원) 군자 금 모집 - 강치용(姜致龍) 집 - 박계원(朴桂元) 집: 60여 원, 『독립신문』 2장 배부	『동아일보』, 1922.5.28. 『매일신보』, 1922.5.26.
1921년 1월 14일	(광복단 의용군, 한족회, 광복단, 광한단, 독립단 지단) - 정봉태(鄭鳳泰) 군자금 청구 - 박여청(朴汝靑) 250원, 김기중(金畿宗) 120원, 최창순(崔昌順) 50원, 김보필(金寶弼) 80원	『동아일보』, 1921.11.24. 『매일신보』, 1921.11.25.
1921년 1월 21일	(한족회, 광복단, 광한단, 독립단 지단) 친일 조선인 순사 김의주(金義柱) 총살 미수	『동아일보』, 1921.11.24.
1921년 1월 중순경	(대한광복군) 동지자 모집과 군자금 모집 중에 덕 천경찰서 수색대 순사 4명과 총격전: 소하원(小河 原)순사 즉사, 나머지 3명과 격투	『동아일보』, 1922.5.2.
1921년 1월 하순	(대한청년단연합회, 광복단) 1. 군자금 모집: 김명권(덕천군), 서봉근(평양부 내), 오운홍(황해도) 2. 순사 총살: 순사 소하원진지조(小下原辰之助) 총살 당함.	『동아일보』, 1922.5.25.
1921년 2월 17일	(광복군) 강치룡(姜致龍) 방 습격, 군자금 3백 원 강청 및 실패	『매일신보』, 1922.5.26.
1922년 3월경(음력)	(광복군총영) 군자금 수천 원 모집	『매일신보』, 1922.11.15.
1921년 3월 9일	(천마산대) 군자금 모집, 계근수(桂根秀) 집: 50 원, 1백 원 지불증서	『동아일보』, 1921.12.4.
1921년 3월 20일	(광복단) 일본 박(朴)순사 사살, 현금 5천 원 행랑 강탈	『매일신보』, 1921.6.26.
1921년 4월경	(광복군) 경비순사 50여 명과 총격전, 순사 1명 저 격 및 도주	『매일신보』, 1922.1.13.
1921년 4월 26일	(대한청년단, 대한광복군 모험부원) 군자금 모집 - 화순리장(和順里長) 이준모(李俊模)에게서 1백 45원 강탈, 수첩, 문서 파기	『동아일보』, 1922.5.28.
1921년 5월 17일	(한족회, 광복단, 광복군, 광한단, 독립단 지단) 압 록강 국경감시소 헌병보 하성진(河成鎭), 밀정 나 자현(羅子賢) 총살	『동아일보』, 1921.10.27. 『동아일보』, 1921.11.24.

침투 일자	전과	출처
1921년 5월 17일	(광복단 선발대) 헌병 강정헌(岡正憲, 28) 총살	『매일신보』, 1921.5.19.
1921년 5월 28일	(광복단, 광복군총영) 군자금 모집, 김석렬(金錫烈): 5백 원	『동아일보』, 1921.12.5. 『매일신보』, 1921.12.3.
1921년 6월	(대한광복군총영) 일본 경찰 10여 명과 3시간 동안 총격전	1. 관계연표, 67 2. 『독립신문』, 1921.12.19.
1921년 6월 26일	(광복군단) 경찰관파출소 습격, 헌병경찰대와 교전	『동아일보』, 1921.7.10.
1921년 7월경	(광복군총영 결사대) 고정찬(高貞贊)의 집 침입, 군자금 1백 원 강탈	『매일신보』, 1921.11.26.
1921년 8월 21일	(대한광복군총영) 최시홍 등 20명, 주재소와 면사무소 기습공격, 4시간 동안 점령	1. 관계연표 2. 『독립신문』, 1921.11.11.
1921년 9월경	(광복군총영 결사대) 김홍달(金鴻達)의 집 침입, 군자금 30원 강탈	『매일신보』, 1921.11.26.
1921년 10월 1일	(대한광복군총영) 군자금 모집, 김병건(金炳健)에게 최경경고문, 협박장, 사형선고장 발송	『동아일보』, 1921.11.30.
1921년 10월 10일	(대한광복군총영) 1. 군자금 청구: 김병룡(金炳龍) 2. 협박문 발송: 손안면 택업리 석근옥(石根玉), 신안리 김학용(金學鏞)	『동아일보』, 1921.11.30.
1921년 11월 5일	(광복단) 광복단원 오관영 외 1명 검거	『매일신보』, 1921.11.10.
1921년 11월 23일	(독립단) 순사 수색대와 30분간 격투, 독립단장 신광조 총살됨, 순사 이희춘(李熙春, 23) 부상, 부단장 박경만의 처 김간란(金干蘭, 18) 검거	『동아일보』, 1921.12.3.
1921년 12월 초순경	(광복군) 이지돈(李枝敦)의 집, 군자금 8환 강탈, 김종주(金宗柱) 집 습격	『매일신보』, 1922.1.8.
1921년 12월 1일	(대한광복군, 한족회, 신흥학교) 군자금 모집, 김종근(金宗根) 집 습습	『동아일보』, 1922.1.9.
1921년 12월 29일	(대한광복군) 김공준, 임동호: 독립단원을 숨겨주거나 편의를 봐줌	『동아일보』, 1922.2.19.
1922년 1월 1일	(대한광복군, 상하이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	『동아일보』, 1922.6.4.
1922년 1월 3일	(광복단) 이만협(李萬協) 집에서 신계경찰서원과 충돌, 3명 검거	『동아일보』, 1922.1.11.
1922년 1월 7일	(광복단) 성천군 경찰서원과 격투, 식월(植月) 순사 총살, 독립단원 1명 검거	『동아일보』, 1922.1.13.
1922년 1월 29일	(독립단) 김택무(金澤武: 김준보의 장남) 독립단원 4명, 김준보(金俊甫)의 집에서 숙박	『동아일보』, 1922.2.7.

침투 일자	전과	출처
1922년 2월 중	(대한청년단, 대한광복군 모험부원) 1. 군자금 모집, 최경원(崔京源) 집: 2백 원, 최봉순(崔鳳淳)집: 1백 60원 -박재홍(朴濟弘) 집: 2천 원 청구 2. 일본경관대와 총격전, 이원보 총살 당함	『동아일보』, 1922.5.28.
1922년 3월 중(음력)	(광복군총영) 군자금 강창: 장치규(張致奎)의 집, 최석현 검거됨	『동아일보』, 1922.11.15.
1922년 5월 27일	(광복단) 부호에게서 군자금 모집: 1백 원	『동아일보』, 1922.6.1.
1922년 5월 28일	(광복단) 군자금 모집: 부호 변선각(邊善珪), 군자금 강창	『동아일보』, 1922.6.1.
1922년 7월 17일	(광복군총영) 장치규(張致奎)의 집 침입, 일본 관현과 총격전 - 정석보, 정학운 총살, 최석현 체포	『매일신보』, 1922.11.15.
1922년 9월경	(광복단) 군자금 모집	『매일신보』, 1930.8.15.
1922년 10월 19일	(광복군) 군자금 모집, 승려 3명 총살, 1명 부상, 구장 총살	『동아일보』, 1922.10.22.
1922년 10월 30일	(독립단) 청성진 주재소 순사 45명과 약 1시간 동안 총격전 - 독립단원 오동진 부하 곽의빈 등 3명 사망	『동아일보』, 1922.11.6.
1923년 2월 3일	(대한광복군총영) 밀고자 박모, 최모 등 2명 집 습격, 옥상면주재소 기습공격	『독립신문』, 1923.3.19.
1923년 2월 6일	(대한광복군총영) 일본 경찰 10명과 총격전 -경찰 1명 사살, 1명 중상, 독립군 1명 경상	『독립신문』, 1923.3.19.
1924년 1월경	(광복군) 용연 경관출장소 습격	『매일신보』, 1930.8.15.
—	(광복군사령부, 임시정부) 평남 순천경찰서에 의해 체포됨	『매일신보』, 1921.4.18.
—	(광복단 의용군) 이종모(李鍾模)의 집, 현금 40원과 2백 원의 어음 1장 강탈	『매일신보』, 1921.11.25.
—	(대한광복군) 단원 10여 명, 순천경찰서에 검거됨.	『동아일보』, 1921.12.20.
—	(대한광복군 모험단) 평남경찰부 각 경관대와 총격전 -경관 1명 사망, 광복군 2명 검거	『동아일보』, 1922.1.31.
—	(천마산대) 일본 경찰서 습격, 무기 노획	국편 (한국독립운동사4)
—	(광복군총영) 폭탄 투척, 경성 잠입	관계연표, 35

〈표 4〉를 보면 광복군총영의 명칭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대한광복

단·광복군총영·천마산대·광복군영 결사대·광복단 천마산대·광복단·대한광복군·광복군총영 특파원·광복단 의용군·광복군·대한광복군 모험부원·광복단 결사대·대한광복군총영·광복군단·광복군총영 결사대·대한광복군 모험단 등 총 16개에 이른다. 전술하였듯이 1920년 3월에 대한청년단연합회 의용대(단)가 광복단으로 조직·개편되고, 1920년 5월에 이탁과 안창호가 기조직된 광복단을 정부군의 일환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이 바로 광복군이다. 이 광복군이 바로 광복군사령부를 지칭한다. 그리고 사령부의 국내 특파조직으로서 창설된 것이 광복군총영이다. 따라서 위에 나열한 16개의 명칭은 광복(군)단(1920.3. 광복단) → (대한)광복군총영(1920.7.) → 광복군(영)(1920.8. 광복군사령부)으로 이어지는 임정 직속 정부군의 계보와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총영에 편제된 천마산대의 활약이 주목된다. 천마산대는 1920년 3월, 평북 의주(義州)·구성(龜城)·삭주(朔州) 등 3개 군이 접한 지역에 위치한 천마산을 근거로 최시흥(崔時興)⁴⁹이 조직했다. 이후 6월 16일에 사령장 최시흥, 부관 최치풍(崔志豐), 참모 박응백(朴應伯)·박영찬(朴永燦)·최윤희(崔允熙), 경리 김세진(金世鎭), 중대장 최의즙(崔義楫), 소대장 김상옥(金尙玉)·김용택 등을 간부로 하고, 약 130명의 대원으로 조직을 체계화하고 확대·발전시켰다.

그렇다면 천마산대가 총영에 편제된 시점은 언제일까. 10월 10일에 사령장 최시흥이 만주로 건너가 총영과 연락을 맺고, 총영의 대원들이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는 데 천마산대가 합세하거나 임무 수행을 위한 암호를 해주었다는 기록을 보아, 1920년 10월 이전에 총영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⁵⁰ 이러한 점 때문에 1921년 8월 21일에 최시흥 등 40여 명의 대원이 약 4시간 동안 교전을 벌였던 경찰주재소와 면사무소 기습사건의 주체를 ‘대한광복군총영’의 소행으로

49 1922년 10월 2일에 일본 경찰 합동 수사대 25명이 중국 관전현 고자구로 진출하여 천마별영장 최시흥을 비롯한 대원 20여 명과 3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여, 최시흥 등 4명을 사살했다(경성지방법원 김사국문서, 「三, 國境地方ニ於ケル不逞行動及鎮壓狀況」, 『大正十一年 朝鮮治安狀況』).

50 「天摩隊 略歷」, 『독립신문』, 1923.3.14, 4면 1단.

보았던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동아일보』 1922년 2월 7일 자 기사의 1월 29일에 발생한 평북 의주군 광평면 청수동(廣坪面 靑水洞) 사건에서 지칭한 ‘독립단’은 ‘대한독립단’이 아니라 ‘총영’의 국내 잠입활동일 것이다. 여기서 ‘독립단’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로서 만주의 독립군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922년 1월 29일 오후 5시경, 4명의 총영 대원은 오동진의 부하 김택무(金澤武)와의 연락을 위해서, 그의 부친인 김준보(金俊甫)의 집에 들러 숙박하고 압록강을 건너 본부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오동진을 가리켜 ‘독립단 총영장’이라고 지칭한 점도 이 사건이 총영의 소행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오동진은 ‘광복군총영장’을 지냈다. 결정적으로 총영 대원들이 머물렀던 김택무의 고향인 평북 의주군 광평면 청수동은 오동진이 출생한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⁵¹

마찬가지로 1922년 10월 30일에 있었던 평북 의주군 청성진(淸城鎭)주재소의 순사 45명과 약 1시간 동안 교전을 벌인 사건은 오동진의 부하 곽의빈(郭義彬) 등 독립단원 3명이 행한 것으로 보았다.⁵² 그러나 이 사건은 총영이 아니라 1922년 8월에 남만주의 최대 통일군사단체로 통합된 ‘대한통의부’의 오류로 보인다.⁵³ 총영은 이 시기에 대한통의부로 발전적 해체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표 4>에 나타난 1922년 9월부터 1924년 1월까지의 광복군·대한광복군총영·독립단의 활동은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3. 구성원

광복군총영은 국내진입 유격전을 전개할 경우 40~50명의 1개 부대가 국경을

51 「義州에 獨立團 네 명이 출현」, 『동아일보』, 1922.2.7, 3면 사회.

52 「吳東振 部下와 交戰」, 『동아일보』, 1922.11.6, 3면 사회.

53 윤대원, 《곽의빈》,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검색).

넘어 국내로 잠입한 후에 재차 5~10명으로 분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분대로 분산해서 유격전을 전개한 후 다시 일정한 장소에 모여 대단위 전투를 벌였다. 이러한 게릴라식 유격전은 기동성을 극대화하여 일제의 침략기관을 파괴하고 친일파·밀정·일본 군경을 처단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국내에 천마별영과 벽창의용단(벽파별영)을 조직하여 국외 독립군의 국내진입전에 호응하도록 하였다.

임시정부는 1920년 8월 10일 대한독립단 총단장 조맹선을 사령장으로 임명하고, 사령부 본부를 관전현에 두도록 하는 등 7개 국(局), 6개 영(營)의 각 장(長)을 비롯하여 사령부 간부진과 직원을 선임하였다.⁵⁴ 사령장 조맹선, 부관 이순근(李淳根), 참모장 이탁, 군기국장 김승학(金承學), 군법국장 변창근(邊昌根), 군수국장 유응하(劉應夏), 군정국장 박이열(朴利烈), 소모국장 홍식(洪植), 정보국장 양기하(梁基瑕), 훈련국장 여순근(呂淳根) 등이 각 부서를 영도할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제1영장 변창근, 제2영장 오동진(吳東振), 제3영장 홍식, 제4영장 최시흥, 제5영장 채찬(崔燦, 蔡燦), 제6영장 김창곤(金昌坤) 등이 각 군영의 영장(營長)으로 선임되었다.⁵⁵ 이상 6개 영의 총 독립군은 3,782명에 달하였다.⁵⁶

신문 기사를 통해서 총영의 구성원을 크게 두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인물들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개 지도자급 인물들로서 조맹선(총사령장), 이탁(참모장), 변창근(邊昌根: 제1영장), 오동진(제2영장), 최시흥(제4영장, 천마별영장), 김창곤(제6영장),⁵⁷ 안병찬[안병찬(대한독립청년단 총재)] 등이다.

54 『도산일기』, 1920년 8월 10일; 김영범, 2009, 앞의 책, 59쪽.

55 한국독립유공자협회, 1997, 『中國 東北지역 韓國獨立運動史』, 集文堂, 289쪽.

56 김양, 2001, 『압록강류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룡녕민족출판사, 272쪽.

57 광복군사령부 제6영장 김창곤은 의주군 비현면의 밀정 박윤권(朴允權), 철산경찰서 백량면(栢梁面)주재소 순사 김의주(金義柱), 현병보조원 하성진(河成鎭), 이중간첩이었던 나자현(羅子賢) 등을 사살한 인물이다. 1921년 6월에 친일파 토벌차

반면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신문지상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김봉규(金鳳奎: 평남 충무), 신평조(平南道營), 박경만(平南道營), 김병경(平南道營), 김응규(金應奎: 김봉규의 친형),⁵⁸ 이관린(李寬隣, 경리부장, 女), 오관영(吳寬泳), 오동규(吳東奎: 오동진의 종제) 등이다.

김봉규는 당시 사령부의 사령장 대리를 맡고 있던 이택의 명령을 받고 충영의 국내 별동대인 평남도영(平南道營)⁵⁹과 대한청년단연합회에서 충무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국내에 광복군 지부를 설치하고, 자신의 동생인 김응규 등 10여 명을 모집해서 국민향촌회(國民鄉村會)와 대한독립대동청년단(大韓獨立大同靑年團)을 조직했다. 이러한 평남 지역에서 자생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며 주로 평안남도 각지에서 군자금 모금, 단원 모집을 하거나 독립군 문서 배포와 무기 운반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이 외에도 충영 제2대장 김응규, 제3대장 나진서(羅鎭瑞), 제1대원 한희용(韓熙○)·곽교문(郭敎文), 제2대원 김국홍(金國洪), 제3대원 김리숙(金利淑) 등이 있다.⁶⁰

오동규는 1922년 8월(음력) 중에 관전현 양자구(楊子溝)에서 이룡규(李龍奎)의 권유로 조국 독립의 목적으로 집안의 종형(從兄)인 오동진을 수령으로 한 충영에 입영하여 군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어서 충영이 대한통의부로, 다시 정의부(正義府)로 통합되자 이곳에서 검무원(檢務員)으로 활약하였다.⁶¹ 한편, 여성단원 이관린과 오관영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선일보』 기사에서 확인된다.

출동했던 환인현(桓仁縣)에서 장작림(張作霖) 군대에 체포되어 신의주경찰서로 넘겨졌고, 이듬해 7월 8일 평양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 7, 345~351쪽).

58 「大同警察署에서 金應奎를 逮捕」, 『조선일보』, 1921.8.12, 석간 3면 사회 3단.

59 광복군사령부의 지방별영으로 광복군충영·벽파별영·평남도영·철마별영 등이 있다(「殉國 諸氏 追悼會」), 『독립신문』, 1922.4.15, 3면 6단.

60 「光復軍 金鳳奎」, 『조선일보』, 1921.8.14, 석간 3면 사회 1단.

61 「警官 殺害 武器 奪取 密偵 殺害, 軍資 募集」, 『조선일보』, 1929.7.11, 석간 2면 사회 1단.

평안남도 평원군 순안면(平南 平原郡 順安面)에는 요사이 나젊은 부인 한 명이
 드려와 자기는 평양부하 슈구리 **리관림**(平壤府下 水口里 李寬臨)(二二)이라고
 하면서 각처로 배회하는고로 면민들은 수상스럽게 여기고 관현에게 그것을 고발
 하고저 하얏던바 그 부인은 그 내용을 짐작하고 면민에게 대하여 말하되 나는 결
 코 행동이 불미한 사람이 아니라 **만주 관면현 광복군본부**(滿洲 寬甸縣 光復軍本
 部)에서 파견된 사람으로서 어대까지던지 도선 독립을 도모코져 하는 사람인즉
 만일 너희들이 나의 내용을 관현에게 고발하는 때는 본부로부터 일대군을 인솔하
 고 드려와서 부락을 전멸할 터이라고 효유하고 어대로 종적을 감추었는데 **순안**
면에 사는 오관영(吳寬泳)(二一)는 본래부터 독립운동에 힘을 갖치하여 오던 남
 자로서 동지자 여덟 명과 함께 전귀 부인을 옹호하고 종적을 감추어 주면서 자기
 들도 광복군에 가입하기를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서류를 배포하는 등 비
 ○○ 각 방면으로 서류를 배포하여 군자금을 내이지 아니하면 사형을 선고하겠다
 는 협박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이번에 오관영 이하 세 명은 검거하고 전귀 녀자는
 종적이 묘연함으로 당국서는 방금 엄탐하는 중이라더라.⁶²(밀줄, 강조-인용자)

위에서 언급한 이관림은 이관린(李寬麟, 李寬仁)의 오류이다. 이관린은 총
 영의 제2회 정기대회에서 경리부장(經理部長)⁶³을 역임하는 등 총영의 안살림
 을 책임진 남만 독립군의 걸출한 여걸로 불렸다.⁶⁴ 총영에는 이관린을 비롯한
 여성대원들이 참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간란(金干蘭)은 그중 한 명이다.

1921년 11월 23일에 광복단장 신광조(申光祚)⁶⁵가 인솔하는 독립군 여섯 명

62 「光復軍本部에서 特派」, 『조선일보』, 1921.12.1, 석간 3면 사회 6단.

63 「光復軍總營 第二回 定期大會」, 『독립신문』, 1922.9.20, 3면 4단.

64 김양, 2001, 앞의 책, 273쪽; 김승학, 1970, 앞의 책, 362쪽.

65 본명은 신계관(申啓寬)으로 황해도 신천(信川) 사람이다. 1919년 황해도 신천군 삼일만세운동에 참가한 이래 대한독립단 국내특파원과 사령부의 지방출장원·특파원·제2영 7대장을 역임하였다(김승학, 1970, 앞의 책, 357, 359쪽; 백정운, 《신계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검색).

이 황해도 신계군 고면 화개리 화개산(新溪郡 古面 華蓋里 華蓋山)에서 신계경찰서 특별수색대와 약 3시간 동안 교전 중에 독립군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두 명이 경관에게 검거된 일이 있었다. 체포된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김간란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광복단 부단장 박경만(朴京萬)의 부인이기도 하였는데, 당시 나이가 18세였다.⁶⁶ 이처럼 총영에는 적지 않은 수의 여성대원이 참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병경(金炳京)은 광복단의 총무 직책을 맡았고, 평북 벽동군 오북면(五北面)에 광복단 지단을 설치할 목적으로 오북면·운시면(雲時面)·태평면(太平面) 등지를 돌아다니며 십여 군데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였다.⁶⁷ 이 외에도 ① 각지 기관 인원들로는 이윤국(李允國)·이문하(李文河)·최윤옥(崔允玉)·박정환(朴貞煥)·김세진(金世鎭)·허기호(許基浩)·유우순(劉友順)·이창근(李昌根)·독고무(獨孤武)·최윤희(崔允興)·최의집(崔義楫)·백일엽(白日燁)·박치의(朴致毅) 등, ② 광복군총영원은 최석준(崔錫濬)·김반기(金盤基)·박윤식(朴允植)·신계관(申啓寬, 신광조)·정인복(鄭仁福) 등, ③ 벽파별영원에는 박준모(朴俊模)·김용원(金龍苑)·박정창(朴貞昌)·김윤섭(金允涉) 등, ④ 평남도영원은 이원보(李元寶)·조병옥(趙秉玉)·허영진(許永鎭) 등, ⑤ 철마별영원에는 김봉한(金鳳漢)·김명준(金明俊) 등이 있다.⁶⁸

4. 무기·복장·소지품

필자가 파악한 총영의 소지품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군자금 영수증·독립신문·불온문서·취임장·최급경고문·협박장·암호표·대한광복단장 대리 영수

66 「新溪에서 警官과 衝突」, 『동아일보』, 1921.12.3, 석간 3면 사회; 「新溪에 獨立團 出現」, 『조선일보』, 1921.12.4, 석간 3면 사회 3단.

67 「光復團의 總務」, 『동아일보』, 1921.3.13, 석간 3면 사회.

68 「殉國 諸氏 追悼會」, 『독립신문』, 1922.4.15, 3면 6단.

증·권고문·군인신빙(軍人信憑)·감사장·광복군 신표·광복단 취지서·입단 증·부민자력 조사기록·광복군 증표·대한광복단 선임장·임시정부 공보·대통령 포고문 등을 소지하였다. 실제로 1921년 1월 경에는 총영단원 안해용(安海容)이 경상북도 대구부·안동·예천·상주·칠곡·성주 등지를 돌아다니며 독립 운동을 선전하거나 장정 모집에 사령장 조맹선 및 참리부장(參理部長) 조병준(趙秉準)이 발급한 ‘경상북도특파원’이라는 명주로 만든 선임장 2매를 소지하였다. 그는 이 선임장 2매를 자신이 신고 있던 버선 바닥에 숨겨서 가져왔던 것이다.⁶⁹

이 소지품들을 휴대하여 보여줌으로써 군자금 모집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총독부와 식민지 통치기구의 친일 관리가 된 한인들에게 퇴직할 것을 촉구하거나 납세 거부, 재판 거부 등을 포함한 권고문·협박장·경고문 등 다양한 선전물을 통해서 대일선전전을 펼쳤다.

광복군총영이 1920년 10월경에 발표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급경고문(最急警告文)」에 따르면, “관공리에게 퇴직을 명령한다”, “정탐자에게 회개를 명령한다”, “자산가에 출연(出捐)을 권고한다”, “일반 국민에게 거의(舉義)를 경고한다” 등의 표현으로 경고하였다.⁷⁰

〈표 5〉 광복군총영의 무기·복장·소지품 일람표

무기·소지품·복장	출처
(광복청년단) 신문지 인쇄기계 2개, 활자 3만 개, 무기, 탄환	『조선일보』, 1921.6.5.
(광복청년단) 폭탄 13개	『조선일보』, 1921.6.5.
(광복단) 30년식 보병총, 로서아식 5연발 권총, 중국식 권총 땀땀탄	『조선일보』, 1921.6.30.
(광복단) 중국 관병 복장	『조선일보』, 1921.7.6.
(광복단 독립군) 화승총(火繩銃)	『조선일보』, 1921.7.20.

69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2010, 『국역 고등경찰요사』(안동독립운동기념관 자료총서 3), 선인, 382~383쪽.

70 반병률, 2009, 앞의 책, 206쪽.

무기·소지품·복장	출처
(광복단) 독립서류	『조선일보』 1921.12.1.
(광복단) 군복 2건, 육혈포 1정, 탄환 4개, 군자금 모집 문서	『조선일보』 1921.12.2.
(광복단) 10연발 자동권총	『조선일보』 1921.12.4.
(광복군영 결사대) 폭발탄 3개, 육혈포 3정, 탄환 2백 발, 기타 최급경고문	『동아일보』 1920.8.24.
(광복군총영) 육혈포, 최급경고문 45매(광복군총영 이름, 대한민국 연호 서명 날인)	『동아일보』 1920.9.9.
(광복군 제1영 4대) 폭탄, 육혈포	『동아일보』 1921.3.1.
(대한광복군) 대한광복군 참모장 발행의 독립공채액	『동아일보』 1921.3.4.
(광복군) 광복군 신분, 경고문 2통	『동아일보』 1921.3.23.
(광복군영) 26년식 권총 1정, 탄환 10발, 30년식 보병총, 엽총 1정, 탄환 10발, 화약 1관, 중국식 장총 2정, 러시아식 군용 권총1정, 불온문서 십수 종	『동아일보』 1921.4.19.
(대한독립 광복단) 육혈포	『동아일보』 1921.5.9.
(대한광복단) 모젤식 자동 육혈포 1정, 탄환 16발, 기타 배일문서	『동아일보』 1921.5.10.
(광복단) 7연발 육혈포 2정, 탄환 19발, 협박문, 군자금 영수증, 광복단 취지서	『동아일보』 1921.5.19.
(광복군청년단) 권총 1정, 탄약, 불온문서, 폭탄뇌관 13개, 도화선 13개	『동아일보』 1921.6.4.
(대한광복군) 최신식 권총 1정, 탄환 88발	『동아일보』 1921.6.26.
(대한광복단) 중국 군대식 복장, 탄약자루, 소총, 대한광복단장 대리 영수증	『동아일보』 1921.6.30.
(광복군) 30년식 보병총, 로서아식 5연발 권총, 중국식 권총, 실탄 18개, 화승 17개, 독립신문 10장, 권고문 1장, 초 1개, 담배 2개, 삽탄자 6개	『동아일보』 1921.6.30.
(광복군단) 중국 순경 옷, 일본 해군 오장(伍長) 견장, 러시아식 군총, 칼, 탄환 배낭, 수통, 빵, 밀가루, 누런 바탕에 흰색으로 ‘광복군단’이라고 새긴 모자	『동아일보』 1921.7.10.
(광복단) 화승총	『동아일보』 1921.7.18.
(광복단) 권총	『동아일보』 1921.8.9.
(독립단, 광복군) 권총, 탄환, 불온문서	『동아일보』 1921.10.13.
(광복단) 26년식 권총, 『고 도』식 권총	『동아일보』 1921.10.27.
(대한광복군 결사대) 자동식 권총, 기타 유력한 증거품	『동아일보』 1921.11.27.
(광복단) 광복군 금장, 다갈색 군복 2벌, 육혈포 1정, 탄환 4발, 경적, 포승, 입단증, 부민자력조사기록	『동아일보』 1921.11.29.
(대한광복군총영) 권총 4정, 탄환 수백여 발, 기타 불온문서, 감사장	『동아일보』 1921.11.30.
(독립 광복단) 자동식 권총 1정, 탄환, 유력한 문서	『동아일보』 1921.12.3.

무기·소지품·복장	출처
(광복군총영) 임시정부 공보, 대통령 포고문, 불온문서	『동아일보』, 1921.12.5.
(대한광복군) 위험한 증거물	『동아일보』, 1921.12.20.
(광복군) 장총 9정, 복장 11벌, 탄환 50발	『동아일보』, 1921.12.30.
(대한광복군, 한족회, 신흥학교) 『독립신문』, 기타 불온문서, 광복군 증표	『동아일보』, 1922.1.9.
(광복단) 『뿌로링』식 자동권총 10련발 2정, 탄환 162발	『동아일보』, 1922.1.11.
(광복군) 권총, 탄환, 불온문서	『동아일보』, 1922.1.19.
(임시정부 교통국, 대한독립연합청년단, 광복군총영) 광복군 부관복(副官服) 1건, 경고문 258장, 호모화(護模靴) 3족, 천도교회월보 1책, 개벽 1책, 권총 실탄 1발, 감사장 50장, 최급경고문 14장, 『독립신문』 1매, 군자금 영수증 1책, 자동권총 1정, 자동권총 실탄, 탄약, 흑색 건저(巾着) 1개, 선통지(先通知) 9매, 포상장 36장, 신임장 30장, 광복군용지 24장, 표하서(表賀書) 1장, 옥양목보(玉洋木襪) 1매, 중앙기관 조직보고서 1통, 자동권총 1정, 조선은행권 10원 2매, 흑색 재포(財布) 1개, 수첩 1책	『동아일보』, 1922.2.21.
(광복단, 군비단) 회색군복, 장총, 폭탄	『동아일보』, 1922.2.25.
(대한광복단) 장총, 탄환 35발, 화약주머니 1개, 가죽가방 1개, 돈주머니, 대한광복단 선임장, 광복군총장대리 목판	『동아일보』, 1922.3.4.
(대한광복군, 상해 임시정부) 『독립신문』, 기타 불온문서, 군인신빙(軍人信憑), 군자금 영수증, 감사장, 경고문	『동아일보』, 1922.6.4.
(광복군) 누런 복장, 총	『동아일보』, 1922.10.22.
(광복단) 권총, 장총	『동아일보』, 1923.10.19.
(광복단) 육혈포, 콜트식 9련발 총1정, 탄환 60발, 현금 120원, 취임장(단장 申文善命) 5장, 삽탄자 5개, 임명장 4장, 총단장 조맹선 명령장, 재무부 영수증지 30장, 최급경고문(협박장) 2장, 광복단편성서 1장, 암살단원 암호표 1장, 통신문 5장, 현금 3백 60원	『매일신보』, 1920.10.17.
(광복군총영 특과원) 콜트식 육혈포	『매일신보』, 1920.12.6.
(광복청년단) 육혈포, 불온문서, 현금	『매일신보』, 1921.6.2.
(대한독립광복청년단) 폭탄, 권총, 등사판	『매일신보』, 1921.6.24.
(광복단) 활판기계 3개, 활자 1만 2천 개, 권총 24정, 실탄환 2,215발, 다이너마이트 13개, 뇌관 23개, 도화선 23개, 현금 4천 1백 원, 포승 1개, 회중전 등 1개, 입단원서 319장, 납입고지서 1천 2백 개, 육편 1권, 광복군신표 68개	『매일신보』, 1921.6.26.
(광복단) 중국 관병 복장	『매일신보』, 1921.7.6.
(광복군총영 결사대) 최급경고문 10장, 군자금 모집에 대한 감사장 3장, 신임장 및 신표 2장, 콜트식 자동권총 1정, 실탄 40여 발	『매일신보』, 1921.11.26.
(광복단, 광복군) 광복군 건장 부착 다갈색 군복 2벌, 권총, 탄환 4개, 호각, 포승 등 기타, 입단증서, 부자의 자력조사기록 등 불온문서, 군자금 모집을 위한 서류기구	『매일신보』, 1921.11.29.

무기·소지품·복장	출처
(광복군총영) 모젤총, 단발총, 탄환 수백 발, 백 환짜리 공채액, 군자금영수증	『매일신보』 1922.11.15.
(광복군총영) 최급경고문, 폭탄 3개, 권총 3정, 탄환 160발	관계연표 35

광복군총영 대원들의 복장은 중국 관병 복장·중국 순경 옷·광복군 금장·다갈색 군복·회색 군복·광복군 부관복(副官服), 호모화(護模靴) 등을 착용하였다. 무기는 육혈포·모젤식 권총·26년식 권총·30년식 보병총·러시아식 5연발 권총·중국식 권총 땀땀탄·화승총·폭탄·고루식 총·7연발 육혈포·뿌로링식(브라우닝-인용자) 자동권총·콜트식 육혈포·단발총 등으로 나타났다.

독립군은 무기를 주로 러시아 지역으로부터 조달 및 구입하였고, 러시아제, 미국제뿐만 아니라 일본제·독일제·벨기에제 무기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체코군에서 구입한 무기도 다수 있었으며,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노획한 무기도 있었다. 일반 군총으로는 미국에서 생산한 러시아 5연발총과 단발총이 주종을 이루었다. 여기에 미국제나 독일제, 일본제 30식 또는 38식 보병총도 섞여 있었다. 권총류는 루거 권총(P-08, 독일제), 마우저 권총(일본명 모젤 M-1898, 독일제), 브라우닝 권총(벨기에제), 콜트식 권총(미국제), 일본제인 남부식(南部式) 권총 등이 있었다. 중무기로는 기관총, 대포, 수류탄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⁷¹

IV. 맺음말

지금까지 1920년대 초반 광복군총영의 조직과 운영, 국내 진입작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총영은 광복군사령부가 성립되기 한 달 전에 창설되었다. 총영 산하에는 철마병영뿐만 아니라 벽파병영도 있었다. 벽파병영은 양승우가 사령부 산하의 국내 특파대로 벽동군 파저강 연안에 창설한 벽창의용단일 개연성이

71 박환, 2020, 『독립군과 무기』, 선인, 61쪽.

높다. 벽창의용단은 유명무실해진 사령부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임정 군무부 직속의 지방사령부 역할을 자임했던 총영에 편제됨으로써 벽파별영으로 개칭되었다.

광복군사령부의 편제가 완성되면서 총영은 사령부의 제2영으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오동진은 정규군의 총지휘부 격인 사령부에서는 제2영장, 특파부대 기관이었던 총영에서는 영장을 겸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령부와 총영의 역할과 임무가 다르게 주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전자는 독립전쟁의 ‘실행 단계’로서 일제 정규군을 상대로 대규모의 독립전쟁을, 후자는 독립전쟁의 ‘준비 단계’로서 일본 경찰의 수비와 치안 교란을 위한 게릴라식 비정규전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독립전쟁 준비단계로는 외교독립운동과 실력양성운동, 의열투쟁 등 다양한 방략이 상존한다.

국내 진입작전의 경우 넓게는 의열투쟁 범주에 속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내 진입작전은 의열투쟁에서 대규모 독립전쟁의 정규전으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릴라식 작탄투쟁이 아니라 정규전에 버금가는 군사적 행동이 지속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바로 국내 진입작전이다. 1920년대 초 남만주 독립군의 국내 진입작전은 임정과의 군사적 연대 속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1920년대 초 임시정부와 남만주 독립군의 군사적 연대와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군사단체가 광복군총영이었고, 그 수단과 표현은 국내 진입작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필자는 신문기사를 토대로 총영이라고 판단되는 단체만 추출하여 총영의 침투 지역·침투 날짜·침투 시간·전과·단체명·구성원·무기·복장·소지품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서 총영의 국내 진입작전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첫째, 총영은 국내 진입작전의 적합한 시간대와 계절로서 수풀이 무성하여 자신들의 신체를 은닉하거나 잠복하기에 용이한 한여름 시기와 밤 시간대를 주로 선택했다.

둘째, 총영의 국내 진입작전은 식민지 말단통치기구 파괴, 친일관료 및 밀정

암살, 일본 경찰과의 교전, 군자금 모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자금 모집이 가장 많은 수위를 차지하였다. 즉, 만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자금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처럼 국내 진입작전은 신속한 기동성을 활용한 비정규군의 게릴라 유격전에 후방 지원과 보급을 위한 군자금 모집이 포함된 개념인 것이다.

셋째, 총영의 구성원은 지도자급 인물과 아직 조명되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로 구분된다. 예컨대, 전자는 조맹신(총사령장), 이탁(참모장), 변창근(제1영장), 오동진(제2영장, 총영장), 최시홍(제4영장, 천마별영장), 김창곤(제6영장), 안병찬(대한독립청년단 총재) 등이다. 그리고 후자에 속하는 인물로는 김봉규(평남 총무), 이관린(여성, 경리부장), 신광조(신계관, 광복단장), 박경만(광복부 단장), 김병경(광복단 총무), 김응규(김봉규의 친형)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이들 외에도 항일무장투쟁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던 말단 병사들을 포함한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 총영은 군자금 모집 활동 시에 임시정부 공보·대통령 포고문 등 임정 관련 공식문서를 휴대하여 보여줌으로써 군자금 모집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총독부와 식민지 통치기구의 친일 관리가 된 한인들에게 퇴직할 것을 촉구하거나 납세 거부, 재판 거부 등을 포함한 권고문·협박장·경고문 등을 배포하여 대일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러한 결론을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신문 보도 내용을 정리하여, 총영의 ‘국내 진입작전’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신문은 여타의 자료군과 교차 검증만 잘 한다면 일제 정보기록에서 삭제되었을 당시의 생생한 목소리를 낱것의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제가 생산한 첩보문서를 중심으로 서술해오던 독립운동사를, 운동 당사자의 시각에서 새롭게 풀어내는 데 적지 않은 실마리를 줄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독립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中央日報』.

「最急警告文」, 『日本陸海軍省文書(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 6)』(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문서, 1930, 『大正十一年(1922년) 朝鮮治安狀況』.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34』.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高等警察關係年表』.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1990, 『思想月報』 5 第二卷 第四号~第八号, 高麗書林.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 29, 국사편찬위원회.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2010, 『국역 고등경찰요사』(안동독립운동기념관 자료총서 3), 선인.

주요한 편, 2015, 『증보판 安島山全書』 4, 홍사단.

단행본

김승학, 1970, 『韓國獨立史』(상권), 독립문화사.

김양, 2001, 『압록강류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룡녕민족출판사.

김영변, 2009, 『의열투쟁 I : 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경인문화사).

박환, 2020, 『독립군과 무기』, 선인.

반병률, 2009,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경인문화사).

한국독립유공자협회, 1997, 『中國 東北지역 韓國獨立運動史』, 集文堂.

논문

김병기, 2019,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만주 무장독립운동 - 서로, 북로군정서 및 참의부

- 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23집, 국학진흥원.
- 김용진, 2025,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의 국내 진입작전과 조선지부 설치」,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39집,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김은지, 200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비밀결사 의용단의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 김호진, 2024, 「3·1운동 이후 서간도지역 독립운동단체의 동향과 大韓統義府의 결성」, 충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성순, 2020, 「대한독립단의 위상과 대한광복군사령부의 성립」, 『崇實史學』 제45집, 숭실사학회.
- 박찬, 2024, 「吳東振의 서간도지역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8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신화철, 2022, 「1920년대 남만주 통의부 의용군 5중대의 구성과 활동 - 5중대장 金鳴鳳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승, 2018a,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전략과 「陸軍臨時軍制」 변화」, 『역사민속학』 제5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 _____, 2018b, 「20세기 초 국제 정세 변동과 한인 무장 독립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대원, 2006,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와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 _____, 2013, 「참의부의 「法名」 개정과 상해 임시정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4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상도, 2017, 「이탁의 독립운동 역정과 생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8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20년대 초 남만주 대한광복군총영(大韓光復軍總營)의 국내 진입작전(1920~1922)

김용진

대한광복군총영은 대한광복군사령부가 성립되기 한 달 전에 창설되었다. 총영은 광복군사령부의 편제가 완성되자 사령부의 제2영으로 출범했다. 오동진은 정규군 형태의 기관인 사령부에서는 제2영장, 특파부대 기관이었던 총영에서는 영장을 겸임하게 된다.

총영 산하에는 철마병영뿐만 아니라 벽파별영도 있었다. 벽파별영은 양승우가 사령부 산하의 국내 특파대로 벽동군 파저강 연안에 창설한 벽창의용단일 개연성이 높다. 벽창의용단은 유명무실해진 사령부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임정 군무부 직속의 지방사령부 역할을 자임했던 총영에 편제됨으로써 벽파별영으로 개칭되었다.

사령부와 총영은 각각 역할과 임무가 다르게 주어졌다. 전자는 독립전쟁의 ‘실행 단계’로서 일제 정규군을 상대로 대규모의 정규전을, 후자는 독립전쟁의 ‘준비 단계’로서 일본 경찰의 수비와 치안 교란을 위한 게릴라식 비정규전으로 구분되었다. 대표적인 게릴라식 비정규전이 바로 국내 진입작전이었다.

국내 진입작전의 경우 넓게는 의열투쟁 범주에 속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

열투쟁에서 대규모 독립전쟁의 정규전으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이자 발전적 형태의 의열투쟁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의열단식 작탄투쟁이 아니라 정규전에 버금가는 군사적 행동이 지속적으로 동반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1920년대 초 남만주 독립군의 국내 진입작전은 임정과의 군사적 연대 속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즉, 임시정부와 남만주 독립군의 군사적 연대와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광복군총영이었고, 그 수단과 표현이 국내 진입작전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주제어: 광복군총영, 광복군사령부, 오동진, 천마별영, 벽파별영, 벽창의용단, 국내 진입작전

The Domestic Incursion Operations of the Gwangbokgun-Chongyeong (1920–1922)

Kim Yongjin

The Gwangbokgun-Chongyeong (Gwangbok Army Headquarters) was established one month prior to the formal formation of the Gwangbokgun-Saryeongbu (Gwangbok Army Command). Onc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Command was finalized, the Chongyeong, led by Commander Oh Dong-jin, was integrated as the Command's 2nd Battalion. Consequently, Oh Dong-jin held a dual role: he served as the 2nd Battalion Commander within the Command—a formal, regular army institution—and as the Chief of the Chongyeong, which functioned as a specialized task forc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hongyeong were the Cheolma-byeoryeong and the Byeokpa-byeoryeong unit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Byeokpa-byeoryeong originated from the Byeokchang-uijeondan, a domestic special task force founded by Yang Seung-u along the Pajeo River in Byeokdong County under the Command's

authority. As the Command's influence waned, the Byeokchang-uijeondan was renamed Byeokpa-byeoryeong and reorganized under the Chongyeong, which had stepped in to act as a regional headquarters directly under the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Command and the Chongyeong were assigned distinct roles and missions. The former was designated for the “execution phase” of the war of independence, aimed at large-scale regular warfare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 Army. In contrast, the latter was designated for the “preparatory phase,” focusing on irregular guerrilla warfare—specifically, domestic incursion operations—to disrupt Japanese police surveillance and public order.

While these domestic incursion operations broadly fall under the category of “righteous heroic struggle” (uiseol-tujeong), they are more accurately described as a transitional bridge leading from individual heroic acts toward large-scale regular independence warfare. These operations differed from the one-off bombing missions of groups like the Uiyeoldan, which relied on individual sacrifice; instead, they involved sustained military actions comparable to regular combat. In the early 1920s, these incursions by the Southern Manchurian independence forces were actively carried out in close military coordination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essence, the Gwangbokgun- Chongyeong stood as a prime example of the military solidarity betwe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Southern Manchurian forces, with domestic incursion operations serving as the primary medium of that alliance.

Keywords: Gwangbok of Restoration Army(光復軍總營), Gwangbok of Army Command(光復軍司令部), Oh Dong-jin(吳東振), Cheonma Special Unit(天馬別營), Byeokpa Special Unit(碧波別營), Byeokchang Volunteer Corps(碧昌義勇團), Domestic Incursion Operations(國內 進入作戰)

중일전쟁 말기 장제스의 지식청년동원방안과 김홍일

정형아 | 제1저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부장
정창원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장제스의 병력개선 필요 인식과 지식청년 동원 검토
- III. 지식청년중군운동의 추진과 김홍일의 역할
- IV. 맺음말



I. 머리말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 대한 침략을 확대해나가던 20세기 전반, 한국과 중국의 역사는 항일의 역사였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한 조선의 민중은 일본이 강점한 고국의 영토 한반도에서, 혹은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 지역은 물론 멀게는 미주 지역으로까지 나아가 독립을 위한 역량을 키우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조선의 독립투사들은 스스로 독립단체와 독립군을 조직하여 일제 군대와 직접 무장투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대하여 일본에 맞서기도 하였다.

김홍일(金弘壹, 1898~1980), 최용덕(崔用德, 1898~1969), 이용(李鏞, 1888~1954) 등과 같이 중국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중국군의 일원으로 항일투쟁에 참여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 가운데 이 글은 중국에서 고급 장교로 활동한 김홍일을 주목하였다. 그는 군인인 동시에 외교관이자 정치가로서 다면적인 이력을 지녔으며, 자신의 대륙 망명 경험을 정리한 회고록 『대륙의 분노-노병의 회상기-』(문조사, 1972)를 간행하였다. 또한 예비역 장성이자 문인인 박경석은 김홍일의 생애를 바탕으로 한 소설 『오성장군 김홍일』(서문당, 1984)을 출간하였다. 이후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가 제작되면서 김홍일의 생애와 활동은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0세기 전반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노령을 넘나들며 활약한 김홍일의 행적은 한국과 중국의 근현대사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행적을

* 투고: 2026년 4월 3일, 심사 완료: 2026년 5월 12일, 게재 확정: 2026년 5월 19일

** 이 논문은 2026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추적한 학술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들 연구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독립군으로서의 활동,¹ 둘째,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6·25전쟁 초기 전투에서의 전과,² 셋째, 중국의 내전과 중일전쟁에서 중국군으로서의 활약상이다.

특히 그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중국군에 편입되기까지의 과정, 수학한 군사 교육의 내용, 그리고 중일전쟁에 참여하여 거둔 전투성과 등은 한국 및 중국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한 연구 주제이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은 그간 관련 사료의 발굴과 정리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군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홍일의 자술 회고록 『대륙의 분노』를 주요 사료로 삼아 중일전쟁 전반을 개관한 한시준의 「중국군으로 대일항전을 전개한 김홍일」(『사학지』 제57집, 2018)이 있다. 또한 김지훈의 「김홍일의 중국 국민혁명군 경험과 『국방개론』 저술」(『군사』 제112호, 2019)과 정형아·정창원의 「군사전문가 김홍일과 중국」(『비교중국연구』 제7권 1호, 2026)은 김홍일의 회고록에 더하여 중국 측 사료를 추가로 발굴·검토함으로써 그의 행적을 보완하고 있다.

김홍일은 러일전쟁과 일제의 국권침탈이라는 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후 1918년 20세가 되던 해 중국으로 가서 구이저우(貴州) 강무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의 군인이 되었다. 중국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후 한국 독립운동에 투신한 4~5년의 시간을 제외하면 1948년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는 25년 이상을 중국의 군인으로 살았으며, 중국군으로서 장성급 지위에 오른

-
- 1 김종문, 2012, 「김홍일의 생애와 독립운동」,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상원, 2014, 「1920년대 전반기 김홍일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7집; 조은경, 2020, 「한국광복군총사령부 간부의 회고를 통해 본 한국광복군의 인식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5집; 유호인·쑤커즈, 2025, 「김홍일장군의 중국군 활동과 독립운동 참여-중국 측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22집.
 - 2 이동원, 2016,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군사』 제99호; 김영환, 2023, 「창군기 기동군 창설 담론에 관한 연구: 김홍일과 지청천의 기동군 창설 담론과 한계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56집.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김홍일은 허잉친(何應欽, 1890~1987)이 교장으로 있던 구이저우 강무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군으로서 제2차 호법전쟁에 참여했다가,³ 중국군을 떠나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 지도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 위해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김홍일도 그 가운데 있었다.⁴ 그러나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비극과 좌절을 경험한 김홍일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 한때 중국 동북에서 교사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나, 일본의 수색과 압박이 고조되자 동북지역을 떠나 다시 중국군에 합류하였다.⁵ 조국 독립의 뜻을 품었으나 현실적으로 번번이 좌절을 겪으면서 김홍일은 중국과의 연대를 통한 구국을 생각하였고, 결국 중국군으로서 중국의 혁명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20세기 전반 항일투쟁을 했던 한국인들이 그랬듯이 김홍일은 몇 가지 가명을 사용하였다. 구이저우 강무학교 시절의 이름은 왕송(王雄)이었고 당시에는 교장 허잉친과 학교관계자 2~3명만 그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다시 중국군에 입대한 왕송은 국민정부의 북벌전쟁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계급도 중교로 진급하였다. 북벌 후 난징(南京) 총사령부 군기처 통계과장에 임명되었고, 1931년 11월부터는 대교의 계급으로 상하이 가오창묘오(高昌廟)의 병공창 무기주임으로 근무하였다.

1932년 왕송은 한국 독립투사 윤봉길과 이봉창의 거사에 사용할 폭탄을 제공하였다.⁶ 이로 인해 일본의 의심을 받자, 그는 이름을 왕이수(王逸曙)로 바꾼 후 난징의 공병학교 부관처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완자링(萬家嶺)전투, 상가오(上高)회전, 제2차 창사(長沙)회전 등에 참가하여 공

3 김홍일, 1972, 『대륙의 분노』, 문조사, 69쪽.

4 김홍일, 1972, 위의 책, 89~118쪽.

5 김홍일, 1972, 위의 책, 217~218쪽.

6 김홍일, 1972, 위의 책, 272~276쪽.

을 세웠다.

왕이수는 군수설계위원, 제102사단 상교참모장, 제19집단군 소장 부참모장, 제1병단 사령부참모장, 중국청년원정군 사령부 부참모장 등의 직책으로 중국군에서 활동하였고,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요청으로 중국군을 떠나 한국광복군 참모장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한인의 귀국을 돕기 위해 다시 중국군에 들어가 한교사무처 처장으로 활약하였다.⁷

그가 맡았던 다양한 직책과 역할 가운데 이 글은 항전 말기 장제스가 야심차게 추진한 지식청년중군운동과 관련된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일전쟁 말기 장제스는 병력의 질적·양적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김홍일 또한 당시 중국 군제에 내재한 병력 수급 구조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었다.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병력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장제스에게 그 대안으로 지식청년중군운동을 기획·제한 인물이 바로 김홍일이었다.

지식청년군은 중일전쟁 말기 장제스가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었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출신 중국군 김홍일이 기획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식청년군은 조직단계인 지식청년중군운동 때부터의 과정과 훈련 내용 등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

대만연구자 린우옌(林武彦)의 「抗戰末期知識青年從軍運動的組織動力」(『復興崗學報』第28期, 1982.6.)과 「抗戰末期知識青年從軍運動的組織設計」(『復興崗學報』第29期, 1982.12.)가 가장 선구적인 연구이다. 중국대륙의 연구로는 허우더추(侯德础)의 「略論抗戰後期的知識青年從軍運動」(『民國檔案』2006年 第2期)와 장타오(姜濤)의 「再造黨軍：知識青年從軍運動與青年軍」(『近代史研究』2020年 第6期)가 대표적이다. 한국 연구자 김영신의 「抗戰후기의 지식청년중군운동」(『군사』제129호, 2023.12.)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린우옌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분석보다 군사동원체제에서의 의미에 비중을 두었다. 그의 연구는 지식청년 중군운동을 애국적 청년운동이 아니라 전시 국민

7 『外交部：各國駐華外交人員略歷』, 典藏號：020-100400-0082, 58쪽.

정부가 설계한 엘리트 동원·통제 체제로 해석하면서 병력 충원이라는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지식인을 국가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군사 엘리트로 재구성하는 정치적 장치였다고 주장한다. 허우더추와 장타오의 연구는 지식청년중군운동의 목적이 민주적 엘리트 병력의 수급을 통해 국가에 충성하는 군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식청년을 선발·훈련하여 당과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엘리트 군대를 만드는 데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영신도 연합군과의 연합작전, 현대화된 중국군 조직 등 현실적 필요를 주목하면서도 지식청년중군운동을 장제스의 개인적 산물이었다고 하여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항전역량을 제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 성과에 대비하여, 이 글은 중일전쟁 시기 병력 자원의 수급과 활용을 둘러싼 장제스의 문제의식과 이에 참여한 한국 출신 중국군 참모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조국 독립의 의지를 지니고 있던 김홍일은 중국의 항전 승리를 한국 독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군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는 중일전쟁 시기 한중 관계를 조명하는 또 하나의 분석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장제스의 병력개선 필요 인식과 지식청년 동원 검토

1. 국민정부 병역제도의 한계와 김홍일의 제안

국민정부는 1933년 6월 17일 「병역법(兵役法)」을 공포하였다. 이 「병역법」은 병역을 국민병역과 상비병역의 2종으로 나누었다. 국민병역은 평시 군사교육을 받고 전시나 사변에 징집하여 전투를 보조하거나 지방 치안에 종사하는 방식이었고, 상비병역은 18세에서 45세까지의 장정을 현역과 예비역으로 분류하여 징집하는 방식이었으며, 자치가 완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적정 연령자의 지원

을 받아 모집하겠다고 규정하였다. 이 「병역법」은 1936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⁸

사실 국민정부는 엘리트 자원이 군대에 입대하여 군대의 소질과 전투 역량을 높이기 바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국가 건설을 위한 인재의 보호 육성 차원에서 학생들의 병역의무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⁹ 「병역법」은 이후 몇 차례 검토와 수정을 거쳤다.

1936년 8월, 1938년 4월에 검토한 「병역법시행조례수정초안(兵役法施行條例修正草案)」에는 중학 이상 학생의 병역 연기(緩役),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병역 면제(免役) 등을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공무원, 교사 등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에 대해 병역 연기나 면제 혜택을 명기하고 있었다.¹⁰ 그리고 국민정부가 1939년 검토한 「수정병역법잠행조례(修正兵役法暫行條例)」에는 25세 미만의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에게 징집 연기의 혜택을 주었고,¹¹ 1943년 3월 15일에 공포된 「수정병역법(修正兵役法)」에도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였다.¹² 따라서 1933년 처음 만들어진 「병역법」부터 중일전쟁 후반기까지 국민정부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을 받는 고급 엘리트이자 신체 건장한 청년에게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 사실상은 면제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일전쟁 전반기 중국군의 병력을 대체로 170만 명으로 추산하는 가운데 중국군의 인명피해는 민군 전체 사망자의 2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고,¹³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 1년간 국민정부군의 병력 손실을 100만 명으로 추산하는 자료도 있다.¹⁴ 그만큼 병력 충원은 국민정부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

8 『司法院: 兵役法等』, 015-020300-0085, 23쪽.

9 陶希聖, 2009, 『潮流與點滴』,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50~151쪽.

10 『司法院: 兵役法等』, 典藏號: 015-020300-0085, 45쪽.

11 『司法院: 兵役法等』, 典藏號: 015-020300-0085, 73쪽.

12 『司法院: 兵役法等』, 典藏號: 015-020300-0085, 18쪽.

13 장로페즈 등 편저, 2026, 『제2차 세계대전 인포그래픽』, 북이십일레드리버, 74, 142, 144쪽.

는 문제였다. 당시 중국의 인구는 4억 7,000만 명 정도였고, 그중 1%에도 못 미치는 학생을 포함한 엘리트 청년들은 병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다.¹⁵ 김홍일은 이 점을 주목하였다. 그의 회고록을 보자.

중국은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전 강토가 전화(戰火)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는데도 계속 중·고등·대학생들에게는 병역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전쟁이 끝나면 전후의 국가 건설 사업에 이바지할 소중한 역군들이라 하여 국가에서는 학생들을 대부분 안전한 후방으로 소개시켰으며, 또한 국가에서는 그들에게 의식주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학업을 계속시켰다. ... 각계각층의 총력을 집중해도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기가 힘겨운 판인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이상적인 병력의 바탕이 될 학생들을 전열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았다.

중일전쟁의 필요불가결한 병원(兵源)과 군량을 전적으로 농민만이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농민들 대부분이 다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국가의식과 애국심이 부족한 탓으로 능동적으로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없으니 중일전쟁은 계속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¹⁶

중국군에 입대하여 중일전쟁 시기에는 고급간부로 활동하고 있던 한국인 김홍일은 여느 중국군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중일전쟁에서 일본은 정예라고 할 수 있는 훈련된 고급인재들과 선진적인 무기장비를 투입하며 속전속결을 장담하고 있었다. 반면 중일전쟁 전반기 중

14 「抗戰二年來國軍官兵傷亡統計表」, 『抗戰第一、二年度軍政部統計提要』; 張燕萍, 2008, 「抗戰時期國民政府兵員動員述評」, 『抗日戰爭研究』 2008年 第4期, 132쪽 재인용.

15 教育編纂委員會 編, 1986, 『第二次中國教育年鑑』, 臺北: 文海出版社, 101쪽; 김영신, 2023, 「抗戰후기의 지식청년중군운동」, 『軍事』 제129호, 455쪽.

16 김홍일, 1972, 앞의 책, 342쪽.

국은 소련의 지원 속에 일본의 이러한 기대를 제어하며 어렵게 버티고 있었다.¹⁷ 김홍일은 일본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진행되는 중일전쟁에서 전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력이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은 엘리트의 전투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중국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조건을 갖춘 20대 초반의 청년을 전쟁에 투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전쟁의 소강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자 중국 군사위원회는 군사역량을 재정비할 필요를 인식하고, 1938년 난위에(南嶽)에서 처음으로 군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목적은 개전 후 전쟁의 득실을 분석하고 교훈을 검토한 후 새로운 전략방침과 부대배치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⁸ 그중 제3차 회의는 제2차 창사(長沙)회전 이후인 1941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다.

제3차 난위에 군사회의가 개최될 당시 한국인 김홍일은 제19집단군 총사령부의 참모처장이었고, 계급은 소장(少將)이었다. 그리고 제19집단군의 총사령관은 뤼취잉(羅卓英, 1896~1961)이었다. 뤼취잉은 제3차 난위에 군사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참모들을 불러 모아 예비회의를 개최하였다.

참모장 중 한 사람이었던 김홍일은 뤼취잉의 예비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는 어느 계층보다 지적 수준이 높은 학생층에서 약 100만 명 정도의 병력을 확보하여 지금까지의 중국군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자는 구상을 참모회의에 제출하였다.¹⁹ 김홍일은 원래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했던 일본이 중국의 소모전법에 말려들어 인력과 물력이 이제 거의 바닥 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학생 100만 명을 선발, 정예의 신군을 조직하여 적에 대항한다면 앞으로 2년 내에 틀림없이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 자신이 있다고

17 정형아, 2024, 『중일전쟁시기 중소관계와 군사협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참조.

18 秦孝儀 主編, 1978a, 『蔣公大事長編初稿』 卷四上,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262~263쪽.

19 김홍일, 1972, 앞의 책, 343쪽.

주장하였다.²⁰

뤄취잉은 김홍일의 구상을 받아들였다. 그는 김홍일과 함께 난위로 가서 장제스에게 ‘청년군 조직’을 골자로 한 군대개혁방안을 제출하였다. 김홍일의 회고록에 따르면, 장제스는 뤼취잉이 제출한 군대개혁방안을 정독하였고, “매우 훌륭한 제안임에는 틀림없으나 중국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보아 어떻게 아무런 마찰 없이 잘 부합할지 염려스럽다”면서 “하여간 그 실행방법과 시기를 숙고해보겠다”고 약속하였다.²¹

2. 지식청년 활용 구상 검토와 확대 계기

사실 이에 앞서 1939년 1월 장제스도 전쟁에 필요한 병력 수급에 중산층 유력자(士紳)의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그들의 자제가 솔선하여 명예롭게 종군해 줄 것을 호소한 적이 있다.²² 그해 6월에도 장제스는 중산층 유력자의 자제와 공직자의 자제가 솔선하여 병역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문서를 하달하였다.²³ 그러나 이때의 장제스는 중산층 유력자의 자제, 혹은 엘리트 집단에게 병역을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만 했을 뿐,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김홍일은 당시 학생들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의 자제들이었으므로 학생을 징집하는 것에 대해 장제스가 지지기반인 중산층의 반대를 받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²⁴

장제스는 뤼취잉과 김홍일이 제안한 ‘학생군 조직’을 1941년 말 즉시 실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 후로도 병사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증가를 통한 병

20 김홍일, 1972, 위의 책, 343쪽.

21 김홍일, 1972, 위의 책, 344쪽.

22 蔣介石, 1984a, 「告全國士紳及教育界同胞書」(1939年1月19日),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三十一 書告, 台北: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2쪽.

23 兵役部兵役司 編, 1945, 『學生從軍記實』, 重慶, 影印本, 13쪽.

24 김홍일, 1972, 앞의 책, 344쪽.

력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2년 5월 4일의 참모장회의의 강령에서는 장제스는 건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며 당원의 군복무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⁵ 또한 그는 그해 10월 개최한 제4회 병역회의의 개막식 강연에서 중앙과 지방 당부의 당직자와 전체 당원은 본인이나 자제가 솔선해서 징집에 응하도록 권유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²⁶ 장제스의 태도가 1939년보다는 한층 강경해져 있었다. 그에 따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당원, 공무원, 중산층 유력자 자제의 징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관한 공문을 전파하였다.²⁷ 그리고 1942년 11월에는 「당원, 공무원 및 유력자 자제 조사징집판법(黨員、公務員及士紳子弟調查征集辦法)」을 개정 반포하여 병역법 개정의 준거를 삼으려고 하였다.²⁸

1943년 3월 15일, 드디어 새로운 병역법이 공포되었다. 이 새로운 병역법에도 “전문대학 이상 학교 재학자 중 25세 미만인 사람은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²⁹ 대신 입대를 독려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대 혜택을 명기하였다.

- ① 입대 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제대한 다음 해까지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은 생활 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대 후 기관, 법인, 학교, 공장의 채용에 우선 선발될 수 있다.

25 秦孝儀 主編, 1978b,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上,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72쪽.

26 蔣介石, 1984d, 「革新兵役之根本精神與必循的途徑(上)」,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十九 演講,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329쪽.

27 「軍事委員會關於黨員公務員及士紳子弟應著先服兵役代電」(1942년 11월 16일),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1998,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五輯 第二編 軍事(一),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438쪽.

28 兵役部兵役司 編, 1945, 『學生從軍記實』, 影印本, 13쪽.

29 『司法院: 兵役法等』, 典藏號: 015-020300-0085, 18쪽.

④ 상훈, 규훈과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³⁰

새로운 병역법은 단지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청년들의 입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장제스와 국민정부에게는 새로운 군대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바로 연합군과 함께 활동할 유능한 군대를 조직해야 했던 것이다. 1942년 중일전쟁은 세계전쟁의 일부가 되었고, 중국은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다. 장제스는 연합국 중국 전구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1942년 2월 일본은 버마(현 미얀마)를 침공하였고, 버마루트의 단절은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물자보급로를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에 장제스는 원정군을 조직하여 버마에 파견하였다. 1942년 3월 4일 스틸웰(Joseph W. Stilwell)은 장제스의 참모장으로 충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11일 스틸웰은 버마로 들어가 작전을 지휘하였다. 5월 초 일본군이 버마와 인도 북부, 중국 윈난(雲南)성의 누강(怒江) 서안까지 진격함으로써 버마루트가 차단되었다.³¹

원래 연합군은 인도에 주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연합국이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였으나 영국군과 중국군의 연합작전은 형편없는 전과를 보였다. 연합군은 일본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지 못한 채 대패한 것이다.³² 또한 스틸웰과 장제스와 갈등도 깊어지면서 연합작전은 순조롭지 않았다.³³ 결국 투입된 중국군 병력의 일부는 인도로, 일부는 중국의 윈난으로 후퇴하였다. 원정군에 동원된 병력은 10만 명이었으나, 8월 초 인도와 윈난으로 철수한 인원은 겨우 4만뿐이었다는 기록도 있다.³⁴

30 『司法院: 兵役法等』, 典藏號: 015-020300-0085, 19쪽.

31 張玉法, 1998, 『中華民國史稿』, 臺北: 聯經, 378쪽.

32 래너미터(Rana Mitter) 저, 기세찬 권성욱 역, 2020, 『중일전쟁』, 글항아리, 313~314쪽.

33 陳孝儀 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上, 49~51쪽.

34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1994, 『中國抗日戰爭史(下)』, 北京: 解放軍出版

7월, 스틸웰은 영국군이 뱅골만을 장악한 후 버마의 랭군으로 상륙하고, 인도 주둔 영국군과 중국군이 인도에서 라쇼와 만델레이로 진격하는 버마탈환계획을 세웠으나, 영국이 동의하지 않았다. 1943년 1월에 가서야 연합국은 카사블랑카회의에서 버마작전을 논의하고 1943년 11월 15일에 작전을 발동하기로 하였다.³⁵

그 사이 인도주둔 중국군은 스틸웰의 지휘하에서 미군이 직접 지도하는 훈련을 받으며 미군의 무기로 무장하였다. 이 부대는 일명 X부대로, 윈난에서 기존 중국군 체제로 훈련하고 있던 중국군은 원정군, 일명 Y부대로 불렸다. 1943년 윈난에 주둔하고 있던 원정군의 사령관은 천청(陳誠)이었고, 웨이리황(衛立煌)이 그 후임이 되었다.³⁶

1943년 10월 중국주인도군은 버마 북부로 반격을 본격화하려고 했으며, 윈난의 원정군도 출격을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틸웰은 중국 정부에 추가병력 300명 배치를 요구하였다. 1943년 11월 6일, 중국 군사위원회 군정부(軍政部)는 12월 중순까지 지식청년 300명을 선발하여 인도주둔군을 보충하라는 지시를 쓰촨(四川)성의 각 현과 시에 하달하였다.³⁷ 그리고 11월 말 카이로회담에서 장제스는 미국에게 중국군 90개 사단의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장제스에게 90개 사단 무장을 약속하면서 1944년 3월 이전 버마작전을 발동하겠다고 하였다.³⁸

문제는 최신 무기장비의 사용과 훈련을 위해서는 언어능력을 비롯한 교육수준과 자질이 높은 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청년의 입대 요구가 표면

社, 248쪽.

35 張玉法, 1998, 앞의 책, 378쪽.

36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2005, 『抗日戰爭全面戰場(中)』, 南京: 鳳凰出版社, 1656쪽.

37 孫玉芹·劉敬忠, 2010, 「抗戰末期 “10萬知識青年從軍”運動述評」, 『抗日戰爭研究』 2010年 第3期, 20쪽.

38 張玉法, 1998, 앞의 책, 379쪽.

으로 떠올랐다.³⁹ 즉, 장제스가 오래도록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지식청년의 징집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III. 지식청년종군운동의 추진과 김홍일의 역할

1. 지식청년종군운동 개시

1943년 10월 말, 주인도군 총지휘관 스틸웰은 중국 군사위원회 군정부장 허잉친에게 전문을 보내 현재 공병 제12연대(團)의 병력이 편제보다 300명 부족하므로 신속히 보충하여 전방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⁰ 전술한 바와 같이 11월 6일 군정부는 거리상 인도와 가까운 쓰촨 군관구에서 청년 300명을 징집하기로 하고, 쓰촨 군관구에 전문을 보냈다.⁴¹ 쓰촨에서는 이 지역 군관구 참모장 쉬쓰핑(徐思平)의 종군 독려 선전과 강연에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12월 8일까지 지원자는 중학생과 공무원 5,094명, 여성 795명, 대학생 267명이었고, 합격자는 여성을 제외하고 2,229명이었다.⁴² 쓰촨 군관구의 종군선전에 더하여 군정부가 1943년 12월 19일 「학생지원복역판법(學生志願服役辦法)」을 발표함으로써 종군운동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된 지식청년종군운동은 1944년 10월 전국적 단위의 ‘징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44년 2월 10일 제4차 난위에 군사회의 개막식 강연에서 장제스는, 중국이 이미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고, 또한 자신이 카이로회담에 참여했음에도 연합군이 중국을 동등한 위치로 보지 않는 것은 여전히 중국의 군대가 약하기 때문

39 何應欽, 1962, 『何上將抗戰期間軍事報告』下冊, 台北: 文星書局, 601쪽.

40 『蔣中正總統文物: 遠征入緬(四)』, 典藏號: 002-090105-00009-058.

41 兵役部兵役司 編, 1945, 앞의 책, 14쪽.

42 兵役部兵役司 編, 1945, 위의 책, 17쪽.

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장제스는 연합군이 중국의 창사(長沙)전투나, 창더(常德)전투의 승리를 칭찬했으나, 실제로는 병력이 중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적을 이긴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부대 수는 줄이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역량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군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³

같은 시기 장제스는 당정회보에서 학생의 병역참여를 좀 더 명확하게 언급하였다.⁴⁴ 제4차 창사회전에서 패배하면서 6월 창사를 비롯하여 형양, 구이양이 잇달아 일본군에게 함락되었고, 충칭마저 위험하다고 주장한 이들은 군명으로 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기에 직면한 중국 정부도 병력개선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8월 20일 천청(陳誠)은 장제스에게 국민당 당원과 삼민주의청년단 단원의 중군방안을 건의하였다.⁴⁵ 이에 따라 장제스는 8월 24일 국민당 비서장 우태청(吳鐵城)과 삼민주의청년단 서기장 장즈중(張治中)에게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지시하고,⁴⁶ 8월 27일에는 ‘지식청년중군운동’의 제 1기 목표로 3개월 내에 10만 군을 모집하라고 하였다.⁴⁷ 지식청년중군운동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청년중군운동은 전술한 1943년 말 중국주인도군과 관련한 것과 1944년 말 10만 청년중군운동이라는 두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김영신은 기존 연구가 청년중군운동의 성격과 목적 구분에 소홀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⁸ 타

43 蔣介石, 1984b, 「第四次南嶽軍事會議開會訓詞」,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 卷二十 演講(1944), 324~325쪽.

44 秦孝儀 主編, 1978b, 앞의 책, 466~467쪽. (1944.1.8. 主持黨政會報, 對黨政工作, 指示纂詳. … (四)黨與團目前亟應領導推進的事項: 1. 學生從軍運動, 應由黨部團部切實發動領導, 保證其完全成功.)

45 『陳誠副總統文物: 石叟叢書—文電甲類(下冊)』, 典藏號: 008-010101-00002-057.

46 『蔣中正總統文物: 事略稿本—民國三十三年八月』, 典藏號: 002-060100-00191-024.

47 秦孝儀 主編, 1978b, 앞의 책, 582쪽.

이완 국사관도 1943년 말 연합군의 인도주둔 병력 추가 요청에 따라 시행된 중군운동 자료를 ‘중군운동’이라는 파일에, 1944년 말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된 중군운동자료를 ‘지식청년중군’이라는 파일에 구분하여 소장하고 있으므로 두 운동의 성격은 분명 상이한 점이 있다. 그러나 1943년의 중군운동과 1944년의 중군운동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국민정부의 오래된 병력제도의 모순과 향전승리를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고, 더 나아가 장제스가 오래도록 독려해오던 중산층 자제와 엘리트들의 병역 참여에 그 뿌리를 두었다. 따라서 배경과 목적상 양자는 연결점이 있고, 1943년의 운동은 1944년 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국민당원과 삼민주의청년단을 대상으로 한 병력 충원은 장제스가 구상했던 지식청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대를 건설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장제스는 스틸웰과 의견충돌이 생기면서 미국의 무기장비를 활용하지 않고도 새로운 군대를 건설하여 자주적으로 향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기왕에 건설하기로 한 새로운 군대는 유능하고 고급인력인 지식청년으로 조직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천청이 제안한 국민당원은 이미 중장년층이었고, 당시 그들의 부패와 군정(軍政)의 문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국민당 당원과 삼민주의청년단의 단원 사이에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당원과 단원을 규합하여 지식청년으로 유능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⁴⁹

그럼에도 당장 10만 명의 학생을 징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장제스는 당원과 단원으로 구성된 군대를 건설하여 자신의 영향 아래 두려고 하였다. 장제스는 그러한 생각을 9월 5일 천청에게 전하였다. “당원과 단원 각 5만 명을 소집하여 지원군 6개 사단을 조직한 후 자신이 군장을 맡고 부군장 1명을 선발하여 지휘를 맡기려고 한다.”⁵⁰ 사실 당원의 징집 방안은 국민당 내

48 김영신, 2023, 「抗戰후기의 지식청년중군운동」, 『軍事』 제129호, 452쪽 참조.

49 陳立夫, 1994, 『陳立夫回憶錄: 成敗之鑒』, 台北: 正中書局, 226쪽.

부에서도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장제스는 9월 16일 국민참정회 제 3기제3차 회의에서 직접 지식청년의 중군을 언급하며 중국군의 소양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⁵¹ 결국 정부 차원에서 지식청년의 중군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충칭에서 ‘지식청년중군운동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중앙의 유관기관 및 각 성(省)정부, 시(市)정부, 당부(黨部), 단부(團部)의 관련자들과 교육계 인사 등 약 150명이 모였다.⁵² 회의에서 장제스는 “지식청년중군운동의 성패는 현재 항전의 군사에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건국의 전도에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지식청년중군운동이 현대적 군사역량을 기반으로 전후 건국혁명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구축하려는 구상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⁵³

지식청년중군운동은 ‘구당(救黨)과 구국(救國)’을 위한 관건적인 사안이 되어버렸다. 회의를 통하여 선전, 징집, 편제, 훈련, 처우와 간부선발 등 세부사항이 논의되었다. 10월 14일 폐막일에는 ‘전국지식청년지원중군지도위원회’(全國知識青年志願從軍指導委員會)’(이하 지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지도위원회는 장보링(張伯苓), 모더후이(莫德惠), 장명린(張夢麟), 구위슈(顧毓琇), 허잉친, 바이충시, 우텐청, 천귀푸, 장즈중, 툽취잉 등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⁵⁴

지도위원회는 군사위원회 직속기구로 전국의 지식청년지원중군의 기획, 지도, 심사를 맡았다. 지도위원회는 16일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징집방법, 편제, 훈련계획, 각 성·시·현의 각급 학교 징집위원회조직법을 의결하였다. 전국 각급

50 『蔣中正總統文物：領袖指示補編（十六）』，典藏號：002-090106-00016-529.

51 呂芳上 編，2015，『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臺北：國史館.

52 呂芳上 編，2015，위의 책.

53 呂芳上 編，2015，위의 책.

54 『國防部史政編譯局：青年志願從軍徵集辦法』(民國 33年 11月 01日～民國 33年 11月 30日)，檔號：B5018230601/0033/300.6/5022.

학교에는 지식청년지원군징집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청년종군은 「전국지식청년지원군징집판법(全國知識青年志願從軍徵集辦法)」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종군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 여성 청년지원자의 징집과 관리, 제대 후 국가고시에 대한 혜택, 지원종군학생의 학업에 관한 교육부의 혜택, 종군 청년의 가족에 대한 혜택 등, 지식청년의 종군을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이 법규에 포함되었다.⁵⁵

2. 지식청년종군운동의 전개와 김홍일

국민당 중앙선전부의 지휘 아래 국민당부와 삼민주의청년단, 각 지역 신문과 잡지를 통해 청년지원군 모집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학교와 사회조직에서도 광범위한 선전을 진행하여 학생 외에도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사회의 지식청년을 징집하였다. 장제스는 특히 각급 학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하였다.⁵⁶ 1944년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원자를 받았다. 1944년 10월 한 달간 충청의 9개 신문은 보도기사 1,107편과 사설(언론) 93편을 게재하며 선전에 박차를 가하였다.⁵⁷ 1944년 12월 말까지 지원한 청년은 12만 2,200명이었고, 신검을 통과한 합격인원은 8만 6,000명이었다.⁵⁸

그러면 지식청년군을 조직하고 운영한 실무 핵심 인물은 누구였을까? 바로 장제스에게 학생을 병력자원으로 제안했던 뤼쥘잉과 김홍일이다.

55 『國防部史政編譯局：青年志願從軍徵集辦法』(民國 33年 11月 01日～民國 33年 11月 30日), 檔號: B5018230601/0033/300.6/5022.

56 『國民政府：從軍運動(一)』, 001-054500-00002-003.

57 林武彥, 1982, 「抗戰末期知識青年從軍運動的組織動力」, 『復興崗學報』第 28期, 819쪽.

58 國防部總政治部 編印, 1960, 『國軍政工史稿』上冊, 台北: 國軍政工史編纂委員會, 747쪽; 김영신, 2023, 앞의 글, 468쪽 재인용.

뤄취잉은 1942년에는 인도주둔 중국군의 부총지휘관으로 스틸웰과 함께 특파되었다가, 1943년 제3전구 부사령관, 제19집단군 사령관을 거쳐⁵⁹ ‘지식청년중군운동회의’가 열리기 전인 1944년 10월에는 군사위원회 군정부 차장직과 구이린(桂林)에 위치한 간부훈련단의 교육장직을 겸임하고 있었다.⁶⁰ 김홍일은 1942년 1월부터 1943년 12월까지 육군대학을 이수하고 1944년부터 구이린에서 뤼취잉의 참모로 근무하고 있었다.

10월 11~14일의 ‘지식청년중군운동회의’에 장제스는 뤼취잉에게 비행기를 보낼 테니 비행기가 도착하는 즉시 충칭의 군사위원회로 오라는 전보명령을 하달하였다.⁶¹ 장제스의 부름에 뤼취잉은 참모회의를 소집하여 장제스가 부른 이유가 무엇일지 논의하였다. 어떤 참모는 일본의 이치고(一號)작전으로 제9전구가 양분되었으니 그 한쪽을 뤼 사령관에게 맡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홍일은 “전세가 위급하고 급변하므로 아마 전에 제출한 학생군 조직문제를 장 위원장께서 정식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뤼취잉은 김홍일의 의견이 그럴듯하다면서 김홍일과 부관 두 명만 데리고 충칭으로 갔다.⁶²

장제스는 10월 17일 오후 뤼취잉을 만나 신속하게 청년군을 조직하라고 재촉하였다.⁶³ 다만, 일시에 지식청년 100만 명을 징집하면 사회에 물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선 지원병으로 10만 명을 모집하여 10개 사단으로 신속히 편성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각 사단에 배치된 1만 명은 전투병으로 하고 사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취사병과 기타 여러 잡역병은 지식청년이 아닌 일반인으로 충당하라고 하였으며, 청년군 편성을 다음 해 5월까지 완성시키라고 하였다.⁶⁴

59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2005, 『抗日戰爭全面戰場(中)』,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1637, 1654, 1659쪽.

60 『國民政府: 軍事委員會官員任免(九)』, 典藏號: 001-032107-00036-053.

61 김홍일, 1972, 앞의 책, 358쪽.

62 김홍일, 1972, 위의 책, 359쪽.

63 『蔣中正總統文物: 事略稿本—民國三十三年十月』, 典藏號: 002-060100-00193-017.

즉, 3개월 이내에 부대 편성을 끝마치고 1945년 1월부터는 훈련을 시작하여 4월까지 훈련을 마치고 5월에는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다. 장제스는 최정예의 지식청년군 조직을 기대하며, 뤼쥘잉에게 지식청년군의 각 군단에서 중대까지 행정조직 시스템과 직무를 미국 육군조직을 참조하여 개혁하라고 거듭 지시하였고,⁶⁵ 매주 토요일에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⁶⁶

이에 따라 뤼쥘잉과 김홍일은 충칭에 머물며 ‘지식청년지원종군’조직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1월 5일 전국지식청년지원종군편련총감부(全國知識青年志願從軍編練總監部)(이하 편련총감부)가 설립되었다. 편련총감부는 청년원정군의 편제를 적용하였다. 뤼쥘잉이 편련총감부 총감을 맡았고, 장징궈는 정치부 주임이었다. 장제스는 청년군 설립의 목적은 “학교를 군대 삼아 일반 청년 병사들이 우수한 혁명군인이 되고 건전한 건국의 간부가 되게 하여 항전과 건국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⁶⁷ 그에 따라 정공(政工)업무를 중시하여 그의 아들 장징궈를 정치부 주임으로 앉혔던 것이다.

당시 계급이 국민정부군 육군소장이었던 김홍일은 편련총감부 참모처 처장보직을 맡았다. 김영신은 『青年遠征軍第208師簡史』를 인용하여 편련총감부의 군무처장을 왕이수(王逸曙)로 기록했는데⁶⁸ 왕이수는 바로 김홍일이다. 주한 중국대사를 역임한 샤오위린(邵毓麟)은 회고록인 『사한회억록(使韓回憶錄)』에서 김홍일이 편련총감부 참모처 처장이라고 기록하였으며,⁶⁹ 김홍일도 자신이

64 김홍일, 1972, 앞의 책, 360쪽.

65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抗戰方略：整軍』, 典藏號：002-020300-00007-111; 『蔣中正總統文物：領袖指示補編(十六)』, 典藏號：002-090106-00016-505.

66 『蔣中正總統文物：交擬稿件—民國三十三年十月至民國三十四年一月』, 典藏號：002-070200-00021-013.

67 蔣介石, 1984c, 「青年遠征軍編練之特質與教育要項」,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二十一 演講, 8쪽.

68 김영신, 2023, 앞의 글, 467쪽.

편련총감부 부참모장 겸 참모처장이었다고 하였다.⁷⁰ 당시 김홍일은 소장계급이었으므로, 중장계급이 맡는 참모장은 맡을 수 없었으나, 부참모장 겸 참모처의 처장으로 종군운동 실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관련 사료 부족으로 지식청년종군운동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김홍일의 회고록밖에 없다. 그러나 종군운동 핵심 인물과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가 튀취잉과 그의 참모 김홍일이었다는 것은 이들이 곧 이 제안을 발의하고 가장 정성들여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12월 20일부터 종군지원청년들은 입영을 시작하였다. 편련총감부는 10만 학생군의 모집과 수송, 신체검사와 학력검증, 주둔과 훈련지 선정, 병영과 시설 준비, 피복과 장구, 무기 탄약 준비 등에 모두 관여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편련총감부에서 한꺼번에 모두 감당할 수 없어 각급 기관에 분담하였다. 선전과 징집사무는 국민당 각급 당부가 맡았다. 병사 숙소와 시설은 각급 지방행정관청에, 피복과 무기는 군정부 군수서와 병공서에 위임하고, 필요로 하는 소요량과 표준도는 편련총감부에서 정하고 실시를 감독하였다.⁷¹

이러한 임무들은 장제스의 전적인 지원으로 신속히 조치할 수 있었다. 김홍일의 회고에 따르면 병사(兵舍)와 병영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현지에 나가 상황을 살펴본 후 작전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건물을 징용하고 군수서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장제스의 친필 특명을 받아냈다. 편련총감부의 계획과 명령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편련총감부 참모처장 김홍일은 장제스 위원장 집무실에 직접 가서 결재를 받아오기도 하였다.⁷² 장제스는 지식청년종군운동에 필요한 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친히 각 지역 주요 책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⁷³ 그 덕분에서 훈련에 필요한 병영과 병사 등

69 邵毓麟, 1980, 『使韓回憶錄』, 臺北: 傳記文學社, 200쪽; 『外交部: 各國駐華外交人員略歷』, 典藏號: 020-100400-0082, 58쪽.

70 김홍일, 1972, 앞의 책, 361쪽.

71 김홍일, 1972, 위의 책, 361쪽.

72 김홍일, 1972, 위의 책, 362쪽.

건물을 징발하고 적당히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었고, 징발에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병영의 준비 작업을 불과 1개월 이내에 완성할 수 있었다.⁷⁴ 이처럼 중군운동 실무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실무를 현장에서부터 상충부까지 직접 뛰어다니며 조직하고 결재를 받으면서 10만 청년군을 모집하는 중군운동을 실현시켜나갔다.

청년군 조직에 대한 장제스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편제를 모방하여 조직하고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과 장비로 훈련한 후, 미국의 선진 무기로 전투하는 최정예 군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는 중군운동을 시작하면서 교육용구와 서적을 준비하고 피복과 식량, 각종 장비를 완비하여 청년군 각 주둔지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⁷⁵ 중국과 미국은 이미 「무기대여법」에 의한 무기장비의 제공과 군사훈련을 약속한 상황이었으므로 장제스는 미국에게서 원조받기로 한 가장 선진의 무기를 청년군에게도 공급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공단은 미국이 원조하는 무기는 일선의 전투부대에만 공급하는 것이므로 청년군의 훈련에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⁷⁶

미국의 거부로 인해 청년군 조직에서 가장 핵심인 미제 무기로 무장하고 훈련하는 것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장제스는 무기대여법에 의해 원조를 받는 영국과 소련 등은 모두 자국의 필요에 따라 원조물품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중국만 유독 미국의 간섭을 받는다고 느꼈다. 따라서 그는 외국의 힘이 아닌 자체 능력으로 청년군을 무장하겠다고 결정하였다.⁷⁷

장제스는 각 군수공장에 24시간 쉴 새 없이 작업을 계속하라고 긴급명령을 내려 당부하였다. 당시 중국은 원료만 갖추어지면 최소의 무기를 스스로 장만할

73 『蔣中正總統文物：領袖指示補編（二）』, 典藏號：002-090106-00002-152.

74 김홍일, 1972, 앞의 책, 362쪽.

75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抗戰方略：整軍』, 典藏號：002-020300-00007-110.

76 김홍일, 1972, 앞의 책, 363쪽.

77 김홍일, 1972, 위의 책, 365쪽.

만한 능력이 있었다. 김홍일에 따르면, 병공창을 내지로 이전하면서 군사위원회 군정부는 병기제조에 필요한 각종 철강재를 어느 정도 마련해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충칭 등 후방으로 이전하면서 병공창을 지하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소총과 경중기관총은 물론 박격포, 산포, 그리고 각종 탄약 등을 제조할 수 있었다.⁷⁸

그러나 병공창을 빠르게 가동한다고 해도 청년군의 훈련을 마치고 편성하기까지는 약 3개월이나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⁷⁹ 결국 4월에 청년군 편성과 훈련을 모두 끝내고 5월부터는 정식으로 항일전에 참가시키려고 계획하였다. 1945년 4월 8일, 장제스는 뒤쥐잉에게 전보명령으로 4월 말 청년군 각 사단을 자신이 직접 검열하겠다고 하면서 준비를 지시하였다.⁸⁰

그러나 무기장비의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훈련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뒤쥐잉은 7월에 훈련에 착수하여 9월 말에나 마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⁸¹ 청년군의 투입이 지연되는 사이에 한국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한국광복군의 재정비를 위해 김홍일을 참모장으로 초청한다는 서한을 장제스에게 보냈다. 장제스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김홍일은 자신이 제안하고 실행의 실무자로 활약한 청년군의 결실을 직접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사이 일본도 항복하였다.

IV. 맺음말

20세기를 시작하면서 한중 양국은 모두 대륙을 침략하려는 일본에 의해 국난을 겪었다. 강토를 상실한 한국의 뜻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

78 김홍일, 1972, 위의 책, 365쪽.

79 김홍일, 1972, 위의 책, 365쪽.

80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抗戰方略：整軍』, 典藏號：002-020300-00007-126.

81 『陳誠副總統文物：整軍參考資料(五)』, 典藏號：008-010704-00011-044.

망명하여 한인이 설립한 군사학교나 중국의 군사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이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러한 한중 협력 관계는 그동안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조명되어 왔다. 이에 비해 중국군에 투신한 한국인의 역할을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황푸군관학교, 구이저우 강무학교, 윈난 강무학교 등에서 수학하고 중국군에 편입된 한국인들도 존재한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일이다.

김홍일은 중국군으로서 호법전쟁, 북벌전쟁뿐만 아니라 중일전쟁에서도 활약하며 중국의 항일 승리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꿈을 키웠다. 북벌전쟁 중 룡탄(龍潭)전투와 지난사변에서 공을 세워 훈장을 받았고, 중일전쟁기간에도 완자령전투와 상가오회전에서 공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 1945년에는 중국항전유공승리훈장을 수여받았다. 1939년 이미 중국군 소장으로 진급한 그는 중국군의 신분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였다. 중국의 승리가 곧 한국의 광복을 가져올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김홍일이 중국군으로서 행한 활약 중에서 항전 말기 장제스가 추진한 지식청년중군운동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지식청년중군운동은 장제스가 추진한 야심작으로 알려져 있다. 전면적인 항일전쟁을 수행 중임에도 중국정부는 국민 대다수인 농민을 병력자원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국민 1% 정도인 학생들은 국가건설을 위한 차세대 주역으로 분류되어 병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다. 병력충원, 특히 우수한 자질을 갖춘 지식청년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국군과 최정예로 구성된 일본군의 전력상 질적 차이는 적지 않았다. 장제스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고, 김홍일은 그 방안으로 학생군을 조직하자고 제안하였다.

장제스는 김홍일의 제안을 즉시 실행하지는 못했으나 학생군 조직을 중요한 병력개선의 유효한 방안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군복무를 면제받았던 지식청년의 입대운동을 통해 군대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항일의 승리를 이루어 중국 항일의 전과를 연합국에도 드러내며, 중국 인민에게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항일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것이 있었다. 심지어 장제스는 일본이 항복하면 일본본토 점령을 위해 청년군 3개 사단을 파견할 구상까지 하고 있었다.⁸² 그리고 장기적으로 장제스는 청년군을 통해 투철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가진 새로운 군대 건설에 기틀을 마련하고 병력의 확충과 병력 자원의 자질을 개선하여 당국체제의 변화를 이끌고, 전후 국가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지식청년중군운동을 추진하며 곧 장제스의 꿈이었다면, 실무자 김홍일은 이를 통해 항전 승리의 시간을 단축하고 한국의 독립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김홍일 개인의 역할은 매우 작을 수 있으나 중국군으로서 김홍일의 활동이 개인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20세기 전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는 한국의 노력과 이웃나라 중국의 협력을 추적해볼 수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교류하는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립군과 중국군을 오가며 30년간 중국 망명객으로 살아온 김홍일의 사례는 매우 독특하나 20세기 전반 한중 양국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함께 분투한 노력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82 秦孝儀 主編, 1978b, 앞의 책, 771쪽.

참고문헌

자료

- 『國民政府：軍事委員會官員任免(九)』, 典藏號：001-032107-00036-053.
- 『國民政府：從軍運動(一)』, 典藏號：001-054500-00002-003.
- 『國民政府抗戰時期軍事檔案選輯』(上·下).
- 『國防部史政編譯局：青年志願從軍徵集辦法』, 檔號：B5018230601/0033/300.6/5022.
- 『司法院：兵役法等』, 典藏號：015-020300-0085.
- 『外交部：各國駐華外交人員略歷』, 典藏號：020-100400-0082.
- 『蔣中正總統文物：交擬稿件－民國三十三年十月至民國三十四年一月』, 典藏號：002-070200-00021-013.
- 『蔣中正總統文物：領袖指示補編(十六)』, 典藏號：002-090106-00016-505, 529.
- 『蔣中正總統文物：領袖指示補編(二)』, 典藏號：002-090106-00002-152.
- 『蔣中正總統文物：事略稿本－民國三十三年十月』, 典藏號：002-060100-00193-017.
- 『蔣中正總統文物：事略稿本－民國三十三年八月』, 典藏號：002-060100-00191-024.
- 『蔣中正總統文物：遠征入緬(四)』, 典藏號：002-090105-00009-058.
-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抗戰方略：整軍』, 典藏號：002-020300-00007-110, 111, 126.
- 『陳誠副總統文物：石叻叢書－文電甲類(下冊)』, 典藏號：008-010101-00002-057.
- 『陳誠副總統文物：整軍參考資料(五)』, 典藏號：008-010704-00011-044.
- ※이상 자료는 대만 국사관 소장

「抗戰二年來國軍官兵傷亡統計表」, 『抗戰第一、二年度軍政部統計提要』, (영인자료) 教育編纂委員會 編, 1986, 『第二次中國教育年鑑』, 臺北：文海出版社.

國防部總政治部 編印, 1960, 『國軍政工史稿』上冊, 臺北：國防部總政治部.

呂芳上 編, 2015,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臺北：國史館.

- 兵役部兵役司 編, 1945, 『學生從軍記實』, 重慶.(영인자료)
- 蔣介石, 1984a, 「告全國士紳及教育界同胞書」(1939.1.19.),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三十一,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 _____, 1984b, 「第四次南嶽軍事會議開會訓詞」,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二十,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 _____, 1984c, 「青年遠征軍編練之特質與教育要項」,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二十一,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 _____, 1984d, 「革新兵役之根本精神與必循的途徑(上)」, 『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十九,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1998, 「軍事委員會關於黨員公務員及士紳子弟應著先服兵役代電」(1942年11月16日),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五輯 第二編 軍事(一),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 秦孝儀 主編, 1978ab,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四上·卷五上·卷五下,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단행본

- 김홍일, 1972, 『대륙의 분노』, 문조사.
- 래너 미터(Rana Mitter) 저, 기세찬·권성욱 역, 2020, 『중일전쟁』, 글항아리.
- 장로페즈 등 저, 김보희 역, 2021, 『제2차 세계대전 인포그래픽』, 북이십일레드리버.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1994, 『中國抗日戰爭史(下)』, 北京: 解放軍出版社.
- 陶希聖, 2009, 『潮流與點滴』,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邵毓麟, 1980, 『使韓回憶錄』, 臺北: 傳記文學社.
- 張玉法, 1998, 『中華民國史稿』, 臺北: 聯經出版.
-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2005, 『抗日戰爭全面戰場(中)』, 南京: 鳳凰出版社.
- 陳立夫, 1994, 『陳立夫回憶錄: 成敗之鑒』, 臺北: 正中書局.
- 何應欽, 1962, 『何上將抗戰期間軍事報告』下冊, 臺北: 文星書局.

논문

- 김영신, 2023, 「항전후기의 지식청년종군운동」, 『군사』 제129호.

- 김영환, 2023, 「창군기 기동군 창설 담론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제156집.
- 김종문, 2012, 「김홍일의 생애와 독립운동」,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호인·쑤커즈, 2025, 「김홍일 장군의 중국군 활동과 독립운동 참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22집.
- 윤상원, 2014, 「1920년대 전반기 김홍일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7집.
- 이동원, 2016,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군사』 제99호.
- 조은경, 2020, 「한국광복군총사령부 간부의 회고를 통해 본 한국광복군의 인식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5집.
- 林武彦, 1982, 「抗戰末期知識青年從軍運動的組織動力」, 『復興崗學報』第28期.
- 孫玉芹·劉敬忠, 2010, 「抗戰末期“十萬知識青年從軍”運動述評」, 『抗日戰爭研究』2010年第3期.
- 張燕萍, 2008, 「抗戰時期國民政府兵員動員述評」, 『抗日戰爭研究』2008年第4期.

중일전쟁 말기 장제스의 지식청년동원방안과 김홍일

정형아 · 정창원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된 20세기 상반기 한국과 중국의 역사는 항일의 역사였고, 서로 협력을 통해 항일전쟁을 추진하였다. 한국학계는 그동안 주로 직접 조직한 독립단체와 독립군의 활약, 또는 중국 혹은 일본과 연합한 항일투쟁을 주목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 중에는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한국인 지사들도 있다. 그들은 중국의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군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약했는데 이글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김홍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홍일은 귀주 강무학교를 졸업한 후 제2차 호법전쟁과 중일전쟁에서 중국군으로 활동하였고 중국의 소장계급에까지 진출한 사람이다. 그는 중일전쟁 말기에는 병력개선을 모색하던 장제스에게 유능한 엘리트 학생을 군대로 편성하여 군사의 질적 향상과 항전의 승리를 도모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이다. 그는 지적 수준이 높은 유능한 인재인 청년학생을 항일전쟁에 참여시킴으로써 군사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의 제안은 지식청년중군운동으로 발현되었다.

주제어: 김홍일, 장개석, 항일, 중일전쟁, 중국군 복무, 지식청년중군운동

Chiang Kai-shek's Mobilization Policy for Educated Youth and Kim Hong-il during the Late Sino-Japanese War

Jung Hyungah · Jung Changwon

The history of Korea and China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when Japanese imperial expansion intensified, was fundamentally characterized by anti-Japanese resistance, with both countries advancing the war effort through mutual cooperation. Korean scholarship has thus far accumulated substantial research outcomes, primarily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independently organized Korean resistance groups and armed forces, as well as on anti-Japanese struggles conducted in alliance with China or, in some cases, in relation to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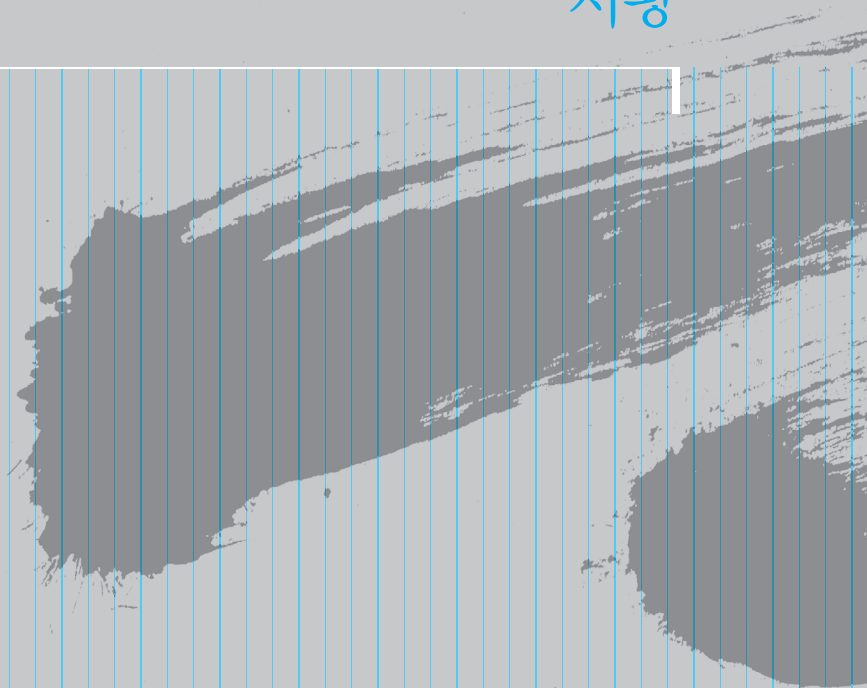
Among these, there were Korean patriots who regarded China's victory in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s an indirect pathway to achieving Korea's independence. Having graduated from Chinese military academies, they actively served in the Chinese armed forces

with notable commitment. This article examines one representative figure, Kim Hong-il.

After graduating from the Guizhou Military Academy, Kim Hong-il participated in both the Second Constitutional Protection War and the Second Sino-Japanese War, serving in the Chinese military and eventually attaining the rank of major general. In the late stage of the war, he proposed to Chiang Kai-shek—who was seeking to reform and strengthen military manpower—that elite students be incorporated into the armed forces to enhance the qualitative capacity of the military and thereby facilitate victory. He aimed to improve military effectiveness by mobilizing highly educated young students for the anti-Japanese war effort. His proposal was ultimately realized in the form of the Intellectual Youth Enlistment Movement.

Keywords: Kim Hong-il, Chiang Kai-shek, Anti-Japanese Resistance, Sino-Japanese War, Chinese Military Service, Intellectual Youth Enlistment Movement

서평



조선시대 태평관 연구의 집대성

— 『태평관-조선과 중국사신의 외교공간』

(이현진, 신구학원신구문화사, 2025)

윤승희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 I. 들어가며
- II. 구성과 내용
- III. 성과 그리고 제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들어가며

공간은 단순히 사람이 머무는 물리적 장소에 그치지 않는다. 공간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회의 요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공간은 변화하면서 기존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또 다른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억과 정체성을 축적한다. 조선시대의 대중국 외교 공간 역시 명·청(明清)을 거치는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이념을 표출하는 무대로 기능하였다. 황제의 명을 받들고 온 중국 사신과 조선 국왕 및 관원 간의 만남은 정형화된 의례 또는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반복되었고, 추상적인 외교 이념은 이러한 만남의 공간 속에서 실제 경험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외교 공간은 단순히 필요에 의해 세워진 시설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 행위가 이루어지던 공간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인 서술에 머물러 있다. 외교사 관련 연구 성과가 일일이 나열해 설명하기도 벅찰 만큼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¹ 물론 우리는 중국 사신이 태평관(太平館) 또는 남별궁(南別宮)이라는 객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건립되었는지, 그곳에서는 어떠한 외교 행위가 행해졌는지,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러한 변화가 국제질서 속 조선의 위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등 명쾌한 대답을 내놓기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다. 즉, 중국 사신이 조선에서 가장

1 조선시대 한중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의 통시대적 흐름 및 관련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2018,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을 참조.

오랜 시간을 보냈던 객관에 대한 이해는 의외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궁금증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이현진 교수(이하 ‘저자’)가 조선시대 태평관과 관련한 방대한 사료를 집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출간한 『태평관-조선과 중국사신의 외교공간』(이하 ‘본서’)은 조선의 외교의례를 공부하는 서평자에게는 더 반가운 소식이었다. 본서는 저자가 이미 발표한 네 편의 관련 연구논문을 넘어² 조선 전 시기에 거쳐 태평관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중심으로 파생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담아낸 독보적인 저작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본서의 구성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뒤 이어서 학술적 의의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소한 제안을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구성과 내용

본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6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장절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론

제1장 고려시대 객관의 양상

제1절 영빈관(迎賓館)과 회선관(會仙館)

제2절 순천관(順天館)과 기타 객관들

- 2 이현진, 2018, 「조선전기 국왕 국장(國葬)에서 명(明) 사신의 의례설행과 그 공간」, 『朝鮮時代史學報』 85; 이현진, 2023a, 「조선시대 개성 太平館의 역할과 위상」, 『奎章閣』 62; 이현진, 2023b, 「조선후기 국왕 국장에 弔問 온 청 사신의 설행 의례와 의례 공간」, 『震檀學報』 140; 이현진, 2024, 「조선 초 한양 太平館의 건립과 운영」, 『東洋古典研究』 94. 이 외에도 60여 편이 넘는 연구 성과에서 저자는 꾸준히 태평관과 남별궁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왔다.

제2장 개성 태평관: 역할과 위상

제1절 태조~태종대 개성도읍기 개성 태평관

제2절 태종대 한양 천도 이후 개성 태평관

제3장 한양 태평관: 기능과 위상

제1절 임진왜란 이전 한양 태평관

제2절 임진왜란 이후 한양 태평관

제4장 한양 태평관: 수리와 활용

제1절 임진왜란 이전 수리와 규모 변화

제2절 임진왜란 이후 수리와 영역 활용

제5장 한양 태평관: 제반사(諸般事)

제1절 태조~예종대: 조선-명 관계의 정비

제2절 성종~선조대: 조선-명 관계의 안정화

제3절 태평관 소속 관원 규정

제6장 한양 태평관: 의례

제1절 연향(宴享)·배절(拜節)·견두목절차(見頭目節次)·친영례(親迎禮)

제2절 영사시제급조부의(迎賜諡祭及弔賻儀)

제3절 유조의(留詔儀)

결론

본서는 제1장에서 고려시대 객관의 양상을 정리하고, 제2장에서는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던 개성 태평관의 역할과 위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3장~제6장에서는 한양 태평관의 기능과 위상, 객관의 구조와 규모,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외교 활동이라는 주제별 구성을 취하며 태평관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시 시기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독자는 조선 전 시기에 걸친 태평관의 변화 양상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 사신의 객관 운영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임진왜란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아 서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객관의 역할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태평관과 관련한 사료 자체가 조선 전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제5장과 제6장에서 다루는 다양한 외교 활동과 의례 역시 조선 전기의 사례에 비중을 두어 서술되었다.

본서의 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론이다. 모든 연구에서 서론은 저자의 연구 동기 및 문제의식을 설명하는 도입부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저자에 따르면 본서의 문제의식은 종묘를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종묘 연구를 위해 조선의 국상 절차를 검토하던 중 중국에서 조문을 위해 파견된 사신이 조선에서 수행하는 여러 의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사신이 태평관에서 특정 의례를 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태평관은 명 사신의 객관, 남별궁은 청 사신의 객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청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던 시기에도 국가전례서에는 여전히 의례 공간으로 태평관이 규정되어 있었다.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태평관과 관련 의례의 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점차 태평관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연구자라면 사료의 집적은 시기순에 따라 조선 건국을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한양 천도 이후에도 개성에 태평관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관련 기록이 늦어도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실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개성 태평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계속 사료를 정리해가면서 저자는 또 하나의 의문점을 발견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태평관 관련 기록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태평관이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거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실제 사료의 양상은 그러한 통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저자는 서론에서 태평관에 관한 연구가 특정 시기나 단편적 사실에 머물 것이 아니라, 조선 전 시기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제 본론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조선시대 객관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고려시대 객관의 양상을 정리하였다. 저자는 조선의 객관 제도가 고려의 영향을 일정 부분 계승하였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고려 수도 개경에 존재하였던 객관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추적하였다. 『고려사』·『고려사절요』·『고려도경』 등을 활용하여 영빈관(迎賓館)과 순천관(順天館) 등 주요 객관의 기능과 위상을 검토하고, 송·거란·여진 등 외국 사신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객관이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고려 역시 외교 상대에 따라 차등적인 객관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본서의 본론은 조선시대 개성의 태평관을 다룬 제2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고려의 정동행성을 수리하여 태평관으로 삼았다는 사실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 개성에 존재하였던 태평관 자체를 독립적으로 검토한 경우는 없었다. 특히 한양 천도 이후에도 개성 태평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속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개성 태평관의 성립 배경과 상징성, 운영 양상과 변화 과정을 장기적 시야에서 추적하였다. 특히 태평관 관련 기록이 개성 지역 지리지(地理志)와 지도에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개성 태평관이 단순히 조선 초기에만 기능했던 공간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한양 태평관의 존재로 인해 개성 태평관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저자는 두 공간이 동일한 관명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파악하였다.

저자는 우선 정동행성이 왜 태평관으로 전환되었는지에 주목하였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는 이미 여러 객관이 존재하였음에도, 조선 조정이 굳이 정동행성을 객관으로 활용한 이유가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단순한 공간 활용의 차원을 넘어 원 간섭기의 상징성을 지닌 정동행성을 새로운 외교 공간으로 전유함으로써 조선 왕조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

을 드러내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즉, 태평관이라는 객관은 단순한 사신의 숙박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외교 질서와 정치적 상징성을 담아낸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개성 태평관이 한양 천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존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한양 천도 이후 개성 태평관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소멸하였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실제 자료를 검토해보면 개성 태평관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와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일정한 객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물론, 국왕의 행행 시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도 개성 태평관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은 이 공간이 여전히 의미 있는 외교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3장에서는 한양 태평관의 기능과 위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저자는 한양에 태평관을 설치하면서도 개성 태평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에 주목하였다. 이는 단순히 동일한 이름을 반복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태평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조선의 대중국 외교질서 속에서 일정한 상징성, 즉 ‘수도에 설치한 명 사신을 위한 주요 객관’(65쪽)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저자는 한양 태평관의 위치와 기능, 공간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태평관 내부에는 사신의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공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객관 내부 구조 역시 엄격한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태평관은 단순히 명 사신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본이나 여진 등 다른 외국 사신이 머무는 사례도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임진왜란 이후 태평관의 존속 여부에 관한 검토였다. 관찬 자료에는 태평관이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다만 후대에 관련 내용을 담은 몇 가지 문헌에서 인조대 홍제원에 객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철거하였거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고 서술하여, 늦어도 선조 35년(1602) 인목왕후 가례 이후로 태평관이 사라졌다는 전제가 생겨났다. 그런데 왜 그 이후에 편찬된 문헌과 지도에는 태평관이 지속적으로 등장할까. 저자는 그 해답을 선조대부터의 관찬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해가며 찾았다. 남별궁이 등장한 이후에도 태

평판에서는 의례를 포함한 외교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궁궐 중건 전에는 명 사신의 객관으로서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였음은 물론이고, 국왕과 명 장수의 접견 장소 그리고 황제의 조칙을 수령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다만 궁궐이 중건된 이후로는 남별궁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태평관은 품계 낮은 차관을 위한 보조 객관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전에 비하여 위상에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객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제4장에서는 한양 태평관의 규모와 수리, 그리고 실제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저자는 태평관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간 구조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군주의 명을 받들고 공식적으로 파견된 중국 사신이 장기간 머무르는 공간이라면 단순한 숙소 이상의 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신과 수행 인원이 거처하는 공간뿐 아니라 이들을 접대하기 위한 연향 공간, 물품 보관 시설,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 조선 측 관리가 대기하는 장소 등 다양한 부속 시설이 함께 갖추어져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저자는 태평관의 핵심 건물과 부속 건물을 가능한 한 모두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태종대에는 주변 사찰이 태평관 영역 안으로 편입되면서 공간이 대폭 확장되고, 부속 건물 역시 상당한 규모로 정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태평관의 중심에는 대청(大廳)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좌우에는 동헌(東軒)과 서헌(西軒)이 배치되었다. 또한 마당 좌우에는 중국 사신이 거처하는 동랑(東廊)과 서랑(西廊)이 마련되어 있었음도 밝혀냈다. 이어 세종대에는 어실(御室)이 새롭게 조성된 이후 여러 차례 대규모 수리가 진행되었으며, 사료에서 광활하다고 표현될 정도로 태평관의 규모와 영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대문과 중문, 행랑, 월대(月臺), 새문(塞門), 주방, 후청(後廳), 관반청(館伴廳) 등 다양한 부속 구조물의 존재도 확인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공간 확대와 구조 변화가 단순한 숙박 시설의 정비 차원이 아니라, 점차 복잡해지는 대중국 외교와 의례 운영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해하였다.

아울러 조선 후기 태평관의 변화 양상 역시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었다. 인조 대 이후 사료에 등장하는 태평관은 더 이상 성대한 외교 공간의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점차 쇠락해가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실제 기록에는 태평관이 ‘무너지고 훼손되어 형편이 없다’, ‘퇴락하여 형편이 없다’, ‘방치되어 형편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1648년(인조 26) 도성 입구 가까이 인 홍제원에 참(站)이 설치된 이후에는 태평관의 객관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사실상 ‘빈 터’에 가까운 수준으로 쇠퇴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쇠락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국가전례서에는 여전히 태평관이 외교 의례의 공간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저자는 『국조속오례의』 「국조오례의고이(國朝五禮儀考異)」의 세주 가운데 ‘태평관은 지금 남별궁이 되었다’는 기록을 언급하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에는 태평관의 기능을 사실상 남별궁이 계승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유명무실해진 태평관은 조선 말에 이르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점차 사라져, 그 기능과 상징성마저 희미해졌다.

제5장에서는 태평관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다양한 사건과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저자는 태평관이 단순히 중국 사신이 숙박하고 연향을 받는 공간에 그쳤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신이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였다. 특히 중국 사신과 조선 조정 사이에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교섭과 사적인 교류 역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저자는 관련 사료를 폭넓게 검토하여 태평관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과 사건을 정리하였다.

태평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활동은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다. 그러나 실제 기록에는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사례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연향 도중 병을 이유로 자리를 떠난 사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선 관원이 문병을 가는 경우가 있었으며, 갑작스럽게 사신이 사망하여 널을 마련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또한 시기적으로 보면 태평관은 오히려 명 사신이 머물지 않는 기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사신이 없는 시기에는 조선 관원을 위한 연회 장소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저자는 태평관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과 용례를 함께 정리하고, 태평관에 소속된 관원의 구성과 역할도 검토하였다. 결국 제5장은 태평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조선과 명 사이의 외교 관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부분이다.

제6장에서는 태평관에서 설행된 각종 의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저자는 제5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태평관에서 이루어진 의례의 종류와 분량이 예상보다 훨씬 방대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의례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켜 서술하였다. 특히 저자는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전부터 조선 국왕의 국상 과정에서 중국 조문 사신이 수행하는 의례와 그 공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서 전체를 집필하게 된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우선 저자는 객관이라는 공간의 성격상 가장 기본적인 의례는 연향이었다고 보았다. 중국 사신이 조선에 도착하면 하마연(下馬宴)을 비롯한 각종 연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신 영접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의례였다. 저자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편찬된 국가전례서를 두루 검토하고, 『통문관지』·『동문회고』 등 관련 자료까지 활용하여 연향의 절차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어 태평관에서 시행된 여러 의례를 유형별로 검토하였는데, 여기에는 절에 배례하는 ‘배절(拜節)’, 조선 국왕이 두목을 만나는 ‘견두목절차(見頭目節次)’, 왕실 가례와 관련된 ‘친영례’, 국왕과 왕후의 국장에서 중국 사신이 수행하는 ‘영사시제급조부의(迎賜諡祭及弔膊儀)’, 황제의 조서를 조선에 남겨두는 ‘유조의(留詔儀)’ 등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영사시제급조부의’는 저자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주제이다. 이 의례는 대행왕의 사망에 대해 황제가 보낸 시고(諡誥)·제문(祭文)·부물(賻物)을 사왕(嗣王)이 모화관에서부터 맞이하여 태평관에 안치한 뒤 행례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의례가 태종·세종대 상왕의 사망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세종의 국상과 문종의 책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조선에서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였다. 즉, 모화관에서부터 사신을 맞이하되 흥례와 관련된 의물은 우선 태평관으로 보내고, 국왕은 곧바로 경복궁으로 들어가 책봉고명과 면복을 받은 뒤 다시 태평관으로 돌아와 의례를 행하는 방식이었다. 저자는 문종대의 사례는 태종·세종대에 ‘이행’된 ‘영사시제급조부의’가 ‘미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국가전례서에 수정된 절차를 수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또한 저자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주목되지 않았던 ‘유조의(留詔儀)’라는 의례를 발견하고, 조선에 황제의 조서가 남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조서를 봉안하는 절차와 공간, 국가전례서에 ‘유조의’가 별도의 의주로 명문화되지 않은 이유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태평관 자체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외교문서와 관련된 각종 절차와 문서의 봉안 공간까지 함께 검토함으로써 조선의 대중국 외교 질서가 실제 공간과 의례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III. 성과 그리고 제언

본서의 학술적 성과는 조선시대 태평관에 대한 종합적 연구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굳이 그 특징을 꼽자면 단연 ‘방대함’과 ‘치밀함’이라고 할 수 있다.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두 요소가 본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바로 이 점이 본서의 가장 큰 의의라 생각된다.

저자는 태조대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에 파견된 중국 사신들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이들의 직책과 이름, 체류 기간 등을 일일이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 성과를 참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보완하여 별도의 부표까지 작성하였다. 조선에 파견된 사신의 수가 적지 않고 조선 출신 환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체류 기간도 길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료 정리와 보완 작업에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조대 이후

태평관 관련 사료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는 하나, 그 역시 간단한 작업은 아니었다. 이미 남별궁이라는 새로운 객관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평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속하고 기능하였는지를 다시 정리하고 분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자는 1393년(태조 2) 고려의 정동행성을 수리하여 ‘태평관’이라 개칭한 시점부터, 1902년(광무 6, 고종 39) 제작된 「서울지도」에 ‘태평관’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순간까지를 모두 검토하였다. 말 그대로 조선왕조 500년의 시간을 하나의 공간을 중심으로 추적한 셈이다.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한 저자의 학문적 성실함과 자료 검토의 집요함은 후학으로 하여금 절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방대한’ 자료 검토는 기존 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실록 등 당대 사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임진왜란으로 태평관이 소실된 후에는 더 이상 의미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전제가 학계에 안일하게 수용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저자는 오히려 사료 자체에 집중하여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태평관이 외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혀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도성이 크게 파괴된 상황 속에서 태평관이 황제의 조칙을 수령하는 궁궐 정전(正殿)과 같은 기능을 대체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란 이전까지 태평관은 기본적으로 중국 사신이 머무르고 연향을 받는 객관의 기능에 충실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후에는 정전을 대신하여 군신 관계를 표명하는 의례 공간으로까지 활용되었다. 이는 태평관이 왜란 이전에 조선의 대명 외교질서를 상징하는 핵심 외교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궁궐 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도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사례 역시 검토하였다. 1606년(선조 39) 4월, 칙서를 수령하는 의례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조선 조정과 명 사신 사이에 장소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다. 조선 조정은 황제의 칙서를 맞이하는 절차상 국왕이 공경의 뜻을 표하는 지영(祗迎)을 행해야 하는데, 이를 사신의 숙소인 남별궁에서 시행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의례는 태평관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남별궁이 사신의 거처로 활용되고 있었기에, 국왕이 군신 관계를 표명하는 의례 공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궁궐 정전마저 훼손된 상황 속에서, 명을 향한 사대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은 태평관이 사실상 유일하였던 셈이다. 추상적인 외교 이념이 특정 공간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기존의 학설을 재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연구 지평 역시 넓혀주었다. 우선 개성에도 ‘태평관’이라는 이름의 객관이 존재하였음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관찬 사료뿐 아니라 각종 지리지, 조선 관원의 일기, 중국 사신의 사행록 등 다양한 자료를 폭넓게 검토하면서 개성의 객관 역시 오랫동안 ‘태평관’이라는 명칭을 유지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지도(古地圖)를 활용하여 개성 태평관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종대 이후 확인되는 ‘유조의(留詔儀)’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주목된다. 사실상 학계에서 ‘유조’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자가 확인한 ‘유조’, 즉 황제의 조서를 조선에 남겨둔 사례는 총 11건이었으며, 대체로 환관 사신보다는 명 조정의 문관 사신이 파견되었을 때 유조를 청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밝혔다. 또한 남겨진 조서의 내용 역시 명 황실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중심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이 11건의 사례가 모두 태평관에서 시행된 것은 아니며, 이 가운데 4건이 태평관에서 거행되었다.

사료의 단순한 정리를 넘어서는 해독의 ‘치밀함’ 역시 본서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본서는 세부 주제별로 정리된 방대한 사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곳곳에서 감탄을 자아내지만, 특히 서평자로 하여금 깊은 반성을 하게 만든 지점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글자 하나, 자칫 단순 오류로 치부할 수도 있는 기록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민하였다는 점이다.

저자는 문헌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는 기록들을 면밀히 정리하면서, 태평관을 지칭하는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실제 사료에서 태평관은 객관, 사신관, 공관(公館), 관소(館所), 하처(下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앞서 ‘태평관’이라는 명칭이 한 차례 등장한 이후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관(館)’이라고만 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인조대 이후 태평관 관련 기록이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경종실록』과 『정조실록』 등에 등장하는 태평관 기록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같은 시기의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등을 함께 대조해보면, 실록에 등장하는 ‘태평관’이라는 표현은 편찬 과정의 오류일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를 선불리 오류로 단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 자료들을 교차 검토하며 가능한 여러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고, 단정적인 결론 대신 하나의 문제로 남겨두었다. 편협한 판단을 유보한 채 끝까지 사료 자체에 근거하여 검토를 이어가는 이러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본서 전체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주었다.

짧게나마 추려본 본서의 학술적 의의는, 저자가 서론에서 밝힌 ‘기존 객관 연구의 확대와 심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21쪽)는 바람을 이미 충분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충족시켰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후학의 입장에서 가벼운 제언 몇 가지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의례의 ‘미이행’이라는 표현에 대해 약간의 의견을 덧붙이고 싶다. 저자는 국상 이후 조문 사신이 시고·제문·부물을 받들고 와 거행하는 여러 사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 동선과 절차를 매우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국가전례서에 수록된 「영사시제급조부의」가 원칙대로 ‘이행’되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하고 ‘미이행’되었는가에 두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그러나 서평자 역시 외교의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대명 외교의례에 한정한다면 국가전례서에 수록된 의주는 어디까지나 일종의 매뉴얼에 가까우며, 절대적으로 성역화된 규범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조선 전기의 외교의례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되거나 생략될 수 있었고, 때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하였다.³ 실제로 조선 조정은 외교의례를 거행해야 할 때마다 문례관을 파견하여

3 조선 전기 외교의례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융통성 및 국가전례서 의주를 시의성 있게 활용하였던 조선 조정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토된

사신과 절차를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는 의주를 새롭게 상정하였다. 따라서 건국 초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 책봉을 받은 ‘조선국왕’의 자격으로 선왕을 위한 시고·제문·부물을 맞이하는 「영사시제급조부의」가 문종대에 그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정에서는 이를 굳이 또 다른 의주로 정리하여 국가전례서에 수록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영사시제급조부의」는 대명관계의 측면에서 아직 책봉고명을 받지 못한 ‘권서국사’가 주체인 의례였기 때문이다. 권서국사가 수행하는 의례는 원칙적으로 국가전례서에 수록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으며, 따라서 문종대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 대응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권서국사자의 책봉이 선왕의 조문보다 먼저 거행되는 이유를 새롭게 즉위할 제후왕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였기 때문(267쪽)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권서국사’라는 존재는 원칙적으로 선왕의 조문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책봉 절차를 거쳐 ‘조선국왕’의 자격을 확보해야 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보다 적절해보인다.⁴ 물론 이러한 원칙은 어디까지나 조문과 책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의례의 시공간 속에 한하여 적용되는 문제였다. 따라서 「영사시제급조부의」는 ‘조선국왕’의 자격으로 온전히 시행될 수 있는 원칙적 의례로서 국가전례서에 수록된 것이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였다는 측면도 함께 부각되었다면 논의의 폭이 넓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소한 아쉬움을 두 가지만 더 적어본다. 하나는 조선 후기 개성 태평관의 위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조선 후기까지 개성에 태평관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강

바 있다. 대표적으로 이규철, 2015, 「조선 성종대 외교의례 변경에 대한 논의와 대명 의식」, 『역사와 현실』 98; 최중석, 2018, 「鞠躬인가 五拜三叩頭인가?」, 『한국문화』 83; 최중석, 2019, 「가마를 탈 것인가 말을 탈 것인가? 조서와 칙서를 함께 맞이할 것인가 별도로 맞이할 것인가?」, 『한국문화』 87; 윤승희, 2022, 「조선 초기 賜賻·賜諡·賜祭儀禮와 明禮의 영향」, 『한국학논총』 57 등이 있다.

4 윤승희, 2018, 「조선 초기 조선국왕 책봉의례의 정비와 그 특징」, 『朝鮮時代史學報』 85, 105~107쪽.

조하는 차원에서 <도판 4>(57쪽)를 삽입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된다. 특히 숙종과 영조가 개경 행차 시 숙소로 태평관을 검토하였으나, 성 밖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기록과 연결하여, 「1872년지방지도」에 표기된 태평관이 실제로 서소문 밖에 있었음을 시각적으로 제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개성의 성곽 구조는 한양 도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도판만으로는 자칫 태평관이 한양의 서교(西郊)와 유사한 외곽 공간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물론 태평관이 서소문 밖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성의 경우 서교는 나성(羅城) 서문인 선의문(宣義門) 일대를 의미하며, 그 주변에는 영빈관도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의문 밖 영역까지 포함된 보다 넓은 범위의 도판을 함께 활용하여, 태평관이 단순한 성외 공간이 아니라 여전히 개경 중심부 외교 공간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다면 더 많은 사실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태평관에서 이루어진 무역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본서는 저자가 태평관에서 설행되던 의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국가의례 연구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축적해온 연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논의가 의례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전근대 외교에서 무역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공간’으로서의 태평관에 대해 지면을 좀 더 할애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조선 전기 명 사신 일행과의 무역은 이른바 ‘사신관무역(使臣館貿易)’이라 불렀는데, 그 명칭 그대로 명 사신의 관소인 태평관에 시전 상인들이 찾아와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회동관 개시에 대한 명 조정의 태도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 사신과의 무역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⁵ 결국 태평관은 사신의 숙소이자 의례 공간이면서 경제 활동까지 이루어

5 이재경, 2022, 「조선시대 명 사신에 대한 외교경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6~87쪽.

지는 복합적 공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무역 정책이나 사신과의 갈등 등 전근대 외교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었던 무역의 현장으로서 태평관의 모습 역시 함께 조명되었다면 더욱 풍부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굳이 덧붙인 서평자의 몇 마디가 결코 본서의 학술적 의의를 낮추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조선 전 시기에 걸친 방대한 문헌자료의 정리와 활용, 조선의 대중국 관계에 대한 신중하고도 치밀한 접근, 그리고 정확한 사료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존 학설에 대한 분명한 비판은 본서가 지닌 학술적·연구사적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태평관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통해 조선의 외교와 의례, 국제질서와 공간 인식을 장기적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서는 앞으로의 ‘외교공간’ 연구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서 출간 이후 저자는 이미 조선 후기 객관 남별궁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⁶ 후속 성과들이 축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조선 후기 외교공간과 대청관계를 둘러싼 또 다른 담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이현진, 2026, 「선조대 南別宮의 기능과 주요 客館의 교체」, 『청계사학』 31.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의 또 다른 디딤돌 바위처럼

— 『제국의 성 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박정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25)

장원아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I. 머리말
- II. 제국의 성 관리 역사 속 “얼굴을 달리하며 반복해서 등장”한 폭력
- III. ‘성 관리 역사’의 역사쓰기, 모순을 비판하며 탈식민과 젠더 관점으로 나아가기
- IV. 이어지는 질문의 가능성과 과제
- V. 맺음말

I. 머리말

『제국의 성 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2023년 8월 11일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 〈내셔널리즘과 성동원, 그 연속과 단절: 국가의 성관리 체제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이어진 성과이다. 필자들은 발표문을 다듬어 원고를 집필해 2025년 말 책이 발간되었다. 그 후 2026년 3월 27일에는 북토크 ‘지속되는 폭력, 연결된 목소리들’이 열리기도 했다. 학술대회가 기획되고 글의 단초가 마련된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책이 나오고 독자에게 다가간 시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세계는 어떠했던가.

한국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국가들의 정세는 숨가쁘게 변화했다. 또한 ‘전쟁’의 소식이 뉴스를 점령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2023년 10월부터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과 집단학살이 이어지고 있고, 책이 출간된 직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깊게 연결된 ‘전쟁’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과거사실만이 아닌 현재진행형임이 깊게 되새겨지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한국에서는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일본과 미국의 정권 변화를 비롯한 ‘동북아’ 질서도 변동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권 당시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져 폐지가 논의되기도 했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고, 성평등가족부가 소관부처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개정되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담은 것이다. 그리고 5월에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6년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가 철거되었다. 역사부정론자들에 의한 맞불시위와 훼손 우려 속에서 소녀상은 바리케이드로 ‘보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방지 및 소녀상 ‘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역설적으로 소녀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격리’를 만들기도 했다. 바리케이드의 존재는 그만큼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가짜라고 주장한 역사부정론자들의 공격이 그동안 거셌음을, 그리고 그에 맞서 ‘소녀상’으로 재현 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컸음을 알려준다.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후부터 현재까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여러 논란과 함께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생존자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지는 ‘포스트 피해자’ 혹은 ‘포스트 메모리’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생생한 증언으로 역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에 앞장섰던 이들이 부재하게 되면, 남은 이들은 이제 어떻게 기억을 확장하고 연결해나갈 것인가. 이러한 여러 변화의 국면을 공유하면서, 이 책이 국경을 넘어 역사부정론의 네트워크가 부상하고 혐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202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공간의 치열한 산물임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 책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시공간적으로 좁아웃하여 전체 역사 속에서 조감하기 위하여 기획”¹된 것으로,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어 나타난 ‘제국의 성 관리 역사’를 검토하여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여성을 희생시킨 폭력의 본질을 밝히려 한다. 이 과제를 위해 ‘책머리에’에서는 ‘공창제’라는 모순적 개념이 아니라 ‘제국의 성 관리 정책’의 맥락 속에서 ‘위안부’ 문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위안부=공창’, 즉 ‘위안부는 자발적 성판매여성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역사부정론자의 혐오 언설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위안부는 공창이 아니다’라는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을 비판한다. 역사부정론자의 ‘위안부=공창’ 주장은 성을 판매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에 대한 구분, 이른바 ‘창녀’와 ‘성녀’의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여성을 규율하고 통제함으로써 가부장적 지배질서를 재생산하는 핵심 기제인 성매매여성 혐오에 기

1 박정애, 2025, 『책머리에: 시공간과 연루되며 생산적 논의를 만들어 나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을 위하여』, 박정애 편, 『제국의 성 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12쪽. 이하 이 책의 인용은 본문 중 괄호와 쪽수로 표기한다.

반한다. ‘보호할 만한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창’이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역사부정론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 모두에서 나타난 것이다. ‘위안부’제도와 ‘공창제’의 관련성을 주목하기보다 이 둘 사이에 구분의 경계선을 긋고, 전쟁 시기에 일어난 특수한 범죄로서 ‘위안부’제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론장에서 강화되었다.

역사해석에 바리케이드가 쳐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책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국 일본의 성 관리 정책의 맥락에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제국주의와 군사주의가 엮이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었던 세계사적 맥락 속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zoom in’하여 그 위치와 의미를 살피려 한다. 제국주의적 성 관리 정책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젠더폭력의 문제와, 이를 단지 공통적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인 인종, 민족, 계급의 차별에 대해 교차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책은 2부로 나뉘진 구성을 취했는데 제1부는 ‘제국의 성 관리 역사’를 다루며, 일본과 나치 독일에서 행해진 여성의 성과 신체의 관리 양상을 살핌으로써 국가권력이 주도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속성을 역사적으로 살폈다. 제2부는 ‘일본군 위안부 및 성 관리 역사 연구의 역사’를 다루며, 전시 성폭력 연구의 연속과 확장의 가능성을 짚고 역사부정론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는 젠더 관점의 필요성 및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군‘위안부’연구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며, 『제국의 성 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기한 논점을 살펴보려 한다.

II. 제국의 성 관리 역사 속 “얼굴을 달리하며 반복해서 등장”한 폭력

본격적으로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보자. 먼저 제1부 ‘제국의 성 정치, 전쟁과 성

관리 시스템’은 3개의 글로 구성되었다. 1장 「‘가라유키상’에게/로부터 보는 성과 신체의 관리」(다케모토 니나, 2장 「일본 공창제도의 근대화와 식민주의」(하야시 요코), 그리고 3장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와 일본군 ‘위안소」(레기나 필호이저)이다. 세 글은 제국주의 일본과 나치 독일 시기의 성 관리 정책 및 담론, 그리고 그 속의 여성들에 대해 역사학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시야에서 놓지 않음으로써 관련 연구의 확장가능성과 의미를 고민하게 한다.

다케모토 니나는 1장 「‘가라유키상’에게/로부터 보는 성과 신체의 관리」에서 가라유키상(唐行さん)의 기원과 일본 정부의 방침을 살피고, 당시 일본 사회가 가라유키상을 바라본 담론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가라유키상 당사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경험을 해석했다. 가라유키상은 규슈 북서부에서 바다를 건너 돈별이[‘데카세기(出稼ぎ)']를 나간 이들을 부른 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해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19세기 후반 나가사키를 비롯한 규슈의 항구는 상하이, 싱가포르 등 각지와 연결되어 많은 여성이 해외로 이동했다. 일본 정부는 여성이 국외로 끌려가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강요되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해외 확장’이라는 큰 방침을 위해 ‘부녀의 해외도향 단속’을 관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창부필요론’을 역설했던 것처럼 식민을 위해 여성의 관리된 성과 신체를 일본인 남성에게 공급할 필요가 부상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추업 금지’나 ‘부녀 보호’를 내걸면서도 실제로는 ‘팽창’ 정책과 연동하여 식민지 및 세력권에 공창제도를 이식하고 여성의 신체를 제국 통치의 자원으로 동원했다.

하야시 요코는 2장 「일본 공창제도의 근대화와 식민주의」를 통해 일본 공창제도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식민주의와 결합된 양상을 검토했다. 공창제도의 근대화는 서구의 군대가 자국 병사들을 위해 여성의 성병검사 의무화를 일본에 전파하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이뤄졌다. 일본은 이 같은 제국주의적 성 관리 정책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며 제도를 형성해갔고 식민지에도 이를 확대했다. 여기에서 ‘근대적 공창제도의 확대’는 구조적 문제로 제시되는데, 성병에 걸린 여성

이 추방을 당하는 제도하에서 주변부, 즉 식민지나 점령지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다시 성 관리 제도가 확대되면서, “제국 주변에 자리 잡은 자들에게 더 큰 위생의 리스크를 짐 지우는 구조”(72쪽)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폭력적 제도에 대응한 ‘폐창운동’ 또한 영국에서 기원한 담론을 받아들이며 제국주의적 의식을 내면화했다. 즉, 일본의 근대 공창제도와 폐창운동 양자 모두에 식민주의가 내포되며, 제국주의나 그 군대에 대해 무비판적이었던 것이 ‘위안부’ 제도의 고안과 시행으로 이어졌다.

레기나 뮐호이저의 3장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와 일본군 ‘위안소’」는 전시 성폭력을 둘러싼 관점을 유럽으로 확장하여 일본제국만이 아닌 다른 ‘제국’의 성 관리 정책을 살피고 비교함으로써 더욱 거시적인 고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글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시기 성폭력 문제 연구가 최근 유럽에서 크게 증가했다. 나치 독일 국방군과 일본군의 성 관리 제도 비교는 양자의 연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특히 유럽권 연구에서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원고’의 부재, 생존 여성들의 증언이 부족하다는 점은 중요한 차이의 기반이다.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폭력을 분석하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개념이 부재한 가운데 여성의 경험은 오랫동안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럼에도 1990년대 이래 질문과 연구가 확장되었고, 나치 독일 국방군이 군인을 위해 위생적이고 통제된 성매매를 “실용적으로 조직하고 업소와 여성을 관리”(102쪽)했다는 정책을 살필 수 있다. 독일 국방군의 정책은 점차 억압적으로 변해 여성에 대한 강제 입원과 수용, 강제 성매매 및 ‘성적 노예화’의 측면 또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독일군과 일본군을 비교하면, 양자의 정책은 모두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욕’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고, 모두 내셔널리즘, 성차별, 인종 차별에 기초했다. 나치 독일은 반유대주의에 입각한 인종주의적 성격을 더욱 크게 드러냈으며, 일본의 제도가 독일보다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 제1부의 글은 모두 ‘제국의 성 관리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논

의의 대상이라 할 ‘성 관리 정책’이란 무엇인가? 가라유키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및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책, 근대 일본의 ‘공창제도’, 나치 독일 국방군의 성매매 정책 등의 공통점은 모두 제국주의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남성 식민자 및 군인들의 ‘성적 위안’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가 필수적이라 보았으며, ‘위생 관리’를 위해 여성에게 성병검사를 의무화시켰다는 것이다. 모두 성병 감염은 여성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남성은 의무 검진을 받지 않았다. 일본의 공창제도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의무화하고, 허가증을 발급하며, 부금(賦金)을 징수하는 등 여성의 성과 신체를 관리하는 것”(38~39쪽)으로 설명되며, 그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병검사를 공창(창기)에 대해 의무화한 것”(63쪽)이라 지적된다. 나치 독일 국방군의 정책은 성병 확산과 안보 위험을 막고 ‘혼혈 아동’이 태어나는 것, 즉 “의학적, 군사적 그리고 ‘인종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하여 통제”(106~107쪽)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제국 일본에서 이 같은 성병검사는 제도적으로 ‘창기’로 규정된 이른바 ‘공창’만이 아니라, 이른바 위험성이 있는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히로시마의 사례로 공창뿐 아니라 사창으로 간주된 접객업 종사 여성들에게 성병검사 진단서 제출을 명령하거나(69쪽), 러일전쟁기 만주에서 ‘창기, 예기, 나카이, 급사녀, 하녀’, 즉 법률혼을 하지 않은 16세 이상 여성에게 성병검사를 시행한 것(71쪽)이 제시된다. 보통 ‘공창제도’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그 실체는 ‘공창’ 이상을 포괄하는 ‘성 관리’ 정책이었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생’은 여성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손님을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창관을 위한 것이었다”(50쪽)는 분석에서도 나타나듯 ‘위생’이란 남성의 필요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었다.

‘신체와 생식을 관리당한 여성’의 양상이 다양했다는 것 또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가라유키상과 ‘위안부’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55쪽), 그리고 “강제적이었는지, 당사자의 협의가 있었는지, 폭력적인 것인지 아닌지, 상업적인지 아닌지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다”(127쪽)는 서술로 나타나듯이 필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료에 드러나는 복잡하고 모호한 현실을 염두에 두면

서 더욱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성 관리 정책의 복잡성을 단지 ‘공창제’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며, 이는 제2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Ⅲ. ‘성 관리 역사’의 역사쓰기, 모순을 비판하며 탈식민과 젠더 관점으로 나아가기

제2부는 일본군‘위안부’ 연구 및 성 관리 역사의 연구사(historiography) 속에서 논쟁적인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역사부정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공론장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공창제’의 연관성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역사해석의 장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와 같은 격리선들을 본격적으로 문제삼으며 정면돌파를 시도한다. 총 4개의 글로 1장 「전시 성폭력과 전후 성폭력 ‘문화’의 연속성」(장수희), 2장 「식민지 여성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하는 ‘공창제’ 개념」(박정애), 3장 「일본의 ‘위안부’·공창제도 역사에 대한 연구」(후지메 유키), 4장 「전시 성폭력 연구의 확장과 누락된 목소리들」(백재예)로 구성되었다. 역사학, 문학,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다양한 쟁점을 제시했는데, 먼저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수희는 「전시 성폭력과 전후 성폭력 ‘문화’의 연속성」에서 폭력을 ‘보통’의 것이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구성해온 ‘가해의 시스템’에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문학작품과 미디어, 인터뷰 등 여러 텍스트를 통해 폭력이 시공간을 넘어 반복되고 중첩된 모습을 분석한 것이다. 전시 여성 성폭력은 오랫동안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가해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때는 ‘합법’이었고, ‘보통’이었다는 말은 많은 국가폭력의 대행자들이 했던 상관이나 법률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과 닮아 있다. 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자각, 가해자로서의 자각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상상력과 연결된다. 일본군‘위안부’를 다룬 서사를 다중의 시간성과 공간성 속에서 재독하면 폭력의

‘인지불가능성’을 만드는 폭력의 관통과 중첩이 드러난다. 이러한 관통과 중첩을 겹쳐 인식하기 위해, 근대와 현대·전시와 전후 등으로 시공간을 단절하고 일직선으로 인지하는 세계관이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박정애는 「식민지 여성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하는 ‘공창제’ 개념」에서 ‘공창제’에 대한 통념을 비판한다. 일본군‘위안부’와 공창 관계를 둘러싼 논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지와 식민지, 그 세력권 안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시행된 제국 일본의 성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창제’를 허가받은 합법적 성매매로 오인한 통념 때문에 공창제하에서 여성의 자발성에 따른 성매매 종사와 폐업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생각이 이어졌다. 이 글은 사전 서술과 연구에 나타난 개념을 분석하여, ‘공창제’가 일본제국의 각 지역에서 동일한 성격으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살폈다.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법적으로 등록한 창기, 즉 ‘공창’뿐이 아니라 ‘비면허 여성’인 예기, 작부, 여급 등도 강제적 성병 검진을 받은 것처럼, 식민지의 입장에서 ‘비면허 여성’에 대한 실질적 성매매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비면허 여성’에 대한 성매매 관리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전략이기도 했으므로, ‘공창제’라는 모호한 용어에서 벗어나 일본의 성 관리 정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서 후지메 유키는 「일본의 ‘위안부’·공창제도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일본의 연구 계보와 역사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혐오 담론에 맞서고자 ‘위안부는 공창이 아니다’라고 대응한 역사연구에 대해, 그 자체가 문제를 내포한 사회통념에 입각한 반론이었음을 지적하고 대립 구도를 비판했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에서 일본인‘위안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공창 전력 여부에 좌우되지 않으며, 이들이 당한 학대로 미루어볼 때 피해자로 인정된다”라고 증언한 경험을 회고하고, 그럼에도 21세기 들어 혐오담론이 부상하며 이에 대응해 ‘위안부는 공창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강조되며 일본인 피해자가 보이지 않게 된 역사를 살폈다. 다음으로 합법과 불법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접근의 한계를 지적한다. ‘당시에는 공창제도가 합법

이었다’라는 주장에 맞서 ‘당시에도 강제연행은 위법이었고 폐창운동이 있었다’라는 대항 구도가 등장했는데, 폐창운동은 성매매여성을 ‘추업부(醜業婦)’로 보며 차별을 내면화한 관점에 입각해 있었고 군부만이 아니라 행정과 경찰의 책임을 짊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만 책임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외국군은 상업적 성매매를 이용했는데 일본군은 성노예제를 운용했다’는 반론에 대해, 이 역시 차별적 여성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고, 연합군의 대일점령기에 점령군 ‘위안부’ 정책으로 이어진 성폭력의 연속적 측면, 즉 일본경찰에 의한 성 통제의 연속과 일본정부와 연합군 사이의 공범성을 제시하여, 기존 ‘위안부’ 관련 담론이 재생산해온 차별적 인식을 넘어서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백재예의 「전시 성폭력 연구의 확장과 누락된 목소리들」은 최근 영미권 학술장의 전시 성폭력 연구를 검토하여 이 분야의 연구지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이다. 먼저 전시 성폭력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흐름으로 기회주의적 관점, 인종적 혐오 관점, 젠더 차별 관점, 사회화 관점이라는 네 가지 흐름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최근 연구지형에서 ‘성폭력’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 연구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제시하여 남성 전투원-가해자, 여성 민간인-피해자라는 기존 도식의 해체와 남성·소년 피해자, 여성 전투원 가해자,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포착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어떻게 위치 짓고 다루어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최근 영미권 연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주로 성노예제 및 국제법적 불처벌 문제의 기원으로 다루는데, 여기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현대와 질적으로 다른 과거의 단절된 사례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의 누락’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절’과 ‘누락’이 현재의 전시 성폭력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사적 맥락을 더욱 연계하여 전시 성폭력에 대한 다층적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2부의 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역사가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공창제’

용어의 사용과 관련 인식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공창제는 해당 시기 역사전공자들에게도 혼란스럽게 인식되는 용어이다. 법적으로 ‘공창’이나 ‘공창제’라는 용어는 사용된 바 없으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시되는 개념인 것이다. 창기로 등록한 여성이 ‘성매매 면허’를 가진 여성으로 ‘공창’이라면, 예기·작부·여급으로 등록한 여성은 아예 등록체계 바깥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사창’, 즉 ‘성매매 비면허 여성’이 된다. 그러나 이들 ‘비면허 여성’ 또한 성병검사와 같은 성 관리의 대상이었다는 역사적 실태가 있다. 박정애가 검토했듯 제국 일본이 시행한 ‘공창제’는 식민지, 조차지, 점령지 등 각 정치세력권 지역에 따라 동일한 성격이 아니었다(172쪽). 식민지 조선의 성 관리는 ‘창기’만이 아니라 예기, 작부 등 ‘성매매 비면허 여성’을 아울렀다. “공권력으로서의 면허가 있든 없든, 공권력이 파악하여 성병 검진을 강제하고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성매매 관리 정책의 핵심”(180쪽)이었다. 이 같은 용어의 모호함 또는 모순에도 공창제가 ‘합법 성매매 제도’라는 통념이 학계와 대중을 지배했고, ‘자발성’과 선택에 따른 성매매 종사 및 폐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생각이 뒤따랐다. 그에 따라 ‘공창과 위안부’의 같고 다름에 대한 정쟁이 생겨났고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문제제기를 본격화한 것이다(189쪽).

특히 역사학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연구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흥미롭다. 먼저 박정애의 글은 해방 전후 성매매 정책의 연속성을 주목한 박정미의 ‘목인-관리’ 개념을 검토했다. 박정미는 일제시기 성매매 정책에 대해 ‘공인-관리’인 공창제와 ‘목인-관리’를 아울러 ‘관리 정책’이라고 개념화했는데, 박정애는 일제시기 성 관리 정책은 “합법화와 불법화의 점이지대”²를 대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성매매 정책”이었기에, “‘목인’ 상태로 관리한다기 보다는, ‘비합법’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설계하는 정책”(185~186쪽)이라 지적했다. 즉, 권력의 적극적인 ‘정책적 활용’이므로 ‘목인’이라는 용어는 적절

2 박정미, 2011, 「식민지 성매매 제도의 단절과 연속: ‘목인-관리 체제’의 변형과 재생산」, 『페미니즘 연구』 11-2, 206쪽.

치 않다는 것이다. 이 지점은 책 발간 후 북토크의 토론자들도 주목했는데, 김은정은 제국 일본의 성 관리 정책은 “비법 등록 여성에 대한 성매매 관리 정책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만적이었으며, “이는 불법이나 금지를 전제로 정책 실행의 완급을 조절하는 ‘목인’과는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 ‘목인’이라는 용어는 제도의 창설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비가시화”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³ 식민지배 전후의 연속과 단절 모두에 주목하면서 보다 정밀하게 역사상을 포착할 언어화의 필요성과 젠더사 연구의 진전 가능성을 환기하는 논쟁 지점이다.

다음으로 후지메 유키가 제시한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해석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본인 ‘위안부’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논의되어 당시에도 한국에 소개된 바 있다.⁴ 그러나 그 후 일본에서 ‘위안부’의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역사부정론의 혐오 발언이 부상하면서 일본인의 피해 문제는 다시 ‘불가시화’되었다. 그럼에도 2010년대 들어 일본인 ‘위안부’를 가시화하려는 조사와 연구, 그리고 활동이 진전되었다. 한국에도 번역된 일본인 ‘위안부’ 연구서에는 다양한 글과 자료가 실렸는데,⁵ 후지메 유키는 그중 일본인 ‘위안부’의 행위 동기를 ‘애국심’으로 환원시킨 해석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한다(203~204쪽). 또한 내지 일본의 경찰이 군의 ‘위안부’ 모집에 대해 분노했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내지의 공창제도와 이를 통제한 내무성-경찰을 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212~213쪽). 이 같은 지적은 일본인 ‘위안부’ 피해라는 문제에 접근할 때 일본 정부와 군의 책임을 면피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논의 프레임에서 나아가는 새로운 물음을 섬세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환기한다. 일

3 2026. 3. 27.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발간 기념 『제국의 성관리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북토크: 지속되는 폭력, 연결된 목소리들’ 자료집, 20~21쪽.

4 후지메 유키, 2001, 「일본인 ‘위안부’ 문제의 공소와 그 의의」, 『당대비평』 14.

5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엮음, 번역공동체 이타 옮김, 2021, 『일본인 ‘위안부’ - 애국심과 인신매매』, 논형.

본인 ‘위안부’ 피해자들과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험과 고통을 단순히 비교하고 경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층적인 억압구조 속의 갖가지 권력이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에 착목하고, 본국과 식민지라는 다른 폭력의 구조를 함께 분석하는 교차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⁶

마지막으로 ‘위안부’와 공창의 차이를 강조한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다. 이는 특히 2000년대에 ‘위안부=공창’이라는 역사부정론에 대응하고자 부상한 주장인데, 후지메 유키는 그 계기를 요시미 요시아키의 설명에서 찾았다. 요시미 요시아키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공창제도에 대해 “양자 모두 용납될 수 없지만,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시하며, 이를 “남북한 등에서 보이는 입장”인 “양자는 서로 다른 것이며 ‘위안부’ 제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과는 구분했다.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이렇게 나눠 인식했다(196~197쪽)는 지적이 흥미롭다. 또한 또 다른 입장으로 “양자(공창제와 ‘위안부’ 제도-인용자)는 같은 성격의 것”이며 “모두 용납될 수 없다”라는 입장 “이 분류된 것에 대한 비판을 살필 수 있다. 후지메 유키는 이 입장으로 분류된 이들에 대해, “‘추업부’관과 의식적으로 맞붙어 싸우면서 여성사로 대응해 온 페미니스트 역사연구자들”이라 설명한다(197쪽). 이어서 ‘위안부와 공창’의 차이를 강조하는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위안부와 공창’의 차이를 강조하는 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은 매춘 여성 차별이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잘 인식되지 않는다. 만약 부락차별이나 민족차별의 경우라면 어떨을까. 차별의식이 강한 일본 사회에서는 ‘부락민’, ‘조선인’을 뜻하는 말이, 실제로 부락민이나 조선인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음습한 악의로 가득찬 차별적 욕설 차원에서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 차

6 이지은, 2020, 「전쟁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비교-교차적’ 시각을 위하여」, 『민족문화사연구』 73, 328~331쪽; 심아정, 2021, 「역자 후기」, 니시노 루미코·오노자와 아카네 엮음, 번역공동체 이다 옮김, 위의 책, 275쪽.

별 해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락민’, ‘조선인’이라는
 욕에 대해-인용자) ‘부락민이 아니다’라든가, ‘조선인이 아니다’ 등으로 경솔하게
 맞받아칠 수 있을까. 차별주의자에 대해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주관적으로는 대항
 적 반박이나 사실의 지적이라는 의도에서 대응한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차별을 온존시키고 조장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
 이다.(198쪽)

공창제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구별을 강조하고 양자는 모두 용납되면 안
 되지만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더욱 악질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러한 구
 별이 “성폭력의 합법화”인 공창제도를 ‘합법적 성매매’로 오인하게 하고, 일본
 인 ‘위안부’의 피해를 차별하는 인식을 낳는다는 비판이다. 또한 위안부와 공창
 을 구분하는 담론은 사회통념에 새겨진 성판매여성을 ‘추업부’로 보는 반여성적
 차별의식을 온존시키고, 공창제에 내포된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 약해 이를 토대
 로 전개된 ‘위안부’ 제도의 전체상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한다(194쪽). 박
 정애의 글 또한 요시미 요시아키가 ‘위안부가 공창보다 더욱 강제적 상황에 있
 었다’고 한 이래 ‘위안부와 공창이 다르다’는 인식이 실천적 지식인과 활동가들
 사이에서 주류 인식이 되었음을 지적하며(164~165쪽), 공창제가 ‘합법 성매매
 제도’라는 통념이 지배적인 한 공창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서 피해자가 아니
 라는 식의 이해가 이어지고 소모적 논쟁이 이어진다고 서술했다. 따라서 식민지
 여성의 관점으로 다시 ‘공창제’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를 제기한 것이다.

IV. 이어지는 질문의 가능성과 과제

이상에서 『제국의 성 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제1부, 제2부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각각의 글을 함께 읽으며 생겨나는 질문과 과제를 단편적으로나마
 제시해보려 한다. 이는 식민주의와 군사주의, 지배 전략으로서의 법치, 젠더 폭

력 역사쓰기 등 현재진행형의 문제들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의 방향과 가능성을 이 책의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독자들과 나누기 위해서이다.

1. '합법'과 '불법'이라는 법의 기준을 넘어

일본제국과 식민지 조선에서 '법'의 근원은 무엇이었나? 천황을 주권자로 규정한 당시 일본의 헌법, 그리고 그런 헌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식민지 조선에서 법의 위상과 의미를 따지면 애초에 '위법', '불법', '비합법'을 논하는 기준이 당시의 권력에 의해 배치된 결과라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성폭력의 합법화’가 공창제도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악랄한 폭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이다”(206쪽)라고 후지메 유키는 썼다. 일본의 식민통치는 ‘법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며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사실은 불법이었다’가 아니라 식민주의의 폭력성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여야 함은 여러 연구를 통해 누차 지적된 바 있다. 즉, 성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합법 또는 불법이라는 법적 범주로 환원하는 접근은 식민주의의 폭력성을 못 보고 지나치게 할 우려가 있다. 송연옥의 연구를 인용하며 설명되듯이,⁷ 식민지에서는 합법과 불법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여성을 노예화하는 권력이 행사되었다(208쪽).

애초에 식민지 여성은 ‘법’의 체계 속에서 이중 삼중으로 억압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취약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설계하는 정책”(186쪽)이 식민지 조선의 성 관리 정책 아니었을까. 이 책의 여러 글에서 논의된 폐창운동 또한 “합법 성매매를 폐지하고 이를 불법화하는 것”(175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그리고 ‘폐창’을 이룬 내지의 군마현 같은 지역에서도 ‘비합법’ 상태의 ‘사창’에 대한 성 관리가 지속되었던 모습은 ‘합법’과 ‘불법’에 집중하는 기

7 宋連玉, 2023, 『植民地「公娼制」に帝国の性政治をみるー釜山から上海まで』, 有志舎.

준의 모호성과 기만성을 보여준다.

2. 폭력의 연속성과 교차성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단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성 관리의 시공간 속에서 중흥으로 연결됨은 이 책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문제의식이다. 제국주의와 성폭력이 교차하는 다층적 폭력으로 위치 지어지지 못한다면,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특수한 과거로 단순화, 주변화될 위험이 있다. 이 책의 필자들은 문제의 책임을 물을 대상이 ‘군부’만이 아님을 지적했다. 1993년 ‘고노 담화’는 ‘군의 관여’를 인정했으나, 군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내무관료나 경찰의 책임을 부차적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211쪽). 전시 성폭력의 시스템은 그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장수희는 이를 ‘중첩된 가해시스템의 은폐’라고 표현했다. “식민지의 행정 시스템은 ‘제국’과 ‘조선인 여성’이 직접 대면하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작동”(143쪽)하는데, “행정이야말로 국가폭력의 시스템이며 책임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국가기구”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런 폭력은 전쟁이 명목상 끝난 ‘전후’, ‘평화시’에도 지속된다. 성차별과 폭력의 국가시스템은 식민지 이후에도 이어지며, “여성들의 노예적 상황 또한 전쟁과 군부대와 함께 연장되고 일상 속으로 은폐되었다”(147쪽). 장수희는 전시의 시스템은 평화시의 성차별·성폭력적 ‘문화’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늘날의 술자리 ‘문화’로, 강간 ‘문화’로, 전쟁이 선포되지 않아도 여성이 마주하는 살해의 위협으로 나타나고, 역사적으로는 미군 ‘위안부’로, ‘기생관광’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로 호명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백재제가 소개한, 전시 성폭력이 부대 내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서 ‘수행’이었다는 연구는 개인의 성적 충동이 아닌 집단 내 결속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시 성폭력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는데(247쪽), 이러한 ‘수행’ 또한 폭력이 집단적이고 문화적으로 연속되며 재생산되는 지점을 보여

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후지메 유키는 연합군의 대일점령기에 나타난 ‘위안부’ 정책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연속성을 보여준다고 제시하며, 일본경찰에 의한 성 통제의 연속과 일본정부와 연합군 사이의 공범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연속성과 공범성은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강제 성병 검진 제도’를 포함한 국가의 성 관리는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지속되었다. 2022년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2025년 9월 5일,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117명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섰다. 앞의 소송과 달리, 2025년 시작된 소송은 주한미군의 책임 또한 묻고 있다. 한편으로 이 책은 일본의 미군기지촌에는 재일 한국인 여성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성매매여성이자 한국인으로서 이중으로 타자화된 존재였음을 언급한다(221쪽). 한국 기지촌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이주여성들이 나타났고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의 유입이 지속되어 한국 여성 대신 그 자리를 채웠다는 점을 환기할 수 있다.⁸ 일본군 ‘위안부’ 문제제기가 어떻게 연속되고 교차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3. 근대주의적 인식틀에 대한 문제제기

마지막으로 이 책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근대주의적 역사관과 이를 의식적으로 넘어서려는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보편적 여성 인권의 역사를 논할 때 거대한 발전사관을 느끼곤 한다. 척박했던 과거에서 ‘발전한’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방식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발전사관은 폐창운동을 찬양해온 일본 근대사의 역사관에서 나타난다. “일본은 폐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공창제도를 구별하려는 일본 근대사 연구자

8 김태정, 2025, 「기지촌 공공역사 구축을 위한 두레방 활동 고찰: 여성 활동가들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39~41쪽.

의 경향이 나온 배경으로 분석된다. ‘위안부’ 제도를 전시의 공창제도로 인정하면 일본이 폐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관점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근대주의적 인식틀이 붕괴하기 때문이다(210쪽). 백재예는 최근 영미권의 전시 성폭력 연구를 분석하며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 시기의 폭력 행위를 과거의 일로 단절시키고, “현대의 ‘발전된’ 국제 정치, 사회, 법적 구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호명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한다.(253쪽) 역사적 맥락의 누락과 파편화는, 현대의 ‘발전’까지 이르는 역사를 단순화시키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가 성폭력과 교차하는 경험을 삭제한다.

장수희는 지속, 변주되는 폭력들을 인식하기 위해 “과거-현재-미래라는 근대적인 일직선적 시간성이나 평화·전쟁이라는 이분법적 시공간이 아닌 다른 보는 눈이 필요”(157쪽)하다고 역설했다. 공식 기록 속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근대적이고 단선적인 시간 속에서 애초에 설명될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제기이다. 시대를 달리하며 존재해온 여성 폭력의 연속성과 중층성은, “다중의 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다층적 세계 구성의 가능성”(159쪽) 속에서 감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폭력을 인식하기 불가능한 고립된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의 분열이 일어나고,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여성의 증언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발간 후 북토크에서 장수희는 “기존의 보편, 제국주의가 만든 보편”이 아닌, 보편이 아니었던 이들의 “상상과 감각의 네트워크가 보편으로 새롭게 구성”될 가능성을 제안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쓰기가 이처럼 새로운 세계의 상상과 재구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식민지 여성에 가해진 성폭력이 체계적으로 누락되고 비가시화되어왔던 역사를 다시금 문제제기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과제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V. 맺음말

이 글은 『제국의 성 관리 역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소개하는 동시에, 한

권의 책이 나온 과정을 일본군‘위안부’ 연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관찰하여 함께 기록하려 했다. 첨예한 논쟁 지형 속에서 역사 연구의 인식론적 고민과 새로운 자료, 방법의 발굴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단절된 문제가 아니며 젠더폭력 문제의 보편성을 환기한다는 점, 그러면서도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어 온 폭력들 간의 차이를 희석시키지 않고, 역사적 통찰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맥락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이 책의 문제 제기를 다시금 음미하게 된다.

이 책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논의와 역사 연구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시기,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에만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위안소’와 ‘위안부’라는 키워드에 갇혀 사례를 선별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구조를 살펴보고, 관련 연구사를 메타 비평함으로써, 기존의 논의가 구성하고 강화하는 세계에서 나아가 또 다른 세계를 재구성할 가능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의 고민이 다듬어진 시간은 피해자를 향한 혐오와 공격 속에서 ‘소녀상’을 보호하고 격리한 바리케이드가 쳐졌던 시간과 겹친다.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특정 시기나 지역에 한정하거나, 다른 폭력과는 다른 ‘특수한’ 과거로서 보호하려 한 역사해석의 바리케이드는 사라질 수 있을까. 다만 여기에서 바리케이드의 철거가 ‘포스트 피해자’ 혹은 ‘포스트 메모리’ 시대의 도래와도 연결되는 것 아닐까 하는 고민이 생겨난다.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와 활동, 실천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아니 언제나 변주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의식하며 남은 자들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매주 수요시위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바위처럼〉의 가사에 나오는, “마침내 올 해방세상”의 ‘다중우주적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을까? ‘디딤돌’과 같은 연구서가 나왔으니, 이제 다종다양한 방향으로 바위들을 놓아 징검다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다음의 과제이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언,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 및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2026년 2월 12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차기 호 일정에 맞춰 수정·재투고해야하며, 차기 호 일정에 맞춰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다만 해당 논문이 당 호 투고논문(특집구성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등 편집상 필요가 있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호 재심사 일정으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2026년 2월 12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편집위원

구도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은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중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동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최은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교수

함예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 란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92호(2026. 6)

초판 1쇄 발행 2026년 6월 30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